

# 비교한국학

## COMPARATIVE KOREAN STUDIES

---

VOL.31 NO.1 APRIL 2023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 EXECUTIVE OFFICERS 2022.9.1.~2024.8.31.

<b>President</b>	Oh, Hyung yup(Korea University)
<b>Vice Presidents</b>	Gwak, Hyo hwan(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Kim, Yang sun(Hallym University)
	Ryu, Bo sun(Kunsan University)
	Min, Eun 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 Soo jeong(Myongil University)
	Sim, Won seop(Dokkyo University)
	Sim, Jin gyeong (Seokang University)
	Yang, Jin o(Daegu University)
	Woo, Rim geol(Shandong University)
	Yoo, Sung ho(Hanyang University)
	Yoon, Sang in(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Wook yon(Sogang University)
	Cho, Byeong jun(Inha University)
	Cho, Sung won(Seoul Women's University)
	Carolina, mera(Univ. of Buenos Aires/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English Literature)

**Secretary · financial General** Nam, Seong won(Seoul Women's University)

<b>Research Planning</b>	Kwon, Hyeok ryul(Jilin University)
	Kim, Seo young(Kwangwoon University)
	Kim, Seok(Konkuk University)
	Kim, Ye rim(Yonsei University)
	Noh, Dae won(Jeju National University)
	Moon, Hye won(Ajoo University)
	Pak, Dong ho(Kyunghee University)
	Park, Soo ye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Joo taek(Kyeonghee University)
	Sim, Won seop(Dokkyo University)
	Yang, Dong kook(Sangmyeong University)
	Um, Sung won(CHA University)
	Lee, Yun jong(Seogang University)
	Lee, Chae won(Korea Nazarene University)
	Lee, Hyeong kw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ng, Cheol hwan(Yonsei University)
	Jeong, Ggeut byeol(Ewha Women's University)
	Jeoung, Eui jin(Sangmyeong University)
	Cho, Kang sok(Yonsei University)
	Choi, Chang reuk(Nanjing University)
	Yeo, Tae chon(Dongduk Women's University)

**Journal Editor** Lee, Jae bok (Hanyang University)

### **Editorial Board** 2022.9.1.~2024.8.31

Kang, Yong hoon(Incheon University)	Kim, Gi bong(Kyunghee University)
Kim, Nam hyeok(Kookmin University)	Kim, Dong gyu(Yonsei University)
Kim, Te gyung(Kyunghee University)	Kim, Ho young(Hanyang University)
Do, Yoon jung(Inha University)	Park, Sang soo(Myongil University)
Yoon, Hye joon(Yonsei University)	Jang, Eun yeong (Chosun University)
Jeong, Seung hoon(Yonsei University)	Jung Eui jin(Sangmyeong University)
Cho, Man soo(Chungbuk University)	Jin, Joo young(Soon Chun Hyang University)
Choi, Jin seok(Seoul University)	Choi, Hyeon sik(Inha University)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 published three times a year in April, August, and December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Membership is open to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The annual membership dues including subscription to the journal are 30,000 won (US \$30) for individual members and 50,000 won (US \$50) for institutional members. Manuscripts for publication and correspondences including change of address should be sent to the IACKS official contact point (E-mail: newiacks@empal.com).

# 비교한국학

##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31 NO.1 APRIL 2023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was organized in 1991 in Berlin and incorporated in 1992 in Paris to promote and develop Korean Studies in the world through interdisciplinary and comparative research.





권두언 / 9

## 특집논문

손한별 미래전 양상과 결정요인 ————— 17  
한반도에 주는 함의

차승기 내던져지고 휩쓸린 ————— 45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문학과 전쟁

## 일반논문

윤재민 한국 서브컬처 연구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위한 예비노트 — 77  
박기정의 『도전자』·『폭탄아』에 주목하여

이상훈 개화기 만주에서의 한글성경 번역과 문화 변동 ————— 111  
1887년 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이형권·이강호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조선적인 것’의 의미 — 143

김명인 이연주의 장소성 연구 ————— 169

---

---

윤인현	가곡(歌曲)을 통해 본 불우현(不憂軒)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	199
-----	---	-----

이경수	『풍랑몽』과 『바다』 시편 사이, 지용의 ‘바다’	233
-----	-----------------------------	-----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 273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명단	/ 279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 280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 283
논문 투고 신청서	/ 286
편집위원회 규정	/ 288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 291
논문 심사 요지서	/ 294
연구 윤리 규정	/ 295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 301

Preface / 9

Special Topic

An Analysis of Future Warfare ————— Sohn, Hanbyeol ——— 17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wn Out and Swept Away ————— Cha, Seungki ——— 45  
War and Literature of Sakaguchi Ango and Son Chang-sop

General Topic

Preliminary Note for the East Asian Perspective of  
Korean Subculture Studies ————— Yoon, Jaemin ——— 77  
Focusing on the *Dojeonja* and *Poktan-a* by *Park-kijeong*

Translation of the Korean Bible and  
the Cultural Transition at Manturia ————— Lee, Sang Hoon ——— 111  
Focusing on John Ross's Korean Bible <Yesooseongyogeonseo> in 1887

The Diaspora Consciousness and the Meaning of  
'Chosun-like' in Jeong Ji-yong's Poetry — Lee, Hyeong-kwon · Lee, Kang-ho — 143

A Study on Lee Youn-Joo's Sense of Place ————— Kim, Myung-In ——— 169

---

---

A Study on “The Spirit of Anbin-Nakdo(安貧樂道)” Reflected in the Song(歌曲) Lyrics of Bul-Woo-Heon(不憂軒)	Yun, In-hyun	199
---	--------------	-----

Jeong Ji-Yong’s “Sea” between His <i>Pungrangmong</i> and <i>The Sea</i>	Lee, Kyungsoo	233
---	---------------	-----

## •권두언•

이번 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는 특집 기획 논문 2편을 포함해서 모두 8편의 논문을 싣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쟁은 역사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나 삶의 방식, 나아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비교한국학회는 이처럼 우리 삶의 조건인 동시에 현대적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핵심적 사건으로서의 ‘전쟁’을 주목해보고자 했다.

손한별의 「미래전 양상과 결정요인: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미래전 양상과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미래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데 목적을 둔 논문이다. 연구자는 사이버, 무인체계, AI와 빅데이터가 핵심적인 기술변수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에는 확장된 전쟁영역과 분산된 전투현장으로서의 ‘전쟁의 공간’, 기계에 의한 감시, 결심,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쟁의 수단’, 선제행동과 신속한 전투양상이 강조되는 ‘전쟁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한반도에서도 나타나는데, 군사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극대화하려는 남북한의 경쟁 속에서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전략적 함의로는 남북한의 정치적 목표가 가지는 공세성이 유지될 것이고, 결정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구성적 발전, 공방균형의 역동적인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동맹을 넘어선 전략적 결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보고 있다.

차승기의 「내던져지고 휩쓸린: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문학과 전쟁」은 일본과 한국의 서로 다른 ‘전후’를 대표하는 작가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문학을 그들의 서로 다른 전쟁 경험에 비추어 비교·대조하고 있다. 식민지/제국 일본의 본토에서 패전을 맞이한 사카구치 안고의 전쟁 경험은 도교를

불바다로 만든 미군의 압도적 공격을 ‘신적 폭력’처럼 받아들이며 전쟁을 ‘재난화’한다. 연구자는 재난 속에 ‘내던져진’ 자신을 ‘내던지는’ 주체로 전도시키고, 패배의 현실을 결단의 순간으로 대체하며 패전의 의미를 망각하게 만드는 이 같은 태도를 미학적 허무주의라고 칭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손창섭의 인물들은 만주사변 이래 식민지/제국의 전쟁과 동원에 ‘휩쓸리다’ 해방되자마자 내전을 겪으며 터전을 잃고 떠밀려 온 (포스트) 피식민자 인민들의 삶의 양태와 만난다고 보고 있다. 연구자는 모멸과 절망을 ‘견디는’ 행위를 내부에 지금-여기가 아닌 다른 시간-공간의 존재를 간직한 것으로 보고 손창섭의 불능의 허무주의는 역설적으로 전쟁의 ‘불능’을 입증하는 것을 해석한다.

윤재민의 「한국 서브컬처 연구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위한 예비노트-박기정의 『도전자』·『폭탄아』에 주목하여-」는 한국 서브컬처를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근본적으로 재고찰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박정희 정권 초창기 서사만화인 『도전자』와 『폭탄아』(1964)에 주목한다. 두 만화는 식민지 체험의 극복 소위 항일 모티브의 한국 서브컬처 서사의 마스터플롯의 원형을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작품들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항일 서사의 대중적 호소력은 만화 특유 형식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두 만화의 항일 내셔널리즘은 그것과 전적으로 불화하는 듯한 일본적 이미지의 범람을 만화적으로 상연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면서 만화적으로는 이와 전적으로 불화하는 표현을 지향하는 표현적 역설은 왜색이라는 배타적인 담론으로 유지되던 전후 내셔널리즘과 초국가적 서브컬처의 배양·축적 양상을 흥미롭게 시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훈의 「개화기 만주에서의 한글성경 번역과 문화 변동-1887년 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는 근대의 시발은 번역과 함께 도래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연구자는 이런 번역의 핵심 중 하나는 새롭게 떠오르는 종교 사상에 대한 이입으로 보고 있다. 성경 번역이란 작업은

이를 통해서 자국문화와 타문화가 언어를 매개로 서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단지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사상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는 것이다. 서구 정신 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되는 것은 서구문명의 중국화 과정인 동시에 한국화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를 통해 존 로스는 1887년 최초 한글 번역 성경 『예수성경전서』를 출판, 보급에 앞장 섰는데 이것은 당대 민중을 보듬는 민중의 발전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그 민중들이 장차 의식화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소유한 한 개개인의 역량으로 자라나는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형권·이강호의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조선적인 것’의 의미」는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이산과 파종(播種)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 정지용의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 가운데 향수, 실향 등은 옥천에서 서울과 교토로 이어지는 지리적 맥락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그의 고향 시 가운데 「향수」, 「고향」, 「이토(異土)」 등의 작품은 고향과의 ‘동일시-반동일시’라는 양가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지용 시가 디아스포라 의식을 거쳐 도달한 것은 조선적 감각의 세계라는 것이다. 산수시라고 불리는 후기시는 순수 자연이나 조선적 전통의 세계를 향한 자발적 소외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일종의 파종(播種) 혹은 새로운 세계의 개척 정신 차원에서 발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구성동」, 「장수산 1」, 「백록담」, 「조찬(朝餐)」 등의 시편들은 일제 말기의 혹독한 전쟁기에 조선 정신과 조선어의 공백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김명인의 「이연주의 장소성 연구」는 장소성을 중심으로 이연주의 시를 고찰한 논문이다. 연구자는 이연주 시에 있어 주요한 장소를 도시와 병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병원은 다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의 장소와 죽은 이를 부검하는 시체 안치실로 나뉘고, 도시는 주체를 감시하며 주체

의 분열을 촉구하고, 이를 통하여 신체의 도시화를 일으키는 곳으로 파악한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은, 치유의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무장소성을 향하여 구성된다는 것이, 이에 비하여 시체 안치실은 가상의 장소로써 시인에게 진정한 장소감을 제공하며, 도시의 반대편에 놓인 서역을 열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것을 통해 연구자는 이연주에게 시는 서역이라는 이상적 장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희생을 통하여 삶에 대한 긍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비극적 영토에 갇힌 그간의 해석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인현의 「가곡(歌曲)을 통해 본 불우현(不憂軒)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은 불우현의 삶과 가곡(歌曲)을 통해 그 삶과 작품 속에 담긴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고구한 글이다. 연구자는 불우현이 남긴 세 편의 가곡을 통해 드러난 안빈낙도의 정신은 자기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해석을 도출한다. 그래서 경기체가인 「불우현곡(不憂軒曲)」에서 불우현은 자연에서 평소에 세운 뜻에 따라 소요하고 성현의 도를 행하고자 하였으며, 시조의 초기 형태인 「불우현가(不憂軒歌)」와 가사인 「상춘곡(賞春曲)」에서는 한가로운 자연 속 생활을 즐기며 자연의 이치로 인생의 도를 찾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자연(賞自然)에만 그치지 않았고 또한 부귀공명이라는 헛된 생각을 멀리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런 태도가 유자 불우현이 지녔던 안빈낙도의 정신이었다는 것이다.

이경수의 「『풍랑몽』과 『바다』 시편 사이, 지용의 ‘바다’」는 1922년 3월에 썼다고 정지용이 창작 시기를 직접 밝힌 「풍랑몽1」이 직접 바다를 체험하기 이전에 쓰인 시라는 사실에 주목해 정지용의 초기 시에 압도적으로 등장한 바다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한 논문이다. 연구자는 시인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바다’가 타고르의 영향을 받은 낭만적으로 채색된 바다의



모습에 가까웠다면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으로서 바다를 직접 체험한 후 그려진 ‘바다’에는 정지용이 느낀 시대 감각과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비애와 자조의 심정이 조형화되어 한층 복합적인 표상으로 ‘바다’가 형상화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금강산 기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등장한 ‘동해’에는 이전의 추상화된 바다와는 다른 구체적인 장소성이 새겨지면서 시집 『백록담』 수록 시편을 예비하는 변화를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초기의 정지용 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구 이미 지즘의 영향을 받은 시라는 편견을 걷어내면 생각보다 정지용의 시는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들은 국제비교한국학회 편집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되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소중한 원고를 투고해 주신 선생님, 기획과 편집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 특집논문

미래전 양상과 결정요인

한반도에 주는 함의

손한별

내던져지고 휩쓸린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문학과 전쟁

차승기



# 미래전 양상과 결정요인\*

한반도에 주는 함의

손한별\*\*

1. 문제제기
2. 미래전 결정요인과 군사기술
3. 한반도 미래전 전망
4. 전략적 함의

##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미래전 양상과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미래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전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개연성있는 예측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인체계, AI와 빅데이터를 핵심적인 기술변수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에는 확장된 전쟁영역과 분산된 전투현장으로서의 ‘전쟁의 공간’, 기계에 의한 감시, 결심,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쟁의 수단’, 선제행동과 신속한 전투양상이 강조되는 ‘전쟁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다시 다차원전, 정보전, 비대칭전이라는 미래전 양상을 구성한다. 이같은 변화는 한반도에서도 나타나는데, 군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022.12.2.)와 제45회 국제비교한국학학회 학술대회(2023.1.14.)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사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극대화하려는 남북한의 경쟁 속에서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전략적 함의로는 남북한의 정치적 목표가 가지는 공세성이 유지될 것이고, 결정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구성적 발전, 공방균형의 역동적인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동맹을 넘어서 전략적 결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주제어:** 미래전, 군사기술, 신형기술, 사이버전, 비대칭전, 무인체계

## 1. 문제제기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전쟁을 바꾸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새로운 군사기술이 언제 전력화되고, 어떻게 사용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이 미래 전쟁을 바꾸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투행위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인간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기대하도록 만든다. 궁극적인 질문은 ‘어떤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이지만, 우선은 기술이 전쟁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양상을 전망하는데 있다. 미래전에 대한 두려움은 신기술의 효과에 대한 맹신과 조급한 수용을 이끌고, 신기술의 적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미래 전쟁수행개념을 수립하도록 만든다. 미래의 전쟁을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며,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시도는 거의 실패해왔기 때문이다.<sup>1</sup> 미래의 위협에 대한 전망이 진(眞)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다면, 미래의 기술에 대한 예측에 중점을 두고 미래전을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과학기술의 특성상, 가까운 미래에 대한 가장 개연성있는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군사기술과 군사력 균형의 변화로부터 미래전 양상의 변화가 시작할 것이라는 데 동의

---

<sup>1</sup> Cohen, Raphael, Nathan Chandler, Shira Efron, Bryan Frederick, Eugeniu Han, Kurt Klein, Forrest Morgan, Ahley Rhoades, Howard Shatz, and Yuliya Shokh,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Project Overview and Conclusions*, Santa Monica: RAND, 2020, pp.5-9.

하더라도, 군사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성과 기술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미래전을 전망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군사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는 특정 군사기술이 무기체계와 여타 기술에 미칠 잠재력, 국가산업 인프라와 연구개발능력에 따른 기술 성숙도, 전략/작전에 미칠 영향력 등이 국가별로 같을 수 없기 때문인데, 따라서 신형기술이 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쟁점과 이슈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양상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전에 대한 일반적 전망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것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것인가? 미래전을 규정하는 핵심 기술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특징을 보일 것인가? 신형기술의 적용에는 어떤 쟁점이 있을 것인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이 미래전을 대비하는 노력에 어떤 함의를 줄 것인가?

## 2. 미래전 결정요인과 군사기술

### (1) 전쟁의 변화요인

미래전쟁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전쟁의 변화요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듯이, 전쟁양상을 결정하는 요인도 단정할 수 없다. “전쟁은 모든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고, 모든 다른 것은 전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설명하고 그것의 발전을 인류의 발전 전반과 연관지어 추적하는 일은 모든 것의 이론과 역사에 대해 다루는 것과



거의 맞먹기” 때문이다.<sup>2</sup> 뿐만 아니라 전쟁은 “살아있는 두 힘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sup>3</sup> 본 연구는 풍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쟁의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요인을 제시한다. 다양한 요인이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본 연구는 크게 하드웨어로서 물질적 기반과 소프트웨어로서 사회적 관계로 구분하였다.

### ① 물질적 기반

물질적 기반은 다시 국내와 국제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이다. 국가의 능력을 어떤 지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구, 경제력, 군사력 등을 들 수 있다. 왈츠(Kenneth Waltz)는 인구와 영토의 크기, 부존자원, 경제적 능력, 군사력으로 국력을 평가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출생률 저하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 전망과 국방비 축소 압박, 새로운 자원의 개발 또는 안정적 도입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sup>5</sup> 국가의 능력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대칭-비대칭전쟁, 총력전-제한전쟁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내 안정유지 및 회복력이 있다. 실패국가들이 늘어가고, 유럽국가들도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국내 안정유지 및 회복능력도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왈츠가 국력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 “정치적 안정성과 역량”과도 연계된다.<sup>6</sup> 2001년 9.11 테러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동전쟁과 안정화작전, “아랍의 봄(Arab Spring)”과 이슬람국가(IS)의

<sup>2</sup> Gray, Colin, *Strategy and History: Essays o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2006, p.2.

<sup>3</sup>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Vom Kriege)』, 김만수 역, 서울: 갈무리, 2016, 63쪽.

<sup>4</sup>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p.131.

<sup>5</sup> 물론 모든 국가능력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존 능력으로서의 “힘(power)”과 잠재 능력으로서 “부(wealth)”를 구분하기도 한다. Mastanduno, Michael, David A. Lake, G. John Ikenberry, “Toward a Realist Theory of State Action,” *ISQ* 33, 1989, pp.457-474.

<sup>6</sup> Waltz, Kenneth N., op. cit., p.131.

창궐, 아프리카 국가들의 끊이지 않은 분란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가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국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전쟁의 주체, 대상, 수단, 국제개입, 전쟁경제 등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다.<sup>7</sup>

셋째, 군사과학기술이다. 역사상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는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전쟁의 양상도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sup>8</sup> 화력, 전차, 항공기 등은 참호전, 소모전, 기동전 개념을, 잠수함, 전략폭격기, 정밀유도무기 등의 개발은 전격전 개념과 전장의 확대를 촉진하였다.<sup>9</sup> 핵무기의 개발은 전쟁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정보 및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적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전쟁목표가 변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넷째, “힘의 균형”과 지정학 요소이다. 국제적인 수준으로 옮겨가면 힘의 균형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현실주의의 오랜 전제에 따라 국가가 세력균형을 추구한다면 국제체제의 성격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위협과 인식된 위협,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동맹 및 적대관계와 같은 개념들이 같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시리아는 바트당과 아랍군을 대표하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아니라 시아파의 이란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라크와 아랍 국가들을 당황케 했다. 아울러 위협과 힘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전쟁양상을 더욱 가변적으로 만든다.

다섯 번째로 지구적 경향도 있다. 세계적으로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모든 측면에서 확산의 속도가 빨라졌다.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전보와 지식, 유통망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쟁양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부정적인 경향으

7 매리 켈도어,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세계화 시대의 조직화된 폭력』, 유강은 역, 서울: 그린비, 2010; 헤어프리트 뮐클러, 『새로운 전쟁: 군사적 폭력의 탈국가화』, 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2012.

8 Krepinevich, Andrew F.,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4, pp.4-42.

9 노훈·독고순·유지용·고덕수, 『미래 전장 스캐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로는 비국가행위자 네트워크의 확산, 다양한 분쟁의 수단, 테러리즘과 대량 살상무기의 연계는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놓았다. 여기에 이미 수년간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와 같은 감염병, 환경문제, 식량 및 에너지, 난민문제와 같은 “신흥위협(emerging threat)”들은 결코 전쟁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각국의 국가이익, 비용분담, 위기확산 등과 연계될 경우 더욱 복잡한 전쟁의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 ② 사회적 관계

사실 첨단과학과 무기체계가 발달함으로써 전쟁양상이 변화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고원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2차적인 변화”가 전쟁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sup>10</sup> 첫째, 국가 리더십과 정책결정과정이다. 히틀러나 김일성과 같이 사악한 지도자가 보다 공세적인 행동을 취하고 오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또 국내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휩싸여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국제적인 압박에 직면하여 전술적인 승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개인적 리더십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 간의 정치적 경쟁, 정부조직 간의 경쟁 등에 의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민여론이나 의지, 미디어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는 국가의 성격과 특징이다. 전쟁양상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성격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치체제, 국가 내부의 민족갈등, 정권의 불안정성, 군사적 낙관주의, 지전략, 국가정체성에 기반한 전략문화 등이 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국력이 커지자 이를 두려워한 스파르타의 예방전쟁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은 각국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동맹관계

<sup>10</sup> 고원,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예의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제26권 4호, 2010, 25-26쪽.

등으로 인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또 북한이 1950년 남침으로 한국 전쟁을 일으킨 이후 지속적으로 도발한 것은 군사적 낙관주의가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즉 단기적 정책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형성된 정체성과 전략문화 같은 국가의 성격, 전쟁경험이 전쟁수행양상에 영향을 준다.<sup>11</sup>

셋째, 국가 상호관계의 성격이다. 국제적인 차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국가 간 상호관계의 성격도 전쟁양상에 영향을 준다. 간주관적인 상호관계는 전쟁의 양상보다는 전쟁의 발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성주의적 설명에 따르면 국가 간 관계도 개인의 관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스케일의 “역사-행태적 접근”이 여기에 해당하며,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전쟁의 양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 역사문제는 협상의 도구로서 전략적 제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기술의 발전이 역사인식에 따른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며, 민주화에 연계되면 일반대중의 감정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마지막은 국제레짐의 영향력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UN안보리는 여전히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전쟁을 예방하고 위기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 전·후 국제평화활동(PKO)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생물무기금지조약,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은 전쟁의 수단을 직접 제한하며, 경제레짐은 상호의존 및 제도화를 통해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인도적 전쟁(humane warfare)”,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humanitarian impact)”이나 “핵타부(nuclear taboo)”와 같은 비제도적인 레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

<sup>11</sup> Nye, Joseph S. Jr.,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No.3, 1987, pp.379-381.

## (2) 군사기술의 미래

“기술결정론”은 비판의 대상으로 흔히 제시되지만, 그만큼 기술이 사회변동의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정 기술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과학적 주장이었다.<sup>12</sup>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쟁의 양상과 연결한 것은 반 크레펠트가 대표적인데, 그에 따르면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도구의 시대에는 근거리 전투를, 기계의 시대에는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전투에 활용할 수 있었다. 시스템의 시대에는 입체적인 군사작전이, 자동화시대에는 전쟁도 자동화되고 정확성이 향상되었다.<sup>13</sup> 크레피네비치도 무기체계가 발달에 따라 10대 군사혁명이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14</sup> 현대에 들어서도 GPS 기술은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기술회의론”은 기술결정론의 논리적 취약성을 비판하였다.<sup>15</sup> 그러나 기술회의론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기각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기술결정론이 가진 강력한 설득력은 “기술결정과정론”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다. 특정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개입하며, 이러한 정치적 과정이 기술의 적용 속도와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전장이라는 무대에서 전략과 기술이라는 요소가 상호경쟁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고려할 때 기술결정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기

<sup>12</sup> White, Lynn Jr., *Medieval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Heilbroner, Robert, “Do Machines Make History?,” *Technolgy and Culture* 8, 1967.

<sup>13</sup> Van Creveld, Martin, *Technology and War: From B.C. 2000 to Present*, New York: Free Press, 1989.

<sup>14</sup> Krepinevich, Andrew F.,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4.

<sup>15</sup> 이두갑·전치형, 「인간의 경계: 기술결정론과 기술사회에서의 인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2호, 2001, 165-166쪽; Bijker, Wiebe E., Thomas P. Hughes and Trevor J.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1987; Cohen, Elliot,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Military Affair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27, No.3, 2004, p.396.

술은 여전히 미래전에 대한 가장 개연성있는 예측을 제공한다.

물론 기술결정론의 높은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원인은 여전히 “인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두려움, 복수, 증오, 탐욕과 같은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불확실성과 모호성, 전쟁의 안개는 인간 요소를 증폭시키며, 창의성과 직관, 리더십과 동기,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요소는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는 곳에서 죽음과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위협 of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으며,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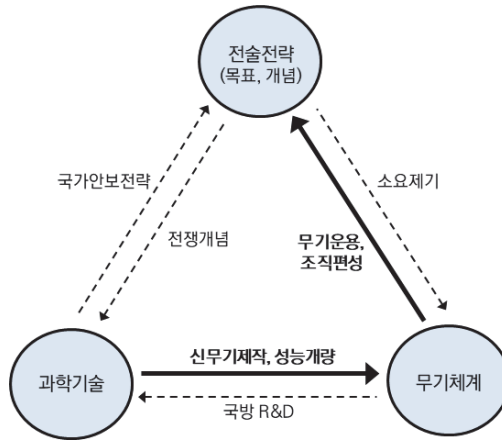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군사기술에 따라 변화한다. 새로운 기술은 군사력이 운용되는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만들어낸다. 군사교리와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또 기존의 국방체계를 진부화시키고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군사능력을 제공한다.<sup>16</sup> 또 어떤 기술은 기회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한다. 결국 기술우위가 전쟁 승리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아군의 강점과 상대 약점의 격차를 극대화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킨다.

군사기술과 전쟁양상과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사기술은 속도, 치명성, 정확성, 통합성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기술적 변혁은 처음 그것을 개발하고 적용한 국가에 상당한 이점을 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신무기의 취약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또는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순간 이점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기술과 개념은 전장에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사실 기술은 정확히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

<sup>16</sup> James, Andrew D., “Emerging Technology and Military Capability,” *Policy Brief*.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ovember 2013, pp.3-4.

스스로 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에 대한 논의는 기술 중심의 전쟁에만 주목하고 있어, 전쟁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같은 검토과정을 통해 신형기술은 무기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림 1〉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의 상관관계  
출처: 문장렬, 「정보시대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제27권 1호, 2019, p.393, 〈그림1〉.

### 3. 한반도 미래전 전망

#### (1) 미래전 양상

한반도의 미래전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2040년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쟁은 현재의 재래전쟁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sup>17</sup> 이는 위협 주체의 측면에서 북

<sup>17</sup> 부형욱·임지은, 「미래 한반도 전쟁양상: 새로운 접근」, 『주간국방논단』 제1602호, 2016; 고원,

한 · 잠재적 · 비전통적 위협이 동시에 나타나고, 전쟁수행의 측면에서 첨단 · 재래식 전력, 살상 · 비살상 능력 및 대칭 · 비대칭 전력이 동시에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지구적으로 수행하는 전쟁의 보편적 특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전쟁영역의 확장과 전투현장의 분산에 있다. 현재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적인 우주 · 사이버 능력 개발을 고려한다면, 한반도도 다차원 영역에서 비정형 전장이 형성될 것이다. 한국군 역시 지상 위주의 전투력 배비를 탈피하여 해상, 우주 및 사이버 영역으로 전장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 좁은 전투정면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고 병력 위주의 공격을 취해올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정보력 증강을 통해 기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고 전투현장이 분산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회색지대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상대의 공격의도와 기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예측불가능성과 적시적인 초기대응의 어려움은 상존한다.

두 번째는 기계에 의한 감시, 인식과 결심이다. 다차원 영역에서 적을 감시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감시정찰 장비가 첨단화 및 무인화되고, 정보처리는 빨라지고 자동화된다. 실시간 정보공유, 결심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휘통제체계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감시-결심-타격-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투수행에서 인간요소는 최소화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정보력 확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또한 자동화된 결심 및 지휘통제체계는 핵심노드로서 오히려 적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세 번째는 기계에 의한 전투를 들 수 있다. 비대칭 전쟁을 상정 시 적국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군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기계에 의한 전투는 윤리적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다. 한반도의 좁은 전장과 수도권의 지

---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제26권 4호, 2010.



리적 조건을 고려시 인명 피해가 극심할 것이며, 전쟁 초기 수도권의 민간인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자율 전투체계는 방어무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공격무기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인간과 무인체계의 판단이 상충될 경우 과연 인간의 통제에 따를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와 기술적 발전추세를 고려한다면, 완전한 무인화보다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네 번째는 전투양상의 신속성에 있다. 상대의 의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무기체계의 정밀성과 파괴력이 증강된다는 점에서, 미래전에서도 기습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또 최소 희생과 최소 비용, 최단 기간 내에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효과중심작전이 현실화되면서 전투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역사적 적대성, 서로 다른 정치체제, 중첩된 국가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전쟁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은 누구와 전쟁에서 만나든 미래전쟁은 비대칭 전쟁의 형태가 될 것이다. 결국 동맹인 미국 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국제전의 양상을 띄고 더욱 장기화될 것이다.

## (2) 미래전의 특성

군사기술이 변화시킬 한반도 미래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전이다. 정보는 미래전 양상을 결정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미래전 자체의 특성이 된다. 지금까지는 물리영역의 “결정적 작전”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만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상대의 상황인식 및 대응능력을 저하시키고 영향을 주고 마비시키는 효과를 추구하는 데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상대방의 정보유통과 연결성을 공격함으로써 결심 자체에 영향을 주어 전쟁수행의 핵

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공작’과 ‘인지’라는 정보전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게 된 것이다.<sup>18</sup> 따라서 물리적 정밀타격능력과 연계하여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정보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 경쟁의 틈 속에서 치열한 정보전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고, 원자료(raw dat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극히 비대칭적인 정보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정보능력을 발전시켜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지만 이는 물리영역에 한정된다. 오히려 초연결된 한국사회와 한국군은 상대의 영향공작이나 정보조작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정보영역과 인지영역에서는 취약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및 방첩활동을 강화하고, 물리적 중심타격능력과 정보능력을 융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시간, 공간, 방법, 수단 요소를 활용한 비대칭전이다. 미래전은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을 추구하면서 비대칭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분쟁은 정규전 요소와 비정규전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다. 전쟁의 영역과 수단이 확대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차원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비대칭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든다. 피아 간의 강약점 분석을 통해 승리를 도모하는 “피실격허(避實擊虛)”의 원칙은 이제 전통적 전장에서의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군사적 능력, 전략 및 전술, 조직, 편성과 같은 측면에서의 비대칭성을 넘어, 평시와 전시, 전방과 후방,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넘나들고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광범위한 무력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를 활용한 속전속결 전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온 북한은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응하고자 더욱 다양한 비대칭 수단

<sup>18</sup> 로렌스 프리드먼, 『전쟁의 미래』, 조행복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2020, 354쪽.

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핵·WMD,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사이버능력 등의 전력을 의미하지만, 이보다는 비대칭적인 군사력 운용이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특히 핵능력을 강화하면서 평시에는 동맹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유사시에는 동맹의 공세행동을 억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정보작전이나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면서, 이른바 회색지대 위협을 강화하면서 평시부터 한국의 취약점을 파고 든다.<sup>19</sup>

셋째, 확대된 전장공간에서 치러지는 다차원전이다. 전장공간은 보다 넓은 범위의 지상, 해상, 공중으로의 수평적 확대를 넘어 이미 해저와 우주로 수직적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사이버 공간과 전자기환경, 정보영역과 인지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각국은 이미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비롯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은 합동전영역작전(JADO, Joint All-Domain Operations)을 채택했고, 일본은 2018년 신방위계획대강에서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을 제시하면서 영역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같은 전장공간의 확장은 지리적으로 양분하여 고정되어 있던 한반도의 상황을 변화시켰다.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급속한 전파로 지리적인 제약은 완전히 극복되었고, 전통적인 전장공간과 결합하면서 보다 공세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새롭게 창출된 공간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선점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된다. 평시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도 유사시에는 공세적 군사활동을 통해서 기존 영역의 제약을 극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비대칭전과 연계하여 교차영역에서의 시너지가 미래전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며, 이는 명확했던 주권 공간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주변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sup>19</sup> 김창곤, 「한반도 주변의 회색지대 위협과 대응방향」, 『군사연구』 제149집, 2020, 115쪽.

### (3) 핵심 기술

미래전을 규정하는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제시한다. 전쟁의 공간으로서의 사이버, 수단으로서의 무인체계, 방법으로서의 AI와 빅데이터이지만, 대표성을 띠는 기술들을 자의적으로 강조한 것 뿐이다. 이들 기술은 다시 다른 다양한 기술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에서 제시한 정보전, 비대칭전, 다차원전이라는 미래전을 구성한다.

#### ① Cyber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전쟁은 이미 현재화되어 있다. 1991년 미국 국가연구위원회의 경고는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에 대한 것이었지만,<sup>20</sup> 30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정보가 사이버 공간에서 생산, 저장, 활용된다. 사이버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자동화된 물리력으로부터 지식과 통신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과정이다.<sup>21</sup> 이같은 변화의 과정은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로 연결되어 결국은 시스템의 취약성을 활용한 드나들이 핵심이다. 사이버 수단이 무기로서 활용되고, 확대된 정보전의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다. 여전히 물리영역과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이버전이 결코 미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이버 진주만(cyber Pearl Habor)”에 대한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의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군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파괴가 가져올 영향은 진주만에서의 충격과 맞먹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을 증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횟수를 점차 증

---

<sup>20</sup> National Research Council, *Computers at Risk: Safe Computing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1991.

<sup>21</sup>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Cyberwar is Coming!,” *Comparative Strategy*, Vol.12, No.2, 1993 pp.141-165

가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사이버 공격이 전장에서의 전략적 타격보다는 비정규전과 유사하고, 국가가 배후인 사이버 공격도 개인 해커와 같다는 지적은 북한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sup>22</sup> 라자루스그룹(Lazarus Group)과 김수키(Kimsuky) 등 북한의 정찰총국 3국과 5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국가보위성 4국과 6국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국제 범죄조직들과 공조하여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정부 및 군, 방산기업, 금융망 등에 대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고 있다.<sup>23</sup> 북한은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한국의 첨단무기체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북한의 사이버, 전자전 위협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공세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물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병행하여 증강함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 중국 등 공세적 사이버 공격에 직면한 한국의 사이버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보다 구체적이다. 공개된 자료는 방어적인 내용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를 핵심기술과제로 제시하였다. 사물인터넷과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훈련 기술’, ‘동적 플랫폼 기반의 사이버 공격 능동 회피 기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기술은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때, 능동적으로 회피하며 이를 방어한다. 또한 사이버 전장 환경을 모델링하고 여기서 모의 전투를 실험 및 평가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위에서 다룬 정보전이 벌어지는 무대이다. 이제 네트워크화된 현실에서 사이버전은 단순히 교란하는 데에서 물리적 파괴로 발전하였

<sup>22</sup> 로렌스 프리드먼, 앞의 책, 370쪽.

<sup>23</sup> 송태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 『IFANS Focus』, 2022-28K, 2022, 1-2쪽.

다. 모든 네트워크는 악의적인 해킹을 받고 있다. 사실 어떤 것이 의도적인 공격에 의한 것인지, 자신의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공격우세의 균형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호능력이 갖추어질수록 공자는 극도로 제한적인 목표와 수단으로만 공격이 가능하다.<sup>24</sup>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방균형은 점차 북한의 공격 우세에서 한국의 방어 우세로 이전될 것이다. 오히려 사이버 기술은 무인체계와 연결되어 놀라울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이는 미래전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다.

## ② 무인전투체계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미래기술이 바로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전투체계이다. 전투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미사일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 매력적이다. 미국은 이미 대테러전쟁과 대분란전에서 드론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무인전투체계를 활용한 미래전을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장착한 드론이 운용 중이다. 무인전투체계에는 엔진, 감시 및 통신장비, GPS 등의 기술이 집약되는데, 이같은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무인체계는 단기간에 전투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우세한 첨단 무인체계를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무인전투체계의 특성상 기술력보다는 운용의 측면이 부각된다.

북한의 무인전투체계와 관련하여 드러난 사실은 정찰 및 타격 목적의 무인기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공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감시정찰 역량으로서 방현1, 방현2 등 무인기를 제작, 운용해왔다. 스카이-09P와

<sup>24</sup> Horowitz, Michael, "Do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Matter for International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23, 2020, pp.391-392.

UV-10CAM가 성주의 사드기지를 촬영한 후 추락했던 사건은 북한이 이미 무인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찰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여기에 중동 국가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MQM 스트라이커를 기반으로 타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김정은은 지시문을 통해 “다양한 무인기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적지 중심정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고(자유북한방송 2014/4/20),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새로운 종류인 SH-3가 공개되기도 했다(조선중앙TV 2016/12/14).

한국군은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무인전투체계를 개발 중이다. ‘대형 다종형전투로봇 플랫폼 설계기술’, ‘수중보행로봇 플랫폼기술’, ‘전술군집무인기 상황인식 및 통제를 위한 MMI 기술’ 등이 포함된 유·무인 복합전투를 추진하고 있다. 전투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무인 로봇을 활용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것인데, 유엔에서는 ‘유엔 특정재래식금지조약’과 같은 국제규범 수많은 제약을 가지고는 있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이같은 우려도 불식시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구난, 수송, 의료지원 등에 대한 무인체계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각국이 무인전투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투의 현장에서 무인전투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인전투체계와 관련해 프리드먼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무인체계는 완전한 비대칭 상황을 만들어낸다. 상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채 죽음을 맞지만, 드론 조종사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다. 둘째는 윤리적,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략적인 가치는 불분명하다.<sup>25</sup>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판 등에 의해서 민간인 사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절충점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역시 유무인 복합체계를 전면

<sup>25</sup> 로렌스 프리드먼, 앞의 책, 375-378쪽.

에 내세웠다. 하지만 언제든지 인간은 판단을 위임 또는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가 자율성을 높이는 경우 항상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무인체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는 한국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 ③ AI와 빅데이터

AI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운용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한다.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 지성의 개입없이 완결된 임무를 수행한다. 협의의 AI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의미하지만, 일반 AI는 스스로 활동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국방분야에서는 “패턴을 인식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며, 예측 및 의사 결정하여 행동을 취하는 등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정보화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된다.<sup>26</sup>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이미 국방 차원의 AI전략을 수립하고 첨단기술을 획득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은 군수, 훈련 등의 비전투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지만, 곧 전투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명이다”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따라잡고자 하고 있다.<sup>27</sup>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얼굴식별프로그램, 음성인식프로그램, 기계번역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대규모로 개최된 바 있다(NK경제

<sup>26</sup> 김민혁, 「북한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우리 군의 대응 무기체계 발전방향 연구」, 『한국IT서비학회지』 제20권 1호 2021, 30쪽.

<sup>27</sup> 조선·평양 외국문출판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1』, 조선·평양 외국문출판사, 2006.



2016/1/26). 보도된 내용은 일반 사회의 내용에 국한되지만, 김정은이 AI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군사적 차원에서도 AI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민혁은 사이버작전체계, 미사일 운용통제체계, 무인전투체계 등에 AI 기술을 결합할 것으로 분석하였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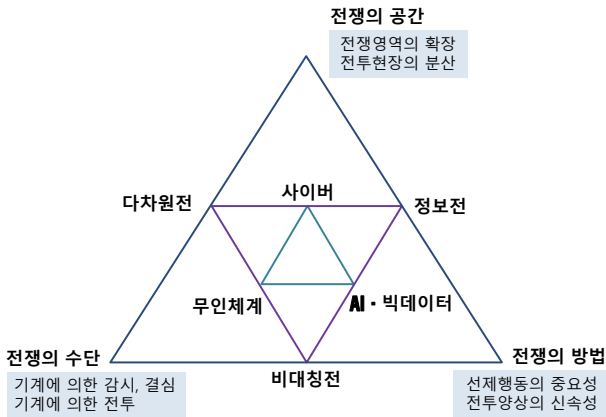
한국군은 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과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반 기술이 요구되는데, ‘다중대역 기반 수표 은닉장비 탐지 기술’, ‘고분해능 관측카메라용 복합 안정화 기술’, ‘고해상도 영상소나 탐지/식별기술’, ‘지능형 수집임무 할당 및 최적화 기술’, ‘고집적 RF 회로 설계 기술’, ‘혼합현실 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등이 포함된다.<sup>29</sup> 비약적으로 확대될 감시정찰 수단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생산하고, 결심 및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oT를 초연결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한국군은 AI의 광범위한 활용분야를 전장으로 연계함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I는 전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정확성과 속도를 요하는 전투현장에서 더욱 극명한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미래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는 스워밍은 무인체계가 아니라 AI의 산물이다. 분산된 작은 단위의 부대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방에서 표적을 공격한다. 미래전에서 구현되는 효과적인 스워밍은 중앙의 전략적인 통제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재래식 유격전 수준을 넘어 다수 개별단위의 상호소통, 복잡한 기동과 사격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sup>30</sup> 결국 AI는 단독의 기술이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우세를 통해서 상대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sup>28</sup> 김민혁, 앞의 글, 33-35쪽.

<sup>29</sup> 방위사업청, 『22·36 국방기술기획서(일반본)』, 과천: 방위사업청, 2022, 20-66쪽.

<sup>30</sup> 로렌스 프리드먼, 앞의 책, 383쪽.



〈그림 2〉 미래전의 핵심기술과 특징

#### 4. 전략적 함의

흔히 기술적 우세가 승리에 기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으며, 기술적 우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 발현되는 시기를 “군사혁신”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같은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초점을 두어 현재를 무시하거나, 변화 자체가 혼란을 야기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미래의 무기는 강력하면서도 비싸기 때문에 무한정 만들어낼 수도 없다. 하지만 인류는 기술을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술을 전쟁에서 사용해왔다. 기존의 기술과 통합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용방법을 개발하기도 한다.

남북한의 영속하는 경쟁은 군사혁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은 군사기술의 비대칭적 발전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며, 한국은 군사혁신을 통해서 기술적 우위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혁신은 장기경쟁에서 상대방을 소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일상적 군사

경쟁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우세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군사기술의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로 전략개념에 의한 기술소요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기술이 미래전을 결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미래전 전망과 핵심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목표의 공세성은 유지된다. 남북한의 장기경쟁 구도는 정치적 목표를 완회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오히려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수단과 목표의 불균형을 군사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한 과신으로 극복하게 됨을 의미한다. 남북한 모두가 공세적 목표를 지속할 것인데,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무기를 확보하여 선대로부터 이어온 조국해방전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고, 한국도 현재와 미래의 압도적인 연합전력에 기대어 한반도 전지역 석권이라는 전략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정치적 목표 달성은 “절대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으므로 이같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대화와 협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결정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구성적으로 발전한다. 정보전은 기습에 의한 전략적 마비와 결합하여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다차원전은 지휘통제체계의 기술적 우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군사기술의 비대칭성은 군사력 운용의 공간과 개념의 비대칭성을 가져올 것이다. 미래전은 결정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통합될 것이며, 결국 개념과 기술은 상호구성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남북

한의 미래전은 공세적 목표로 인해 전략적 마비로 종결되지 않고 영토 점령과 유지로 귀결된다. 이는 기존의 재래식 전력을 필요로 하며, 물리적 전투력에 의한 결정적 작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마비와 물리적 결전을 위한 군사력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공방균형의 역동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군사기술은 먼저는 공격우세의 환경을 만든다. 특히 남북한의 오랜 군비경쟁, 강대국 경쟁 사이의 지정학, 비대칭적 군사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연다. 미래 군사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신속한 승리 가능성은 기습에 대한 유혹을 키우고, 지정사실화 전략은 빈번하고 위협하게 활용된다. 다만 공방균형은 기술과 개념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만약 한국의 거부적 억제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북한이 핵학습에 의해서 신중성을 견지하게 된다면, 대화와 협상이 활발해지고 현상타파적 행동이 수용되기 어렵다면 방어우세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같은 공방균형의 역동적인 변화는 남북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군사기술의 발전과 전파, 지정학적 위기의 전개, 정치사회적 질서, 국가간 동맹과 협력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전략적 결합(coupling)의 중요성은 커진다.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공세적 전랑외교, 미국과 서유럽의 쇠퇴 등은 “신냉전”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있다. 세계는 다시 동맹과 협력의 연결고리를 재편하면서 강대국을 중심의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엇갈려있는 국가이익으로 인해 냉전기의 블록화와는 다를 것이며, 그 핵심에는 기술이 있다. 각국의 군사혁신은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블록 너머의 국가들과 협력과 경쟁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통합혁신을 추구하겠지만 일본, 대만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고, 북한은 자주노선을 고수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이나 전략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맹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을 넘어 보다 확대된 대상과의 전략적 결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원,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예의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제26권 4호, 2010.
- 김민혁, 「북한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우리 군의 대응 무기체계 발전방향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20권 1호, 2021.
- 김창곤, 「한반도 주변의 회색지대 위협과 대응방향」, 『군사연구』 제149집, 2020.
- 노훈 · 독고순 · 유지용 · 고덕수, 『미래 전장 스크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 로렌스 프리드먼, 『전쟁의 미래』, 조행복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2020.
- 매리 캘도어,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세계화 시대의 조직화된 폭력』, 유강은 역, 서울: 그린비, 2010.
- 문장렬, 「정보시대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제27권 1호, 2019.
- 방위사업청, 『'22-'36 국방기술기획서(일반본)』, 과천: 방위사업청, 2022.
- 부형욱 · 임지은, 「미래 한반도 전쟁양상: 새로운 접근」, 『주간국방논단』 제1602호, 2016.
- 손한별,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3호, 2020.
- 송태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 『IFANS Focus』, 2022-28K, Oct. 31, 2022.
- 이두갑 · 전지형, 「인간의 경계: 기술결정론과 기술사회에서의 인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2호, 2001.
-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언1』,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2006.
-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Vom Kriege)』, 김만수 역, 서울: 갈무리, 2016.
- 합동참모본부,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 2021-2028』,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 헤어프리트 뮌클러, 『새로운 전쟁: 군사적 폭력의 탈국가화』, 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2012.
-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Cyberwar is Coming!," *Comparative Strategy*, Vol.12, No.2, 1993.
- Bijker, Wiebe E., Thomas P. Hughes and Trevor J.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1987.
- Cohen, Ellior,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Military Affair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27, No.3, 2004.
- Cohen, Raphael, Nathan Chandler, Shira Efron, Bryan Frederick, Eugeniu Han, Kurt Klein, Forrest Morgan, Ahley Rhoades, Howard Shatz, and Yuliya Shokh,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Project Overview and Conclusions*, Santa Monica: RAND, 2020.
- Gray, Colin, *Strategy and History: Essays o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2006.
- Heilbroner, Robert, "Do Machines Make History?," *Techonolgy and Culture* 8, 1967.
- Horowitz, Michael, "Do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Matter for International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23, 2020.
- James, Andrew D., "Emerging Technology and Military Capability," *Policy Brief*.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ovember 2013.

- Krepinevich, Andrew F.,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4.
- Maginnis, Robert L., *Future War: Super Soldiers, Terminators, Cyberspace &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21st Century Combat*, Crane: Defender, 2016.
- Mastanduno, Michael, David A. Lake, G. John Ikenberry, "Toward a Realist Theory of State Action," *ISQ* 33, 1989.
- National Research Council, *Computers at Risk: Safe Computing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1991.
- Nye, Joseph S. Jr.,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No.3, 1987.
- Van Creveld, Martin, *Technology and War: From B.C. 2000 to Present*, New York: Free Press, 1989.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 White, Lynn Jr., *Medieval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 An Analysis of Future Warfare

###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ohn, Hanbycol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uture warfare and make predictions regarding the potential unfolding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shape the nature of warfare, this paper places particular emphasis on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haping the future of warfare. The paper suggests that cyber, unmanned systems, AI and big data will serve as key technological variables that will transform the “space of war” into an expanded war zone and distributed battlefield, the “means of war” into machine monitoring, determination, and action, and the “ways of war” into preemptive action and rapid combat. These technological shifts will result in multi-dimensional warfare, information warfare, and asymmetric warfare. These changes will also impact the Korean Peninsula, wher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attain technological superiority through military innovation will be maximized. Consequently, the paper argues that strategic implications will include the maintenance of aggressive political goals by both Koreas, the development of decision-centric ways and means of carrying out war, dynamic changes in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the need for strategic combinations beyond alliances.

**Key words :** Future Warfare, Military Technology, Emerging Technology, Cyber Warfare, Asymmetric Warfare, Unmanned System

논문접수일: 2023.03.15 심사기간: 2023.03.29~04.10 게재확정일: 2023.04.12.





## 내던져지고 휩쓸린\*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문학과 전쟁

차승기\*\*

1. 머리말: '내던져지다/휩쓸리다'
2. '타락'의 특공대: 사카구치 안고
3. 우연한 삶의 부재의식: 손창섭
4. 맺음말: 허무주의의 두 형식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서로 다른 '전후'를 대표하는 작가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문학을 그들의 서로 다른 전쟁 경험에 비추어 비교·대조한다. 이를 통해 두 '전후' 작가에게 나타나는 허무주의적 경향이 그들의 개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전쟁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식민지/제국 일본의 본토에서 패전을 맞이한 사카구치 안고의 전쟁 경험은 공중 폭격으로 상징된다. 그는 도쿄를 불바다로 만든 미군의 압도적 공격을 '신적 폭력'처럼 받아들이며 전쟁을 '재난화'한다. 이렇게 재난화된 전쟁은 기존의 신화와 도덕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는 계기로 추상화된다. 나아가 그는 재난 속에 '내던져진' 자신을 '내던지는' 주체로 전도시키고, 패배의 현실을 결단의 순간으로 대체하며 패전의

\*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020년).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부교수.

의미를 망각하게 만든다. 이같은 안고의 태도를 미학적 허무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손창섭의 인물들은, 만주사변 이래 식민지/제국의 전쟁과 동원에 ‘휩쓸리다’ 해방되자마자 내전을 겪으며 터전을 잃고 떠밀려 온 (포스트) 피식민자 인민들의 삶의 양태와 만난다. 자기 모멸과 자포자기적 무기력에 휩싸인, 불능의 허무주의라고 칭할 수 있는 손창섭의 태도는 지금-여기의 세계와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 모멸과 절망을 ‘견디는’ 행위는 내부에 지금-여기가 아닌 다른 시간-공간의 존재를 간직한다. 손창섭의 불능의 허무주의는 역설적으로 전쟁의 ‘불능’을 입증한다.

**주제어:** 전후, 내던지다, 휩쓸리다, 공중폭격, 타락, 패배, 허무주의

## 1. 머리말: ‘내던져지다/휩쓸리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현존하는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런데 이 위험은 단지 많은 생명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력의 사태를 지시하는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의 때와 장소 그리고 방식이 전적으로 예측불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애당초 죽음이란 근본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쟁은 개개인의 운명이 ‘타율’과 ‘우연’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공포와 불안 속에 깨닫게 한다. 이 타율적 상황의 경험적 실상은 ‘내던져져 있음’과 ‘휩쓸림’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쟁은 그 시간과 장소에 있는 모든 존재를 ‘바깥’으로 ‘내던지고’, 뜻하지 않은 흐름 속에 ‘휩쓸리게’ 한다.

우선 전쟁상태에서 모든 존재는 **내던져진다**. 지금까지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가시적·비가시적 울타리 바깥으로 말이다. 일상의 반복을 가능하게 했던 물질적·제도적 환경과 안정적 귀속감을 형성할 수 있게 했던 ‘터전’의 세계가 폭파되었기에, 생활의 여지를 찾아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을 피했다고 해서 그곳에 바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존의 욕망들이 부딪치는 세계에서 스스로 고독하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보호받지 못한 존재의 생존 가능성은 전적으로 우연에 맡겨진다. 그런가 하면 전쟁상태에서 모든 존재는 **휩쓸려 간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던져졌듯이, 알 수 없는, 또는 알아도 회피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간다. 휩쓸려 가는 것은 여럿이지만 저마다 생존의 문제 속에 고립되기 쉽다. 어떤 흐름에 휩쓸리게 될 것인가 역시 전적으로 우연적이며, 그 우연이 생사를 가르곤 한다. 점령군의 강제적 동원에 휩쓸리고, 피난민 무리의 행렬에 휩쓸리고, 흥흥한 소문과 어렴풋한 예감에 휩쓸린다.

이렇게 ‘내던져진/휩쓸린’ 삶이 줄곧 이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독과 불안의 이면에서 삶의 잠재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렇게 내던져지고 휩쓸리면서 위태로워지는 것은 삶 자체만이 아니라, 그동안 삶을 뒤덮어 왔던 습속들과 도덕적·관습적 굴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내던져진 삶은 ‘풀려난’ 삶이기도 하다. 생사의 기로에서 솟아난 공포와 불안이 그동안 통용되어왔던 의무와 당위를 압도해 버리고, 불평등한 현실을 정당화해 왔던 제도적·문화적 장치들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폭력이 만연하는 현실 앞에서, 폭력의 역사를 은폐해 왔던 ‘건전한 도덕’이 무력해지는 것이다. 또한 타율적으로 휩쓸려 가는 경험의 반복은 인간 주체라는 특권적 지위의 비현실성을 일깨운다. ‘이성’, ‘자기 의지’, ‘자기 근거’, ‘자기 결정’ 등에 기초한 근대적 주체 이념의 허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생명체들의 ‘주인’으로서 군림하려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는 신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출현한다.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진정으로 윤리적인 물음들이 생성되며, 많은 ‘전후문학’들이 바로 이 물음들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 1906~1955; 이후 ‘안고’로 약칭하기도 함)와 손창섭(孫昌涉, 1922~2010)은 각각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근대 동아시아 전쟁의 파도 속에서 이러한 윤리적 물음들을 문학의 주제로 삼았던 일본과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이 두 작가는 근대 동아시아 전쟁의 시대를 살았고, 전쟁의 시대가 뒤바뀌놓은 인간들을 관찰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인간의 형상을 포착했다. 그러나 두 작가 각각의 개성과 기질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전전(戰前)’부터 소설을 쓰고 있던 안고는 제국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의 ‘전후’에, 피식민자로서 식민본국 일본에서 이미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손창섭은 내전을 겪은 한국의 ‘전후’에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둘을 함께 논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가가 각자 구축해 간 독자적인 ‘문학 세계’<sup>1</sup>에 ‘전후’라는 상황이 분리불가능할 정도로 내재해 있다는 점,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전쟁을 경험한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전형적 형상들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과 ‘파괴된 세계’를 창조적 상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둘은 시대와 지역을 가로질러 서로를 비춰볼 만한 가치가 있다. 두 작가의 ‘차이’, 두 전쟁 경험의 ‘이질성’이 두 ‘전후’의 차이를 다시 상기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손창섭이 한국의 전후 문단에 출현했을 때부터 그 우울한 세계와 ‘병적(病的)인’ 인물들이 일본의 전후 문단에서 ‘무뢰파(無賴派)’라 불리던 작가들, 특히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9~1948)의 그것들과 종종 견주어지곤 했었지만<sup>2</sup>, 같이 무뢰파로 분류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카구치 안고와 함께 언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수년 내에 본격적인 비교 연구가 등장한 바 있다.<sup>3</sup> 문화의 학위논문은 안고와 손창섭의 전후 소설에서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무화되며 ‘인간 동물’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주체가 출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주체들의 위치를 ‘백치’, ‘광인’, ‘속물’로 구별해 ‘인간 동물’의 양상을 고찰했다. 한편 양미영의 논문은 특히 여성 인물의 ‘타락’과 이를 인식하는 남성 인물의 시선에 주목하면서 두 작가의 유사성과 차이를

1 여기서 ‘문학 세계’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작가가 발표한 텍스트 전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 형상, 그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허구적 공간, 소설의 주제, 감정과 분위기, 문단과 독자들의 평판 등이 모두 함께 작용하면서 ‘사카구치 안고’, ‘손창섭’이라는 이름과 함께 떠오르게 되는 복합적 상을 지시한다.

2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斜陽)』(1947)뿐만 아니라 『인간실격』(1948)은 그의 자살과 함께 하나의 시대적 상징처럼 떠올랐고 당시 한국의 작가나 독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혔기 때문에 다소 직관적으로 손창섭과 비교되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비교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만 이루어졌다. 주미경,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와 손창섭 문학 비교연구: 『인간실격』 『미해결의 장』에 나타난 사회부적응 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원 석사논문, 2014.

3 문화, 「전후소설에 나타난 ‘인간동물’ 양상 연구: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원 석사논문, 2016; 양미영, 「손창섭과 사카구치 안고의 전후 소설에 나타난 실존과 본질: 여성 인물의 타락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드러내고자 했다. 두 연구 모두 ‘전후’라는 조건이 소설의 서사와 인물 형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는 두 작가가 “스스로를 전후의 혼란 안에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도덕의 세계가 종결된 ‘인간 동물’의 세계”<sup>4</sup>를 그 자체로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양미영은 두 작가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무력한 남자와 타락한 여자”<sup>5</sup>라는 설정에서 전후 경험의 일반성을 발견한다.<sup>6</sup> 하지만 두 논문에서는 안고와 손창섭이 서로 다르게 경험한 두 전쟁의 차이가 전쟁의 일반적 개념 속으로 해소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문화의 경우 두 전쟁과 두 ‘전후’의 차이에 대해 의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 텍스트에 나타나는 특이성(예컨대 ‘악당 없음’)을 두 전후의 ‘현실’로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 경험의 구체성과 서사적 상상력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물 유형 분석에서 주로 정신분석-기호학적 개념 도구가 사용됨으로써 전후 경험의 일반성이 보다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양미영의 경우는 손창섭이 일본의 전후 소설에서 폭넓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하면서도, 두 작가의 차이를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방향이 텍스트 내 여성 인물에 대한 남성 인물의 태도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안고의 ‘에고이즘’과 손창섭의 ‘위선 없음’이라는 차이는 드러나지만 그 차이가 각각의 ‘전후’ 경험과 연결되는 맥락은 특별히 주목되지 않는다.

전통적 문학 장르들조차 순수하게 ‘장르의 기억’만으로 재생산될 수 없거니와, 전후 소설이라는 역사적 장르의 삶을 고찰할 때 그 원천이 되는 경험들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전쟁, 서로 다른 전후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경험하고 서로 다른 장에서 발화한

<sup>4</sup> 문화, 위의 글, 134쪽.

<sup>5</sup> 양미영, 위의 글, 216쪽.

<sup>6</sup> 나아가서 양미영은 “지식인 층에 속하면서 기력을 소진한 남성 인물”이 국적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전후 소설에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양미영, 위의 글, 같은 쪽.

두 작가, 그러면서도 ‘전후’의 일반성을 특이하게 공유하는 두 작가를 함께 읽기 위해서는, 역사-지정학적 원천의 차이와 그에 매개된 허구적 해결 방식의 차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은, 전쟁사적(戰爭史的) 맥락에서는 물론, 한국전쟁을 촉발한 내적 적대가 식민지/제국 체제의 누적된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sup>7</sup>에서도 하나의 연쇄적 세계 속에서 출현한 사건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전쟁의 성격은 말할 것도 없이, 전장(戰場)과 경험의 조건 등 구체적인 전쟁의 양상에서 결코 동일화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단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과 미국 영토로까지 전선을 확대해갔지만 오키나와를 제외하곤 본토에서 지상전을 경험하지 않은 채 미군의 공중폭격과 핵 공격을 받았던 일본, 그리고 국제전으로 확대되어가면서도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 오르내리는 전선을 따라 ‘상잔(相殘)’과 ‘학살’이 수반된 내전을 겪었던 한국의 상황을 같은 평면에 놓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불안·공포·적대 등 위기의 정동(情動)을 안고 전쟁의 시간-공간을 겪어간 이들의 경험의 차원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대면했는가에 따라,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언어로 출력하는가에 따라 접합, 변형, 망각 등의 공정이 필연적으로 포함된 기억 작업을 거치게 된다.<sup>8</sup> 기억은 기억되는 내용보다 그 내용의 형성 방식에서 경험적 세계의 조건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후 문학, 특히 소설은, 전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역사-사회학적 이해에 앞서, 내던져지고 휩쓸려 간 삶의 경험을 통해 전쟁을 이야기한다. 전쟁

<sup>7</sup>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참조.

<sup>8</sup> 예컨대 한국전쟁에 의해 이전의 전쟁 기억이 망각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제말기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포스트식민적 기억상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한국 ‘전후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제말기 전쟁과 한국전쟁의 관계를 ‘관전사’의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 한수영, 「관전사의 관점으로 본 한국전쟁 기억의 두 가지 형식」, 『어문학』 113집, 한국어문학회, 2011 참조.

이야기는 저 ‘내던저짐/휩쓸림’에 의해 붕괴·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세계 —서술자 자신까지 포함하는— 가 던지는 정치·윤리적 문제들을 허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다. 서술자가 전쟁 또는 전쟁의 시대를 기억하는 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후 소설의 이러한 허구적 해결의 방식은 그 자체 하나의 증상(symptom)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장소, 식민본국과 (포스트) 식민지라는 위상, 제국의 신민과 (포스트) 피식민자라는 주체 위치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전쟁 경험이 서사적 상상에서 개입 또는 매개되는 방식의 유사성과 차이를 고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비교는 ‘사실의 세계’와 ‘서사’ 사이의 관계에서 숙고해야 할 지점들도 가시화할 것이다.

## 2. ‘타락’의 특공대: 사카구치 안고

사카구치 안고는 일본 패전 직후 전전의 ‘건전한 도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반박하는 한편 ‘모럴이 초도화’된 당대의 혼란 속을 부유하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했던 ‘타락론’<sup>9)</sup>을 개진하며 시대의 대변자처럼 주목받았다. 따라서 작가로서의 그의 이력에서 전쟁, 특히 ‘패전’ 경험은 결정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패전 이전에 발표된 초기 텍스트들까지 함께 읽어보면, “전후는 물론 전쟁조차 영향을 주지 않았”<sup>10)</sup>다고 평가될 만큼 안고 자신은 일본의 전전-전중-전후를 거쳐 일관된 세계관과 문학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 ‘타락론’의 기본 골자, 즉 ‘필요’와

<sup>9)</sup> 서동주, 「‘타락’, 전후를 넘는 상상력: 사카구치 안고의 문화·주체·역사」, 『아시아문화연구』 18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136쪽 참조. 이하에서 『墮落論』(『新潮』 1946. 4.)과 『續墮落論』(『文學季刊』 第2号, 1946. 12.)을 함께 묶어 ‘타락론’으로 지칭한다.

<sup>10)</sup> 柄谷行人, 『坂口安吾論』, 인스クリプト, 2017, 10쪽.



‘실질’을 떠난 모든 허례허식과 신화에 대한 철저한 공격이 놀랍게도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파고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 발표한 「일본문화사관(日本文化私観)」(『現代文學』 1942. 3.)에 이미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고, 「백치(白痴)」(『新潮』 1946. 6.)가 포착한 ‘절대고독’의 순간 역시 전쟁기에 발표된 「문학의 고향(文學のふるさと)」(『現代文學』 1941. 8.)에서 제시된 안고 문학의 원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타락론」에서도 그는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다: “전쟁에 져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기에 타락하는 것이며 살아 있기에 타락할 뿐이다.”<sup>11</sup>

하지만 과연 그의 독특한 ‘타락’ 개념은 전쟁 없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는 전쟁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탐구한 데 불과한 것일까? 그의 말을 받아들여, 전쟁에 져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이 갑자기 붕괴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언제나 이미 ‘건전한 도의’를 초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태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온 안고<sup>12</sup>에게 타락이 긍정해야 할 인간 본연의 상태에 다름아닐지라도, 적어도 전쟁이 인간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거꾸로 “인간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영원히 영겁으로 영구히 긍정긍정긍정해 마지 않는”<sup>13</sup> 그의 관점이 전쟁 상태와의 모종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문학과 인간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은 오히려 전쟁과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11 사카구치 안고, 「타락론」, 최정아 옮김, 『백치-타락론 외』, 책세상, 2007, 147쪽. 이하 안고의 텍스트는 국역본이 존재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역본에서 인용하되 필요시 원문을 참조해 수정함.

12 안고 문학의 출발점은 ‘파스(farce)’, 즉 익살극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창기부터 ‘파스’를 추구하며 「바람박사(風博士)」(1931) 등을 발표했고, 특히 「FARCE에 대하여(FARCEに就て)」(『靑い馬』 第5号, 1932. 3.), 「익살극을 생각한다(茶番に寄せて)」(『文體』 1939. 4.) 등의 평론을 발표하며 “인간 존재 자체가 품고 있는 불합리와 모순을 긍정”하는 ‘파스’를 예술의 최고 형식으로 예찬한 바 있다. 사카구치 안고, 「익살극을 생각한다」, 이한정 옮김, 『불량소년과 그리스도』, 그린비, 2021, 219쪽.

13 坂口安吾, 「FARCEに就て」, 靑空文庫 ([https://www.aozora.gr.jp/cards/001095/files/45801\\_38837.html](https://www.aozora.gr.jp/cards/001095/files/45801_38837.html))

형성되었기에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미군의 도쿄 대공습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충만한 경험을 했다는 안고 자신의 진술은, 그가 전쟁에 대해 갖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나는 위대한 파괴를 좋아했다. 나는 폭탄이나 소이탄에 전율하며 광포한 파괴에 격하게 흥분했지만 그럼에도 이때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워한 때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sup>14</sup>

전쟁의 위대한 파괴 아래서는 운명은 있었으나 타락은 없었다. 무심했지만 충만했다.<sup>15</sup>

잘 알려져 있듯이, 안고는 1945년 봄 미군의 일본 본토 공습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던 시기 지인들의 소개(疏開) 권고도 뿌리치고 도쿄에서 직접 공습을 경험했다. 1944년 11월 23일 나카지마 비행기 무사시노 공장(中島飛行機武蔵製作所)을 ‘정밀폭격’하려 했던 미군의 첫 공습부터 실제로는 ‘지역폭격’, 즉 시가지 등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무차별 폭격이 이루어졌지만,<sup>16</sup> 1945년 2월부터 차츰 본격화된 대규모의 무차별 소이탄 공습은 명백히 “주민 살상을 목적으로”<sup>17</sup> 한 것이었다. 최초의 공중폭격이 식민지 전쟁에서 시도되었다는 사실이 암시해 주듯이, 근본적으로 무차별 대량 살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공중폭격에는 대상에 대한 식민주의적 태도가 짙게 깔려 있다.

<sup>14</sup> 사카구치 안고, 「타락론」, 140-141쪽.

<sup>15</sup> 같은 글, 143쪽.

<sup>16</sup> 아라이 신이치, 윤현명·이승혁 옮김, 『폭격의 역사: 끝나지 않는 대량 학살』, 어문학사, 2015, 152~154쪽.

<sup>17</sup> 같은 책, 170쪽. 안고도 직접 겪었던, 악명 높은 도쿄 3월 10일 공습만으로도 사망자 10만 명 이상, 부상자 약 40만 명, 이재민 100만 명이 발생했다.

대규모 파괴가 그 세계에 초래할 결과와 파괴를 통해 얻을 전쟁의 이익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고할 때 공중폭격이 이루어진다. 비유적으로 말해, 공중에서 소이탄을 투하하는 자의 눈에 공격받는 존재들의 눈과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인 지상에서 투하되는 소이탄들을 피해 뛰어다니던 안고는 공습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수한 불덩어리, 2,000도 이상의 열을 발생시키며 지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포탄은 마치 세계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는 ‘신적 폭력’<sup>18</sup>의 현현처럼 여겨지는 듯하다. 수많은 생명에 가해진 이 가공할 공격을 ‘범죄’나 ‘손해’, 즉 인간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 힘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쟁을 ‘재난화’ 또는 ‘운명화’하게 된다.<sup>19</sup> 비유적으로 말해, 안고의 눈에도 자신을 공격하는 적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근대의 출발과 함께 일본은 항상 전쟁과 함께해 왔고 전쟁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본토(내지)에서 식민지 초과이윤을 분배받았던 이들은 줄곧 전장(戰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물론 중일전쟁 발발(1937년) 이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발효(1938)되면서 전시(戰時)의 경험이 일반화되었지만, 공중폭격이 있기 전까지 본토 생활자에게 전쟁이 구체적으로 인식되지는 못했다.<sup>20</sup> 어쩌면 안고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재난화’야말로 식민지/제국 일본 본토 거주민들의 전쟁경험, 그리고 특히 패전경험의 내면화와 관련해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내주는 것은 아닐까.<sup>21</sup>

18 모든 법을 무화하며 “모든 생명 위에 가해지는 순수한 폭력”이라는 의미의 ‘신적 폭력’ 개념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에 대하여」,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에 대하여/초현실주의 외』, 길, 2008, 111~112쪽 참조.

19 공중폭격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전쟁의 재난화’는, 「백지」의 이자와(伊澤)가 일본의 패전가능성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초자연의 운명, 이른바 천명과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카구치 안고, 「백지」, 최정아 옮김, 『백지·타락론 외』, 107쪽.

20 사카사이 아키토, 박광현 외 옮김, 『‘갯더미’ 전후공간론』, 이숲, 2020, 11쪽 참조.

21 이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과 관련한 서술이 GHQ의 검열이 구조화된 전후의

‘적/아’의 비대칭성이 극단적으로 구현되는 전술로서 공중폭격의 목적은, 공격받는 지상의 존재들을 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그들의 적개심까지 상실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이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공중폭격에 의한 학살은 그 참혹함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진실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개인적인 증오”<sup>22</sup>를 일으키고, 그것이 또 다른 —이를테면 테러와 같은— 무차별 보복 폭력을 초래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는 공중폭격을 ‘재난화운명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무차별 공습의 압도적인 폭력을 “위대한 파괴”로 추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행위자들의 세계로부터 공중폭격의 이미지만을 분리시켜 심미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심미적 추상화는, 저 공중폭격과 대량살상을 감행했던 ‘적국’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선물해준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일본의 전후 역사와 만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안고는 공중폭격의 압도적 폭력 아래에서 ‘충만’을 느낀다. 이 전형적으로 ‘내던져진’ 상태에서 느껴진 ‘인간애’와 ‘충만’은 무엇일까? 머리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던져진다’는 것은 ‘풀려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안고는 저 ‘위대한 파괴’가 기존 세계의 인간들을 붙들고 있던 이데올로기와 관습의 신성한 끈들을 불태우는 지점을 보고 있었던 듯하다.

---

언설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언설공간에서, 본토는 물론, 직접 전장(戰場)을 다루는 이야기들조차 ‘적(미국)’의 표상이 삭제된 전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는 요시다 미쓰루(吉田滿)의 『전함 야마토의 최후(戰艦大和 / 最期)』(1952)를 통해, 비극의 장소로서 ‘바다’라는 자연적 공간을 특권화하며 제국의 패망에 신화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언설장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너머북스, 2010, 76-83쪽 참조.

<sup>22</sup> 중일전쟁 시기인 1939년 일본군의 충칭폭격을 목격한 에드가 스노우(Edgar Snow)의 표현이다. 스펀 린크비스트, 김남섭 옮김, 『폭격의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3, 171쪽;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151쪽에서 재인용.

전쟁 중에 일본은 거짓말 같은 이상향을 구현하며 허망한 아름다움으로 넘쳐났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실에서 비롯하는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중략)…

전쟁은 끝났다. 특공대 용사는 벌써 암거래상이 되었고 미망인도 이미 새로운 연인의 얼굴 때문에 가슴이 부풀었지 않은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인간은 타락한다. 의사도 성녀도 타락한다. 그것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럼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 인간은 살고, 인간은 타락한다. 그 진실 이외에 인간을 구원할 편리한 첩경은 없다.<sup>23</sup>

신적 폭력 아래 ‘내던져짐’으로써, ‘무사도’와 ‘천황제’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만들어 왔던, 그리고 ‘특공대’와 ‘미망인의 절개’와 “내핍과 안고의 정신”<sup>24</sup>을 예찬해 왔던 모든 신화와 ‘건전한 도덕’의 끈도 불에 타 녹아내렸다. 안고는 이 폐허 위에서 “인간은 타락한다”는 실재를 통찰하고 그 자체를 긍정한다. 안고의 인간관·문화관과 직결된 이 ‘예외 상태의 인식’을 전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일찍이 「문학의 고향」에서 압축적·상징적으로 제시되었던 안고의 문학관은 바로 이 ‘예외 상태의 인식’에 다름 아니었다. 이 글은 일본이 벌인 동아시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어가던 무렵(1941년 8월)에 발표되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의 ‘고향’, 즉 문학이 출발해야 할 원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서 반복적으로 ‘내던져지다(突き放される)’라는 술어를 사용한다.<sup>25</sup> ‘내던져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모럴’—의미, 관습, 이데올로기, 신화 등—로부터 갑자기 놓여남을 뜻한다. 안고는 미덕(美德)밖에 없는

<sup>23</sup> 사카구치 안고, 「타락론」, 146-147쪽.

<sup>24</sup> 사카구치 안고, 「속 타락론」, 최정아 옮김, 『백치·타락론 외』, 151쪽.

<sup>25</sup> ‘突き放される’는 문맥에 따라 ‘내던져지다’, ‘내팽개쳐지다’, ‘홀로 남겨지다’, ‘버림받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안고의 사용법에서는 ‘약속이 어긋나거나 기대가 깨어지며 갑자기 의미를 알 수 없는 세계에 홀로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듯하다. 「문학의 고향」의 국역본에서 번역자는 ‘내쳐지다’, ‘내쳐져 홀로 남겨지다’, ‘홀로 내쳐지다’ 등으로 옮기고 있다.

천진무구한 소녀가 숲속의 할머니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늑대에게 잡아먹힌다는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의 「빨간 모자」를 “전혀 모럴이 없는”<sup>26</sup> 동화의 사례로 소개한다. 그가 채록한 동화는 그저 소녀가 늑대에게 우적우적 잡아먹히는 장면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갑자기 이 대목에서 내쳐져 홀로 남겨진(突き放されて),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한 방 얻어맞고, 툭 잘린 공허한 여백에서 아주 고요하면서도 투명한, 일종의 애달픈 ‘고향’을 보는 것은 아닐까요.<sup>27</sup>

모럴이 없는 것, 내던져 버리는 것(突き放すこと), 나는 이것을 문학의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학의 건설적인 것, 모럴이라든가 사회성과 같은 것은 이 ‘고향’ 위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sup>28</sup>

죄 없는 소녀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리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장르의 관습이나 이야기의 전통이 만들어 온 어떤 ‘약속’을 자명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림(Grimm) 형제는 한 사냥꾼이 소녀를 삼키고 잠든 늑대의 배를 갈라 소녀와 할머니 모두 구출하고 늑대의 배에 돌을 가득 채워 벌을 주었다는 ‘해피 엔드’를 덧붙임으로써 이 ‘약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샤를 페로의 판본에 이런 ‘약속’은 부재한다. “모럴이 없는 것”이란 그와 같은 것이다. 공기처럼 존재하던 ‘의미와 상징의 세계’로부터 ‘내던져지는’ 것, 그래서 저 자명했던 세계가 갑자기 공허해지고 불확실해지는 혼돈의 상태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안고의 문학의 ‘고향’이다.

<sup>26</sup> 사카구치 안고, 「문학의 고향」, 이한정 옮김, 『불량소년과 그리스도』, 166-167쪽.

<sup>27</sup> 같은 글, 167쪽.

<sup>28</sup> 같은 글, 171쪽. 번역 일부 수정.

그의 문학은 이렇게 ‘예외 상태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다른 어느 곳보다 기존의 자명했던 ‘약속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되고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 죽음이 만연하는 곳이야말로 전장(戰場)이라는 점에서 그의 예외 상태의 인식은 **전쟁 상태**의 인식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같은 ‘전쟁 상태의 인식’이 독특한 아이러니와 결합되는 양상이다. 위 인용문에서도 암시적으로 드러나듯이, ‘내쳐져 홀로 남겨지는(突き放される)’ 경험의 통찰을 주는 문학은 ‘내던져 버리는(突き放す)’ 일을 한다. 안고의 문학의 ‘고향’에서는 ‘내던져지는’ 것과 ‘내던지는’ 것, 피동과 능동의 차이가 무화된다. ‘내던져진다’는 철저한 수동성의 상태와 ‘내던진다’는 의지적 행위는 어떻게 교환될 수 있는가?<sup>29</sup> 사실, ‘타락’도 이와 유사한 이율배반을 내포하고 있다. 안고에게 ‘타락’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인 동시에 “살아남아라. 타락하라.”<sup>30</sup>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의지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가능한가.

일본의 전쟁이 본격적인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이후 발표된 「일본문화사관」으로 나아가 보자. 이 글은 일본의 고대 건축물과 조형물 등을 중심으로 ‘일본적인 것’의 특수성과 그 아름다움을 규정하고자 했던 독일의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Bruno J. F. Taut)의 동명(同名)의 책을 비판하기 위해 씌어졌다. 타우트가 찬양했던 ‘교토의 사찰과 나라(奈良)의 불상이 전부 없어져도 곤란할 건 없지만 전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곤란하다’<sup>31</sup>는 문장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듯, 안고는 철두철미 ‘필요’와 ‘실질’에 입각해 상투적인 ‘일본문화론’에 내포된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 ‘필요’와 ‘실질’의 가치를 납득

<sup>29</sup> 사사키 아타루는 안고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안고는 언제나 ‘누가 누구를 내던지고 있는가 혼란스럽다. 누가 누구를 ‘내팽개치고’ ‘모랄이 없는’ ‘구원이 없는’ 상황에 두는가. 언제나 안고는 예매한 채로 있다.” 佐々木中, 『戦争と一人の作家: 坂口安吾論』, 河出書房新社, 2016, 61쪽. 강조는 원문.

<sup>30</sup> 사카구치 안고, 「타락론」, 145쪽.

<sup>31</sup> 사카구치 안고, 『일본문화사관』, 최정아 옮김, 『사카구치 안고 산문집』, 지만지, 2014, 12쪽.

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논리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안고는, 특별한 교양을 갖춘 것도 아니고 ‘애완용’으로서의 청순한 애교도 없는 마이코(舞妓)의 모호함, 즉 “인공의 묘미”도 “자연의 묘미”도 없는 어중간함을 힐난하면서 그에 대비해 중국 광둥 지역의 ‘망메이(盲妹)’ 전통, 즉 얼굴이 예쁜 소녀를 데려다 어렸을 때 눈을 멀게 만들고 특별한 교양과 춤과 음악 등을 훈련시키는 전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악랄하지만 철저”한 방식에 대해, “**어차피** 애완용 존재로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생각이라면** 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하는 것이다.<sup>32</sup>

또한 “정원이나 건축으로 ‘영원한 것’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체념”의 전통을 거론하며, “절대의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어중간한 것을 배격하고 차라리 없음만 못하다는 결벽주의를 선택”한 바쇼(芭蕉)와 료칸(良寛)의 ‘무’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반대를 긍정하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없음만 못하다는 냉혹한 비평 정신은 존재해도, 없음만 못하다는 예술이란 존재 불가능하다. 존재하지 않는 예술 따위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없음만 못하다는 정신으로부터 **여하튼** 일단 유형의 미로 복귀하려 **한다면**, 다실(茶室)의 경우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간소함을 배격하고 인력의 극한을 다한 호사로움, 속악함의 극점에서 개화를 보려 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간소한 것도 호화로운 것도 모두 속악하다 한다면**, 속악을 부정하고자 하면서 여전히 속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보다도 **속악하고자 해서 속악한 활달 자체(自在)**를 취함이 옳다.<sup>33</sup>

요컨대 어차피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없음만 못하다’는 철저한 결벽주의를 모

<sup>32</sup> 같은 글, 21쪽. 강조는 인용자.

<sup>33</sup> 같은 글, 45쪽. 강조는 인용자.



든 영역에 관철할 수 없다면, 위선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속악함, 즉 “속악함의 극점”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안고는 최고·최대의 소유를 광적으로 추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제일”의 정신을 긍정한다. 안고가 주장하는 ‘필요’와 ‘실질’이란 이렇게 ‘전체 아니면 무’라는 극단적 논리와 하나가 된 것으로서, 그는 이같은 ‘필요’와 ‘실질’을 구현한 일본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고스게(小菅)형무소, 쓰쿠다섬(壱島)의 드라이아이스 공장, 그리고 구축함(驅逐艦)을 꼽는다. **어차피** 사물적 존재라는 점에서 철저한 속악함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되었을 이 세 건축물은 의미심장하게도 자본과 국가의 ‘의지’ 또는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거나 표출하기 위해 축조된 것들이다.

철저한 결벽주의 아니면 철저한 속악함이라는 극단적 양자택일의 입장은 안고의 삶의 태도와도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가라타니 고진은 현실의 사건을 대하는 안고의 독특한 자세를, “역사적인 생의 한 가운데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언제나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거꾸로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그를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sup>34</sup>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안고에게 부재와 참여, 결벽주의와 속악함, 구경꾼과 전위(前衛)가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전쟁’이 존재하지 않았”<sup>35</sup>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양 극단의 모순 운동은, ‘어차피(어쨌든) ~라면’의 조건절에 의해 극단적 현실 긍정으로 이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안고가 ‘어차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전쟁, 기존 세계의 모델을 해체시키는 ‘위대한 파괴’였다. **어차피** ‘내던져진다’면, 나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어차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폭탄이 되어야 한다. “말이 필요 없는 때가 왔다. 필요하다면 내 목숨도 바쳐야만 한다.”<sup>36</sup>

<sup>34</sup> 柄谷行人, 앞의 책, 17쪽.

<sup>35</sup> 같은 책, 16-17쪽.

### 3. 우연한 삶의 부재의식: 손창섭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고의 전쟁 경험을 재난과 같은 것, 즉 피할 수 없는 압도적 위력 앞에서 고독한 존재자의 ‘내던져짐/내던짐’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손창섭에게 전쟁은 전적으로 ‘휩쓸림’의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기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쟁에 휘말린 이상 ‘내던져짐’과 ‘휩쓸림’이 별개로 분리되어 경험되는 일은 없다. 여기서는 다만 안고와 손창섭의 전쟁 경험의 차이를 그들의 문학 세계의 차이와 함께 대비하기 위한 비유적 의미로 상대화하여 사용한다. 안고의 경우 전쟁 경험도 문학의 원점도 ‘내던져진’ 곳에 있는 데 반해, 주로 피난민들의 삶으로 구현되는 손창섭 소설의 주제는 철저하게 타율적으로 ‘휩쓸려 가는’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태어난 손창섭은 보통학교 졸업 직후인 1935년 경부터 만주의 봉천을 시작으로 일본의 교토와 도쿄 등을 떠돌았고 ‘내지’에서 일본의 패전을 맞은 후 귀환했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점에 월남해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다 서울로 왔고, 1973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생을 마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sup>37</sup> 식민지/제국 체제에서 반공 냉전체제로 전환되던 시기, 중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전쟁까지 동아시아에 전쟁이 연속되던 시기의 20여 년을 청년기에 경험한 손창섭을 ‘동아시아 전중(戰中)세대’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손창섭은 일본 ‘내지’에서 패전을 맞았기 때문에 안고와 마찬가지로 저공중폭격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또 공중폭격으로 말하자면 한국전쟁기 특히 북한 지역에 집중 투하된 미군 폭탄의 총량이 ‘도쿄 대공습’을 훨씬 뛰어넘는

<sup>36</sup> 坂口安吾, 『眞珠』(1942. 6); 佐々木中, 앞의 책, 118쪽에서 재인용.

<sup>37</sup> 손창섭의 생애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b, 2014 참조.

수준이기도 했고 일부 남한 지역에도 폭격이 이루어졌기에,<sup>38</sup>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월남한 손창섭일지라도 공중폭격의 전쟁 경험과 완전히 절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창섭에게 전쟁은 무엇보다도 타율적으로 ‘휩쓸려 가는’ 경험과 결합되어 있다. 그의 ‘휩쓸려 가는’ 삶은, 식민지/제국 시기 만주사변부터 한국전쟁까지 약 20년 동안 전쟁, 체제 전환, 분단의 소용돌이 속을 살았던 대부분의 피식민자 인민들의 공통의 삶의 양태와 만난다. ‘휩쓸려 가는’ 삶은 당연히 ‘내던져진’ 삶, 방치된 삶이기도 하지만, 도덕과 관습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팽개쳐지는 혼돈의 경험이라기보다, 오히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도덕과 규범들의 과잉 규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험에 가깝다. 특히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내전으로서의 한국전쟁, 즉 한반도를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전선을 따라 학살과 보복 학살이 자행되며 ‘자기 증명 아니면 죽음’이라는 공포를 내면화하게 만든 전쟁은, 자율적·의지적 선택의 영역을 거의 남겨놓지 않았다. 손창섭의 소설은, 구체적인 ‘전쟁’의 현장을 재현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공포와 불안 속에 ‘휩쓸린’ 삶을 그 특유의 인물들 속에 우울한 분위기와 함께 새겨넣고 있다.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들은 단적으로 ‘무거운 몸통이’를 짊어지고 있다. 훼손되었거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이들의 몸이 더욱 무겁게 감각되는 것은, 그 몸이 ‘휩쓸림’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폐결핵 말기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연기(死緣記)」(1953)의 ‘성규’는 “벽에 기대고 있는 상반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저 혼자 화를 내다 말고, 마침내 검불이 쓰러지듯 그 자리에 누워 버리고”<sup>39</sup>,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어린아이 손목처럼 가늘고 짧은 기형의 몸을 가진 「비오는 날」(1953)의 ‘동욱’은 “아무리 가만하고 앉았거나 누워 뒹굴어도 걸레처럼 전신에 배어 있는 피로

<sup>38</sup>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중폭격에 대해서는 김태우, 앞의 책 참조.

<sup>39</sup> 손창섭, 「사연기」, 『비오는 날』, 문학과지성사, 2005, 37쪽.

가 가지지 않는”<sup>40</sup> 몸을 힘들게 움직인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 시기 포로 수용소에서 린치를 당한 이후 극도로 허약해져 하루의 대부분을 방에 누워 생활하는 「생활적」(1954)의 ‘동주’는 아침부터 “송장처럼” 움직일 줄을 모르  
고, “주체하기 힘들도록 무거워진 몸”으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또 죽  
은 듯이 누워” 있다. 부산의 한 산중턱 피난민촌의 판자집에서 생활하는 그  
는 “걸레 조각처럼 되는 대로 방 한구석에” 누운 채로, “석달 동안이나 꼬박  
누워” 죽어가는 옆방의 소녀 ‘순이’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동주는 그저 무거웠다. 온 몸뚱이가, 그리고 이 구린내 나는 공기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견뎌내는 수밖에 달리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순이  
의 신음 소리에 간신히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동주는 그대로 하루  
가 또 저물어야 하는 것이다.<sup>41</sup>

이 인물들이 견딜 수 없는 무거움의 감각을 동반할 때에만 자신들의 육체  
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육체가 훼손되었거나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이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낯설고 비좁은 곳에서 ‘잡거(雜居)’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강요된 친밀성’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 인간의  
육체성을 두드러지게 의식하도록 만든 것이다. 안고의 「백치」가 공중폭격의  
공포 앞에서 열리게 된 ‘인간동물’의 차원<sup>42</sup>, 그 절대고독의 발견으로서 육체  
성을 드러냈다면, 손창섭의 경우엔 ‘피난(避難)’ 온 자들의 잡거 공간에서 피  
할 수 없는 타자와의 친밀성 때문에 감각되는 과장된 육체에 가깝다. 안고의  
육체가 ‘신적 폭력’ 앞의 별거벗은 생명, 따라서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었

40 손창섭, 「비오는 날」, 같은 책, 63쪽.

41 손창섭, 「생활적」, 같은 책, 99쪽.

42 문화, 앞의 글, 33쪽 참조.

고, 별례의 것조차도 아니며, 그저 추악한 하나의 움직임<sup>43</sup>으로 나타난다면, ‘휩쓸려 가는’ 손창섭의 인물들은 타자와 뒤엉켜 압착된 상태에서의 숨막힘을 동반할 때에만 육체성을 자각한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사연기」에서는 교사인 ‘동식’의 집에 동향(同鄕) 출신의 피난민 ‘성규’와 그의 부인 ‘정숙’이 동거하고, 「비오는 날」의 ‘원구’는 ‘동옥’과 ‘동옥’ 남매의 폐허 같은 집에서 자고 오곤 한다. 「생활적」에서 몸이 불편한 ‘동주’는 죽어가는 ‘순이’가 누워 있는 옆방에서 ‘춘자=하루코’와 동거하고, 「혈서」(1955)에서는 문학청년 ‘규홍’과 법대생 ‘달수’, ‘가짜 상이군인’인 ‘준석’이 간질병 환자인 여성 ‘창애’와 동거한다. 「미해결의 장」(1955)의 ‘지상’은 일곱 식구가 재봉틀 먼지를 먹어가며 생활하는 방을 나와 ‘광순’이의 이불 속에 누울 때만 잠을 잘 수 있으며, 「설중행」(1956)에서는 월남 난민 ‘고선생’의 집에 제자였던 ‘관식’이 막무가내로 들어와 살 뿐만 아니라 혼혈 소녀 ‘귀남’을 데려와 함께 자기도 한다.

대체로 남녀가 뒤섞여 잡거하는 이 이상한 공존의 공간은 “끔찍스러운 괴물이라도 살 것 같은 우중충한 동굴”<sup>45</sup>, “도깨비집”<sup>46</sup>, “빛 없는 동굴”<sup>47</sup> 같은 곳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침한 곳에 군집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어디에도 자기 자리가 없는 잉여적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임시 거처 같은 공간에 불화(不和)를 내포한 채 이루어진 이 잡거는—이미 가족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미해결의 장」을 제외하곤—어떤 ‘가족’

43 사가구치 안고, 「백치」, 최정아 옮김, 『백치·타락론 외』, 116쪽.

44 이렇게 고통과 불쾌의 감정을 수반하는 손창섭의 육체들은, 젠더 수행성의 차원에서도 남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손창섭 초기 소설의 남성 인물들은 결혼을 회피하면서 ‘가부장되기’의 규범적 젠더 수행을 거부하고, 여성의 육체성이 부각되는 것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한다. 손창섭 남성 주체의 ‘비수행적 젠더’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하운, 「한국 남성성의 문화적 (재)구성과 그 계보」, 『여성문학연구』 3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등 참조.

45 손창섭, 「사연기」, 앞의 책, 27쪽.

46 손창섭, 「비오는 날」, 같은 책, 55쪽.

47 손창섭, 「미해결의 장」, 같은 책, 151쪽.

도 구성하지 못한다. 손창섭의 인물들에게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은 “미꾸라지와 붕어 새끼와의 결혼!”<sup>48</sup>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란에 ‘휩쓸려 온’ 이들은 지금-여기에서 필연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여기에서 필연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은 그저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앞일을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이 우연적일 뿐만 아니라 아예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적이다. 손창섭의 인물들은 마치 죽을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로 삶을 바라본다. 「혈서」의 법대생 ‘달수’는 어느 날 자기 앞을 걸어가던 사람이 미군 트럭에 깔려 죽는 장면을 목격한 후 “자기는 왜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을까가 문제되기 시작했다.”<sup>49</sup>

악성 전염병이 그렇게 무섭게 창궐한 해에도 그는 병사하지 않았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애매히 또 무참히 쓰러져 간 육이오도 그는 무사히 넘겼고, 해마다 발표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엄청난 숫자 속에도 그는 끼지 않았고, 그렇다고 준석 이처럼 한쪽 다리를 절단되는 일조차 없이, 지구상에 있는 이십여 억 인류의 그 누구나와 꼭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우연히 살아 있는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sup>50</sup>

“이십여 억 인류” 모두가 “‘우연히 살아 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은 삶의 부재를 자연 상태로, 삶을 부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세계관은 죽음의 만연한 전쟁 상태의 세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던, ‘휩쓸려 온’ 존재들에게 특유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떠밀려 와야 했던 이들, 터전으로부터 뿌리뽑혀 관계마저 파괴된

48 손창섭, 「공휴일」, 같은 책, 24쪽.

49 손창섭, 「혈서」, 같은 책, 121쪽.

50 같은 글, 122-123쪽.

이들, ‘국민’의 자격을 의심받으면서 동시에 살아 있을 자격도 위태로워진 이들은 자율적 존재로서의 삶이 부정당하는 절망적 경험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살아 있다는 것이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반면, 죽음이야말로 필연적이다. 「생활적」의 ‘동주’는 죽은 ‘순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살아 있으니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은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래’라고 생각”<sup>51</sup>했다.

이렇게 삶의 우연성에 사로잡힌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자신의 삶에 대해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는 자포자기에 가까울 정도의 무기력이다. 이 무기력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만남도 기대할 수 없는 이가 빠지게 되는 부정적 정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삶에서 죽음 이외의 어떤 확실성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산다는 것은 체념의 연속이다. 이 무기력한 체념의 태도는 손창섭 인물들의 비관적인 낯두리를 통해 반복적으로 표현되곤 한다.

술에 취한 동옥은 다자꾸 원구의 어깨를 한 손으로 투덕거리며, 동옥이년이 정말 가엾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며 인물이 아까워,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잔을 비우고 나서, **할 수 있나** 모두가 운명인 걸 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sup>52</sup>

아이를 업은 채 나는 무작정 거리를 싸다녔다. 재순인 내 등에서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 더 무거웠다. 나는 자꾸 추켜올리면서 걸었다. 내 이마와 등에도 땀이 내뻘었다. 애를 업은 나의 초라한 꼴이 가게 유리창에 비쳤다. 그때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내 몰골을 바라보았다.

**“할 수 있나!”**

<sup>51</sup> 손창섭, 「생활적」, 같은 책, 103쪽.

<sup>52</sup> 손창섭, 「비오는 날」, 같은 책, 53쪽. 강조는 인용자.

번번이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현재를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sup>53</sup>

그날 세 사람은 여러 시간 눈 깔린 별판을 헤매었다. 동오는 양쪽에 승두와 춘화를 꼭 끼고 걸었다. 그는 자주 하늘을 쳐다보며,

**“메이파즈(할 수 있나)!”**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그 한 마디는 이상하게도 승두의 가슴속 깊이 아프게 스며들었다.<sup>54</sup>

이와 동일한 표현을 취하지 않더라도 손창섭의 인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뉘그러리를 습관처럼 반복한다. 손창섭의 대부분의 인물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신의 의지, 능력, 활동이 외부 세계와 의미 있게 만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여기에 존재해야 할 필연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여기에서 어떤 ‘가능성’의 세계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무기력한 손창섭 인물들의 뉘그러리는, 사카구치 안고가 ‘어차피 ~라면’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내던져진’ 삶을 오히려 스스로 ‘내던지는’ 결단으로 뒤바꾸며 긍정했던 태도와 큰 대조를 이룬다. 전란의 와중에 ‘힙슬람’ 손창섭의 인물들도 ‘내던져져’ 있음에 틀림없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도 그 조건을 긍정하지 못한다. 이곳에서 —물론 두 작가의 개성의 차이도 있으나— ‘내던져짐’과 구별되는 ‘힙슬람’의 경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공중폭격이 상징하는 안고의 전쟁 경험은 가공할 재난 앞에 던져진 고독한 존재의 ‘승고’ 경험으로 치환될 수 있었던 데 반해, 전장이 된 터전으로부터는 도망쳐도 개개인의 내면까지 파고드는 이데올로기의 전선으로부터 ‘피난’할 수는 없는 한국

<sup>53</sup> 손창섭, 「유실물」, 같은 책, 245쪽. 강조는 인용자.

<sup>54</sup> 손창섭, 「팽야」, 같은 책, 276쪽. 강조는 인용자.



전쟁의 경험은 손창섭 인물들의 절망적 뉘etur에서 하나의 표현을 얻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긍정적 형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이 절망적이고 허무적인 뉘etur는 그 자체로 전쟁 상태인 지금-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구성한다.

전쟁에 대한 관계와 경험 양상에서 대조적인 면을 보이는 두 작가는 서로 분명히 다르면서도 공통된 허무주의에 발을 딛고 있고, 또한 그 허무주의로부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기도 하다. 안고가 압도적인 공중폭격 아래에서 오히려 ‘적’의 얼굴을 누락시키고 전쟁을 ‘재난화운명화’하면서 도덕 해체(타락)의 계기를 발견했다면, 타율적으로 밀려가고 쫓겨 가며 부단히 자기 존재를 부정당할 위험에 처해 온 손창섭의 인물들은 극도의 무기력 가운데 자기 존재를 포함해 ‘지금-여기’의 우연성을 절감한다.

#### 4. 맺음말: 허무주의의 두 형식

앞서 살펴봤듯이, 모순을 긍정하는 안고의 사고에서 ‘내던져지다’는 ‘내던지다’로 이행한다. 「일본문화사관」에서의 논의로 다시 표현하자면, ‘없음만 못하다’는 결벽주의가 “천하제일자”<sup>55</sup>의 속악함으로 이행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어차피 ~라면’이라는 가정(假定)이 이 극단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조작’한다. 전쟁상태의 현실이 안고의 사고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내던져진다면 내던진다. 어차피 없을 수 없다면 있음으로 가득 채운다. 안고에게 전쟁은 “위대한 파괴, 기묘하기 짝이 없는 공평함”<sup>56</sup>을 초래하는 사건이며, 이 전쟁의 압도적 현실을 ‘어차피 ~라면’의

<sup>55</sup> 사카구치 안고, 「일본문화사관」, 49쪽.

<sup>56</sup> 사카구치 안고, 「백지」, 최정아 옮김, 『백지·타락론 외』, 109쪽.

조건으로 긍정함으로써 모든 차이들이 무화(nihilation)된다. 이 차이들이 무화된 곳, 기존 세계의 ‘건전한 도덕’이 붕괴된 곳, 육체만이 남겨진 절대고독의 장소, 그리고 ‘타락’ 속에서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마음”<sup>57</sup>이 생성된다.

전쟁에 대한 안고의 추상적 태도에는 어떤 전도(轉倒)된 사고가 존재한다. 이미 ‘어차피 ~라면’의 조건을 삽입하는 조작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이 전도는 패배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쟁이 계속되고 물질적정신적 동원이 심화되어 가던 전체주의 사회에서 실상은 타율적으로 ‘힙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을 ‘전적으로 긍정’함으로써 이 ‘힙슬림’을 자신의 의지적 선택인 것처럼 뒤바꿔버리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압도적인 힘 —예컨대 전중(戰中)에는 일본의 군부, 패전 시에는 미국—에 의해 굴복 또는 패배당했다는 사실이 자각되기 전에 서둘러 스스로를 ‘내던지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 패배의 현실을 무화시킨다. 이 ‘내던져진/내던진’ 곳이 안고의 문학의 고향임은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추상화의 장치를 통해 전쟁과 문학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태도를 미학적 허무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손창섭의 인물들은 ‘절대고독’은커녕 고독하고 싶어도 고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타율적 세계의 소용돌이에 ‘힙슬려’ 있다. 극단적인 예로, 「피해자」(1955)의 ‘병준’은 타율적으로 힙슬려 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와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죽는 일밖에 없다”<sup>58</sup>고 생각하지만 그 유일한 ‘결단’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 극도의 피로로 삶이 소진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조차 홀로 남겨지지 못한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죽겠노라고 졸라 댔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sup>59</sup> 안고와 달리 손창섭의 인물들은 한 순간도

57 같은 글, 106쪽.

58 손창섭, 「피해자」, 『비오는 날』, 139쪽.

59 같은 글, 149쪽.

‘패배의 자각’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따라서 안고의 ‘인간동물’이 신적 폭력 앞의 절대고독 속에서 드러난 육체성이라고 한다면, 손창섭의 동물은 타율적 ‘힙슬람’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에 몰두하는 동물 또는 벌레, 이를테면 “조금만 건드려도 동그랗게 몸을 사리는 굼벵이”<sup>60</sup>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존의 본능에 따라 취하는 이런 방식의 방어는 오히려 스스로를 치명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들 수 있다. 손창섭에게 발견되는 ‘자기 모멸’의 윤리는 이 무기력한 불능의 허무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할 수 있나’라는 낯두리를 반복하게 만드는 이 무기력한 불능과 체념은 부정적인 형태로, 자기 모멸 속에 주체성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여기에서 필연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손창섭의 인물들은 체념한 채 그저 ‘견디고’ 있었다. 견디는 일은 행위의 결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힙슬람’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고 버티는 행위의 일종이다. 힘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없고 따라서 패배당할 수밖에 없지만, 패배당하고 있다는 자각 속에서 그 자각과 일체화된 주체성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패배를 자각할 때에만 존재하는 주체는 지금-여기에서 우연성만을 발견하는 주체이기도 하며, 따라서 규범적 주체성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안고의 미학적 허무주의와 손창섭의 불능의 허무주의는 두 작가의 개성만큼이나 두 전쟁 경험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이 전쟁을 통해 아시아와 그 너머로 패권을 확장해가던 시기 글쓰기를 시작한 안고는 “모럴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모럴인 것처럼 구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구원”<sup>61</sup>이라는 아이러니에서 문학의 출발점을 발견했고, ‘공중폭격=신적 폭력’의 경험은 저 모럴 없음의 모럴, 구원 없음의 구원을 전후 일본의 출발점으로 삼게 만들었다. 하지

<sup>60</sup> 손창섭, 「유실물」, 219쪽.

<sup>61</sup> 사카구치 안고, 「문학의 고향」, 174쪽.

만 이 미학적 허무주의는 패배의 현실을 결단으로 대체하며 패전의 의미를 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대응은, 같은 전쟁을 지상전으로 경험하며 ‘적’을 대면했고 패전 후에는 ‘적’이었던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전투가 끝났음에도 60년간 계속해서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서 사실상 점령되어”<sup>62</sup> 있다는 의식이 여전히 현실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이에 반해 이데올로기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며’ 터전을 잃은 이들의 경험과 만나는 손창섭의 불능의 허무주의는 상상력조차 무기력과 절망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스로에 대한 모멸과 자포자기적 무기력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디는’ 주체성의 역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지금-여기에서 삶의 우연성만을 발견하는 부재의식, 부단한 패배의 자각과 일체화된 주체는, 그 자체로 지금-여기가 아닌 시간-공간의 존재를 간직한다. 예컨대 「혈서」에서 ‘혈서’를 쓰지 않으면 ‘국적(國賊)’이라고 위협하는 ‘준석’이 지금-여기를 유일무이한 세계로 살고 있는 데 반해, ‘달수’는 찬성/반대, 긍정/부정, 좋음/싫음, 발화/침묵의 대립항들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미결정’의 지점에 서 있다. 그곳은 지금-여기의 언어로 지시될 수 없고, 따라서 ‘달수’는 ‘준석’의 주먹 앞에서 “절망적인 한숨”과 “무거운 신음”<sup>63</sup>을 내뿜을 뿐이지만, 이 한숨과 신음은 지금-여기에서 언표되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존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뒤집어 보자면, 이 불능의 허무주의는 그 존재 자체로 전쟁의 ‘불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연장(延長)으로, 또는 현상 타개의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이 되풀이 소환되지만, ‘지금-여기와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데 전쟁만큼 무능력한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sup>62</sup> 메도루마 슌, 안행순 옮김, 『오키나와의 눈물』, 논형, 2013, 15쪽.

<sup>63</sup> 손창섭, 「혈서」, 120쪽.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坂口安吾, 「FARCEに就て」, 青空文庫, [https://www.aozora.gr.jp/cards/001095/files/45801\\_38837.html](https://www.aozora.gr.jp/cards/001095/files/45801_38837.html)  
사카구치 안고, 최정아 옮김, 『백치·타락론 외』, 책세상, 2007.  
사카구치 안고, 최정아 옮김, 『사카구치 안고 산문집』, 지만지, 2014.  
사카구치 안고, 이한정 옮김, 『불량소년과 그리스도』, 그린비, 2021.  
손창섭, 『비오는 날』, 문학과지성사, 2005.

### 논저

- 柄谷行人, 『坂口安吾論』, 인스クリプト, 2017.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마루카와 테쓰시,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너머박스, 2010.  
문화, 「전후소설에 나타난 ‘인간동물’ 양상 연구: 사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논문, 2016.  
메도루마 슌, 안행순 옮김, 『오키나와의 눈물』, 논형, 2013.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 ·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 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길, 2008.  
서동주, 「타락, 전후를 넘는 상상력: 사카구치 안고의 문화 · 주체 · 역사」, 『아시아문화연구』 18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佐々木中, 『戦争と一人の作家: 坂口安吾論』, 河出書房新社, 2016.  
사카사이 아키토, 박광현 외 옮김, 『‘갯머미’ 전후공간론』, 이숲, 2020.  
아라이 신이치, 윤현명 · 이승혁 옮김, 『폭격의 역사: 끝나지 않는 대량 학살』, 어문학사, 2015.  
양미영, 「손창섭과 사카구치 안고의 전후 소설에 나타난 실존과 본질: 여성 인물의 타락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b, 2014.  
주미경,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와 손창섭 문학 비교연구: 「인간실격」 「미해결의 장」에 나타난 사회 부적응 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원석사논문, 2014.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한수영, 「관전사의 관점으로 본 한국전쟁 지역의 두 가지 형식」, 『어문학』 113집, 한국어문학회, 2011.  
허운, 「한국 남성성의 문화적 (재)구성과 그 계보」, 『여성문학연구』 3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Thrown Out and Swept Away

War and Literature of Sakaguchi Ango and Son Chang-sop

Cha, Seungki |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and contrasts the literature of Sakaguchi Ango and Son Chang-sop, two writers representing different “postwar” periods in Japan and Korea, in light of their different wartime experiences. It shows that the nihilistic tendencies of these two “postwar” writers reflect not only the differences in their personalities, but also the nature of the wars they experienced.

Sakaguchi Ango’s wartime experience of facing defeat on the mainland of colonial/imperial Japan is symbolized by aerial bombing. He *disasterizes* the war, interpreting the overwhelming attack of American forces that turned Tokyo into a sea of fire as *divine violence*. In this way, disasterized war is abstracted as a momentum for ‘fall’ from existing myths and morals. Furthermore, he converts himself from being ‘thrown out’ into a ‘self-throwing’ subject, replaces the reality of defeat with a moment of determination, and forgets the meaning of defeat. This attitude of Ango could be called aesthetic nihilism.

Son’s characters, on the other hand, reflect aspects of the lives of (post)colonial peoples who have been *swept away* by colonial/imperial wars and mobilizations since the Manchurian Incident, and who have been displaced by civil wars upon the Liberation. Son’s attitude of self-humiliation and self-defeating lethargy can be described as an nihilism of inabilit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any positive interaction with the here-and-now world. However, the act of *enduring* that humiliation and despair keeps the existence of a time-space other than the here-and-now inside. Son’s nihilism of inability paradoxically proves the ‘inability’ of war.

**Key words :** Postwar, Throw out, Swept away, Aerial bombing, Depravity, Defeat, Nihilism

논문접수일: 2023.03.15 심사기간: 2023.03.29~04.10 게재확정일: 2023.04.12.

## 일반논문

한국 서브컬처 연구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위한 예비노트  
박기정의 『도전자』·『폭탄야』에 주목하여

윤재민

개화기 만주에서의 한글성경 번역과 문화 변동  
1887년 존 로스의 『예수성경전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훈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조선적인 것’의 의미

이형권·이강호

이연주의 장소성 연구

김명인

가곡(歌曲)을 통해 본 불우현(不憂軒)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

윤인현

「풍랑몽」과 「바다」 시편 사이, 지용의 ‘바다’

이경수





## 한국 서브컬처 연구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위한 예비노트\*

박기정의 『도전자』·『폭탄아』에 주목하여

윤재민\*\*

1. 들어가며: 서브컬처, 동아시아의 공통언어?
2. 왜색담론 혹은 초창기 일본 팝 문화의 한국적 착근
3. 한국 서브컬처 양식의 수행적 전환: 1960년대 박기정의 두 '서사 만화'의 경우
4. 결론

### | 국문초록 |

이 글은 오늘날 한국 서브컬처를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근본적으로 재고찰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박정희 정권 초창기 서사만화인 『도전자』와 『폭탄아』(1964)에 주목한다. 두 만화는 식민지 체험의 극복 소위 항일 모티프의 한국 서브컬처 서사의 마스터플롯의 원형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항일 서사의 대중적 호소력은 만화 특유 형식에서 기인한다. 두 만화의 항일 내셔널리즘은 그것과 전적으로 불화하는 듯한 일본적 이미지의 범람을 만화적으로 상연한다.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면서 만화적으로는 이와 전적으로 불화하는 표현을 지향하는 표현적 역설은 왜색이라는 배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079082).

\*\*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적인 담론으로 유지되던 전후 내셔널리즘과 초국가적 서브컬처의 배양·축적 양상을 흥미롭게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축적의 양상을 알렉세이 유르차의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 개념을 참조하여, 초국가적 팝 문화가 국지적으로 맥락화되어 **생산**되는 문화 과정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동아시아 팝 문화, 서브컬처, 왜색, 내셔널리즘, 만화적 역설, 코믹스(망가), 수행적 전환, 시초 축적, 박기정

## 1. 들어가며: 서브컬처, 동아시아의 공통언어?

일본의 문예비평가 후쿠시마 료타(福嶋亮大)는 홍콩인 사회학자 청옥마우(張或馨)와 나눈 약 일 년여에 걸친 왕복 서신 기록을 출간한 바 있다. 『변경의 사상: 일본과 홍콩에서 생각한다』<sup>1</sup>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온 이 책은 서구적 현대성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동시대 홍콩과 일본이 당면한 보편적 문제를 변경(辺境)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탐구한다.

이러한 가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 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홍콩과 일본은 미국(서구)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보편적 중심의 사상적·문화적 영향 속에서 국지성(locality)의 변경적 정체성을 구성해왔다. 두 사람의 대화는 미국과 중국의 변경으로서 형성된 일본(인)과 홍콩(인)의 국지적 정체성 ‘이후’를 전망한다. 후쿠시마에 따르면, 두 지역 특히 근현대 일본의 국지적 정체성은 서양의 헤게모니 국가를 ‘중심’에 놓고 스스로를 변경에 위치하여 구성되었다. 서구를 보편성의 중심에 놓고 자신을 그 외부의 결여된 외부로 상정하는 이러한 일본(인) 정체성은 특유의 자민족 중심주의(내서널리즘)를 형성하게 된다. 일본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닐 터이다. 근현대 세계는 극소수 자본주의 패권국가라는 ‘중심’과 그에 종속된 절대다수의 국지적 변경의 세계체제로 구성된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관념을 뒤흔드는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지역적 분산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정보의 급진적인 유동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근대세계의 헤게모니 국가였던 영미 두 국가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알 수 있다. 후쿠시마는 이 시대의 동아시아를 중심-아버지가 부재하는 가운데 형제 간에 갈등이 팽배한 카인(Cain)의 감수성 시대와 같다고 진단한다.<sup>2</sup> 이를 추동하는

<sup>1</sup> 福嶋亮大・張或馨, 『辺境の思想: 日本と香港で考える』, 東京: 文藝春秋, 2018.

주체는 편재하는 각 변경의 국지적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민족국가(nation-state)이다. 동아시아 민족국가가 주조하는 이데올로기는 문화·사회·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동아시아 시민들의 연대와 커뮤니케이션을 난망하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홍콩 민주화 세력 일각에서 주장하는 본토화(내셔널리즘)에 대한 내외부의 강력한 반발은 홍콩인들의 민주화 요구를 미궁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날 현체제에 대한 시민적 대안으로서 민족국가 설립을 주창하는 운동이 국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동아시아 시민 공동체를 위한 대안은 민족국가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쿠시마는 독특한 관점의 아시아론을 제안한다. 배타적·독점적 민족국가 체제 내부에 마련된 동아시아 도시들은 세계화로 연결된 자본주의 체제로 상호연결된 국지 공간이다.<sup>3</sup> 글로벌 자유무역 금융체제로 변성한 오늘날 동아시아의 대도시 서울, 도쿄, 홍콩, 타이페이 등지의 풍경은 대형 쇼핑몰과 글로벌 프랜차이즈에 점령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동아시아 대도시 풍경의 소비문화적 표준화는 역사적 원본이 없는 동아시아 대도시 특유의 복제적 성격을 가시화한다. 이에 입각하여, 후쿠시마는 내셔널리즘 특유의 초월적 중심에 대한 대항으로서 도시적 아시아주의 구상을 선보인다.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너무 광대하고 공통의 전통도 없으며 그 윤곽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럽을 유럽으로 만드는 ‘정신’의 기반에 대해서는 오카쿠라 텐신의 동시대인 프랑스의 폴 발레리도 말했던 것처럼 로마적인 것(법과 정치), 기독교적인 것(내성과 도덕), 그리스적인 것(과학과 미)의 세 가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이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sup>2</sup> 福嶋亮大・張彧馨, Ibid., pp.269-271 참조.

<sup>3</sup> Ibid., p.269. 참조.

애초 아시아라는 지리 개념을 우리가 수용한 것은 1세기 전에 불과합니다. ‘아시아는 하나’라는 텐신의 선언은 낭만주의 미학의 슬로건입니다. 인도 여성시인과 러브레터를 주고받던 텐신에게 아시아는 정치나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나 ‘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그것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좋아하는 ‘우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아주의는 언뜻 보기에는 강경파적인 정치사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과거 중국 문화자 다케우치 요시미가 말했듯이 ‘무사상(無思想)’의 ‘심적 분위기(mood)’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시아주의는 ‘분위기’ 이상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런 로맨틱한 사상을 현대에 그대로 부활시키려 해도 일부 논단의 잡담에 그칠 뿐 포퓰리즘이나 배외주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시아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려면 일단 의사소통의 단위를 네이션에서 도시로 이동시키는 건 어떨까요? 아시아에 얽힌 복잡한 감정적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일단 네이션의 주박을 풀고 홍콩이나 도쿄 서울이나 상하이 혹은 쿠알라룸푸르라는 단위에서 출발해보는 것. 저는 이 구성을 도시적 아시아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논단에서의 아시아주의가 경시해 온 홍콩에도 새로운 빛이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4</sup>

후쿠시마가 제시한 도시적 아시아주의의 구상이 가능하려면 동아시아 시민들을 결속할 내셔널리즘에 육박하는 도시 단위의 공통적 ‘감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같은 전후 일본발 서브컬처를 내세워 이에 화답한다. 오늘날 동아시아 도시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서브컬처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공통감각’에서 ‘동아시아의 공통언어’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sup>5</sup>

일본발 서브컬처를 아시아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후쿠시마의 제안은 사실 새운 주장은 아니다. 1990년대 이래 일본에서 서브컬처는 기존의

<sup>4</sup> op. cit., pp.271-272.

<sup>5</sup> Ibid., p.167 참조.

내셔널리즘 너머 아시아적 상상력의 원천이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상상력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모토로 한 소프트파워 내셔널리즘으로 귀결했다.<sup>7</sup> 후쿠시마의 도시적 아시아주의 제안은 이와부치가 일찍이 내놓은 비판에 답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동아시아의 초국가적 대중문화를 전후 민족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는데 그치는 허다하게 반복된 주장을 답습하는 듯한 인상이 있다.<sup>8</sup>

‘내셔널리즘의 대안으로서 서브컬처론’은 보편적 원리를 내세워 근대 민족국가라는 특수주의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여러 번 반복된 입장의 한 사례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후 보편주의를 지지한 유럽의 사상가와 정치세력이 민족주의에 경도된 이래 끊임없이 반복됐다. 내셔널리즘의

6 대표적으로 이에 대한 이와부치의 비판적 논의를 참고하라. “새로 태어난 동아시아의 자본주의의 공간 가운데 일본에서는 자본, 문화상품, 상상력이 오가는 초국가적 흐름에 맞추어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문화적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성과 모순을 떠안은 ‘아시아’라는 문화 지리는 ‘꿈의 세계(dream world)’로서 일본의 초국가적 상상지도에 되돌아온 것이다. ‘꿈의 세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인물은 발터 벤야민이다. 그는 1930년대 파리에 자본주의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백화점이나 아케이드가 생겼을 때 자본주의적이고 근대적인 신기함에 대한 충동에 따라 늘 새 진열품들이 전시되던 모습을 언급한다. 그 풍경은 다양한 연상을 떠오르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듯한 ‘환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그 환영이 ‘정치적 각성을 동반하는 이미지의 원천이 될 가능성을 찾아내려 했다. 1990년대에 ‘아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환영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꿈의 세계를 상상하게 했다. 이 꿈의 세계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초국가적 문화 왕래를 국가의 틀 속에 묶어 버리는 한계와 모순을 일시적으로나마 있게 해주는 상상적 공간이었다.” 이와부치 고이치, 하라타 유키에·전오경 역,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일본, 그 초국가적 욕망』, 또하나의문화, 2004, 268쪽.

7 이와 관련해서는 위의 책, 20-21쪽 참조.

8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을 둘 수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수많은 갈등이 노출되고, 정서적 민족주의가 팽배해지는 현실 속에서 한 가지 신선한 물줄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 대중문화의 영역이다. 정치경제적 갈등과 우울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서로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건네받는 문화소비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 대중문화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확산되고 지금도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임현진·장명구, 「동아시아 대중문화 교류를 통해 잉태되는 새로운 문화」, 임현진·장명구 편저, 『동아시아 대중문화소비의 새로운 흐름』, 나남, 2013, 8쪽. 물론 후쿠시마의 도시적 아시아주의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정서적 ‘공통감각’으로부터 대안적 공동체 구상을 발견하는 관점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순 없다. 사실 이러한 구상에 담긴 함의를 생각하면 그 의도와 목표는 앞으로 더 진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도시적 아시아주의에 대한 나의 비판은 이를 위한 발본적인 논의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특수성은 단순히 보편주의의 대립항이 아니다. 그것은 “국지적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교차, 즉 특수하게 한정된 공동성으로서의 지향과 보편적인 사회성으로의 지향과의 접속을 자신의 본질로”<sup>9</sup> 한다. 내셔널리즘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애초 내셔널리즘의 특수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조건인 것이다. 동아시아 각 민족국가 기반의 팝 문화가 새로운 세대를 위한 내셔널리즘 문화기술(cultural technology)로 전유되고 있는 상황<sup>10</sup>에서 이러한 통찰은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팝 문화의 ‘공통감각’은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의 반대쪽을 향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초국가적 팝 문화 비평과 연구의 핵심사안은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대안적 측면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오늘날 동아시아 팝 문화의 현상태를 근본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예비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60년대 초창기 한국 서브컬처 행위자 박기정의 초창기 대표작 ‘서사만화’ 『도전자』와 『폭탄아』(1964)에 주목한다. 두 만화는 식민지 체험의 극복 소위 항일 모티브의 한국 서브컬처 서사의 마스터플롯의 원형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sup>11</sup> 두 만화의 항일 서사는 만화적 표현-이미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도전자』, 『폭탄아』 항일 서사의 대중적 호소력은 캐리커처, 기호화, 칸, 간격, 연속언어(sequence language) 블록이라는 만화 특유의 형식<sup>12</sup>을 국지적으로 맥락화된 문화과정의 산물이다.

9 오사와 마사치, 김선화 역, 『내셔널리즘의 역설 - 상상의 공동체에서 오타쿠까지』, 어문학사, 2014, 30쪽.

10 앞서 언급한 이와부치의 비판은 이와 관련된 일본적 상황의 진단이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 초국가적 대중문화로서 한류는 1990년대말 국가차원의 문화산업 정책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신현준, 「한국 TV드라마의 국제배급 네트워크의 진화 - 초기 한국에서 중화권의 트랜스아시아 중개자들을 중심으로」, 임현진·장명구 편저, 앞의 책, 142-143쪽 참조. 최근 중국사회에서 가시화된 중화 내셔널리즘의 아이돌 시스템 그리고 서브컬처 전유현상에 대해서는 류하이중 편, 김태연 외 역, 『아이돌이 된 국가』, 갈무리, 2022 참조.

11 박인하 편, 『박기정의 카툰 & 캐리커처』, 예경, 2005, 182-183쪽 참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인’에서 독립투사로 각성하는 주인공 탄이의 성장 과정의 항일서사가 만화적 형식 속에서 일본적 이미지의 범람으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화적 표현·이미지의 역설은 왜색이라는 한국 특유의 배타적 문화 담론을 경유하여 유지되던 전후 내셔널리즘과 초국가적 서브컬처의 배양·축적 양상을 흥미롭게 시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축적의 양상을 알렉세이 유르차의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 개념을 참조하여, 초국가적 팝 문화가 국지적으로 맥락화되어 **생산**되는 문화과정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 2. 왜색담론 혹은 초창기 일본 팝 문화의 한국적 착근

전후 일본의 서브컬처를 동아시아의 ‘공통언어’로 제시하는 논리는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대안적 동아시아 공동체 전망과 관련된다. 그러나 사실 문화적 ‘공통성’은 공동체의 필연적인 요건은 아니다.<sup>13</sup> 공동체 구성의 핵심 요건은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배타적인 구조적 상징(신화)이다. 서브컬처의 ‘공통감각’은, 내셔널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제시됐던 수많은 ‘보편사상’ 또한 마찬가지로, 개별자들의 생사여탈을 독점하고 있는 내셔널리즘의 초월적 신화<sup>14</sup>와의 대결에서 우세를 점한 적이 없다.

후쿠시마의 도시적 아시아주의 구상이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맹아로서 ‘공통언어’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공통언어’로서 서브컬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도시적 일상-행위자 간에 생성된 초국가적 화행적(pragmatic) 문화 양식이다. 도시적 욕망의 복제와

<sup>12</sup> 오혁진, 『만화형식의 역사-윌리엄 호가스에서 장 자크 샹페까지』, 해피북미디어, 2022, 5-6쪽 참조.

<sup>13</sup> Shih Shu-mei, “Introduction”, Shih Shu-mei etc.(e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p.1-16 참조.

<sup>14</sup>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28쪽 참조.



증식과 관련된 서브컬처 특유의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화행적 성격은 모종의 동아시아적 ‘공통감각’과 분명 맞닿아는 있다. 그러나 도시적 행위자들의 초국가적 욕망의 양식은 내셔널리즘이라는 초역사적이고 수평적 ‘박애’의 이데올로기<sup>15</sup>에 예측되어 있다. 서브컬처라는 ‘공통언어’의 의의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셔널리즘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안에서 서브컬처 양식의 공존-예속의 가장 핵심적인 시대를 다룬 중요한 선행연구와 그것의 이론적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한 담론은 일본발 서브컬처와 내셔널리즘의 착종으로 형성됐는데, 그중에서 박정희 정권 초창기 왜색 담론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왜색은 해방 후 내셔널리즘 이면의 부정적인 가치를 체현하는 ‘일본적인 것’ 일체를 지칭한다. 그것은 군중을 결집(혹은 통제)하는 내셔널리즘의 진부한 슬로건으로서, 냉소적인 이들에게는 한국 내셔널리즘과 주체들의 모순과 이중성을 표상하는 사안이었다.

대중문화 영역에서 자행된 왜색의 양의성은 해방 후 한국 내셔널리즘과 전후 한일관계를 해명하는 문화영역의 핵심사안이다. 김성민은 부인(disavowal)의 메커니즘이라는 모델을 통해 왜색 담론을 한일 문화교통 담론의 차원에서 흥미롭게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해방 후 한국(인)의 ‘일본적인 것’의 유통과 경험은 통념과 달리 ‘구식민지 주민의 이중성’과 같은 기질과 습성의 문제가 아니다.<sup>16</sup> 그것은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주조하는 주체화 과정 중에 출현한 일종의 문화적 무의식과 관련된다. 김성민은 한국사회의 일본적인 것의 금지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매우 문화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나간다. 해방 후 제1공화국은 반공과 반일이라는 배타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초창기 한국 내셔널리

<sup>15</sup> 오사와 마사치, 앞의 책, 38-44쪽 참조.

<sup>16</sup> 김성민, 『일본을 금하다 - 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7, 15쪽 참조.

리즘의 경계 구축을 시도했다. “북한에 대한 경계 구축이 공산주의자의 신체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라면, 일본에 대한 경계 구축은 식민지 시대를 통해 ‘일본화의 흔적’이 깊이 각인된 국민 개개인의 신체를 씻어내는 작업이었”<sup>17</sup>기 때문이다.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왜색 담론은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 문화적인 차원으로 옮겨가게 된다. 미군정체제에서 정부 엘리트로 정착한 식민지 엘리트들의 국가였던 한국에서 국가는 일본적인 것의 금지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주체가 될 수 없었던 탓이다. “일본 대중문화 금지의 정당성의 핵심이 ‘식민지 시대 청산’이었다면 이 금지는 식민지 시대 청산의 실패와 함께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8</sup> 그 결과 해방 후부터 지속되었던 ‘왜색 척결’의 정당성은 점차 “금지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말하고 주장하는, 즉 ‘명령하는 것’ 자체에 의해 보증되**”<sup>19</sup>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창기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일본적인 것의 배제가 의례화된 명령으로 유지되는 전환과정은 “검열의 대상이었던 왜색에 삭제, 은폐, 수정 등의 ‘왜곡’을 가함으로써 일본 대중문화에 의한 경계 침범을 부인”<sup>20</sup>하는 문화적 효과로 나타난다. 김성민은 이를 주체의 일관성을 위해 실제로 주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대상의 존재를 거절하는 심리적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에 빗대어 설명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주체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하고 압도적인 사실을 묵도했을 때, 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을 지킨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그저 부인하는 행동만으로는 무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인한 대상의 흔적을 지우거나 메우기 위해 주체를 반영하는 증상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한다.<sup>21</sup>

<sup>17</sup> 앞의 책, 29쪽.

<sup>18</sup> 위의 책, 33쪽.

<sup>19</sup> 위의 책, 34쪽.

<sup>20</sup> 위의 책, 105쪽.

김성민이 ‘부인의 메커니즘’ 모델은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적 전유 양상을 정확히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경계 없는 연속성으로서 일본적인 것과 내셔널리즘과의 ‘공생’관계를 환기하는 유의미한 상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일본적인 것 그중에서 왜색 담론은 ‘민족 주체성’을 체화한 개별 행위자들의 사적 향유와 관련된다. 그에 따르면, 왜색 담론은 경계 연속성과 관련된 국지적 정체성에 따라 후경화된 사적 욕망이 공적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지속적인 배치·선별화 과정의 산물이다.

정신분석적 주체화 모델에 기대고 있는 부인의 메커니즘의 이론적 전제는 왜색 담론을 민족국가라는 주체의 ‘욕망’으로 간주한다. 이때 민족국가는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자신이 사적으로 향유하는 대상을 마치 그러지 않는 것처럼 부인하는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에 둘러싸인 위선적인 주체가 된다. 허위의식은 물질적, 제도적, 이념적 공정으로 계급 착취라는 현실(real)을 은폐하는 문화공정을 지칭한다. 그것은 마술환등적 상품으로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자본주의적 착취체제의 사실을 호도(그들은 자신이 무엇일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하는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개념이다.<sup>22</sup>

그러나 고전적인 허위의식 개념으로는 김성민이 부인의 메커니즘으로 지시한 한국의 왜색 담론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애초 한국에서 일본적인 것의 소비는 당대 한국사회 사회문화적 관습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향유됐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것이다. 부인의 메커니즘에 걸맞은 허위의식

21 안나 프로이트, 김건중 역, 『자아와 방어기제』, 열린책들, 2015 참조. 부인의 메커니즘을 통한 동아시아 냉전문화 분석모델의 주요 사례로는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역,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머북스, 2010, 39-40쪽 참조.

22 프레드릭 제임슨의 1980년대 유행한 미국의 향수영화 비판은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행한다’는 차원의 허위의식에 기초한 대중문화산업론의 가장 고전적인 예시 중 하나이다. 프레드릭 제임슨, 임경규 역,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 자본주의 문화논리』, 문학과 지성사, 2022, 515-545쪽 참조.

개념은 서구사회 이데올로기에 대한 슬로터다이크의 계몽된 허위의식(enlightened false consciousness)에 가깝다. 슬로터다이크는 현대 서구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승리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허위의식 개념으로 충분히 해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중문화산업을 향유하는 주체들은 소비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계급적 착취와 같은 사회적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선을 수행하는 이유는 그것을 피할 방도가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역설은 주체를 자신이 이 역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의식적인 오인(misrecognition)의 가면(persona)을 씌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냉소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든다.<sup>23</sup>

해방 후 왜색 담론의 수용 주체인 한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금지에서 부인으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왜색 담론의 주체는 당대 신문이나 언론에서 떠들 듯이 무지하고 부화뇌동하는 군중들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왜색 담론의 진정한 주체는 왜색을 향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철저히 계몽된 냉소적 민족 주체라고 해야 할 터이다. 영화보다는 사색과 사서(史書)를 사랑하는 ‘민족의 영도자’ 박정희<sup>24</sup>의 공공연한 찬바라 영화 취미가 대표적이다. 또한 당대 대중들에게 폭넓게 사랑받았던 <블루라이트 요코하마(ブルー・ライト・ヨコハマ)> 향유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의 왜색 향유와 대중들의 일본가요 향유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김성민의 부인의 메커니즘 모델은 내셔널리즘의 시공간에서 민족주체로 표상된 계몽된 주체에 의한 이율배반적인 팝 문화의 집단적 향유의 메커니즘을 의미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부인의 메커니즘에서 일본 대중문화는 그저 공식적 주체의 욕망의 대상이라는 **이면** 즉 주체의 반영으로서만 의미화

<sup>23</sup> 페터 슬로터다이크, 박미애·이진우 역, 『냉소적 이상 비판 1』, 에코리브르, 2005, 43-53쪽 참조.

<sup>24</sup>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4: 국가개조』, 조선일보사, 1998, 166쪽.

된다. 당대의 일본 대중문화를 민족국가-주체의 욕망을 위한 향유 즉 소비의 대상으로서 조망할 따름이다. 실제로 김성민은 전파월경이나 아니메나 망가의 향유와 유통 다시 말해 소비양태만을 다룬다. 민족국가의 공식적인 정체성과 그 이면의 욕망으로서 초국가적 대중문화를 다루는 김성민의 관점은 공식적인 것 대 허위적인 것, 가면과 민낯과 같은 구도에 의지하는 기존의 일본 대중문화론의 이원론<sup>25</sup>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해방 이래 끊임없이 유입되어온 일본발 대중문화는 내셔널리즘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화적 표현으로 생산됐다. 부인의 메커니즘은 일본 팝 문화의 소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산과 축적으로 이어졌는지를 해명하지는 않는다. 일본적인 것을 전유함으로써 (재)생산된 팝 문화 양식을 민족국가라는 주체 이면의 사적 소비 영역으로 후경화하여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 3. 한국 서브컬처 양식의 수행적 전환: 1960년대 박기정의 두 ‘서사 만화’의 경우

#### (1) 만화적 역설

왜색 담론과 관련된 일본 대중문화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던 문화산업 체제 생산양식의 산물이다.<sup>26</sup>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sup>25</sup>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천정환의 위선적 민족 주체의 ‘은밀한 향유’ 모델 그리고 전후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열렬한 수용과 내셔널리즘적 배타성이 공존하는 모순과 길항을 선형적인 정상적 민족-주체의 ‘불안’으로 진단한 정창훈의 연구가 있다. 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509-549쪽; 정창훈, 「일본적인 것, 혹은 금지된 ‘소리’의 계보-한일국교정상화 성립기 ‘왜색’ 비판담론과 양의성의 정치미학」, 『대중 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9, 349-392쪽 참조.

향유를 제공하는 양식으로서, 한국이라는 국지적 시공간 안에 (재)맥락화 됐다. 이는 온전히 일본적인 것도 그렇다고 온전히 한국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문화적 진술로 이어졌다.

만화가 박기정이 선보인 혁신적인 텍스트인 『도전자』와 『폭탄아』를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이다. 두 텍스트는 박정희 정권 초창기 대중 문화에 범람한 왜색의 대표적인 경향이었던 만주(『폭탄아』), 재일(在日)과 ‘일본인 처’의 문제<sup>27</sup>를 민족주의 서사(항일 독립운동)로 결합한 한국만화 서사 관습의 시초라고 평가된다.<sup>28</sup> 『도전자』의 반항아 청년 백훈은 아버지의 훗카이도 탄광 징집 이래 겪은 차별 그리고 일본인 계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권투로 표출한다.<sup>29</sup> 『폭탄아』의 주인공 탄아는 독립군이던 아버지의 유지를 뒤늦게 이어 독립군 밀정으로 활약하며 일본의 민주 침탈 작전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

두 만화의 의의는 주로 항일과 애국이라는 반인 애국주의적 차원에서 주목되어 왔다.<sup>30</sup> 단행본에 수록된 독자 편지<sup>31</sup>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는 당대

26 패전 후부터 1960년대 초중반 일본 서브컬처 특히 만화산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정현숙, 『일본만화의 사회학 - 만화사적 접근을 통해 본 경쟁력의 기반』, 문학과학지성사, 2004, 특히 24-36 · 78-80쪽 참조.

27 1960년대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만주활극 등의 대중물의 문화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정은경, 「만주활극의 영웅들 - 시대를 횡단하는 대중무의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5-42쪽. 같은 시기 재일과 ‘일본인 처’ 문제에 대한 서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조은애 · 박광현, 「‘일본인 처’라는 기호: 남북일 국민 서사에서의 비가시화와 이동의 현재성」, 『동악어문학』 87, 동악어문학회, 2022, 99-134쪽 참조.

28 박인하 편, 앞의 책, 182-183쪽 참조.

29 『도전자』의 주인공 백훈의 자세한 성장 과정은 박기정, 『도전자 제4권』, 바다출판사, 2005, 96~106쪽 참조.

30 『도전자』와 『폭탄아』에 대한 만화(학)계의 이러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는 박인하, 「신파성을 걷어낸 자리에서 새로운 만화의 서사를 만들다」, 박기정, 『폭탄아 제1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 435쪽 참조.

31 “선생님께서서 아무 일 없이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바람도 쐬어야죠.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잘 해내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선생님 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고 느낀 점을 적을까 합니다. **선생님 책은 내용이 전부 애국적이고 ...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군요. 선생님의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이 다 시원해집니다. 지금 세대에 훈이 같은 소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영미, 「독자살

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텍스트의 의의를 항일이나 민족주의적 차원으로 환원하는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두 만화에 대한 서사적 차원의 이해는 ‘줄거리’에 집중한 불완전한 평가인 탓이다. 두 만화가 제시한 혁신적인 대중 장르의 양식이 캐리커처, 기호화, 칸, 간격, 연속언어의 임의적 배치라는 **만화** 특유의 장르적 형식<sup>32</sup>으로 구현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시놉시스에 의지한 불완전한 해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1960년대 초중반, 박기정이 구현한 두 만화의 혁신적인 ‘서사’가 만화라는 서브컬처 양식을 바탕으로 한국적 계보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전자』와 『폭탄아』의 **만화적인 접근**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의 ‘만화적’이란 칸과 칸, 혹은 페이지 넘김의 연출과 배치를 통해 독자/관객에게 모종의 의미를 선사하는 만화 특유의 연극성 장치<sup>33</sup>를 뜻한다. “우리가 ‘만화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시각적 요소들(등장인물군, 배경군, 문자군, 칸의 배열)과 시나리오적 요소의 전체, 즉 연출을 통해 이야기 또는 메시지를, 그를 통해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는 고유의 표현방식을 의미한다.”<sup>34</sup> 나고야의 재일 권투선수의 내셔널리즘적 반향과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밀정의 활약의 만화적 접근. 이는 두 만화의 서사를 만화 매체 특유의 가능성과 한계 안에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박기정, 『도전자 제5권』, 바다출판사, 2005, 64쪽. 강조는 인용자.

<sup>32</sup> 오혁진, 『만화 형식의 역사-윌리엄 호가스에서 장 자크 상페까지』, 해피북이어, 2022, 5-6쪽 참조.

<sup>33</sup> 한상정, 『만화화의 재구성』, 이숲, 2021, 277쪽 참조.

<sup>34</sup> 위의 책, 212~213쪽. 앞으로 이어질 『도전자』와 『폭탄아』의 만화적 접근은 한상정이 정리한 만화학 장르 원론에 공감하며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칸 내부의 구성요소를, 만화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작은 단위’라는 표현을 기호학에서의 가장 작은 의미소라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만화를 의미 구성체라고 보았을 때, 문장의 단어나 음소에처럼 만화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 단위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은 커다란 성과를 불러오지는 못했다. 이러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필요하기에 칸의 구성요소들을 ‘군(群)’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칸이 포괄하고 있는 요소군으로 크게 등장인물군(주인공과 인물, 장식, 동작선 등), 배경군(시공간과 사물), 문자군(말풍선, 말배너, 효과음/효과태), 이렇게 세 영역으로 묶을 것이다. 칸의 외부에 있는 단위는 칸의 연쇄, 칸새, 단(strip), 페이지(page), 양면 페이지(double page)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책, 114쪽.

『도전자』와 『폭탄아』의 항일·애국서사는 백훈과 탄이라는 남성 청년 주인공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공통적으로 두 주인공의 민족주의는 그들이 처한 복잡한 상황 탓에 극도의 내적 갈등을 거쳐 완성된다. 백훈은 성장 과정에서 겪은 차별과 멸시로 인해 일본인을 증오와 자신을 키워준 일본인 계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한다. 탄이는 겉으로는 일본육군 장교이지만 실상은 독립군 밀정 활동을 하다가 살해당한 친부의 정체를 모른 채 독립군 토벌에 앞장서다 뒤늦게 부친의 뒤를 잇는다.

흥미로운 사안은 두 주인공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개인적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만화의 시각적 요소인 배경군과 인물군 표현에서의 전례 없는 왜색의 범람을 불가피하게 상연한다는 것이다.



〈그림 1〉 『도전자 제1권』, 62쪽.



<그림 1>은 권투선수가 되기 전 자신을 멸시하는 일본인을 제압하고 파출소로 끌려온 훈이 일본인 계모와 조우하는 장면이다. 나고야의 재일 반항아 청년 훈은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민족혼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 과정에서 훈에게 반항심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본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구현된다. 만화적 차원의 철저한 왜색화(Japanification)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의 그림은 그 일례에 불과하다. 그렇게 『도전자』의 ‘애국 서사’는 만화적 표현의 왜색화 과정을 통해 의미를 획득해 나간다. 훈은 자신의 어찌할 줄 모르는 활력과 반항심을 일본인들을 깔아뭉개는 게 허용되는 공식적인 무대인 권투 시합으로 표출한다.

권투는 백훈의 ‘민족 자존심’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권투를 통해 자신의 항일정신을 증명하고 강화하는 과정은 훈을 더더욱 집요하게 일본화된 만화적 표현의 일부로 구현하는 공정으로 나타난다. 『도전자』 후반부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숙적 오구치와의 권투 시합 편인 밑의 표지인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은 당대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최고의 인기 스포츠<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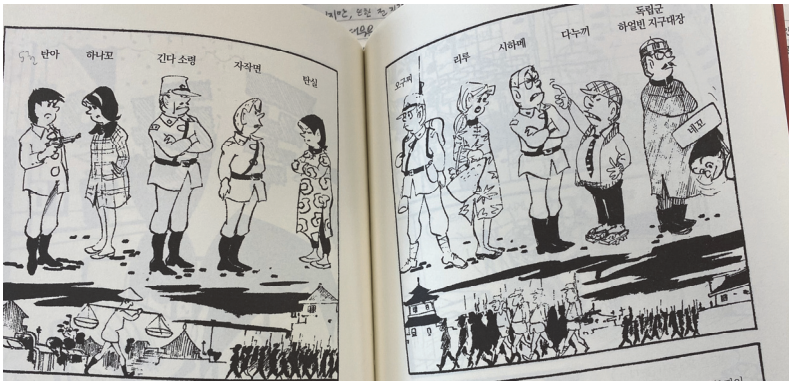


<그림 2> 『도전자 제6권』, 10쪽.

<sup>35</sup> 권투는 전후 미국화 시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대중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전후 미국화 시대 엔터테인먼트로 유입된 프로권투 특히 외국인과의 타이틀매치는 패전으로 잃어버린 민족적 자신감을 대리보충하는 특별한 위상의 스포츠였다. 권투의 대중적인 인기는 권투를 소재로 한 대중물의 범람으로 이어졌다. 데라사와 마사히루, 「전후 일본의 인기 스포츠와 내셔널리즘」, 박순애 편, 『일본 대중문화와 내셔널리즘』, 지식과교양, 2021, 336-344쪽 참조.

였던 권투 소재 만화의 주인공으로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폭탄아』 또한 유사하다. 주인공 탄아는 만주 주둔 일본육군 장교라는 설정의 인물이다. 이는 코스모폴리탄 도시였던 만주국 대도시 신경(新京)과 하얼빈을 일본군 점령하의 인물군과 배경군의 향연으로 이어진다.



〈그림 3〉 『폭탄아 제1권』, 176-177쪽.

<그림 3>은 코믹스 단행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두의 등장인물 소개란이다. 이와 같은 관습은 장기 연재에 따른 복잡한 설정과 인물 간 관계를 독자/관객의 몰입과 재미를 지속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안은 만화의 인물군과 배경군의 핵심 이미지의 일목요연한 정리일 터이다. 대다수 주요 인물군 그리고 하얼빈 한복판을 행진하는 일본군을 묘사하는 배경군은 『폭탄아』의 ‘애국 서사’가 만화적으로 구현되는 방향을 시사한다. 실제로 『폭탄아』의 주요 배경인 하얼빈 또한 밑의 그림과 같이 일본육군 주둔지와 절합된 배경군으로 제시된다.

주인공 탄아를 구현하는 설정과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탄아는 독립군 사냥의 최전선에 선 일본육군 엘리트에서 독립군 밀정으로 변신한다. 밀정으

로서 탄아의 활동은 “낮에는 사꾸라, 밤에는 무궁화”라는 자조가 시사하듯이 철저히 일본육군의 외피를 두른 일본화된 인물군으로 상연된다. 내면의 항일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일본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녹아들어야 하는, ‘이중 인간’이라는 설정 탓이다.

지금부터 『도전자』와 『폭탄아』가 상연하는 이 같은 만화적 표현과 민족주의적 서사 진술의 불일치를 **만화적 역설**이라 부르고자 한다. 『도전자』와 『폭탄아』가 공유하는 만화적 역설은 한반도 외부에 존재했던 배경과 인물 설정으로 당대 대중에게 허용된 민족주의 감각의 생산이 만화라는 특유의 장르 형식 문제와 연결된다. 주지하다시피 만화는 대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리얼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상을 상상적으로 추상하고 왜곡하는 캐리커처와 데포르메적 표현의 대중적 회화(繪畵) 양식이다. ‘만화적’인 양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장르 양식은 시대와 매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



〈그림 4〉 『폭탄아 제1권』, 66쪽.



〈그림 5〉 『폭탄아 제4권』, 336쪽.

화해 왔다. 칸과 칸의 임의적 연결을 통해 장대한 만화적 이야기를 구현하는 『도전자』와 『폭탄아』는 코믹스(comics)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6</sup> 매체적 근본이 회화인 만화 양식은 칸의 배치에서부터 인물군, 배경군, 문자군을 비롯한 만화적인 모든 사안을 생산자가 총체적으로 직접 구현함으로써만 성립한다. 『도전자』와 『폭탄아』의 만화적 역설이 구현하는 ‘서사’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작가의 의도가 담긴 철저한 의지와 시도(endavor)’의 산물이다.

『도전자』와 『폭탄아』의 항일·애국서사가 만화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새삼스러운 사안이기애 굳이 강조하는 것이 유난스럽게 읽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화로 구현된 항일·애국 서사 양식은 당대에 유사한 설정과 플롯을 문학과 영화로 구현한 양상과 차별화된다. 문자 기호로 인물 배경을 비롯한 총체적인 의미를 구현하는 문학 매체에서 민족주의를 통한 왜색 지양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만화보다 손쉽게 ‘국가 서사’로 회수되는 경향을 보인다.<sup>37</sup> 글쓰기-서사에서 배경과 인물 등의 설정은, 그것이 인쇄물 표현에 직접 새겨지는 만화와 달리, 보다 용이하게 후경화하여 문자 기호의 의미 배면에 위치되기 때문이다. 중심플롯이라 여겨지는 것을 구성하는 배경군과 인물의 디테일한 설정의 ‘문학적’ 구현은 이에 따라 만화와 같이 ‘의도와 의지의 철저한 구현’보다도 독자/관객의 임의적인 이차연상을 거쳐 이미지화된다. 만화적 역설로 구현된 항일·애국서사는 동시대 만주 활극 영화 매체

36 한상정에 따르면, 코믹스는 ‘신문 따위에 실리는 네 장면 이상의 연속만화’를 지칭한다. 만화장르의 하위 양식으로서 코믹스의 정의를 비롯한 그 외 만화의 다양한 하위장르 용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한상정, 앞의 책, 17쪽 참조.

37 『도전자』와 『폭탄아』와 동시대 왜색과 일본적인 것의 문학적 구현의 양상에 대해서는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국가적 서사의 구성과 균열』, 소명출판, 2021, 49~109쪽 참조. 여기서 ‘문학 매체를 통한 민족주의 서사의 왜색 지양이 국가 서사로 손쉽게 환원된다’는 주장은 이 글에서 만화 매체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책에서 정창훈이 탁월하게 논증하듯이, 문학 매체는, 현대문학 특유의 글쓰기의 자기지시성의 양식에 따라, 일본적인 것과 관련된 민족주의 국가서사의 구성과 분열을 유의미하게 상연한다. 같은 책, 40-45쪽 참조.

에 의한 항일·애국 서사와도 차이가 있다. 영화의 작가-생산자는 카메라 쇼트를 사용하여 피사체의 시간과 운동을 재배치하여 극에서의 서사적 의도와 의지를 관철해야 한한다. 이와 달리 항일·애국 서사의 만화적 구현은 장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 ‘손수’ 구현하여 전적인 불일치를 공공연하게 상연한다. 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내셔널리즘 ‘서사’를 표현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전자』와 『폭탄아』의 만화적 역설은 당대 한국의 내셔널리즘과 만화 매체 나아가 한국인 행위자들의 팝 문화 양식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메시지(내셔널리즘)와 이를 구성하는 표현이 전적으로 불일치하는 두 만화의 만화적 역설에는 초극가적 서브컬처(만화적) ‘공통감각’의 한국적 축적 양상과 관련된 급진적인 수행적 맥락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2) 만화적 역설이라는 수행적 전환

국지적 시공간을 규정하는 내셔널리즘 헤게모니는 서브컬처 같은 비공식적인 정보양식을 부차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배치한다.<sup>38</sup> 해방 이래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어 온 일본 대중문화의 월경이 내셔널리즘 담론으로 의해 왜색 담론이라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재구성되었던 건 이러한 맥락 때문일 터이다. 박기정이 구현한 만화적 역설은 왜색을 당대 대중문화의 새로운 표현관습이었던 한반도 외부 배경과 인물을 내셔널리즘과 동시에 회화적 시도로 상연한다. 이를 수용하는 독자/관객들은 아마도 당대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사후적 해석을 곁들여 향유(소비)했을 터이다.

<sup>38</sup> Benedict Anderson, “Nationalism, Identity, and the World-in-Motion: On the Logic of Seriality”, Phen Cheah & Bruce Robbins(eds.), *Cosmopolitic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Nation*, Minneapolis: Minesota University Press, 1998, p.117-133.

그렇다고 해서 이미 구현된 만화적 역설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해방 후 코믹스 계열 한국만화는 불확정적인 대중들의 욕망을 탈영역적으로 흡수하여 지속적으로 ‘플러스[가시화]로 바꾸는 힘’을 지닌 서브컬처 양식이다.<sup>39</sup> 일본식 만화(코믹스)가 오래도록 사회통념과 관습 심지어 이를 향유한 관객/독자의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그 의미가 사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되거나 격하<sup>40</sup>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만화를 비롯한 서브컬처 양식은 내셔널리즘과 중첩하여 상연하는 박기정과 같은 행위자들에 의해 맥락화되어 축적되어 왔다.

박기정이 구현한 만화적 역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후 내셔널리즘 헤게모니 안에서의 서브컬처 양식의 생산과 축적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의 전범이 될 수 있다. 포스트 소비에트 사회의 소비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알렉세이 유르차이 제시한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 모델을 빌려 이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일본 대중문화 수용을 허위의식의 반영으로 조망하는 ‘부인의 메커니즘’을 넘어서, 초국가적 팝 문화의 한국적 **생산**양식 모델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유르차이의 수행적 전환 모델은 의례화된(ritualized) 불가피한 진술과 구체적인 발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이 의미를 만든다는 화용적(pragmatic) 수행론에 입각한다. 그것은 선형적 주제를 전제하는 정신분석학적 모델 대신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대화 혹은 행위의 반복에 주목한다. 이는 언어가 현실을

39 “대중적인 문화는 첫째 미디어나 시장을 통한 ‘탈영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둘째 법이나 도덕이 아닌 사람들의 욕망을 발판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불확실성이나 흡수에 적합하다. 시장의 탈영역적인 움직임은 때로 사람들의 취미나 세대, 국적 등 커뮤니티를 크게 넘어서는 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욕망에 근거한 서브컬처는 때로 처음이 의도나 설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브컬처의 힘이란 ‘불확정적인 것을 플러스로 바꾸는 힘’에 있다.” 후쿠시마 료타, 김정복 역, 『신화가 생각한다 - 네트워크 사회의 문화론』, 기역, 2014, 23쪽.

40 해방 후 특히 박정희 정부 이래 극심해진 일본식 코믹스 계열 만화에 대한 각종 격하와 배제의 역사에 대해서는 최열, 『한국 만화의 역사』, 열화당, 1995, 105-161쪽 참조.

묘사하거나 의미의 사실 여부를 제시하는 진술적 발화(constative utterance) 그리고 의미를 변화시키는 역량인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혹은 수행적인 것의 총합이라는 언어학자 오스틴의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sup>41</sup> 오스틴은 화자의 언어가 현실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은 의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맥락에서 적절한 언어관습 즉 의례화된 관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법정에 선 개인의 선서를 예시로 설명한다. 법정에 선 개인의 선서와 같은 발화 행위는 이를 실행하는 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법정이라는 적절한 맥락에서 힘을 발휘한다. 선서 이후 개인의 진술은 법체계 안에서 진위 여부를 진술자의 의도를 초과하여 활성화된다.<sup>42</sup>

여기서 핵심은 수행적인 것의 성패는 의도가 아니라 발화 행위의 (적절한) 관례에 달려 있다는 데 있다. 유르착은 이러한 오스틴 이론의 핵심 논제에 담긴 문제의식을 데리다와 부르디외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경유하여 다음과 같이 확장한다.

오스틴의 이론을 둘러싼 데리다와 부르디외의 비판적 독해를 종합하면, 발화 행위의 수행적 힘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가 외적인 사회적 맥락과 제도들의 위임된 권력이라면, 두 번째는 새로운 맥락들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의미와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담론의 기호적 힘이다. 엄격하게 통제된 제도적 맥락들 속에서조차 발화 행위가 의미를 지니며 의도치 않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행적 힘의 이 두 가지—즉 사회적 그리고 기호적—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주디서 버틀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물의 가능성이야말로 “수행적인 것이 정치적 가능성, 즉 수행적인 것을 정치적 헤게모니의 중심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성한다.<sup>43</sup>

<sup>41</sup> 존 오스틴, 김영진 역,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서광사, 1992, 151-152쪽 참조.

<sup>42</sup> 위의 책, 40-42쪽 참조.

유르작은 부르디외에게서 발화 행위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관례를 사회적 권력과 수행의 문제로 사고하는 법을 받아들인다. 데리다에게서는 특정한 발화 행위가 코드화되거나 반복될 수 있음(iterable)으로써 인용가능성(citability)과 비결정성(indeterminacy)의 새로운 진술로 향하는 수행적 힘을 획득한다는 주장을 수용한다.<sup>44</sup> 그리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 권위와 권력의 의례화된 관례를 반복하는 것이 “수행적 차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진술적 차원이 새로운 의미들로 열리게 되는 상황”<sup>45</sup>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유르작은 이를 바탕으로, 행위들의 진술적 차원이 점차 결말이 열린, 비결정적인, 혹은 그저 부적절한 것으로 경도되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후기 소비에트 시대 문화적 생산 과정<sup>46</sup>을 설명할 대안적 모델을 제안한다.

형식의 복제를 향한 강조가 늘어남에 따라, 구체적인 텍스트와 표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갖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졌다. 의미는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미끌어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러한 담론은 …(중략)… 수행적 전환을 겪고 있었다. 담론의 수행적 차원(관례화되고 의례화된 형식들의 재생산)이 진술적 차원(이러한 형식들로부터 연상될 수 있는 진술적 의미들)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이런 방식의 텍스트 생산에 기초를 놓는 언어의 암묵적인 모델은, 이른바 언어의 “화용론적 모델”에 더 가깝게 향해가고 있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동일한 텍스트는 다른 맥락과 텍

43 알렉세이 유르작, 김수환 역,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문학과지성사, 2019, 47-48쪽.

44 위의 책, 46-47쪽 참조. 유르작이 참고한 부르디외와 데리다의 오스틴 수행성 이론 비평 문헌은 각각 다음과 같다. 피에르 부르디외, 김현경 역,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출판, 2014; Jacques Derrida, “Signature event context”, *LIMITED INC*,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pp.1-25 참조.

45 알렉세이 유르작, 위의 책, 53쪽.

46 위의 책, 57쪽.



트 들에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복수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동일한 문구도 서로 다른 독해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sup>47</sup>

권위적 언어와 담론의 헤게모니를 피해갈 수 없는 소비에트 인민들은 복제되는 정치적 구호와 언어의 진술적 의미의 ‘사실’여부가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는 사태를 마주한다. 이는 권위적 담론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그저 권위적 담론을 반복적인 관례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례화된 진술을 특정 상황에서 반복하는 ‘충실한 인민’의 수행과정은 역설적으로 갈수록 상황과 진술의 간극을 동시에 상연하는 양태로 비화된다.<sup>48</sup> 소비에트 체제가 국내외적으로 점차 무너져가면서 이는 견잡을 수 없이 인민문화 전반에 걸쳐 반복되다가 소비에트 붕괴 이후 전면에 드러난다. 유르차은 이러한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 문화 과정을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이라 명명한다.<sup>49</sup>

유르차의 수행적 전환 모델은 『도전자』와 『폭탄아』의 만화적 역설을 구현한 박기정의 수행성을 이해하는데도 유의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박정희 정권 초창기 왜색 담론은 ‘금지하는 명령’ 자체에 의지했다. 한국 사회에 횡행했던 왜색 담론의 의미를 구획했던 반일(항일) 내셔널리즘이 갈수록

<sup>47</sup> 앞의 책, 108쪽.

<sup>48</sup> “실상은 권위적 언어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피해갈 수 없으며 고도로 규범화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청중은 그것을 진술적 의미로서 문자 그대로 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진술이 ‘사실’을 재현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 그 대신에 소비에트 인민은 권위적 언어를 업슈테인이 무시했던 수행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위의 책, 147쪽.

<sup>49</sup> “권위적 담론 형식의 재생산은 소비에트 현실의 강력한 구성요소가 되었지만, 더 이상 그 현실을 묘사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즉 그것은 소비에트인이 된다는 것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만들어냈지만, 더 이상 소비에트 자체를 묘사하지는 않았다. 결국 권위적 담론은 그것의 의례화된 재생산과 순환을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삶의 방식, 의미, 관심사, 관계 공동체 등이 후기 사회주의 일상 어디에서나 분출돼 나올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것들은 권위적 담론에 의해 완전하게 묘사되지도 결정되지도 않았다. 수행적 전환의 소비에트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내적 불일치들의 생산은 후기 사회주의 시기의 모든 실천을 위한 중심 원칙이 되었다.” 위의 책, 534쪽.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점차 관례화된 진술이 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당대의 한국인들은 관례화된 ‘반일’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충실한 민족 주체’를 적절한 시공간 안에서 상연해나갔다. 그들의 수행은 반일이나 내셔널리즘의 구체적인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갈수록 ‘내셔널리즘을 수행한다’는 문화적 의례 참여로 비화됐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발 팝 문화는 경계 없는 연속성의 양식으로서 끊임없이 유입됐다. ‘충실한 민족 주체’를 상연하는 개별 한국인 행위자들이 일본 대중문화의 범람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왜색금지가 관례화된 진술로서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적인 것과의 문화적 접촉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상황은 진술적 의미와 상황의 간극을 동시에 반복하는 양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당대 반일 내셔널리즘의 진술적 의미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이 아니라, ‘반일을 한다’는 관례화된 수행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양상으로 전환되어 감을 의미한다. 그렇게 그저 진술함으로써 유지되는 내셔널리즘 수행성은 구체적인 진술과 내용의 차원과 갈수록 이격하여 점차 비결정적인 것으로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진술적 차원을 획득해 나간다.

『도전자』와 『폭탄아』의 만화적 역설은 서브컬처 영역에서 발생한 수행적 전환의 주목할 만한 일례이다. 두 만화는 만화 특유의 구체적인 표현에서 철저한 왜색을 의식적으로 구현하면서 진술적 차원에서 관례화된 항일 내셔널리즘을 화행적으로 수행한다. 그 안에서 내셔널리즘이라는 진술적 차원은 이를 전적으로 배반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상황적 진술과 동시에 상연된다. 이때 내셔널리즘은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저 의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된다는 사실로서만 중요해진다.

항일 내셔널리즘이라는 문화적 관례를 ‘적절한 맥락으로’ 진술함으로써 만화적 표현의 위반적 성격을 공공연하게 상연하는 박기정의 만화적 역설은 박정희 정권 초창기 한국인 행위-생산자에 의한 왜색 담론의 수행적 전환과

맞닿아 있다. 이는 일본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왜색 혹은 반민족적 표현의 차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셔널리즘을 관례적으로 적절하게 진술하는 다양한 기법<sup>50</sup>을 병행하는 또 다른 수행적 전환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박기정이 구현한 만화적 역설에 나타난 내셔널리즘과 왜색의 불협화음은 점차 한국사회 안에서 왜색문화를 비롯한 초국가적 팝 문화가 내셔널리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식으로 ‘해소’되어 갔다.

이러한 문화 과정은 1965년 전후를 기점으로 이루어진 한일 양국 관계의 점진적 변화부터 탈냉전 시대로의 도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한국 팝 문화의 수행적 전환 모델이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그것과 상이한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형성됐음을 암시한다. 한국 팝 문화의 수행적 전환은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의 그것 같은 갑작스러운 **파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후체제라는 견고한 초국가적 체제가 **지속**되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졌다.

#### 4. 결론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은 문화·사회·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민족국가 간 경쟁과 갈등에 예속되어 있다. 현재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들이 민족국가 체제를 넘어선 대안적 공동체를 전망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 같지 않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여러 논자들은 동아시아 현대 ‘동아시아의 공통언어’로서 동아시아 각국을 월경하는 팝 문화에 주목했다.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서브컬처는 갈수록 많은 논자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양상으로

<sup>50</sup> 이를테면 배경과 인물의 한국화, 트레이싱을 통한 원작자 바뀌치기, 지나친 왜색 이를테면 기모노나 일장기 같은 배경 삭제 같은 기술을 지칭한다.

전개되는 중이다. 자국의 서브컬처를 소프트 파워로 동원하는 일본의 지속적인 국가 브랜드화 전략(쿨 재팬), 점차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류의 ‘K-브랜드화’, 한국 아이돌 문화기술 산업을 내셔널리즘 통치에 직접적으로 동원하는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새롭게 고찰하기 위한 시론적 모델을 탐구하는 일환으로 쓰여졌다. 이를 위해 박정희 시대 왜색 담론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 착근한 초창기 팝 문화의 생산물인 『도전자』와 『폭탄아』에 주목했다. 두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화적 역설은 당대의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면서 일본적인 것을 공공연하게 상연하는 시도였다. 그것은 구체적인 지식이나 담론으로서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서브컬처를 관찰하기 위한 의례로 내셔널리즘적 수행성을 전환하는 문화 과정을 상연한다. 만화적 역설을 구현하는 수행적 전환은 내셔널리즘이 지배하는 시공간에 위반적인 팝 문화 양식이었던 왜색 코믹스를 ‘적절한’ 맥락으로 안착시켰다. 그리고 이는 이전에는 없던 만화적 표현의 새로운 진술을 생산했다. 그것은 일본적인 것이 문화적 명령으로 작동하던 박정희 정권 초창기는 일본발 서브컬처와 관련된 개별 행위자들의 수행이 본격적인 국지적인 축적으로 맥락화되기 시작한 때였다. 『도전자』와 『폭탄아』의 전례 없는 만화적 역설이 한일국교정상화를 목전에 둔 1964년에 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일회담은 박정희 정권 주도로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위치조정의 분기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식민지배상급, 직후 추진한 베트남 파병으로 획득한 막대한 외화를 대기업에 일정 규모의 자본축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sup>51</sup> 오늘날 초국적 대기업 위주 경제체제를 있게 한 시초축적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의 초창기 산업화 과정은 이에 동기화된 물질문화의 지속적인 변형과정

51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2006 참조.

의 초창기에 해당한다. 국가-자본의 본격적인 시초축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박기정의 만화적 역설과 같은 서브컬처 영역에서의 수행적 전환은 그에 걸맞게 물질문화를 변형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양식의 일환이기도 했다.

박기정의 만화적 역설이 시사하는 만화적 역설의 수행성은 이후 세계 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한국식 국가-자본 체제의 장기적인 전환과정과 함께 형태를 바꾸며 지속됐다. 『도전자』와 『폭탄아』 이후 박기정의 행보가 이를 암시한다. 그는 1968년 오늘날 한국만화 협회의 모체인 한국아동만화가 협회 창립 멤버로서 초대 및 3대 회장을 역임했다.<sup>52</sup> ‘만화가들의 복지향상과 만화에 덧씌워진 불량의 너울을 벗어나자’는 모토로 설립된 한국 아동만화가 협회는 일본만화 표절 관습과 수준 미달의 저질만화 척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화가 심사제도를 고안했다.<sup>53</sup> 한국 만화계의 ‘정화’를 모토로 행해진 박기정 주도의 ‘공익활동’은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만화 베끼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저질만화’는 양적으로 더욱 공공연하게 생산됐다.<sup>54</sup> 박기정의 협회 창립과 제반 활동을 실패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실 만화계에 가해진 극심한 사회적 압박에 대한 서브컬처 행위-생산자의 선도적인 대응이었기 때문이다.<sup>55</sup> 한국 아동만화가 협회에서 제정한 자체 심의 기준은 국가 차원의 도덕을 제도라는 의례의 차원에서 반복함으로써 만화 양식을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에 적절하게 관철하는 **수행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52 서은영, 『박기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viii~ix쪽 참조.

53 위의 책, 14쪽 참조.

54 이 시대의 단면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허인옥 외, 『클로버문고의 향수 1972~198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참조.

55 박기정을 중심으로 한 초창기 한국 아동만화가협회 설립취지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서은영, 앞의 책, 11-13쪽 참조.

56 후속 연구에서 박기정의 만화적 역설에 나타난 수행적 전환과 1960년대 후반 이후 각종 ‘공익활동’의 관계를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박기정이 주도한 만화가 협회 창립을 비롯한 만화 공익성의 제도화 노력은 권위적 언어와 담론의 해계모니를 피해갈 수 없는 가운데, 의례적인 도덕담론과 만화적 표현의 간극의 상연(수행적 전환)을 효율적으로 맥락화하는 내셔널리즘 담론에 입각한 (재)배치 테크놀로지 장치였다. 해방 후 한국 사회로 유입된 대중문화 양식은 내셔널리즘을 수행하는 여러 팝 문화 장르와 매체의 행위-생산자들에 의한 시초축적 그리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각종 의례화 단계의 테크놀로지를 거쳐 국지적인 ‘공통감각’으로 축적됐다. 박정희 정권 초창기 전례 없는 만화적 역설을 상연한 이후 ‘시대의 부름’에 제도적으로 응답한 박기정은 한국 서브컬처의 시초축적 단계 전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생산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단순히 한국 서브컬처의 일단만을 환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초국가적 대중문화·서브컬처의 공통감이 통상적인 인식처럼 탈냉전 이후 소비·상업자본주의 시대에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님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팝 문화 씬은 국가-자본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변환한 물질문화의 가장 역동적인 수행적 전환의 영역인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서브컬처를 경유한 초국가적 ‘공통감각’은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 내셔널리즘의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박기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내셔널리즘과 서브컬처는 동아시아 전후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적인 변환 과정 속에서 겹고틀며 공존해왔다.

이는 팝 문화에 대한 국가나 선험적 민족주체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해방 이래 한국인 행위자들은 권위적 내셔널리즘과 경직된 문화관습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도 보다 욕망에 가닿아 있으면서 유연한 팝 문화적 표현을 끊임없이 관철해나갔다. 박기정의 만화적 역설은 지금보다 훨씬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관습과 내셔널리즘이 지배하는 가운데서도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들은 경계 없는 연속성의 정보 양식으로 유입

되는 서브컬처를 비롯한 각종 팝 문화와 함께 냉전과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견뎌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팝 문화와 관련된 일체의 수행성은 오늘에 이르러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은 물질문화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한국 팝 문화의 시초축적(primitive accumulation)에 일조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일차자료

- 박기정, 『도전자』 제1~5권, 바다출판사, 2005.  
\_\_\_\_\_, 『폭탄아』 제1~8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

### 국내저서

- 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2006.  
김성민, 『일본을 금하다 - 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7.  
박순애 편, 『일본 대중문화와 내셔널리즘』, 지식과교양, 2021.  
박인하 편, 『박기정의 카툰 & 캐리커처』, 예경, 2005.  
서은영, 『박기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오현진, 『만화형식의 역사 - 윌리엄 호가스에서 장 자크 샹페까지』, 해피북미디어, 2022.  
임현진 · 장명구 편저, 『동아시아 대중문화소비의 새로운 흐름』, 나남, 2013.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국가적 서사의 구성과 균열』, 소명출판, 2021.  
정현숙, 『일본만화의 사회학 - 만화사적 접근을 통해 본 경쟁력의 기반』, 문학과지성사, 2004.  
최 열, 『한국 만화의 역사』, 열화당, 1995.  
한상정, 『만화학의 재구성』, 이숲, 2021.  
허인옥 외, 『클로버문고의 향수 1972~198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 논문

- 정은경, 「만주할국의 영웅들 - 시대를 횡단하는 대중무의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5-42쪽.  
정창훈, 「일본적인 것, 혹은 금지된 '소리'의 계보 - 한일국교정상화 성립기 '왜색' 비판담론과 양의성의 정치미학」,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9, 349-392쪽.  
조은애 · 박광현, 「'일본인 차'라는 기호: 남북일 국민 서사에서의 비가시화와 이동의 현재성」, 『동악어문학』 87, 동악어문학회, 2022, 99-134쪽.

### 번역서

- 마루카와 테쓰시, 장세진 역,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머북스, 2010.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안나 프로이트, 김건중 역, 『자아와 방어기제』, 열린책들, 2015.

알렉세이 유르차, 김수환 역,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문학과지성사, 2019.

오사와 마사치, 김선화 역, 『내셔널리즘의 역설 - 상상의 공동체에서 오타쿠까지』, 어문학사, 2014.

이와부치 고이치, 하라타 유키에 · 전오경 역,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 일본, 그 초국가적 욕망』, 또 하나의문화, 2004.

존 오스틴, 김영진 역,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서광사, 1992.

프레드릭 제임슨, 임경규 역,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 자본주의 문화논리』, 문학과지성사, 2022.

피에르 부르디외, 김현경 역,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출판, 2014.

페터 슬로터다이크, 박미애 · 이진우 역, 『냉소적 이상 비판 1』, 예코리브르, 2005.

후쿠시마 료타, 김정복 역, 『신화가 생각한다 - 네트워크 사회의 문화론』, 기억, 2014.

## 국외저서

福嶋亮大 · 張曉曙, 『辺境の思想: 日本と香港で考える』, 東京: 文藝春秋, 2018.

Jacques Derrida, *LIMITED INC*,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Phen Cheah & Bruce Robbins(eds.), *Cosmopolitic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Nation*, Mineapolis: Minesota University Press, 1998.

Shih Shu-mei etc.(e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 Preliminary Note for the East Asian Perspective of Korean Subculture Studies

Focusing on the *Dojeonja* and *Poktan-a* by *Park-kijeong*

Yoon, Jaemin | Wonkwang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wo epic manga works from the early period of *Park-Jeongbee's* regime, *Dojeonja* and *Poktan-a*(1964) as a preliminary to a more fundamental examination of Korean pop culture, which aims at East Asian perspective today. These two comics are considered to have provided the prototype for the masterplot of the Korean subcultural narrative of 'overcoming' the colonial experience, the so-called anti-Japanese motif. Ironically, the anti-Japanese nationalism of both manga comically stages a proliferation of Japanese imagery that seems wholly at odds with the nationalism of the time. This contradictions, which aims to represent nationalism but is cartoonishly at odds with it, is interestingly suggestive of the cultivation and accumulation of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 subcultures in the postwar period, which were maintained in an exclusive discourse, called 'the Japanese'. This article attempts to elucidate this mode of accumulation as a cultural process through which transnational pop culture is locally contextualized and produced, with reference to Alexei Yurchak's concept of performative shift.

**Key words** : East Asian pop culture, Subculture, The Japanese, Nationalism, Comical contradictions, Comics(manga), Performative shift, *Park-Kijeong*

논문접수일: 2023.03.15 심사기간: 2023.03.29~04.10 게재확정일: 2023.04.12.

## 개화기 만주에서의 한글성경 번역과 문화 변동\*

1887년 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훈\*\*

1. 서론
2. 존 로스본 성경 한역의 배경과 전개
3. 존 로스본 성경 번역에서의 한글 활용 실태
4. 존 로스본 한글성경 번역과 문화변동
5. 결론

### | 국문초록 |

근대의 시발은 번역과 함께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 정신과 문물에 대한 자국 이입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새롭게 떠오르는 종교 사상에 대한 이입이었다. 성경 번역이란 작업은 이를 통해서 자국문화와 타문화가 언어를 매개로 서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단지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사상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한반도에서는 한글과 한문이라는 두 개의 언어가 동시에 통용되었다. 전자는 구어적이고 서민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언어였다. 반면 후자는 귀족적인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언어였다. 그러므로 서구 정신 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되는 것은 서구문명의 중국화 과정인 동시에 한국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8S1A5A2A03039195).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의 과정이었다. 구한말 전통적인 모화사상으로부터 탈피하여 민족적 독립의 의지를 고취하고자 시도하였던 제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족의 글, 한글’에 자각이 이루어진다. 이같은 자각을 더욱 진전시킨 것은 성경의 전래와 그 번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경의 번역과 보급은 일차적으로 언어 생활의 중심 이동인 동시에 이를 매개로한 문화적 혁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글 성경 번역과 그 보급은 전통적인 귀족중심의 한문문화 층으로부터 한글 중심의 서민문화 계층으로 그 중심성이 이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만주라는 지역성을 통해 가능했다. 스코틀랜드성서공회를 통해 존 로스는 1887년 최초 한글 번역 성경 『예수성교전서』를 출판, 보급에 앞장섰다. 그를 도와 함께 했던 한인 조력자들은 이후 만주 지역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종교 사상과 문물의 이식에 앞장섰다. 20세기 초 국권 상실기에 한반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주와 독립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로스역 최초 한글번역성경은 한반도에 근대를 촉발하는 중요한 매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스가 시도하였던 성경 번역은 당대 민중을 보듬는 민중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그 민중들이 장차 의식화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소유한 한 개개인의 역량으로 자라나는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로스역 성경에서의 번역 원칙, 기점어보다 목표어를 중시했던 정신적 배경,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적 변동의 제 과정과 그 의의는 현대적 상황 속의 우리들의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 번역, 문화 변동, 만주의 지역성, 등가적 번역, 한글 중심 문화, 근대로의 이행

## 1. 서론

개화기 한글 번역작업<sup>1</sup>은 한국 근대정신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근대까지의 한국의 문화는 ‘습합(習合)’적 특성을 지니고 발전해왔다.<sup>2</sup> 특히,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으며 문명과 문화의 강대국들과 이웃하고 있다. 아시아 문명의 한 중심축인 중국 문명이 북·서 쪽에, 동유럽 문명의 한 축인 러시아가 북쪽에 위치한다. 한때 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몽골도 북쪽에 자리한다. 동아시아의 또 하나 해양세력 축인 일본은 동쪽에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한반도의 서구 근대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 ‘제국주의’ 시대, 근대 서구 열강의 아시아 진출의 일차 관심은 동 아시아 중국과 일본이었다. 한반도는 이 두 나라의 교두보로 서구인들에게 인식되었다. 한반도에 유입되는 서구문명은 중국과 일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대 조선의 문화, 정치적 요소는 다분히 중국과 밀착되어 있었다. 한반도의 문화 정체성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한자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소위 ‘중화(中華)적 한반도 문화 생태’이다. 19세기 후반을 전후해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였다. 바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서구 문화가 그것이다.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 자력 혹은 타력에 의해 유입된 서구 근대 문명을 재빠르게 수용했다. 근대화된 기술 문명과 군사력을 토대로 일본은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된다.

<sup>1</sup> 번역은 광의적으로 ‘문화변이’내지 ‘문화변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폴 리콤프(저)/윤성우·이향(역), 『번역론 - 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35쪽.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된 문화는 본디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지역의 문화란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서 지속적으로 변형 생성되는 형태를 지닌다. Guy G. Stroumsa, “R. J. Zwi Werblowsky: The Spark of Comparative Religion (1924-2015),” *Numen* 63, 2016, pp.1-5.

<sup>2</sup> 이상훈, 『신학적 문화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예영, 2005, 71쪽. 보편적으로 여러 종교학자들이 소위 “한국 문화의 독특성”을 습합과 회통의 역동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 문화 만이 아닌 모든 특정 지역의 문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습합과 회통의 역동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에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적 지평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바로 서구 문화 속의 핵심 종교인 기독교가 한반도에 유입된 사건이다. 기독교의 전래는 여타 지역과 비교해 한반도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있다. 다른 어떤 피선교지보다 한반도에서 성경의 번역과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근대의 시발은 번역으로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성경 번역 작업을 통해 자국문화와 타문화가 언어를 매개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문화, 언어, 사상의 습합과 회통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당대 한반도에서는 한문과 한글이라는 두 개의 언어가 동시에 통용되었다. 전자는 문어적이며 귀족적인 정신세계를, 후자는 구어적이고 서민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언어였다. 그러므로 서구 정신 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성경이 한문,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는 것은 서구문명의 중국화 과정인 동시에 한국화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한편, 한말 전통적인 모화사상으로부터 탈피하여 민족 독립의 의지를 고취하려는 제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족의 글, 한글’에 대한 애착이 고양되었다. 이 와중에 서구를 통해 소개된 핵심 종교인 기독교와 그 기독교의 모태를 이루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여러 루트를 통해 당대 민중들에게 보급되기에 이른다. 특별히 번역주의의 모태가 되는 번역의 이유와 목적 의식이 분명했던 개화기 서양 선교사들에게 ‘민중의 글, 한글’은 당대 지식 계층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한문보다 더 효과적이며 탁월한 목표어로 인식되었다.<sup>3</sup> 결과, 다음과 같은 문화변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먼저 한글 성경 번역과 그 보급은 전통적인 귀족중심의 한문문화 층으로부터 한글 중심의 서민문화 계층으로 그 중심성을 내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주로 구어의 활용에 머무르던 한글이 고도의 지성과 사상을 나르는 새로운 중심 문어로 그 자리를 잡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있는 문화변동 현상이 초창기 한글

<sup>3</sup>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서울: 소명, 2010, 66-86쪽.

성경 번역본들 중, 특히 존 로스를 중심으로 1887년에 출판된 『예수성경전서』의 번역과 보급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존 로스본 성경 한역의 배경과 전개

### (1) 존 로스본 성경 한역의 배경

성경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최초로 한반도에 유입되었을까? 개신교의 전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세기 후반 보다 거의 1세기 앞서 한반도에 서학 혹은 서교의 전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천주교’로 소개된 당시의 로마 카톨릭교는 그 전교의 핵심이 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예전의 집례’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이로 인해 예전에 도움이 되는 전례집이나 교리문답서 등의 출간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성경 자체의 번역에 대하여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개신교 초기 기원’에 관한 글의 기고문을 통해 오문환은 한국 기독교의 시발점을 1866년 신미양요<sup>4</sup>의 촉발점이 된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66)목사의 사례에서 찾고 있다. 오문환은 토마스 목사가 이전에 1차로 조선의 서해 도서(島嶼)들을 탐방하여 문서선교를 시도했던 경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바, 2차로 제너럴셔먼호에 승선하여 선교를 위해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한다.<sup>5</sup> 그런데 여기서 토마스가 한반도에 유입시키고자 했던 문서가 바로 중국어 성경이었다는 것

<sup>4</sup> 양요(洋擾), 박해(迫害), 교난(敎難)이라는 어휘가 같은 의미로 중첩되어 사용된다. 종교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교난이란 말이, 서구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박해라는 말이, 일반 한국사 기술에서는 양요라는 말로 쓰인다.

<sup>5</sup> M. W. Oh, *op. cit.*, pp.100-04.

에 주목해야 한다. 토마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당대 한반도에 정착된 문화의 뿌리를 중국어와의 관련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당대 서구인들 눈에 ‘중국어는 곧 한국인들의 언어’라는 인식이 존재했다.<sup>6</sup> 토마스에 앞서 독일 국적의 순회 선교사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utzlaff, 1803~51)는 1832년 한국 서해안 지역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주기도문을 번역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 국왕 순종에게 접근하여 성경을 헌상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토마스의 경우처럼 귀츨라프도 중국어 성경을 당시 조선의 권부에 있는 이들에게 배포하려고 하였다. 이는 중화문화권과 한반도문화권의 명확한 구분이 귀츨라프에게도 없었음을 보여준다.<sup>7</sup> 토마스와 귀츨라프는 공인된 최초의 한글 성경의 번역책임자인 존 로스가 활동하기 이전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로스보다 앞서서 한국에 성경 보급을 통하여 기독교를 소개하려한 인물들이다. 주목할 사실은 이들이 중국어 성경을 전달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그들이 우선 접근했던 언어가 중국어였고 조선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 성경은 중국어 번역본들 뿐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서구인들의 눈에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의 아류라는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당대 근동의 거대 제국의 그늘 아래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하다.<sup>8</sup> 고대 이스라엘이 당대 근동의 제국의 문화에 영향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이 중국어 번역물에 대한 자신들의 독특한 해석이 중국의 문화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타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재해석하려는 노

<sup>6</sup> M. W. Oh, *op. cit.*, pp.119-23. 오문환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가지는 당대 조선인들에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정확한 구분이 없었다는 점이다.

<sup>7</sup> 리진호, 『한국성서 백년사 I』, 대한기독교서회, 1996, 62-84쪽. 화란선교회 소속의 독일인 선교사인 귀츨라프는 충청도 고대도에 와서 약 한달간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하였다. 그는 현지인의 도움을 얻어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정확한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었다.

<sup>8</sup> 엄원식, 『히브리서와 고대근동문학의 비교연구』, 한들, 2000.



력을 지속해 왔다. 번역과 해석을 통하여 다른 문화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재구성하고 새롭게 하는 현상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은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로스의 번역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고찰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로스본의 번역에는 무엇을 번역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등, 당대 일본 열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번역주의 정신’이 잘 보여지기 때문이다.

선교사로서 존 로스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반도 문화 밖의 ‘외부자’로서 존 로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그의 번역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신념이 로스로 하여금 목표어로서 한글을 선택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sup>9</sup> 한문성경이 아닌 외부자로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하여 준 사건이 있었다. 영국군인 맥스웰(Murray Maxwell)과 바질 홀(Basil Hall)은 순조 16년 1816년에 서해안에 리라(Lyra)라는 배를 몰고 출현했다. 홀은 10일 동안 한반도 서해안과 제주도를 둘러보았다. 이 여행을 바탕으로 홀은 『코리아 서해안과 큰 류쿠섬을 발견한 항해기』<sup>10</sup>를 출판한다. 해안에 서양의 배가 출몰하자 마량진 첨사 조대복과 비인 현감 이승열은 작은 배로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역관을 대동하였지만 이들 사이에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은 실패했다. 맥스웰 함장은 이들에게 킹 제임스 역본(King James Version, 1611) 세권을 선물로 건넨다. 영어 소통의 어려움

<sup>9</sup> 존 로스의 한글 번역 성경의 저본은 중국어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 한국 문화는 중국문화의 아류라기보다는 독립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로스가 활동한 당시의 한국의 문화는 그러하지 못했다. 최소한 서구인들의 시각에 한국은 중국문화의 한 변방이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존 로스본 한글 성경이 과연 한문 역본성경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언어 간 번역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Avigdor Shina and Yair Zakovitch, “From Gods to God: How the Bible Debunked, Suppressed, or Changed Ancient Myths and Legends”, trans. Valerie Zakovitch.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2, pp. 1-18; James Kugel, “Tradition of the Bible: A Guide to the Bible As It Was at the Start of the Common Era I”,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p.1-42.

<sup>10</sup> Murray Maxwell,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Grea Loo Choo Island”, John Murry 1818.

등으로 인해 이후 이들 성경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sup>11</sup> 이 영역본 성경은 귀츨라프나 토마스가 전하여 준 한문번역본과 상이한 것이었다.

## (2) 존 로스본 한글성경 번역의 전개

앞에서 “번역과 일본의 근대”라는 내용을 근거로 필자는 근대에 이루어졌던 번역정신의 기준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번역의 행위가 텍스트의 선별기준과 필요성 그리고 번역방법론 내지 철학 등의 총체적 국면을 포함하는 작업임을 뜻한다. 존 로스본은 이러한 근대 번역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최초의 한글 성경번역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로스본 이전의 한글 성경 번역들은 성경전체를 번역의 대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이는 귀츨라프의 주기도문 번역 등의 사례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전 구교(천주교) 지도자들이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중 일부인 1,138절을 선택적으로 번역한 사실이 있었다. 이같은 부분적 번역은 미사에 활용할 성경 본문의 확보를 위함이었다. 이원순의 지적대로 한국 천주교에서의 번역은 성경의 편린(片鱗)에 대한 번역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로스본은 중국 만주의 심양에 위치한 심양 서원에서 간행되었다. 시대적으로 로스본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한글 번역이었다. 한국 근대 역사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온 사건은 일제강점기였다. 이때 일본은 한국의 모든 종교문화의 양상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한글의 사용도 극히 제한 된다. 로스본은 일본문화의 유입이전에 발생한 한국문화 변동의 중요 양상을 보여준다. 서구의 선교정책의 측면에서 로스본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에 의해 주도된 중국내 선교사업의 일환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한국 내 성서공회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의 작업이었다.<sup>12</sup> 한편, 로스본 출판의 배경에는 영국, 미국과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

<sup>11</sup> 리진호, 위의 책, 55-62쪽.

미묘한 선교 정책의 차이가 있었다.<sup>13</sup> 미국성서공회는 1876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성경번역에 집중하였다. 초대 총무 굴릭(L. H. Gulick)의 후임자로 루미스(Henry Loomis)가 1883년에 부임한다. 루미스는 한국어 성경 번역을 일본어 성경 번역 아래 종속 부서로 설치하였다. 영국성서공회는 1860년 윌리(A. Wylie)를 필두로 하여 주로 중국어 성경 번역에 집중하였다. 동시에 터리(R. T. Turley)는 한국지역 담당자로 한국 성경 사업을 관장했다. 미국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는 당시에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들인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경번역과 배급 사업을 펼쳤다. 이와 달리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윌리엄스(A. Williams)는 일찍이 1865년에 중국을 방문한 두 명의 조선 천주교도와의 만남을 계기로 독자적으로 조선을 향한 성경보급과 번역 사업에 눈을 떴다고 고백한다.<sup>14</sup> 당시 영국선교회에서 탈퇴하여 스코틀랜드성서공회에 편입되었던 토마스 목사의 1865년과 66년의 한국 방문과 한문 성경보급도 윌리엄스의 후원 아래 이루어 졌다.<sup>15</sup> 1871년에 윌리엄스의 산동반도 선교활동은 1872년 매킨타이어와 로스가 그 곳으로 파견되는 계기가 된다.

존 로스<sup>16</sup>는 스코틀랜드의 닉(Nigg)에서 출생했다. 닉(Nigg)은 갈릭어가 구

<sup>12</sup>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35-39쪽.

<sup>13</sup> 당시 서양 선교사들에게 조선이란 나라의 위상은 극히 미미했다. 예컨대 그리피스 같은 선교사는 당 대 조선은 일본이 걸었던 근대화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그는 일본에 이미 편입된 조선이 '독립운동'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여겼다. 다만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선교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적지 않은 선교사들은 조선의 독립적 지위에 대하여 온정적이었다. William Elliot Griffis, "Address Delivered by the Rev. William Elliot Griffis, D. D., J. H. D. Author of 'Corea!, Without and Within,' 'Corea! The Hermit Nation' on April 11th, 1927",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7.1927. pp.1-14; 이덕주, 「초기 대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6호, 1997, 50-57쪽.

<sup>14</sup>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수난』, 대한성서공회, 1993, 27쪽.

<sup>15</sup> 토마스는 기본적으로 영국선교교 소속이었지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도 협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김인수,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사-순교자들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제17집, 2001, 88-106쪽.

<sup>16</sup> 로스본은 로스라는 번역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로 평가할 수 있다. 근대 서구 인문학에서 텍스트는 곧 의미가 되지 못한다. 텍스트는 여기서 번역된 텍스트들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의미는 곧 텍스트들에 대한 비평적 각독 행위가 되고 이는 곧 해석학의 탄생을 뜻한다. 폴 리코르, 위의

어로, 영어가 문어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문어는 중국어로 구어는 조선말을 사용하는 당시 한반도와 언어적 상황이 유사했다. 로스가 출생하고 자란 낙지방은 바다와 인접했고 산들이 즐비 했다. 농민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 지방에는 온갖 기독교관련 신비적 민담 내지 전설이 만연했다. 이는 로스로 하여금 후에 조선인의 언어와 종교심을 낫설지 않게 받아 들이는 배경이 되었다. 동시에 로스의 동생 캐서린(Catherin)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동역하였던 매킨타이어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sup>17</sup> 매킨타이어는 후에 중국 만주지역에서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의 동반자가 되었다.<sup>18</sup> 1860년경에 로스는 영국 에딘버러 소재 연합장로교회신학원(Edinburgh Theological Hall)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졸업과 동시에 로스는 1868년에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해외 선교부 총무 맥길(William McGill)은 로스를 중국이나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로스가 언어습득과 활용에 다른 신학생들 보다 탁월하였기 때문이다. 로스는 1872년 슈튜어트(M. A. Stewart)와 결혼하고 드디어 당시 자신이 속한 노회의 지도아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다.

로스는 산둥을 거쳐서 중국 본토 지푸(Chefoo)에서 활동하는 윌리엄스 선교사를 만나게 된다. 1873년 아내의 죽음을 뒤로하고 선교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며 중국어 학습에 열중했다. 1873년 5월 11일 로스는 최초로 중국어로 20분 설교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 13일부터 순회전도 활동을 시작한다. 이러한 순회전도 여행 가운데 중국과 조선의 접경에 위치한 고려문이란 곳에서 조선인들을 만난다. 이 고려문 순회 전도에서 로스는 조선이란 나라

책, 31쪽; Anthony C.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Eerdmans, 2009, p.31.

17 1873년에 로스는 아내를 잃는다. 첫 아들 드러몬드(Drumond)를 낳은 후 아내 슈튜어트는 소천했다. 드러몬드를 양육하기 위하여 처음에 로스는 중국인 유모를 고용한 바 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로스는 여동생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때 중국에 조카를 돌보기 위해 온 캐서린(Catherine)은 네 살 연상인 매킨타이어와 만나 결혼하게 된다. 리진호. 앞의 책, 95-6쪽.

18 최성일. 「로스본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92-112쪽.

가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재차 고려문을 방문하였을 때 로스는 조선인들에 대한 선교를 위해 한문보다 한글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1876년에 로스는 당시 국경 무역차 고려문에 거주하던 이응찬을 자신의 조선어 선생으로 고용하게 된다. 아울러 1876년을 전후하여 만주에서 로스에게 영향을 받은 네 명의 조선인들이 기독교에 입문하고 세례를 받게 된다.<sup>19</sup> 이들 수세자들의 출현은 성경번역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로스역 본은 등장한다. 성경 번역의 본 작업에 앞서 먼저 로스는 『한글 입문서』(*Corean Primer*, 1877), 『진근대 근대 한국역사』(*History of Corea, ancient and Modern* 1<sup>st</sup> Edition, 1879 and Its 2<sup>nd</sup> Edition *Corea, Its History Manners and Costoms*, 1880), 그리고 『한국어 문법과 어휘』(*Korean Speech with Grammars and Vocabulary*, 1882)를 차례로 저술, 출판한다. 또한 기독교 입문자들을 위한 성경교리 문답서로 로스는 1875년에 『예수성교문답』, 『예수성교요령』을 저술, 출판한다.

이와 같은 로스의 언어적 자질을 김정현은 제임스 레게(James Legge)와 같은 저명한 학자의 자질에 비유한 바 있다. 제임스 레게는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과 함께 옥스퍼드대학의 당대 최고의 동양학 관련 석학이었다.<sup>20</sup> 로스 번역에 참여한 조선인들은 ‘조력(助力)자’들로 표현되었다. 이들은 당대의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 직접적인 성경 번역자들로 거론되지 못했다. 이를 통해 한글 성경 번역과정에서 선교사들은 기점어 텍스트로 중국어 성경을 단지 참고의 자료로만 사용하였다고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서양인들

<sup>19</sup> 서구인들의 선교보고는 조선인 개개인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보다 많은 선교의 ‘수적’ 열매였다. 이덕주, 『한글성서 번역사 개관』, 5쪽. John Ross, “China, Manchuria Mission,”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UPMR), (1880), pp.333-34;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1971, 50쪽.

<sup>20</sup> 김정현, 『羅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계명대학교, 1982, 69-90쪽; R. T. T., “Rev. John Ross D.D., of Manchuria,” *The Korea Mission Field* 11, 1915, p.314; Anonymous, “Dr. Ross and His Labours for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2, 1916, p.336.

은 한국에서 중국어는 모국어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토마스는 중국어 성경을 조선인에게 보급하려고 했다. 로스 번역의 대상자들은 모든 조선인들이기 보다는 한문 문화권에서 소외된 독자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여성과 민중 계층으로 한문을 습득할 기회가 없는 이들이었다. 로스를 비롯한 당시 성경번역에 종사한 서구 선교사들의 한문 실력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로스는 당시 한국인들이 어떻게 한문을 읽어 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로스는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토대로 하여 당시 조력자들의 한글 번역을 교정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보건데 로스의 조력자들은 번역의 주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자발적 기독교 공동체에 한글 성경을 번역, 보급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최초의 조력자는 이응찬(?~1883)이다. 그는 의주(義州) 사람이었다. 로스가 그를 조력자로 고용한 목적은 한글의 습득을 위함이었다. 이응찬은 로스와 만남을 가진 후 기독교에 입교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로스본 번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고향 의주에 로스본을 전달하는 매서인<sup>21</sup>으로 자청했다. 로스는 다음으로 백홍준(1848~1893)과 만나게 된다. 백홍준은 1874년 만주의 고려문(高麗門)에서 로스와 매킨타이어와 조우하여 로스본 번역과 출판에 참여한다. 백홍준은 서상륜과 함께 1887년 최초로 새문안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는다. 백홍준은 마포삼열(S. A. Moffett)과 게일(J. S. Gale)의 순회전도에도 적극 협력했다. 1892년 백홍준은 평양감사 민병석에 의해 투옥되어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민병석은 백홍준이 서구인들과 긴밀하게 협력한 것과 기독교 전파에 열심을 품고 있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로스의

<sup>21</sup> 매서인은 권서인으로도 불리웠는데 이들은 새롭게 발간된 서적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 사람들에게 팔거나 나누어주었다. 한글 성경의 경우, 매서인들은 전교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조력자 중에는 몰락한 양반으로 기독교인이 된 서상륜(1848~1926)도 있었다. 맥킨타이어 목사의 도움으로 만주에서 서상륜은 앓고 있던 장티푸스에서 회복되었다. 그 후 로스 목사를 만나서 동역하게 된다.<sup>22</sup> 그는 한글 성경의 번역 뿐 아니라 출판에 관계된 기술적인 일이었던 식자(植字)와 인쇄에도 종사했다. 서상륜은 1883년 성경을 가지고 입국하던 중 체포되어 투옥되나 출옥 후 고향인 의주로 피신하였다. 새문안교회 설립인 14인 중 13인이 서상륜의 전교인 이었다. 서상륜은 백홍준과 함께 당시 최초의 새문안교회 장로로 취임했다. 백홍준은 외부인들이었던 선교사들과의 협력 사업에 보다 주력한 반면 서상륜과 그의 동생 서경조는 국내인들을 상대로 일대일 전교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황해도 송천리에 우리 민족 최초의 자생적 개신교 교회인 소래교회를 탄생시킨다. 김청송은 식자공으로 일하다가 권서인으로 만주 서간도 지방에 로스본을 전파했다. 이 외에도 김진기와 이성하라는 의주 청년들도 로스본 번역과 보급에 협력하였다.<sup>23</sup>

### 3. 존 로스본 성경 번역에서의 한글 활용 실태

김병철은 『한국근대서양문화이입사연구(西洋文學移入史研究)』에서 한국 최초의 서구문화번역의 효시로 1895년 계일의 번역서 『턴로력령』과 이동역의 『유오역전』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하여 리진호는 로스의 1882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는 위의 두 작품보다 13년이나 앞서는 한국 최초의 서양문화

<sup>22</sup> 서상륜은 장티푸스에 걸려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로스를 만났다고 기술했다. 반면 로스는 서상륜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리진호, 앞의 책, 103-04쪽.

<sup>23</sup> 현재까지 7명이 로스의 조력자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로스본의 번역과 향후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이용찬, 백홍준, 서상륜이란 세 인물이었다. Ellasue Wagner, “Through the Hermit’s Gate with Suh Sang Yun,” The Korea Mission Field 34, 1938, pp.93-5.

번역작품이라고 지목한다.<sup>24</sup> 로스본과 한글 활용의 상관관계를 논하기 전에 로스본의 시기적 번역과정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25</sup>

〈표 1〉 로스번역 시기 구분

	기간	번역자	저본 혹은 비본	내용
제 1기	1874. 가을~ 1877 여름	로스, 이응찬	Mandarin Primer	『한글 입문서』 (Corean Primer)
제 2기	1877. 여름~ 1879. 3	로스, 이응찬, 김진기	『신약전서문리』 (新約全書文理)	마태복음 - 로마서
제 3기	1879. 4~ 1881. 8	매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신약전서문리』 (新約全書文理) 헬라이어신약	신약전체 및 소책자
제 4기	1881. 9~ 1886. 가을	로스(맥킨타이어), 이응찬, 전직관린, 서상륜, 서울출신 학자들	『신약전서문리』 (新約全書文理) 개역헬라이어신약 (옥스포드판) 개역영어신약	『예수성교요령』, 『예수성교문답』, 신약수정, 『예수성교전서』

로스는 중국에 온지 삼년만인 1876년에 중국어 문법 교재인 『중국어 입문서』(Mandarin Primer)를 출판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로스는 『한글 입문서』(Corean Primer)를 준비했다. 문법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sup>26</sup>

<sup>24</sup> 김병철,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西洋文學移入史研究) 상·하』, 을유문화사, 1980. 김병철은 한국 근대 번역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구분한 바 있다. 김병철의 분류에 따르면 1895년 이전은 서양문학이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시대였다.

<sup>25</sup>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47쪽.

<sup>26</sup> 김정현, 앞의 책, 254쪽. 로스본의 구성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소개된 위의 양식에서 일부 세부 모음기호와 출판사항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밝힌다.



〈표 2〉 LESSON VII: COMPOUND

한 글	영 어
물것넌 사람 어디 잇습마	<i>moolginnun saram udi issunma.</i> Water-carring-man, where is?
네 마당에 이서 일함메	<i>de madange isu yir hamme.</i> He compound is, working.
물जू 어디 잇습마	<i>mooljoo udi issunma?</i> Master, where is?
테집안에 잇디 안습마	<i>de jivane itdi ansumma?</i> He in room is not?
이자 나갑테	<i>yija naghapde.</i> Just gone out.

외국어 학습과 번역의 필수적인 요소는 사전이다. 어쩌면 사전이 구축되는 것이 문법교재의 구성보다 우선한 일일 수도 있다. 경이롭게도 『한글 입문서』는 한영사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탄생되었다. 이 책은 1882년 수정을 거쳐 『한국어 문법과 어휘』(*Korean Speech with Grammars and Vocabulary*)로 거듭났다. 로스의 이 두 가지 문법서는 내용상 대등소이 하다. 다만 후편이 전편에 비해 보다 세분화 되고 내용은 확장되었다. 문법서는 주로 연역적 내지 귀납적인 구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성된다. 로스의 문법서의 특징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형태를 취한 점이다. 이것은 로스가 치밀하게 성경번역을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당시에 전문적인 한글 문법학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로스의 작품은 거의 최초 한글 문법서인 셈이다.<sup>27</sup> 다만 로스의 초기 한글문법 책들이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국어학자들의 견해는 수용 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가 한글 문법

<sup>27</sup> 로스의 한글문법서 편찬 이전에 달레 신부(Cladue Charles Dallet, 1829-87)는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저술을 남겼다. 파리외방정교회를 통해 1874년에 달레의 한국역사 기술이 출판된다. 달레는 한국역사서 서두에 최초로 한국어 문법의 체계를 소개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로스의 『한글 입문서』는 달레 이후 최초의 한국어 문법교재로 간주될 수 있다.

체계를 구축할 당시 한글 문법 규칙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오류들은 한글의 문법 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류 내용을 통해 공식적 한글 문법 구성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문법의 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의 언어 활용의 오류도 규정할 수 없다. 오류들의 사례가 새로운 정형적 문법의 법칙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게 된다.<sup>28</sup> 로스는 ‘직역’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자신의 문법체계를 구성했다. 그는 독자의 가독성에 우선권을 두고 한글번역에 접근했다. 또한 이미 중국어를 습득한 이후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수순을 따랐다. 이로 인해 그의 한글 번역에 중국어 표현이 빈번히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사용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 것이 로스 번역의 원칙이었다.

선교사로서 로스는 은둔의 나라 조선의 개방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번역을 시도했다. 로스가 성경 번역 이전에 한글 문법서를 먼저 저술한 의도가 분명했다. 즉 문어체적 문법 설명보다 일상의 대화, 즉 구어체 문법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자 했던 것이다. 로스는 이것이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길로 믿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역시 소리글자이다. 한문은 상형 문자이다. 결국 그림으로 글이 표현되어지는 후자는 연결어미나 단어의 파생현상이 극히 드물다. 반면 소리글자인 동시에 교착어의 특성을 가진 한글은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글의 문법적 우수성은 시제 표현과 연결어미의 발달에 있다.<sup>29</sup> 이러한 입장에서 로스의 일차적 관심은 단어의 실제적 활용에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활용이 보여주는 국어 문법의 특수

<sup>28</sup> 이용민, 「한국 기독교와 한글: 문법서 및 사전류의 편찬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기독교회사학회 국제세미나: 동아시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2016년 10월 28일); Em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Fortress, 1992, pp.11-14.

<sup>29</sup> J. MacIntyre, “Notes on the Korean Language,” The China Review 8, 1880, pp.149-156; pp. 230-34; Idem, The China Review 9, 1882, pp.28-33; pp.89-95; pp.219-223. 로스와 동역한 매킨타이어는 한국어의 조사를 ‘To’(토)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 ‘토’가 명사의 격변화, 동사의 시제와 태, 그리고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토’는 결국 영어의 ‘신텍스(syntax)’를 뜻했다.

성의 재현을 로스는 번역의 중요한 가치로 두었다.<sup>30</sup> 이를 통해 로스는 한글의 독특성을 주장했다. 그는 언어 계통 연구자는 아니었으나 영어, 중국어를 알타이어 계열어들과 한글을 비교했다. 비교된 또 다른 언어들은 만주어, 몽골어, 그리고 일본어였다. 그는 60개의 어휘와 단문을 중심으로 위의 언어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고찰했다. 여기서 로스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알타이어군들 간의 어휘적 유사성의 부재가 그것이었다. 언어의 문법원칙의 성립은 어휘의 활용에 선행하지 못한다. 한글이 알타이어로 구분되는 것은 어휘 보다는 문법 활용의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로스는 이해하였다. 로스는 한글이 문법적으로 중국어와 상이하나 알타이어 계열보다 어휘적인 면에서 보다 더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로스는 때로 어휘적인 영역에서 한국인에게 이미 익숙한 한문투의 단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다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로스는 순 한글식 표기를 한문식 표기보다 존중했다. 로스 번역에 문어적 한문이 빈번히 등장한다.<sup>31</sup> 일견 이것은 로스가 추구한 구어식 번역 원칙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사례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로스의 한글이해에 대한 오해의 소치이다. 그는 한문의 어휘적 활용이 한글의 구사에서 이미 자유롭게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로스의 당대 한글 문법 정리의 목적은 전교에 있었다. 그에게 중국어와 한글은 두 개의 언어가 아니었다. 구별된 두 개의 언어가 하나로 활용되는 현상이 바로 당대 한반도의 상황이었다. 그는 가독성이 용이한 한글을 통해 중국어 성경과 다른 평민을 위한 국역 성경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중국어 성경은 어휘 활용의 차원에서 번역시 자유롭게 참고 될 수 있었다. 이는 로스가 이해한

<sup>30</sup> John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pp.134-38; Idem, "Ross's Letter to William. Wright (1880 and 1881)".

<sup>31</sup> 송기증, 「19세기 서양인의 국어 계통론」, 『알타이학보』 12, 2002, 183-209쪽.

한글의 위상에서 드러난다. 이같은 면모는 로스가 정리한 한글 언어의 문법 규칙에 대한 유연한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문법서 개정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문법을 절대적으로 정형화 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로스의 경우처럼 집필한지 얼마 안 되는 문법서를 수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정형적인 문법 규칙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법은 언제나 공식적인 언어 활용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이같은 로스 문법서의 구성 원리는 차후 이어지는 성서 번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번역의 과정에서 문법원칙에 대한 가변적 적용이 로스본의 독특함이다. 이는 동시에 로스 역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것은 로스가 가지고 있는 한글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즉, 니다(Eugene Albert Nida, 1914~2011)가 정의하고 있는 ‘역동적 등가’의 원리가 적극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바로 로스의 번역 원칙이었던 것이다.<sup>32</sup> 로스는 처음부터 의미를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목표어인 한글을 우선시함으로 로스의 번역 원칙과 문법은 준비됐다. 형식적인 일치성보다 의미의 일치성에 집중한 역동적 등가의 원리가 로스본 번역의 원칙이 된 것이다.<sup>33</sup>

이응찬의 도움으로 한글 문법의 원칙이 정립되자 로스는 1877년에 성경 번역을 시작한다. 1877년에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름을 알 수 없는

<sup>32</sup> E. A. Nida.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rill, 1969, p.12; Idem,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Brill, 1964, p.33. 1940년대 이후로 성서번역의 원칙에 니다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는 의미의 기능을 강조했다. 번역에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니다의 입장은 언어기호의 전달보다 의미전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리를 낳았다. 그는 번역자보다 독자를, 언어 문체보다 의미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 Munday. 남원준·정연일 역, 『번역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50쪽.

<sup>33</sup> 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p.166; 이근희, 『이근희의 번역산책』, 한국문화사, 2005, 74쪽. 다양한 번역의 원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번역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텍스트의 문자에 대한 언어간 소통을 목적으로 번역은 시도되었다. 이 때 번역은 문자역(literal translation)과 자유역(free translation)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삼원적 번역의 역동이 발생하는데 바로 문자 대 문자(word for word), 의미 대 의미(sense for sense), 그리고 자유역(free)이다. Ji Youn Cho,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Ph. D. Diss., Vrije University, 2008, pp.73-86.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일부 번역되었다. 서상륜은 1878년 여름에 누가복음 번역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세례자 몇 명이 동참 하였으나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 백흥준은 매킨타이어의 추천으로 187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일부 번역에 동참했다. 로스는 이때 이루어진 번역의 초고를 수정없이 스코틀랜드성서공회에 제출하였다. 그는 성서 번역과 출판을 위한 선교후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통해 신약성서 한권 인쇄를 위한 후원금을 스코틀랜드성서공회로부터 약속 받았다.<sup>34</sup> 로스가 잠시 휴가를 떠나자 그 자리는 매킨타이어로 대신 채워졌다. 1879년 4월에서 1881년 8월까지 구약번역은 매킨타이어의 사택에서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매킨타이어는 영국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의 총무인 다이어(S. Dyer)에게 후원금을 요청했다.<sup>35</sup> 이를 기반으로 번역된 부분은 로스가 미처 초역 하지 않은 책들이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가 그것이었다. 매킨타이어도 당시 로스의 선례를 따라 이응찬을 교사로 삼아 한국어 학습에 집중했다. 이 기간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가 시도된다. 매킨타이어가 조선인들과 함께 했던 번역 초고에 대하여 그리스어 역본과 대조하는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초고 번역의 정확성을 더 높인 것이다. 아울러 2500단어의 어휘집을 편찬했다. 로스가 주도한 요한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번역 되었다. 마태복음은 4번의 재번역을 거쳤다. 매킨타이어의 눈에 최우선 출판할 만큼 번역의 완성도가 높은 책은 누가복음이었다. 1881년에 영어 성경 흠정역(King

<sup>34</sup>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49-50쪽.

<sup>35</sup> 로스가 휴가를 떠난 후 미완의 국역 성서 번역이 매킨타이어의 책임에 들어왔다. 매킨타이어의 눈에 국역 번역의 작업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스가 휴가 이전에 이룩한 번역준비 작업의 가치에 놀랐다. 이후 하루 8시간 이상 매킨타이어는 번역작업에 자신의 시간을 할당했다. 눈병이 걸려 안대를 한 상태에서도 그는 국역 번역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J. MacIntyre,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UPMR), (1880), p.279.

James Version)의 개정이 영국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흠정역 번역의 목적은 원어에 충실한 번역과 당대 독자들의 가독에 유익한 번역 문체의 확보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킨타이어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해 그리스어와 대조를 통한 축자적(verbatim) 번역<sup>36</sup>을 추구했다. 매킨타이어는 의도적으로 한문을 저본으로 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의지로 그는 모든 조력자들의 초벌 번역을 그리스어 성경과 비교하도록 했다.<sup>37</sup> 이와 동시에 매킨타이어는 가독성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로스의 뒤를 이어 그는 일반 대중을 위한 번역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11만 단어를 수록하고 있는 프랑스 신부들이 발간한 『한불증년』을 구입했다. 『한불증년』에 쓰인 용례들에 대한 학습은 매킨타이어를 서북방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타 지역의 한글 방언들에 눈뜨게 했다. 1881년 5월 말에 로스가 휴가를 마치고 만주로 복귀한다. 그해 7월까지 매킨타이어는 성경 인쇄를 위한 한글 활자를 일본의 릴리로부터 확보하는 일에 종사했다. 이후 1882년 3월에 매킨타이어는 안식년을 떠난다. 로스와 매킨타이어의 이같은 상호 교차 협력으로 1881년 9월에 심양에서 로스역 수정 및 인쇄 작업이 착수되었다.<sup>38</sup> 1882년 이후 로스는 기존 번역물의 수정을 통한 재번역에 몰두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1883년에 로스가 천명했던 번역의 원칙은 번역 자체를 위한 원칙보다 재번역과 교정의 원칙으로 보인다.<sup>39</sup> 로스의 제일 기점어 텍스트는 영어

36 축자적 번역이란 목표어의 상황에 대한 고려는 추후로 미루면서 기점어 텍스트의 단어 하나 하나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는 번역을 의미한다.

37 J. MacIntyre, "The C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UPMR) (1881), pp.665-67.

38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53쪽.

39 Sung Il Choi, pp. 117-118. 로스는 1883년부터 의주중심의 평안도 방언대신 서울 표준어로 성서번역을 하려고 하였다. 여기에도 로스의 선교의 목적이 드러난다. 그는 서울말로 인쇄되면 한국전역에 자신이 번역한 성서가 쉽게 수용되어지리라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서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자신들의 번역이 실제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이해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J. MacIntyre, "The C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pp.665-667.

성경이었던 흙정역이라고 보여진다. 그는 한문 문리역을 저본으로 한글 번역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최대한 빨리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조선의 민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그는 수용자 언어 활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이다.

#### 4. 존 로스본 한글성경 번역과 문화변동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서구 문화 신학의 대표적인 학자이다.<sup>40</sup> 그는 종교와 문화의 관계에 관하여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型式)’이라고 진단했다.<sup>41</sup> 근대 서구 문화사상에 대한 그의 이러한 지적은 적절하다. 로스역은 이러한 측면에서 만주라는 지역성의 부각과 당대 조선의 몰락이라는 사건을 동시에 투영한다. 당대의 한국인의 마음 속 문화의 핵인 궁극성의 지평에 서구 기독교 세계관의 연표를 던진다. 서구 근대 국가의 중심 개념인 시민의 탄생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개념의 배경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바있다.<sup>42</sup>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의 우주창조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 종교의 표지들로부터 인간들을 ‘섭리하고 함께하는’ 창조주의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섭리고 무서워야 할 대상으로서 고대 근동의 신개념으로부터 극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대-기독교적 신관의 가장

<sup>40</sup> 틸리히의 주된 관심은 종교 특히, 기독교 신학이었다. 개신교의 아버지인 루터의 고장에서, 서구 철학의 메카인 독일에서 자란 틸리히는 ‘문화와 신학의 상관성’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로스역이 남긴 문화적 흔적과 그 흔적에 대한 배경 이해는 중요하다.

<sup>41</sup>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42. 틸리히에게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은 종교와 문화를 실체와 형식으로 연결시킨다. 종교의 궁극점의 펼쳐진 현상이 문화가 된다. 개별 종교의 궁극성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의 의미로 변형된다.

<sup>42</sup> 권희영은 서구근대는 성과 속의 이분법적인 역사와 기독교의 삼위일체적(신인동형설) 인간관에 기인한 인간의식의 만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신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향한다. 권희영, 『한인사회주의운동연구』, 국학자료원, 1999, 379쪽.

큰 특성이 탄생한다. 진정한 종교성은 ‘들음’과 ‘믿음’이라는 인격적 경험에 기인한다는 공리가 여기에서 생겨난다.<sup>43</sup> 로스본 1883년 판에서 선택된 신에 대한 번역어는 ‘하나님’이었다. 그 이전에 1882년에는 로스의 한글식 기독교 신은 ‘하느님’이었다. 이는 로스가 특별한 의도 가운데 표기법을 바꾼 것으로 보기 어렵다. 리진호는 박창환의 견해를 받아 들어서 하느님과 하나님은 같은 단어라고 주장했다. 로스는 당시 ‘하느님’표기가 중국어 ‘상제(上帝)’ 혹은 ‘เทียน주(天主)’보다 일반 조선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언어라고 이해했다. 결국 로스의 선교와 선교지 독자의 우선성이 또 다시 번역의 신명(神名) 해석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된 것이다. 순수한 신앙인과 신을 대상으로 만나는 영성을 추구하는 선교사의 신 개념이 바로 로스의 ‘님’ 사상이었다. 한국인의 하나님 안에서 신의 대상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하나’가 아닌 ‘님’이 보다 부각된 것이다. 한편, 로스역과 한국문화와 연관된 부분으로서 지역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지역성은 단순히 로스역에 나타난 어투가 평안도 지역어라는 부분을 뛰어 넘는다. 바로 만주라는 지역적 특성이다.

만주는 당시 다양한 서양 선교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sup>44</sup> 19세기 말 서세동점시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한반도 자체에 대한 야심도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는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였다. 중국은 당시에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지만 조선은 여전히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속국으로 간주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외중에 한반도 지역은 주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

<sup>43</sup> Stephen A. Geller, “Sacred Enigmas: Literary Religion in the Hebrew Bible”, Routledge, 1996, p.47.

<sup>44</sup> Sung-Deuk Oak, “A Genealogy of Protestant Theologies of Religions in Korea, 1876-1910,” Korean Religions in Relation: Buddhism, Confucianism, Christianity, Ed. Anselm K. Mi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pp.155-187.



이 주인이 되는 지역으로 전락된다. 이러한 조선의 파국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조선인들의 발걸음을 만주로 향하게 하였다. 로스역 성경 번역은 일제에 의한 조선강제 병합 이전, 그리고 만주에 일본의 침략의 마수가 본격적으로 뻗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로스역이 이루어진 만주의 당시 상황은 역동적이었다. 17세기에 이미 조선인들이 만주에 먼저 이주하였고 한족은 생존을 위해서 18세기에 정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로스역 성경 번역이 바로 만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대 종교적 상황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 일반에 그 파급력이 확산되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로스가 시도하였던 성경 번역은 당대 민중을 보듬는 민중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그 민중들이 장차 의식화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소유한 한 개인의 역량으로 자라나는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던 것이다, 로스가 자신의 성경 번역의 원칙으로 채택한 ‘적응(degradation)’이라는 원칙은 우선적으로 다종교 상황에 최적화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후 종교의 장벽을 뛰어 넘어 한민족 전체의 정체성 속에 함께 녹아 들어갈 융합과 회통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sup>45</sup> 로스를 통해 일깨워진 만주와 만주 인근의 평안도 조선인들은 개방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갔다. 이들은 경직된 세계관 내지 국가관보다 개인적이고 실용적이며 윤리적인 종교관을 유지하였다. 이는 만주라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이 다민족 세계관을 담보하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곳에서 조선인들은 자신들만의 자생적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 만

<sup>45</sup> Mary Joo-ok Bae, “Syncretism and Its Implication in Bible Translatio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1876-1910.” Ph. D. Dis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2, p.108; 박형신, 「[요약본] 존 로스(Rev. John Ross) 선교사 시기 만주(滿洲)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106, 2014, 4-6쪽; Sung-Deuk Oak, “A Genealogy of Protestant Theologies of Religions in Korea, 1876-1910,” p.184. 옥성득도 19세기 초 서구인들의 조선 선교정책의 문화적인 배경을 적응논리로 진단했다. 19세기 말부터 공식적인 국내 선교가 시작되면서 선교사들의 조선인들에 대한 문화적인 견해는 보다 문명과 문화의 이해 논리로 전환되었다.

주에서 그들 문화의 핵은 무엇보다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된 것이었다. 그 중 핵심이 바로 19세기 만주에 새롭게 유입된 기독교 정신이었다. 만주 조선족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한 개신교의 전교는 향후 근대 한국 교육과 윤리적 민족주의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표 3> 당대 만주지역 조선족 종교현황 <sup>46</sup>

	1934		1936	
	회당수	교인수	회당수	교인수
기독교	162	31,886	233	38,251
천도교	17	1,933	14	2035
시천교	7	751	9	891
불교	14	2,446	23	3,899
유교	5	17,794	5	14,515
기타	1	126	9	1,515
계	206	54,936	293	61,156

위의 표는 20세기 초 만주 조선인들의 종교 성향을 보여 준다. 만주라는 지역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보편적 서구 근대 문화 정신으로 무장된 기독교는 만주 거주 조선인들에게 빠른 속도로 영입되었다.

<표 4> 로스역의 발행 부수

연도	신약	단편성경	누계
1882-87	5,000	62,040	67,040
1888			67,040
1889		5,000	72,040
1890		6,000	78,040
1891			78,040
1892		5,000	83,040
1893		11,000	94,040

<sup>46</sup> 채현서, 「만주지역의 한국인 교회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70-87쪽.

기독교 전교를 뒷받침하는 로스역 성경의 보급은 실로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이 때 로스역 성경은 만주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해외와 한반도로도 보급되었다. 이들에게 소개된 새로운 세계관의 핵심은 유대-기독교적 인격 신관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었다. 세계사지평에서 19세기 이후 기독교는 전지구적 상황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그러나 일면, 제국주의 논리로 융합되고 연대한 일부 기독교의 얼굴은 다분히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반면에 만주의 조선족 디아스포라와 만난 기독교는 탄력적이면서 윤리적인 모습이었다. 차후 만주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독립운동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적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sup>47</sup>

## 5. 결론

1887년 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는 최초의 국역 한글성경이다. 그 번역의 과정을 통해 본 로스역의 가치는 무엇보다 ‘한국어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스역 번역의 역동은 이후 이어지는 국역 성경 번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있다. 로스가 선택한 순 한국어 번역의 원칙을 통해 이후 직 간접적으로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 근대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의 한글 활용은 식자층의 한문과 구별되는 구어, 즉 민중의 언어로 존재하던 한글을 한국인의 중점 언어로 자리잡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 하였다. 로스역이 만주에서 번역됨은 독특한 만주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개방성, 통합성, 그리고 회통성을 한반도에 유입하도록

<sup>47</sup> 박정신, 『한국 기독교사 인식』, 혜안, 2004, 17-37쪽. 1899년에 시작된 반서구 운동인 의화단 봉기는 만주에서 기독교가 토착문화로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되었다. 로스에게 토착적이란 말은 선교지 민중들 삶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옥성득, 「자료해제」 로스의 《만주선교 방법》 제2판(1908),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2007, 215-232쪽.

일조하였다. 로스본 번역에서 나타난 번역의 목적은 원문의 정확한 전달을 넘어서는 목표어와 독자들을 향하여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러한 이유로 그가 시도했던 번역은 한 지역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처음에 그가 시도한 번역은 주로 한반도의 서북 지역과 만주에서 활용되는 방언이었다. 이후 1883년 경에 로스는 서울지역 방언까지 자신의 번역을 위한 목표어로 삼았다. 로스 번역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난다. 바로 지방성(provincialism)에 대한 중시라는 점이다.<sup>48</sup> 여기서 지방성이란 한 지방의 방언만을 기준 목표어로 설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로스는 당시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정형화 된 표준 한글 문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로스 번역에서 지방성의 원칙은 일차적으로 역동적 의미 전달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시시때때로 문법 파괴 현상이 로스역에 나타난다.<sup>49</sup> 그러나 그러한 문법파괴 현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다. 로스역에 나타난 번역방법은 그 자체로 종교 문헌 토착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상황화’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스는 ‘문화’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자종교의 전교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형되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로스역의 영원한 상수는 자종교적 세계관이었다. 번역어의 역동은 비정형적일 수 있으나 로스의 신관은 정형적이었던 것이다.<sup>50</sup>

<sup>48</sup> 1883년부터 로스는 지역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특별히 서울출신 학자들의 만남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복음서를 시작으로 로스역은 서울 말씨로 개정되기에 이른다. 당시에는 표준어에 대한 문법적 기준이 부재했다. 그러므로 새롭게 선택된 목표어인 서울 지역 언어도 여전히 지역성의 한계를 지니게 된다. J. MacIntyre,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p.665-67.

<sup>49</sup> 로스의 국역 성서 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의미를 논하면서 최현배는 “기독교전파는 한글의 보급을 뜻하고 이는 사서삼경의 유교적 세계관의 붕괴를 의미했다”고 지적한다. 이응호,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하여」, 『한한샘주시경연구』 3, 1990, 17-31쪽;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51-76쪽. 1883년 이후 로스역 개정 성경에서 목표어 말체는 서울지역 방언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므로 로스역에 드러난 말투가 의주지방의 언어만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1883년 이전에 출판된 로스역들은 철저히 의주지방의 평안도 방언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역을 통해 독자는 표준어 형성 이전의 다양한 방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글 성경번역의 초창기에 선교사들간의 논쟁 대상이 된 ‘신(神)의 이름’에 대한 경험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외부자로서 선교사 자신들이 체득한 신은 현지의 신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일치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신명(神名)에 대한 적합한 번역은 오직 피선교지의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노력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만주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문화가 교섭하고 교차되면서 공유되는 공간이었다. 이같은 교차의 공간이라는 지역성은 19세기말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당대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청나라 국운의 쇠약이라는 점이다. 만주에서 출발하여 중국 본토를 통일한 청의 봉금(封禁)정책은 유명무실해졌다. 조선의 강금(疆禁) 조치 역시 조선의 국운이 기울 때 사라지고 만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중국 본토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주하게 된다. 이후 일본인이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가 1905년 전후였다. 1905년 이후부터는 만주의 실제적인 주인은 일본인들이 되었다. 일제에 의한 ‘만주국’의 창설은 명목상 조선과의 자유무역지구 설정이지만 사실상 이는 중국과 대륙으로 향하기 위한 병참기지 건설이란 숨은 야욕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같은 일본의 만주 진출에도 불구하고 만주는 실제에 있어서 여전히 주인이 있는 지역이었다. 새로운 문화의 융합과 창조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디아스포라 문화가 가장 잘 반영된 지역이 바로 당대 동아시아의 만주였다. 로스역 성경 번역은 이러한 만주라는 지역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이후 한반도에서 소실되어 가는 민족적 긍지를 다시금 되찾고 이를 보전하는 역사적 소명을 고취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50 1900년 이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외 구역 성서 운동이 국내로 이전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활발하게 성서공회 운동이 시작된다. 로스본의 문제는 당시 로스역이 선택한 한글의 양태에서 드러난다. 언어 문법의 후험적 활용에 대한 틀이라는 견지에서 로스본 일차 번역본의 사멸은 로스본을 사용한 언어 공동체가 한국 기독교 지평에서 사라져 갔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W. D. Reynolds, “The Contribution of the Bible Societies of the Christianization of Korea,” *The Korean Mission Field* 12, 1916, pp.126-28.

## 참고문헌

- 가토 슈이치 · 마루야마 마사오,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 권희영, 『한인사회주의운동연구』, 국학자료원, 1999.
- 김병철,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西洋文學移入史研究) 상·하』, 을유문화사, 1980.
- 김영일 · 윤취탁 · 이동진 · 임성모,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 2010.
- 김인수,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사-순교자들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제17집, 2001, 88-106쪽.
- 김정현, 『羅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계명대학교, 1982.
-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신학사상』 22, 1978.
- \_\_\_\_\_, 「한국 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 사상』 제2호, 1971, 24-26쪽.
- 김홍수 · 서정민, 『한국기독교사 탐구』, 생명의 말씀사, 2011.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 리진호, 『한국성서 백년사 I』, 대한기독교서회, 1996.
- 민영진, 「조선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36, 1986, 108-118쪽.
- 박 일, 「최민순 신부의 생애와 하느님 이해」, 『가톨릭 신학과 사상』 51, 2005, 105-161쪽.
- 박정신, 『한국 기독교사 인식』, 혜안, 2004.
- 박형신, 「[요약본] 존 로스(Rev. John Ross) 선교사 시기 만주(滿洲)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역사연구 소소소식』 106, 2014, 4-6쪽.
- 송기중, 「19세기 서양인의 국어 계통론」, 『알타이학보』 12, 2002, 183-209쪽.
- 엄소연, “개화가 국역성서 어휘의 의미 · 통사론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엄원식, 『히브리성서와 고대근동문학의 비교연구』, 한들, 2000.
- 옥성득,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 (1877~1939)」,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2.
- \_\_\_\_\_, 「[자료해제] 로스의 《만주선교 방법》 제2판(1908)」,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2007, 215-232쪽.
- 이덕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6호, 1997, 50-57쪽.
- \_\_\_\_\_,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기독교문사, 1985.
- 이만열, 『한국기독교사특강』, 성경읽기사, 1989.
- \_\_\_\_\_,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 성장과 수난』, 대한성서공회, 1993.
- 이상훈, 『신학적 문화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예영, 2005.
- 이원순, 「성서 국역사 논고」, 『민족문화』 제3호, 1977, 34-49쪽.
- 이용민, 「한국 기독교와 한글: 문법서 및 사전류의 편찬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기독교교회사학회 국제세미나: 동아시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2016년 10월 28일).
- 이응호,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하여」, 『한한샘주시경연구』 3, 1990, 17-31쪽.
- 정길남,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2.

- 채현서, 「만주지역의 한국인 교회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70-87쪽.
- 최성일, 「로스본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92-112쪽.
-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51-76쪽.
- Anonymous, “Dr. Ross and His Labours for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2 (1916), p.336.
- Bae, Mary Joo-ok, “Syncretism and Its Implication in Bible Translatio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1876-1910”, Ph. D. Dis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2.
- Cho, Ji Youn,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Ph. D. Diss., Vrije University, 2008.
- Choi, Jeong Ma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Indigenization Movement in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on”, D. Miss.,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5.
- Choi, Sung Il, “John Ross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Ph. D. Diss., University of Edinburgh, 1992.
- Geller, Stephen A., “Sacred Enigmas: Literary Religion in the Hebrew Bible”, Routledge, 1996.
- Kristeva, J. “In the Beginning Was Love: Psychoanalysis and Faith”, Columbia University, 1987.
- Tov, Em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1992.
- Griffis, William Elliot, “Address Delivered by the Rev. William Elliot Griffis, D. D., J. H. D. Author of “Corea!, Without and Within,” “Corea! The Hermit Nation” on April 11th, 1927”,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7. 1927, pp.1-14.
- MacIntyre, J., “Notes on the Corean Language”, *The China Review* 8. 1880, pp.149-56; pp.230-34.
- \_\_\_\_\_, “Notes on the Corean Language” *The China Review* 9. 1882, pp.28-33; pp.89-95; pp. 219-223.
- \_\_\_\_\_, “The C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UPMR)*, 1880, p.279.
- Mas, Ruth, “Refiguring Translation in Religious Studies”, *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23. 2011, pp.143-159.
- Maxwell, Murray,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Great Loo Choo Island”, John Murry, 1818.
- Nida, E. A.,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rill, 1969.
- \_\_\_\_\_,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Brill, 1964.
- Oak, Sung-Deuk, “A Genealogy of Protestant Theologies of Religions in Korea, 1876-1910”, *Korean Religions in Relation: Buddhism, Confucianism, Christianity*, Ed. Anselm K. Mi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pp.155-87.
- Oh, M. W., “The Two Visits of the Rev. R. J. Thomas”,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2. 1933, pp.97-123.

- Reynolds, W. D., "The Contribution of the Bible Societies of the Christianization of Korea", *The Korean Mission Field* 12. 1916, pp.126-28.
- Ross, John, "China, Manchuria Mission",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UPMR)*, 1880, pp.333-34.
- \_\_\_\_\_, "The C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How I came to Make It, Part II",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UPMR)*, 1883, p.208.
- \_\_\_\_\_,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33, 1937, pp.134-38.
- \_\_\_\_\_, *Ross's Letter to Wm. Wright (1880 and 1881)*.
- Shina, Avigdor and Yair Zakovitch, "From Gods to God: How the Bible Debunked, Suppressed, or Changed Ancient Myths and Legends", Trans. Valerie Zakovitch,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2.
- T, R. T., "Rev. John Ross D.D., of Manchuria", *The Korea Mission Field* 11. 1915, p.314.
- Thiselton, Anthony C.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Eerdmans. 2009.
- Tillich, Paul, "Theology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Wagner, Ellasue, "Through the Hermit's Gate with Suh Sang Yun", *The Korea Mission Field* 34. 1938, pp.93-5.



## Translation of the Korean Bible and the Cultural Transition at Manturia

Focusing on John Ross's Korean Bible <Yesooseongyogeonseo> in 1887

Lee, Sang Hoon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ming of a new era, named Modern is closely related to Translation. Through the activity of the translation, not only culmination of the new civilization, but also fresh new spirit could be introduced. One of the core of the new spirit, we can count, is the new religion. Translation of the Bible in which the two different cultures encounters each other, can be evaluated as a locus of the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 transformation. At the time of late 19th century, Korean Peninsula, as was called 'Hermit kindom', managed two languages, Korean and Chinese, simultaneously. The former, Korean, was a language of the low class people, based on the oral usage, the latter, Chinese, was a language of the literati, mainly focused on the written usage. Translation of the Bible, on which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civilization was severely indebted, into Chinese, therefore, meant the adoption of the Western spirit to China as well as of that to Joseon. During the time of transition, Joseon was evoked to use their own traditional language, Han-geul, Korean, from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national identity. Koreans were to be enlightened to keep their own national identity whose essence were quite different from Chinese one. such a mental awareness was rapidly spread up to all the territory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transl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Bible. Translation and Spread of the Bible contains the meaning of the renovation of their culture, first of all, and the change of the centeredness of the linguistic usage. Through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Korean, the core of the cultural centeredness transformed from the upper class to ordinary one. Such a dramatic change was possible in the socio-geographical context of Manturia at the time. Missionary John Ross, who was worked with the Bible Society of Scotland, indulged in translating the Bible to Korean language, produced "Yesuseongyogeonso"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in 1887. Korean helper for John Ross, from that time on, were diligently delivered the production of the Korean Bible to their own people. Manchuria, during the time of

Japanese imperial rulement, became a center place to produce many patriots, fight against the military brutal invader. Many new elites who were heavily influenced with the spirit of the new religion, Christianity, became key figures who fight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ese imperial rulement. With these contribution keep in mind, We can say that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which was initiated by missionary John Ross, at Manchuria, was an important intermediation to bring the modernity to Korea, during the time. Ross' Korean Bible can be counted as a basis for the meeting place among many ordinary class Koreans to evoke their patriot spirit for the independence. John Ross tried put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context in which the Bible to be read and spread, than that of already formed and fixed.

**Key words :** Bible translation, Cultural transition, Locality of manchuria, Dynamic equivalence, Korean oriented culture, Making modernity

논문접수일: 2023.03.15 심사기간: 2023.03.29~04.10 게재확정일: 2023.04.12.

##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조선적인 것’의 의미\*

이형권\*\* · 이강호\*\*\*

1. 서론-시대와 장소의 디아스포라
2. 이중 언어 사용과 유랑하는 청춘
3. 고향의 양가성과 식민지 근대인의 초상
4. 여행 경험과 조선적 감각의 발견
5. 결론-이산과 파종의 디아스포라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이산과 파종(播種)의 차원에서 고찰했다. 정지용은 옥천에서 출생했지만, 학업을 위해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다. 서울은 식민지 조선의 중심이자 근대 문물이 집약된 곳이었다. 그곳에서 정지용은 디아스포라 의식이 싹트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에 유학하면서 그러한 의식은 더욱 강해진다. 그는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일본 시단에 시를 발표하기 위해 일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지용은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 등의 언어에 이중, 삼중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일종의 언어적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것인데, 이는 「카페 프란스」를 비롯한 초기 시에는 나

\* 이 논문은 2022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제1저자,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박사수료.

타나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 유랑 의식, 비애감 등과 관계 깊다.

정지용의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 가운데 향수, 실향 등은 옥천에서 서울과 교토로 이어지는 지리적 맥락과 연관된다. 그의 고향 시 가운데 「향수」, 「고향」, 「이토(異土)」 등의 작품은 고향과의 ‘동일시-반동일시’라는 양가감정을 드러낸다. 고향 옥천은 정지용이 체험한 유년의 기억이 있는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의 장소이다. 그곳은 비록 가난하지만 애뜻하고 아름다운 유년의 기억이 살아있는 전원적 장소이다. 「향수」를 창작할 즈음 이미 타향 혹은 타국에서 살고 있던 정지용의 마음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나르시시즘적 동일시를 넘어서 속된 현실에 물든 자아 성찰을 드러낸다. 「이토」에서는 고향을 부정하기도 한다.

정지용 시가 디아스포라 의식을 거쳐 도달한 것은 조선적 감각의 세계이다. 산수시라고 불리는 후기시는 순수 자연이나 조선적 전통의 세계를 향한 자발적 소외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일종의 파종(播種) 혹은 새로운 세계의 개척 정신 차원에서 발현된 것이다. 그것은 주로 비인간 세계를 보여주지만, 1930년대 후반에 보여주었던 탈인간, 탈속의 의지를 다시 드러낸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반서구적이거나 반모더니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의 전통적 감각과 이미즘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의 세계를 개척한 것이다. 특히 「구성동」, 「장수산 1」, 「백록담」, 「조찬(朝餐)」 등의 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정지용이 조선 땅 곳곳을 여행한 경험에서 나온 시편들이다. 즉 이 시편들은 일제 말기의 혹독한 전쟁기에 조선 정신과 조선어의 공백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주제어 :** 정지용의 시, 디아스포라 의식, 이산(離散), 파종(播種), 정체성 혼란, 유랑 의식, 비애감, 향수, 조선적 감각

## 1. 서론-시대와 장소의 디아스포라

정지용 시에 관한 연구는 이제 새로운 영역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1935년 『정지용 시집』 이전에는 박용철, 양주동, 김기림 등의 단평이 있었고, 시집이 발간되면서 이양하, 김환태, 임화 등의 논평이 이어졌다. 그가 행방불명된 6·25전쟁 이후에는 월북 시인이라는 오해로 인하여 조지훈, 송옥, 유종호, 문덕수 등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언급되었다. 정지용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87년 남·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이다. 이때부터 석·박사 논문을 포함하여 소논문 형식의 연구물들이 작가론, 작품론, 주제론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논문은 정지용의 초기시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모더니스트<sup>1</sup>라는 주장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간 결과였다. 또한, 중기의 가톨릭시즘 시<sup>2</sup>나 후기의 산수시에 관한 논문<sup>3</sup>도 다수 발표되었고, 시 전체의 변모 과정<sup>4</sup>이나 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sup>5</sup>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정지용 시의 특성을 디아스포라 의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관련하여 그가 체험했던 삶의 장소는 시적 상상의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 연보와 기행문에 의하면, 그는 옥천, 서울, 교토, 금강산, 장수산, 한라산, 다도해, 의주, 목포, 통영, 진주, 평양, 부천, 포천 등의 장소를 경유<sup>6</sup>하면서 유랑하는 시인으로 살았다. 이들 가운데 특히 옥천, 서울, 교토는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관련하여 주목

<sup>1</sup>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1939년 10월.

<sup>2</sup> 김윤식, 「가톨릭시즘과 미의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sup>3</sup> 최동호, 「정지용의 <장수산>과 <백록담>」, 김은자 편, 『정지용』, 새미, 1996.

<sup>4</sup>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sup>5</sup> 김용희, 「정지용 시에서 자연의 미적 전유」, 『현대문학의 연구』 22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04.

<sup>6</sup> 권영민 엮음, 「정지용 연보」, 『정지용 전집 3』, 민음사, 2016, 625-632쪽 참조.

해야 할 장소이다. 고향인 옥천은 그의 유년기의 순수하고 전원적인 삶이 전개된 곳으로서, 그의 디아스포라 의식은 그곳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문명 세계의 상징인 서울이나 교토에 머물 때도 그는 항상 옥천이라는 삶의 원적지를 마음 깊이 품고 살았다. 서울은 정지용이 학창 시절에 접한 삶의 장소로서 고향인 옥천과 전연 다른 새로운 세계였고, 교토는 일본으로 유학하여 한동안 머물면서 국외자로서 본격적인 유랑 의식을 갖게 한 곳이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이산이나 유랑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정치적 탄압이나 전쟁, 재해, 가난 등으로 모국이나 고향 밖으로 분산되어 떠도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특히 근대식민주의나 자본주의의 팽창에 따라 고향을 떠나 이방을 떠도는 피식민자를 포함한다.<sup>7</sup> 한편, 비인간적 문명의 그늘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은 모두 문명 세계의 이방인 이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도 있다. 현대인은 누구나 문명 세계에서 소외된 채 유랑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삶과 현실이 정신적 차원에서 내면화된 것이 디아스포라 의식이다.

디아스포라 의식은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의 어원<sup>8</sup>과 같이 이산(離散)과 파종(播種)이라는 두 방향성을 지닌다. 하나는 유랑하는 삶의 고달픔,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 이역에서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 등과 같은 타자

<sup>7</sup> 디아스포라는 오늘날 이주민, 국외로 추방된 난민, 초빙 노동자, 망명자 공동체, 소수민족 공동체와도 같은 용어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어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5쪽 참조).

<sup>8</sup> diaspora는 그리스어 전치사 dia(영어로 'over', 우리말로 '~를 넘어')와 동사 spero(영어로 'to sow', 우리말로 '뿌리다')에서 유래되었다(윤인진, 위의 책, 5쪽). 이때 dia는 이산(離散) 즉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삶을, spero는 파종(播種) 즉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diaspora라는 말은 이방에서 타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타자성을 극복하고 주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른다. 전자의 지배적인 의식은 모국을 향한 향수이고, 후자의 지배적인 정서는 현지와 동화 혹은 새로운 세계의 개척 정신이다.

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현지 문화나 지리에의 동화, 삶의 새 터전을 닦는 개척 정신, 미래에 대한 희망 등과 같은 주체의식이다. 이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지닌 두 가지 뜻을 모두 함의한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정지용 시에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의식이 시 정신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초기의 교토 유학 시절의 시편들과 고향 관련 시편들이 이산의 디아스포라와 관련된다면, 후기의 산수시와 관련된 조선적인 자연의 탐구는 파종의 디아스포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지용 시는 또한 역사적으로 한국 근대사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관련된다.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걸쳐서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민족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고향을 떠나 이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식민치하의 억압이나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의 만주 지역이나 미국의 하와이, 일본의 오사카, 중앙아시아 각 지역 등으로 흩어져 살았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남·북 간의 이산가족도 큰 규모로 형성되었다. 20세기 초에 태어나 1950년까지를 경유한 정지용의 시와 삶도 한민족의 이러한 역사성을 반영한다.<sup>9</sup> 그 근거로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이나 조선(문화)을 향한 노스텔지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근대적이고 세련된 언어로 수준 높게 형상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정지용은 국외에 이주하여 정착한 디아스포라는 아니었지만, 시대 현실의 굴곡 속에서 디아스포라 의식을 시의 정신적 배후로 삼았던 것이다. 이제 정지용의 몇몇 시편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sup>9</sup> 김승희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기의 한민족 분산을 1차 이산과 2차 이산으로 구분하고, 김동환, 임화, 백석, 구상, 김종삼, 전봉건, 박남수 등의 시에 나타난 실향의식을 디아스포라로 본다(『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이산(diaspora)』, 『비교한국학』 11-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3).

## 2. 이중 언어 사용과 유랑하는 청춘

정지용이 창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192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정지용은 일본 대도시 교토(京都)의 도시샤(同志社) 대학교 영문과에 다니고 있었다. 1923년에 유학을 해서 2년이 지난 뒤인 1925년부터 시 창작 활동을 본격화한다. 그는 도시샤대학교 재학생들이 주도하는 시 전문 동인지 『가(街)』에 참여하여 「신라의 석류」 등 다수의 일본어 시를 발표한다. 이듬해인 1926년에는 교토의 조선인 유학생 잡지 『학조(學潮)』에 「카페 프란스」, 「파충류 동물」 등의 한국어 시를 발표한다. 작품 발표의 선후로 보면 한국어 시보다는 일본어 시를 먼저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은 이중 언어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시작했던 것인데, 이후에는 같은 작품을 한국어 시와 일본어 시로 동시에 발표하기도 한다. 1927년은 정지용이 가장 많은 시를 발표한 시기였는데, 「갑판 우」, 「향수」 등의 한국어 시 30여 편과 일본어 시 20여 편<sup>10</sup>을 발표한다. 그는 시를 한국어로 쓰느냐 일본어로 쓰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이 식민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시 창작 활동을 했던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당시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어로 창작했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지용처럼 전면적으로 일본어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민족의식의 문제라는 일차원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아스포라 차원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모국의 언어와 타국의 언어로 구성되는 이중 언어 환경에서 살아가기 마련

<sup>10</sup> 정지용이 많은 일본어 시를 썼지만, 일제 말기에 친일시와 관련된 일본어 시를 한 편도 쓰지 않았다. 그의 일본어 시는 대부분 교토 유학 시절에 오직 문학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쓴 것이다. 이는 한국 시인들이 쓴 일본어 시를 친일시로 규정하는 단순 논리를 성립할 수 없게 만든다.



이다. 디아스포라의 이중 언어 사용<sup>11</sup>은 문화적 혼종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낯선 언어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더구나 정지용이 도시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가 이중, 삼중 언어의 환경<sup>12</sup> 속에서 시 창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카페 프란스」는 언어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25년 발간한 동지사 대학 『예과학생회지』에 일본어로 먼저 발표하고, 이듬해인 1926년에 조선인유학생 잡지 『학조』에 조선어로 다시 발표한다. 이러한 작품 발표 방식은 이 작품뿐만이 아니었던 것<sup>13</sup>으로 보아 당시 정지용이 간직하고 있던 독특한 언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카페 프란스」는 이러한 언어 감각과 식민지 현실 혹은 근대 문명의 모순에서 오는 비애감이 결합한 디아스포라 텍스트이다.

옹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비투로 선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자. // 이놈  
은 루바슈카 /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뱃적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  
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 흐늑이는 불빛/ 카페 프란스에 가자. // 이놈  
의 머리는 빛 두른 능금/ 또 한 놈의 심장은 별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 “오오 패룽(앵무) 서방! 굿 이브닝!”/ “굿 이브닝!”(이 친구

- 
- 11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령 체코 출신의 카프카(Franz Kafka)는 모국어인 체코어와 외래어인 독일어의 이중 언어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는 체코어에 능통했지만, 실제 작품 활동은 프라하 독일어로 함으로써 당대의 언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들뢰즈·가타리,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조한경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0, 34쪽 참조). 정지용이 일본어를 사용한 것은 카프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중 언어의 환경 속에서 비모국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 12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모두 시어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중성은 정지용의 초기시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한 예는 『정지용시집』의 「다알리아」는 그 이전에 발표할 때 작품명을 「Dahlia」(『신인』 19호, 1926년 11월, 『시문학』 1930년 3월)로 표기한 것 외에는 빈도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여췌든 정지용은 시적 언어의 사용에서 한국어만을 고집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 13 시 「파충류동물」도 일본어로 먼저 발표(『자유 시인』 1호, 1925년 12월)하고, 6개월 뒤에 한국어 시를 발표(『학조(學潮)』 1호, 1926년 6월)했다.

어떠하시오?)// 울금향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려!// 나  
 는 자작(子爵)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희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오오,  
 이국중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카페 프란스」<sup>14</sup> 전문

이 시는 일본어 버전을 염두에 두면 한 작품에 세 가지 언어가 관련되어 있다. 이 시에서 우선 ““굿 이브닝”(이 친구 어떠하시오?)”라고 시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 “굿 이브닝”과 괄호 속의 “이 친구 어떠하시오”는 영어(“Good evening”)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의미론적 차원에서 보면 매우 어색한 사용의 사례이지만, 디아스포라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앞서 밝힌 대로 이중 언어 사용은 향수와 현지 적응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낯선 이국땅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원적으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의 언어 의식은 정지용이 이국에서 느끼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유랑 의식, 비애감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 시는 일본의 대도시 교토에 있을 법한 카페를 배경으로 한 디아스포라 의식을 그리고 있다. “카페 프란스”는 이국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디아스포라의 장소이다. 그곳을 드나드는 “루바스카” 입은 친구나 “보헤미안 넥타이”를 한 친구, 그리고 “뿔적 마른 نوم”은 모두 이방인이다. “보헤미안 넥타이”는 특히 그들이 지닌 유랑인의 특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 그들을 “빛 두른<sup>15</sup> 능금”, “별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نوم” 등과 같이 부정적으

<sup>14</sup> 시 작품은 『정지용 전집(시) 1』과 『정지용 전집(미수록 작품) 3』(권영민 엮음, 민음사, 2016)에서 인용했다. 이하 마찬가지.

<sup>15</sup> ‘갓 익어 붉은 빛을 띤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설익은 지식을 지닌 젊은이의 모습과 관련된다.

로 표현한 것도 그와 관련된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 즉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도 집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뒷부분에서 “슬프구나”를 반복하는 것은 그런 현실에서 오는 비애감이다. “나”는 환대받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타자<sup>16</sup>일 뿐이다. 하여 “나”와 같은 타자인 “이국종 강아지”에게 위안받고자 “내 발을 빨아다오”라고 소망하는 것이다. 이때 “이국종 강아지”는 일본인 여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녀는 식민주체 보다는 일본인 가운데서도 타자라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타자인 “나”가 타자<sup>17</sup>에게 동병상련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적, 문화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데서 오는 디아스포라의 유랑 의식은 이 시기의 다른 시편들에서도 빈도 높게 나타난다. 가령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랑주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압천(鴨川)」 부분)에 등장하는 “나그네” 의식이나, “비 날리는 이국 거리들/ 탄식하며 해매노나”(「조약돌」 부분)에서 “이국 거리들” 방황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는 흘러가는 실심(失心)한 풍경이어니……/ 부질없이 오랑주 껍질<sup>18</sup>을 씹는 시름……”(「슬픈 인상화」 부분), “내 그림자는 검은 상복처럼 지향없이 흘러 내려갑니다.”(「황마차」 부분), “고대와 같은 나그넷길을 떠나가자”(「말 2」 부분) 등에서도 유랑하는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랑하는 자아의 내면에는 슬픔이나 “시름”과 같은 비애감은 정지용이 일본의 근대 문명을 대하는 심정을 반영한다. 이는 일본 유학 시절의 조선인들이 지니고 있던 디아스포

16 김응교,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와 타자로서의 일본」, 『한국언어문화』 68집, 2019, 한국언어문화학회, 71쪽.

17 이 시의 타자를 로버트 영(Robert J.C. Young)의 견해를 빌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난민으로까지 확장해서 이해하기도 한다(김응교, 위의 논문, 76-77쪽). 이 시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훨씬 이전에 지어진 것이므로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이나 중국인 등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18 오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의 시구에서도 등장한다. 오렌지는 우리나라의 귤과 대비되는 이국적 과일이므로, 그 껍질을 씹는 행위는 이방인의 시름이나 고독과 관련지을 수 있다.

라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절 정지용은 “비에!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았도다”(「불사조」 부분)는 심정 속에 살았다. 그리고 이즈음의 시에 “옥천”이나 “마포”와 같은 국내의 지명보다는 교토, 압천, 도카이도, 현해탄 등과 같은 국외의 지명이 많은<sup>19</sup>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일본이라는 이국, 그것도 조국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곳에서 정지용은 뿌리를 잃고 유랑의 비애감 속에 빠져들었다.

### 3. 고향의 양가성과 식민지 근대인의 초상

정지용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향수의 정서다. 향수는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서적 특성인데, 다만 그것이 경험적 전제 없이 막연한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에 그친다면 디아스포라 의식과는 무관하다. 향수를 노래하되 이방인으로서의 고달픈 삶이 전제되면서 유년기의 순정했던 기억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정지용은 비록 추방당한 존재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근대 문물의 접하면서 이방인 의식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신라 천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석류」 부분)면서 “고향 찾아가오.// 배추꽃 노란 사월 바람을/ 기차는 간다고/ 악물며 악물려 달린다.”(「기차」 부분)라는 향수의 정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향수」는 그러한 심정을 반영한다.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

<sup>19</sup> 하재연, 「일본 유학 시기 정지용 시의 특성과 창작의 방향」, 『비교한국학』 15-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 258쪽.

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줄음  
 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를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  
 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  
 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향수」 전문

이 시에서 고향은 유년기의 체험과 관련된 토속적이고 전원적인 장소이다. 그곳은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질화로”, “늙으신 아버지”, “흙”, “파아란 하늘빛”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향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매우 세련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가령 1연에서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시구는 표현 자체로만 보면 모던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에 “얼룩백이 황소”가 우는 소리를 “금빛”의 시각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공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2연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는 장면이나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는 모습도 청각과 시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연에 등장하는 “흙”과 “파란 하늘”도 선명한 대조적 이미지로, 4연에서도 “전설 바다의 춤추는 밤물결”과 같은 역동적 이미지가 등장한다. 다만 “어린 누이”의 앳된 모습과 “사철 발 벗은 아내”의 거친 모습이 등장하면서 자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는 가난한 고향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전설” 속에 있을 것 같은 가족의 순박한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연에서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도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향수」의 내용은 리리시즘에 가깝지만, 그 표현에서는 모더니즘적 감각을 드러낸다. 향수라는 막연한 정서를 순수한 자연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그 구체성을 고양한 것이다. 그런데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의 부재, “사철 발 벗은 안해”, “서리 까마귀”, “초라한 지붕” 등으로 인해 고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sup>20</sup>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있는 그대로의 고향의 모습을 제시하여 시적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 시가 발표된 1927년 즈음 조선의 농촌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고, 이 시는 그런 현실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애절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향수」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초기의 삭막한 현실을 배경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하는 디아스포라 텍스트이다.

「향수」에서 보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에 이르러 고향 상실감으로 전환된다. 이는 고향과 관련된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면서 각박한 현실에 몰든 자아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두 시에 각각 나타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시의 화자가 현재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현실, 혹은 디아스포라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유발된 정서이기 때문이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 산땡이 알을 품고/ 뼈꾸  
기 제철에 올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뉘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고향」 전문

<sup>20</sup> 송기환, 「정지용의 「향수」에 나타나나 고향의 의미」, 『우리말글』, 2003, 우리말글학회, 270쪽.

이 시는 고향에 관한 이질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지만, 핵심 내용은 오랜 타향살이를 한 디아스포라의 유랑 의식이다. 시적 자아는 타향살이를 하다가 귀향을 했지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그저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과 같다고 한다. 그는 한때 고향에 살다가 타향으로 나갔지만, 고향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동일시 욕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향수」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드러낸 시인데, 이 작품에서는 고향이 더 이상 동일시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시적 자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즉 “산꿩, 벚꽃, 흰 점 꽃, 풀피리 소리, 하늘”과 같은 고향의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은 변하지 않았으나, 시적 자아 즉 인간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타락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시적 자아는 고향의 영원성을 상실<sup>21</sup>하고, 순간성 속에서 파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대인 혹은 디아스포라의 초상이다. 이렇게 보면 「고향」과 「향수」는 고향과 관련하여 반대되는 정서를 드러내지만,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심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정지용의 고향과 관련한 시 가운데 일제 말기에 발표한 「이토(異土)」는 고향 상실감을 넘어 고향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낯아 자란 곳 어디거니/ 문힐 데를 밀어 나가자// 꿈에서처럼 그림다 하라/  
 따로 지닌 고향이 미신이리// 제비도 설산을 넘고/ 적도 직하의 병선이 이랑을  
 갈 제// 피었다 꽃처럼 지고 보면/ 물에도 무덤이 선다// 탄환 찢리고 화약 싸아  
 한/ 충성과 피로 고와진 흙에// 싸움은 이겨야만 법이요/ 씨를 뿌림은 오랜 믿음  
 이라// 기리기 한 형제 높이 줄을 맞추고/ 햇살에 일곱 식구 호미날을 세우자.

「이토(異土) 전문

<sup>21</sup> 송기한 위의 글, 275쪽.

이 시는 친일의 성향이 드러난다. 전쟁과 죽음에 대한 방어적 의미<sup>22</sup>를 담고 있어서 친일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시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1연에서 “문힐 데” 즉 죽음을 맞이할 곳을 고향에서 찾지 말자고 하면서, 2연에서는 “따로 지닌 고향이 미신”이라고 하여 수구초심의 대상인 고향을 부정하고 있다. 3, 4연에서는 “적도 직하의 병선이 이랑을 갈”고 있을 때 “물에도 무덤이 선다”는 것은, 굳이 고향 땅이 아니라도 전쟁터 어디든 무덤일 수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 말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구나 5, 6연에 등장하는 “탄환”이나 “화약”, 그리고 “충성과 피로 고와진 흙”이나 “싸움은 이겨야만 법”이라는 표현은 전쟁을 찬양하고 있다. 7연에 오면 전쟁이 “씨를 뿌림”이고 “호미날 세우”는 일이라고까지 하여 그것의 생산적인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디아스포라의 파종이 아니라 제국주의자의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시에서 눈여겨볼 것은 정지용이 고향의 부정하는 순간 그의 시적 정체성이 급격히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이다. 이 시 이후 그는 시다운 시를 거의 쓰지 못한다는 사실<sup>23</sup>은 고향 혹은 디아스포라 의식이 그의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 4. 여행 경험과 조선적 감각의 발견

1930년대 후반 정지용은 가혹한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한 시인으로서는 친일이나 저항이나 아니면 절필이나를 선택해야 했다. 친일은 민족의

<sup>22</sup> 김용직, 「주지적 태도에서 ‘愚無邪’까지」, 『한국시학연구』 7호, 한국시학회, 2002, 16쪽.

<sup>23</sup> 광복 후에 10여 편의 시를 발표하지만, 대부분 정지용다운 세련된 감각을 거의 보이지 않고, 단편적인 세태시나 행사시 등에 머물렀다.



정체성을 부정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을 옹호하는 일이고, 절필은 한 시인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던 정지용은 둘 다 수용하기 어려웠다. 정지용은 서정주처럼 친일시를 쓸 수 없었고, 이육사나 윤동주처럼 저항시를 쓸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정지용은 제3의 길로 조선적인 것을 탐구하게 되는데, 그 사정은 “위축한 정신이나마 조선의 자연 풍토와 조선적인 감정과 최후로 언어 문자를 고수하였던 것”<sup>24</sup>이라는 고백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친일과 절필을 피하면서 조선어 시를 쓰기 위해 조선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조선적인 것을 찾아 나선 것은 역설적인 의미, 즉 시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제에 의해 조선어를 비롯하여 조선의 전통문화 등 조선적인 것이 모두 부정당하는 시대에 조선적인 것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정지용이 추구한 조선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조선의 아름다운 지리와 조선어이고, 이차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배태되는 조선 정신이다. 이때 조선 정신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반근대적 배타주의보다는 동양적 자연관과 현대적 언어 감각에 기초한 고요와 순수, 비인간의 세계를 지향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정신은 당시의 소란한 현실이나 타락한 인간에 직접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초월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적인 것을 탐구하면서 뿌리 뽑힌 자아의 자기 정체성 찾기를 시도했던 셈이다. 그 방법으로 정지용은 여행을 선택한다. 1930년대 후반 정지용은 국내의 명승지 여행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도 금강산, 장수산, 한라산과 같은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다.<sup>25</sup> 당시 일제는 조선의 공간을 식민지 체제에 맞게 재편하고, 조선인을 정신적으로 타자화하기 위해 소위 ‘고적 조사 보존사업’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sup>24</sup>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정지용 전집(산문) 2』, 276쪽.

<sup>25</sup> 여행을 좋아했던 개인 취향과 함께 시대적 답답함을 벗어나 보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의 신문사들이 국토 순례의 여정을 도우면서 기행문을 쓰도록 했던 것도 중요한 계기였다.

진행하고 있었다. 식민지 사학의 관점에서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재편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정지용은 이병기, 이태준 등과 함께 그러한 재편 작업을 다시 재편하는 기행문학 활동을 한다. 정지용이 추구한 조선적인 것의 특성은, 그 표상이 직접적이지 않고 근대의 모습이 투영된 감각화된 조선이다.<sup>26</sup> 이러한 특성은 시뿐만 아니라 여행과 관련된 산문에서 두루 발견된다. 그가 발견한 조선의 지리 혹은 자연은 모더니스트 출신다운 특유의 근대적인 감각으로 새로 탄생한 것이다.

산수시는 정지용이 여행을 통해 얻은 최고의 수확이었다. 산수를 소재로 한 시는 이전에도 없지 않았지만,<sup>27</sup> 일제 말기의 강박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여행 모티브와 결합하면서부터 본격화된 것이 산수시이다. 그의 산수시에 등장하는 ‘산수’는 인간의 순간성과 가변성을 벗어나기 위한 탈인간화된 심미의 세계이다. 시간의 무화<sup>28</sup> 혹은 탈인간화를 속성으로 하는 이 세계는 이전 시기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경유하여 도달한 새로운 시의 영토이다. 특히 산과 관련된 「구성동」, 「옥류동」, 「비로봉」, 「장수산 1」, 「장수산 2」, 「백록담」, 「조찬」, 「비」 등의 시편들은 조선적인 것 혹은 동양적인 것으로서의 고요와 순수의 세계를 추구한다. 이들 시는 조선의 자연을 통해 조선적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미적 주체<sup>29</sup>이자 디아스포라 주체를 직간접적으로 내포한다.

골짜기에는 흔히/ 유성(流星)이 묻힌다.// 황혼(黃昏)에/ 누워가 소란히 쌓이기  
도 하고,// 꽃도/ 귀양 사는 곳,// 절텃드랬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그림자

<sup>26</sup> 박진숙, 「식민지 근대의 심상 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 표상」, 『민족문화사연구』 31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80쪽.

<sup>27</sup> 『정지용 시집』의 「비로봉」, 「난초」 등의 시는 『백록담』의 산수시처럼 산을 배경으로 한 탈속과 탈인간의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sup>28</sup> 윤의섭,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간성의 수사학적 의미」, 『한국시학연구』 9호, 한국시학회, 2003.

<sup>29</sup> 김용희, 앞의 논문, 265쪽.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구성동(九城洞)」 전문

이 시는 1938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시의 제목인 “구성동”은 금강산에 있는 계곡의 이름으로서 인간의 세속과 절연된 고요하고 적막한 자연의 세계이다. 1연은 그 “골짜”를 “유성(流星)이 묻힌다”고 하여 우주를 유랑하다 “골짜”에 내리는 별은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2연에서는 “황혼에 / 누워가 소란히 쌓이기도 하”는 곳이라고 하여 세상과의 절연 감각을 강화하고 있다. 깊은 산골짜기에 “누워” 즉 우박이 쌓이는 곳을 인간이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 3연에서 “꽃도/ 귀양 사는 곳”이라는 표현은 그 절연 감각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때 “꽃”은 속세와 절연된 장소의 아름다운 존재이고, “귀양”은 정지용 시인이 지닌 디아스포라 의식과 연관된다. “귀양” 장소인 “골짜”는 현실의 방황과 유랑을 거쳐 도달한 새로운 심미적 영토를 개척한 것이다. 4연에서는 “절터”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모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여 그 절연 상태를 더 강조한다. 마지막 연의 “사슴”도 “꽃”과 비슷한 탈속의 존재를 상징한다.

「구성동」은 정지용 시인 스스로가 현실 혹은 인간과 절연된 “구성동”이라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순수 자연의 세계에 동화<sup>30</sup>된 모습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 시는 사물시라고 할 정도로 객관적 이미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정지용 시인이 추구하는 탈속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미지가 만드는 풍경은 객관적인 것의 재현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틀<sup>31</sup>

<sup>30</sup> 정지용은 1937년 6월 9일 『조선일보』에 산수시 「비로봉」과 「구성동」을 소개하면서 “설령 흰돌 위 흐르는 물가에서 꽃갈이 스러진다 하기로소니 슬프기는 세세 자칫 아프지도 않을 만하게 나는 산과 화합하였던 것”(『수수어』, 『정지용 전집(미수록 작품) 3』, 421쪽)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sup>31</sup>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32쪽.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배제된 산수시는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sup>32</sup>의 세계를 지향하는 시인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순수와 탈속의 동양 정신이 이미지즘을 경유하여 세련된 심미적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는 가령 “벗은 듯/ 새삼 돋는 빗날// 뉘 뉘/ 소란히 밟고 지나간다”(「비」 부분), “아스럼 흔들리는/ 소소리 바람.// 고사리 새순이/ 도르르 말린다”(「산방(山房)」 부분) 등에서도 재현된다. 정지용은 이와 관련하여 동양적 자연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동양인”<sup>33</sup>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구성동」은 인간이 부재하는 순수 자연의 풍경을 보여주었지만, 인간이 등장하여 속화된 삶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탈속의 의지를 드러내는 산수시도 흥미롭다.

별목정정 이랬거니 아람드리 큰 솔이 베혀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령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뿔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네!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골을 걸음이란다? 옷절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올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 산 속 겨울 한밤 내 -

「장수산 1」 전문

이 시는 1939년에 발표되었다. 이 시기는 전쟁기로서 일제는 총력동원 체제를 위해 한반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1938년에는 일본

<sup>32</sup> 이백의 시 「산중문답(山中問答)」에 등장하는 시구, 타락한 인간 세상을 벗어난 유토피아적 자연 세계를 의미한다.

<sup>33</sup> 박철희, 「참신한 동양인=정지용」, 김은자 편, 『정지용』, 새미, 1996, 204쪽.

어 상용화를 선언했고, 1939에는 창씨개명 정책을 공식화하여 조선인의 황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정지용은 모더니즘 시인이었지만, 시대 상황과 관련된 디아스포라 감각과 민족 정체성의 탐구에도 관심이 있었다. 하여 “장수산”으로 상징되는 현실 너머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찾아 나선다. 이 시의 눈 내린 겨울밤의 “장수산”이 바로 그런 세계이다. 시의 화자는 “장수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곳의 “고요”의 분위기를 자신의 정신적 지향과 동일시하고 있다. “고요”<sup>34</sup>의 경지는 일제 말기의 전쟁기에 혼란스러운 현실의 소요(騷擾)와 상반되는 정결하고 고아한 정신세계를 표상한다. 시의 모두에 등장하는 “별목정정”은 그러한 “고요”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음성상징어이다. “별목(伐木)”하는 과정에서 오는 “정정(丁丁)”<sup>35</sup> 소리를 표현한 것인데, 이 소리는 “장수산”의 “고요”한 상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골이 울어 땡아리 소리”도 마찬가지로 소리로써 “고요”를 표현하는 일종의 역설적 상황을 드러낸다. “장수산”의 “깊은 산 고요”는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것이다.

그런데 「장수산 1」에서 중요한 것은 시의 화자가 “장수산”의 이와 같은 “고요” 혹은 탈속의 경지를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즉 “고요”속에서 묵묵히 수행하는 “웃절 중” 즉 “늙은 사나이가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라고 한다. 화자는 속세의 존재이지만, “웃절 중”은 탈속의 존재로서 “고요”와 하나이다. “줍는다?”라는 행위는, 화자가 자신이 과연 “웃절 중”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 속에서도 그와 동일시되고자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화자는 “웃절 중”의 세계인 “고요에 심히 흔들리”

<sup>34</sup>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제23장에는 “고요가 자연이다(希言自然)”라는 말이 나온다. 고요는 자연의 본성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고요의 추구는 인위의 세계를 거부하고 순수 자연을 찾아 나서는 일과 다르지 않다.

<sup>35</sup> 『시경(詩經)』의 「별목(伐木)」이라는 시에 “나무 베는 소리 정정하니/ 새들 우는 소리 앵앵하네”라는 표현이 있다.

는 자신에게 그래도 “견디란다”라고 다짐한다. “장수산”, “고요”, “옷질 중”의 세계와 동일시되기 위해서는 세속을 잊고(“슬픔도 없이 꿈도 없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시가 발표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화자의 각성은 시인 정지용 자신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순수 자연을 매개로 한 정지용 시인의 성찰적 인식은 다른 시편들에서도 이어진다. 순수 자연의 세계는 질곡의 현실에 동화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견뎌 유랑길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말기에 핍박과 가난을 피해서 만주나 미국, 러시아로 유랑길을 나섰던 사람들과 비슷한 동기로 정지용 시인은 1930년대 후반에 겪은 혹독한 현실과 정신적 가난을 피해 순수 자연의 세계로 나갔다. 그러한 정신적 유랑은 가령 “햇살 피어/ 이윽한 후, // 머흠 머흠/ 골을 옮기는 구름. //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 차돌부리 / 축 축 죽순 돋듯. //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 앞으새 가리어/ 양지쪽에 쪼그리고, //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조찬(朝餐)」 전문)에도 드러난다. 화자는 자신과 “골을 옮기는 구름”의 떠도는 모습과 “길경 꽃봉오리”, “차돌부리”, “물소리” 등과 어우러진 “서러운 새”의 모습을 동일시한다. 떠도는 자의 자아 성찰은 다른 시에서 “수줍어 돌아앉고, 철 아닌 나그네 되어, / 서려 오르는 김에 낮을 비추며 / 돌 틈에 이상하기 하늘 같은 샘물을 기웃거리다.”(「붉은 손」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장수산 2」에서도 “나도 내던져져 있다 일찍이 진달래꽃 그림자에 붙었던 절벽 그 보이한 자리 위에!”라는 시구에 드러나듯이 “나”는 세상과의 절연된 존재로서 자연과 자아를 동일시한다.

정지용의 산수시는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지향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방향성을 지닌다. 그것은 문학도 예외 없이 암흑기를 맞이했던 1930년대 후반에 한국어를 쓸 수 있던 마지막까지 조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한국어 시를 썼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또한, 산수시는

정지용 시인이 문예지 『문장』을 통해 등단시킨 청록파 세 시인에게 영향을 끼친<sup>36</sup> 점에서도 문학사적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30년대 후반과 광복 이후의 한국 시사의 한 부분을 지탱해준 조지훈의 불교적 자연시, 박목월의 토속적 자연시, 박두진의 기독교적 자연시 등은 정지용의 산수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들 시에 드러나는 유랑 의식과 탈속의 자연은 정지용의 산수시가 지닌 디아스포라 의식과 연관된다.

## 5. 결론-이산과 파종의 디아스포라

정지용은 근대 초기의 시대적 모순 속에서 살다 간 시인이다. 근대 초기는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옥천에서 나고 자란 정지용은 학업을 위해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는데, 서울은 식민지 조선의 중심이자 근대 문물이 집약된 곳이었다. 그곳에서 정지용은 디아스포라 의식이 싹트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에 유학하면서 그러한 의식은 더욱 강해진다. 정지용은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일본 시단에 시를 발표하기 위해 일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지용은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 등의 언어에 이중, 삼중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다. 정지용은 시의 출발 시기에 언어의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것인데, 이는 「카페 프란스」를 비롯한 초창기 작품에는 나타나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 유랑 의식, 비애감 등과 관계 깊다.

정지용의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 가운데 향수, 실향 등의 정서는 옥천에서 서울과 교토로 이어지는 지리적 맥락과 연관된다. 그의 고향 시 가운데 「향

<sup>36</sup> 이승원, 앞의 책, 184쪽.

수」, 「고향」, 「이토(異土)」 등의 작품은 고향과의 '동일시·반동일시'라는 양가 감정을 드러낸다. 고향 옥천은 정지용이 실제로 체험한 유년의 기억이 있는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의 장소이다. 그곳은 비록 가난하지만 애뜻하고 아름다운 유년의 기억이 살아있는 전원적 장소이다. 「향수」를 창작할 즈음 이미 타향 혹은 타국에서 살고 있던 정지용의 마음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고향」에 오면 나르시시즘적 동일시를 넘어서 속된 현실에 몰든 자아 성찰을 드러낸다. 고향은 그대로인데 문명 현실과 식민지 현실 속에서 속화된 시적 자아는 자신을 비판적으로 응시하게 된다. 또한, 일제 말기에 발표한 「이토(異土)」에서는 고향을 부정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시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시다운 시를 쓰지 못하게 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지용 시에서 고향과 관련된 디아스포라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지용의 후기시에 나타나는 조선적 감각의 세계는 유랑, 향수, 실향 등과 관련된 디아스포라 의식을 거쳐 도달한 것이다. 보통 산수시로 일컬어지는 후기시는 순수 자연이나 조선적 전통의 세계를 향한 자발적 소외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비인간 세계를 보여주지만, 1930년대 후반에 시인이 지녔던 탈 인간, 탈 속세의 의지가 시 정신의 배후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반서구적이거나 반모더니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의 전통적 감각과 이미지즘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의 세계를 개척한 것이다. 특히 「구성동」, 「장수산 1」, 「백록담」, 「조찬(朝餐)」 등의 산수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정지용이 조선 곳곳을 여행한 경험에서 나온 시편들인데, 일제 말기의 혹독한 전쟁기에 조선 정신과 조선어의 공백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는 여행이라는 형식의, 현실에서의 자발적 추방을 통해 이전의 자신의 시나 이전의 조선 시와 다른 새로운 시의 세계를 추구했던 셈이다.



이처럼, 정지용의 시는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산과 파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간직한다. 이산은 근대 문명의 인간 소외, 식민지 시대의 고향 상실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초기 시의 모더니즘 시나 고향 관련 시편들에 다양하게 드러난다. 또한, 파종은 새로운 땅에 삶의 영토를 가꾸는 일인데, 정지용 시에서 그것은 초기시의 경우 실향을 인정하고 고향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후기 시에서는 인간이 부재하거나 최소화된 순수 자연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지용은 물론 강제적 추방을 당한 적이 없기에 엄격한 의미의 디아스포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옥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타향에서 살았던 점, 우리나라가 겪은 초기 근대의 모순이나 식민지 역사와 관련하여 뿌리 뽑힌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의식’을 간직한 존재였다. 따라서 정지용에게 디아스포라 의식은 전후기 시를 일관하는 시 정신으로서 그의 시적 주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초 자료

- 권영민 엮음, 『정지용 전집 1 시』, 민음사, 2016.  
\_\_\_\_\_, 『정지용 전집 2 산문』, 민음사, 2016.  
\_\_\_\_\_, 『정지용 전집 3 미수록 작품』, 민음사, 2016.

### 2. 참고 자료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1939년 10월.  
김승희,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이산(diaspora)」, 『비교한국학』 11-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3.  
김용직, 「주지적 태도에서 『思無邪』까지」, 『한국시학연구』 7호, 한국시학회, 2002.  
김용희, 「정지용 시에서 자연의 미적 전유」, 『현대문학의 연구』 22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04.  
김윤식, 「가톨릭시즘과 미의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응교,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와 타자로서의 일본」, 『한국언어문화』 6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김정택, 『노자 도덕경』, 성균관대 출판부, 2021.  
들뢰즈 · 가타리, 조한경 옮김,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0.  
박진숙, 「식민지 근대의 심상 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 표상」, 『민족문학사연구』 31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박철희, 「참신한 동양인=정지용」, 김은자 편, 『정지용』, 새미, 1996.  
송기환, 「정지용의 『향수』에 나타나나 고향의 의미」,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3.  
유교문화연구소, 『시경(詩經)』, 성균관대 출판부, 2008.  
윤의섭,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간성의 수사학적 의미」, 『한국시학연구』 9호, 한국시학회, 2003.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이원섭, 『이백 시선』, 현암사, 2003.  
최동호, 「정지용의 <장수산>과 <백록담>」, 김은자 편, 『정지용』, 새미, 1996.  
하재연, 「일본 유학 시기 정지용 시의 특성과 창작의 방향」, 『비교한국학』 15-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

## The Diaspora Consciousness and the Meaning of 'Chosun-like' in Jeong Ji-yong's Poetry

Lee, Hyeon-gwon · Lee, Kang-ho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f diaspora consciousness of Jeong Ji-yong's poetry in terms of separation and seeding. Jeong Ji-yong was born in Okcheon, but left his hometown early to go to Seoul to study. Seoul was the center of colonial Joseon and a place where modern culture was concentrated. There, it can be said that Jeong Ji-yong's consciousness of diaspora sprang up. Later, when he studied at Toshisha University in Kyoto, Japan, such consciousness became stronger. While majoring in English literature at Toshisha University in Kyoto, he had no choice but to use Japanese to present poetry to the Japanese poetry group. At that time, he was exposed to Korean, Japanese, and English languages in two or three ways. This is an experience of a kind of linguistic diaspora, which is deeply related to the confusion of self-identity, wandering consciousness, and grief that appear in early poems such as "Cafe Frans."

Among the diaspora rituals of Jeong Ji-yong's poem, nostalgia and incense are related to the geographical context from Okcheon to Seoul and Kyoto. Among his hometown poems, works such as "Nostalgia", "Hometown", and "A different land" reveal the ambivalence of "Identification/Anti-identification" with his hometown. Okcheon, the hometown, is a place of narcissistic identification with memories of childhood experienced by Jeong Ji-yong. It is a rural place where fond and beautiful childhood memories are alive, even though it is poor. By the time he created "Nostalgia," Jeong Ji-yong, who was already living in another country or other country, was full of longing for his hometown. However, in "Hometown", beyond narcissistic identification, it reveals self-reflection imbued with secular reality. It also denies hometown.

It is the world of Joseon sense that Jeong Ji-yong's poetry reached through the diaspora consciousness. Later poetry, called natural poetry, has the character of voluntary alienation toward a world of pure nature or Joseon tradition. This is the expression of diaspora con-

sciousness in a kind of sowing or pioneering spirit of a new world. It mainly shows the non-human world, but it again reveals the will of dehumanization and dehumanization that it showed in the late 1930s. It does not simply mean anti-Western or anti-modernist. Rather, it pioneered a new world of aesthetics by combining the traditional sense of Joseon and the sense of imaging. In particular, poems such as “Guseong-dong”, “Jangsu-mountain 1”, “Baeknokdam”, and “Breakfast”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ese are the poems from Jeong Ji-yong’s experience of traveling throughout Joseon. And these the result of his efforts to escape a vacuum of the Joseon spirit and the Korean language during the harsh war period a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ey Words :** Jeong Ji-yong’s poetry, Diaspora consciousness, Dissimilarity, Seeding, Identity confusion, Wandering consciousness, Sorrow, Nostalgia, Joseon sense

논문접수일: 2023.03.15 심사기간: 2023.03.29~04.10 게재확정일: 2023.04.12.
---

## 이연주의 장소성 연구

김명인\*

1. 서론
2. 공간과 장소, 그리고 무능
3. 도시: 분열의 장소화
4. 병원: 무장소성의 구성
5. 시체 안치실: 가상의 장소
6. 결론

### | 국문초록 |

이연주의 시 세계의 해석에 있어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의 비극적 삶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기적 이력이, 풍성한 해석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는 장소성을 중심으로 이연주의 시를 살피고자 한다. 공간과 장소의 상이성 때문이다. 공간은 관념성을 품고 있으며, 이는 텍스트 외부적인 시각이 영향을 끼친다. 이에 비하여 장소는 시적 주체의 경험적 측면과 연동된다.

이연주 시에 있어 주요한 장소는 도시와 병원이다. 여기에서 병원은 다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의 장소와 죽은 이를 부검하는 시체 안치실로 나뉜다. 도시는 주체를 감시하며 주체의 분열을 촉구하고, 이를 통하여 신체의 도시화를 일으킨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은, 치유의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무장소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성을 향하여 구성된다. 이에 비하여 시체 안치실은 가상의 장소로써 시인에게 진정한 장소감을 제공하며, 도시의 반대편에 놓인 서역을 열어 보인다. 이연주에게 시는 서역이라는 이상적 장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다. 거기에서 희생을 통하여 삶에 대한 긍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장소를 통하여 이연주의 시 세계를 살폈을 때, 비극적 영토에 갇힌 그간의 해석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이연주, 도시, 병원, 공간, 장소, 가상

## 1. 서론

본고는 이연주 시에 보이는 장소적 특정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주체와 갖는 관계 및 특성을 통하여, 이연주 시에 대한 새로운 시적 해석 지평을 열어 보이고자 한다. 이에 대전제로 하는 것은 장소와 공간의 상이성이고, 그 상이성이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이연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그가 시적 전략으로 내세운 이항대립적 공간과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죽음이 지닌 내적 압력으로 인하여 논리적 유연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이연주의 시세계를 살피는 데 있어 보다 객관적인 논리적 준거를 요구한다. 이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아닌 ‘장소’가 더 합당하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통합적인 성질로써 그 가용 폭이 넓다는 점,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의하여 객관적 시선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에 비하여 ‘장소’는 구체적이면서 경험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주체와 맺는 관계 양상 파악이 객관적일 수 있다. ‘공간’이 아닌 ‘장소’를 준거틀로써 삼을 때, 이연주 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지평뿐만 아니라, 이연주의 비극적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단초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연주는 1953년 군산에서 출생하고, 1990년 『월간문학』 4월호에 「죽음을 소재로 한 두 가지 개성 1」로 등단했으며, 이후 1991년 『작가세계』 가을호에 「가족사진」 외 9편을 발표, 당해 첫 시집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을 출간한 후, 이듬해 자살했다. 그리고 다음해 유고시집 『속죄양, 유다』가 출간되었다.<sup>1</sup> 이연주는 등단과 첫 시집의 출간 간극이 매우 짧은 이례적인 사

<sup>1</sup> 유준은 최근 간행된 『이연주 시 전집』(최근의농간, 2016)에서 1989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했다는 것은 1990년의 오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유준, 「변제에 이르는 시와 삶, 혹은 사라지는 매개자: 이연주의 시와 삶에 대한 소고」, 『비평문학』 70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114-115쪽 참조).

례에 속한다. 게다가 첫 시집을 출간한 이듬해,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1년이 조금 넘는 문단활동,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간호사를 했다는 이력<sup>2</sup>, 그리고 시 속에서 그린 성(聖)과 속(俗)의 극명한 대비와 자살이라는 생의 종지부가 겹쳐지면서, 그에 대한 해석의 지평은 비극적 영토에 갇히게 된다. 시인으로, 나아가 한 존재로서 이연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 발생하는 난관과 압력으로 인하여, 기존 연구들은 같은 의미 맥락 속에서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sup>3</sup>

기존 이연주 연구 중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은 유준과, 최성민·김장원, 정연정이다. 먼저 이연주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대하여 유준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폭압과 타락한 자본제적 문명 아래서 신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데에 생각이 일치한다. 달리 말해 다소 동어반복적이다.”<sup>4</sup>라고 지적한다. 유준은 이연주의 시 텍스트를 통하여 그가 선택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연주에게 시는 마지막 절규의 텍스트이고 번제의 프로젝트로써 이는 비존재적 실존의 외상적 실재이며, 결국 이연주는 비존재적 실존과

<sup>2</sup> 김정란, 「멋진 그녀를 추억하다: 자살한 시인 이연주」, 『여성신문』, 2003.6.17. 참조.

<sup>3</sup> 이연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아래와 같다.

먼저 시집 해설은 아래와 같다.

임태우, 「위악의 시학」,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 해설, 세계사, 1991; 이정호, 「부패한 삶의 굴형에서 벗어나는 절망의 노래」, 『속죄양, 유다』 해설, 세계사, 1993; 이외 논의로는 김승희, 「한국 현대 여성시의 고백시적 경향과 연술 특성 - 최승자, 박서원, 이연주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권, 한국여성문학회, 2007.12; 김정란, 「이연주를 기억하며」, 『분노의 역류, 아웃사이더』, 2004; 문선영, 「추의 미 발견으로서 아웃사이더의 독백 - 김혜수의 404호 (민음사), 이연주의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 (세계사)」, 『오늘의 문예비평』, 1992 봄호, 통권 제5호, 1992.4, 166-179쪽; 신정남, 「이연주 시의 욕망의 양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양광준, 「이연주 시의 공간 연구」, 『비평문학』 30호, 2008.12; 이승하, 「자살한 시인이 남긴 시집 - 이연주론」, 『작가세계』 2000년 가을호, 통권 제46호; 이재복, 「죽음 혹은 제3의 삶 - 이연주론」, 『몸』, 하늘연못, 2002; 정연정, 「철학 : 메트로 - 폰터의 “살” 개념으로 본 한국현대시 - 이연주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사학/철학』 27집, 한국불교사연구소, 2011; 정효구, 「살기 위해서 선택한 죽음 - 이연주론」, 『몽상의 시학』, 민음사, 1998; 최성민·김장원, 「기억의 종말로서의 죽음 판타지 - 이연주론(論)」, 『문학치료연구』 41권 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10.

<sup>4</sup> 유준, 앞의 글 116쪽.



존재적 실존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연주의 ‘죽음’이라는 그 비극성에 갇힌 채, 그 죽음의 해석 및 의미 확대에 치중하는 바, 논의의 다양성보다는 이연주라는 개인의 신화적 성격 부여에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다. 최성민·김장원의 경우<sup>5</sup> 1990년초 ‘자살 정국’이라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어진 사회적 ‘죽음’의 연장선에 이연주를 함께 위치하고 있다. 당대의 구체적 현실의 영향 관계를 밝히며 이연주 시에 나타난 죽음의 판타지를 규명하고 있으나, 이연주가 얼마나 치열하게 시대적 현실과 교응하고 응전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 자체가 판타지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연정은 메를로-퐁티의 ‘살’ 개념을 통하여 이연주의 시를 분석하고 있다. 이연주의 주체가 풍부한 몸의 미학인 ‘세계의 살’ 대신 훼손된 ‘살’이 흥건한 시공간의 역설적 경계 위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훼손된 ‘살’을 생성케 하는 배경 및 그에 따른 주체의 구성 양태는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이연주에 대한 연구는, 그의 삶에 갇히려 있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인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특정적 장소가 주체에게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탐색해야 할 것은 시의 장소이다.

## 2. 공간과 장소, 그리고 무능

칸트는 공간에 대하여 “공간은 현상으로서의 사물들에 대한 인식의 요소이다.”<sup>6</sup>라고 지적한다. 공간이 인식의 요소라는 것은, 그 자체로 관념적 성격

<sup>5</sup> 최성민·김장원, 「기억의 종말로서의 죽음 판타지 - 이연주론(論)」, 『문학치료연구』 41권 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10.

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념에는 당연히 일률적으로 부여해야 할 분할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문학 텍스트로 들어왔을 때는 그 일률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발현되기 마련이다. 이 개별적 발현은 곧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각자의 몫이며, 따라서 공간에 따르는 기준 또한 결국 공간의 외부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은 외부의 관점에 의하여 분리되고 독립되고, 분할되는 셈이다. 이때 문제는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놓여야 할 텍스트 내의 주체의 위상 또한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간이 지닌 이와 같은 특성은, 이연주처럼 비극으로 점철된 시인 혹은 작가의 전기적 삶과 만나는 순간, 성(聖)과 속(俗)으로 손쉽게 이분화된다. 부패하고 타락한 소통 부재의 도시와 그것을 떠받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럼에도 그것과 응전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연주와 시적 주체의 비극적 만남으로 말이다. 이 동어반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간이 아닌, 애초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인 장소이다.<sup>7</sup>

장소라는 개념을 살필 때, 쉽게 빠지는 오류는 그것을 그저 공간의 한 요소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은 형태가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또 직접 묘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느끼고, 알고 또 설명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장소감이나 장소 개념이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이 장소에 맥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은 그 의미를 장소들로부터 얻는다.”<sup>8</sup>는 에드워드 렐프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 결국 이연주의 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정치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간이 아닌 장소이다. 장소 자체가 공간에 그 의미

<sup>6</sup>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474쪽.

<sup>7</sup> 이푸 투안은 “공간은 정의와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하나의 장소로 변모해”(이푸 투안, 윤영호 · 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55쪽)간다고 지적한다. 장소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구체적인 실체인 것이다. 때문에 장소를 논한다는 것은, 대상 텍스트 내부에서 들어가 주체의 경험과 감각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8</sup>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식』, 논형, 2005, 39쪽.

를 부여하듯, 주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에 의하여 특정된 장소는, 주체에게 구체적 경험을 부여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시 텍스트에 드러난 장소적 특정성을 살펴야만, 한 시인의 시 세계를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시에 있어서 장소는 비가시적 무대이다. 무대가 없으면 극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에 있어서 비가시적 무대인 장소는 시인의 환시적 몰입으로 인하여 시인 자신에게도, 그의 시를 읽는 이들에게도 종종 인식되지 않는다. 일종의 비주제적 지평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장소와 공간 중, 후자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거나, 아니면 양자 사이의 개념을 혼동하여 텍스트에 대입하는 까닭이다. 결국 장소는 시인의 내면에서 구성되고 만들어진 가상태이다. 이와 같은 시 텍스트 속 장소의 가상성은 그 해석의 틀을 보다 쉽게 재단하도록 이끈다. 시의 장소성을 살피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시의 전경에 있는 도시의 비인간성이나 물질화, 피폐함 등을 논하는 것은 시와 장소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시적 주체나 시인 자신과 어떤 친밀성을 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정한 답이 아니다. 장소를 살피는 데 있어 증시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시인의 환시적 몰입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텍스트의 배면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장소는 시적 주체에게 경험적 측면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경화되어 있는 이 장소가 곧 시인의 의식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있음을 인지했을 때, “실재가 ‘가상’이 되어버렸다. 반면 완전히 날조된 존재자의 세계가 실재가 되어버렸다”<sup>9)</sup>는 니체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니체는 세계가 가상의 세계와 날조된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 날조된 세계에 속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세계, 진리, 신 등으로 인식하는 세계이다. 얼핏 그것이 실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재는 가상이 되었고, 니체

9 프리드리히 니체, 박찬국 옮김, 『안티크리스트』, 아카넷, 2013, 24쪽.

에게 가상은 ‘거짓’이나 ‘가짜’가 아니다. 오히려 니체는 실존이 가상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가상에 의하여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10</sup> 이것을 시의 장소성으로 되돌려 분류하자면 시의 장소에는 가상의 장소와 날조의 장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소성을 논함에 있어서, 새로운 틀이 될 수 있다. 즉, 시의 장소를 가상과 날조로 나누어 배치하며, 그 배치에 배태되어 있는 시인의 의식을 역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소의 분리는 도시로 상징되는 속(俗)과 서역으로 상징되는 성(聖)으로 이분화되어 해석되는 이연주의 시 세계에 대입 가능하다. 이연주가 내세운 상반된 두 장소가 점유하는 양상은, 그의 ‘장소-언어적’ 전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권의 시집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매음녀’와 ‘속죄양’이라는, 이 대비적 효과 속에 기능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장소적 특정성은 시인의 의식적 구조화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각 장소의 특성과 그곳에서 보이는 주체의 양상을 바탕으로 이연주의 시를 파악할 수 있다.

미셸 푸코는 공간이란, 주체가 구성한 실체가 아니며, 복합적인 힘들의 배치와 구성을 통한 효과라고 지적한다. 결국 배치와 구성을 통한 공간의 효과는, 계보학적인 관점을 담보로 한다. 이는 “주어진 시대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복합적 ‘힘관계들(relations de forces)’이 형성”<sup>11</sup>하는 것이다. 이때, 시적 주체는 소거되어, 무능의 성질을 띠 수밖에 없다. 이 무능은 곧 현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으며, 텍스트로 나타난 것은 이미지를 통하여 영상화된 인식풍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시적 주체의 무능함이다. 이 무능은 곧 성찰의 불가능성에 연원한다. 결국 장소 혹은 공간의 설정이 시인

<sup>10</sup> 심재민, 「생성과 가상에 근거한 니체의 미학」, 『뫼히너와현대문학』 제17집, 한국뫼히너학회, 2001, 119쪽 참조

<sup>11</sup> 푸코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허경, 「서구 근대도시 형성의 계보학-미셸 푸코의 도시관」, 『도시인문학연구』 제5권 2호, 도시인문학연구소, 2013, 10쪽 참조.

의 시적 전략 속에서 의도에 의하여 선택,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관계에 의하여 시적 주체는 성찰 불가능한 상태, 무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는 이연주의 시 세계에서 도시를 통하여 드러난다.

### 3. 도시: 분열의 장소화

이연주의 시에서 부각되는 장소는 도시와 병원이다. 그리고 후자는 치유를 바탕으로 한 곳으로 성소(聖所)화된 장소로, 서역의 한 지류로 읽힌다. 마치 시인의 의도에 의하여 성(聖)과 속(俗)으로 분할해놓은 이 장소가 지닌 의미적 맥락을 좇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결국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각각의 장소 속에서 주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특정한 장소성으로 회귀하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특히 치유의 장소로 제시되어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의 장소로 묶어 파악할 수 없다. 각 텍스트가 구성된 시기에 따라서 구체적 경험의 밀도가 다르며, 또한 그 장소 자체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소는 존재하고 있다는 실감을 배태하는 요소 중 하나다. “공간은 정의와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하나의 장소로 변모해”<sup>12</sup> 가기 때문이다. 이때의 장소는 단순히 거주하는 생활토대뿐만 아니라, 그로인하여 부여되는 사회적·계급적 지위와 역할까지 포섭한다. 때문에 장소는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점유로 그 층위를 달리하게 된다. 이것을 이연주가 활동했던 1990년대라는 국내 시기와 맞물려 보자면, 이연주에게 주어진 장소가 갖는 시대적 공통점은 유토피아의 부재라 볼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1991년

<sup>12</sup> 이투 푸안, 윤영호·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55쪽

12월 26일에는 소련이 붕괴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3당 합당이 있었고, 1991년 강경대가 시위 도중 사망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시위와 분신자살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으로 도시는 팽창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는 우리 현대사에서, 서구의 68년에 빗대어 볼만큼 가장 변혁적인 시기였던 60년 4월, 80년 5월, 87년 6월의 좌절들이 첩첩이 쌓였다가 다시 분출되었던 91년의 마지막 변혁적 전망마저 처참하고도 결정적으로 꺾이게 된 시기였다.”<sup>13</sup>

결국 이연주에게 있어 가장 명확한 사실은 전망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제적 삶이 보여주는 유토피아는 날조의 세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이/ 뼈를 발라낸/ 도살당한 고깃덩어리와 씹한다(「유토피아는 없다」)”는 절규와 “난 걱정 없어요/ 고단위 비타민을 먹지요/ …(중략)… / 구질구질한 사람들은 이 근처엔 절대/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죠, 경계가 삼엄하니까요(「유한 부인의 걱정」)”의 간극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경계되는 삶. 그것은 날조된 세계에 의하여 부여된 도시의 삶이고, 보다 세분화하자면 그 도시 변두리의 삶이다. 때문에 먼저 주목해야 할 장소는 바로 도시이다.

이연주는 도시라는 장소를 상정함에 있어 닫혀 있는 폐쇄성과 연관 짓는다. 도시는 곧 폭력적 시선에 의하여 갇힌 장소로 특정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선의 폭력은 주체의 신체에 가해지고, 무능한 주체의 신체는 시선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찢겨지면서, 기억을 소환해 재조립된다. 이때 찢겨진 육체는 다시 개개의 장소가 되며, 동시에 너무나 많은 지옥이 된다. 도시는 “일찍 와서 오래까지 질”긴 곳이기예, “나는 푸들푸들 떨고 있(「겨울의 유배지」)”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연주가 적극적으로 발화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현

<sup>13</sup> 최성민·김장원, 「기억의 종말로서의 죽음 판타지 - 이연주론(論)」, 『문학치료연구』 41권 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10, 283쪽.

대자본제의 도시는 주체에게 닫힌 장소이며, 닫힌 상태에서 주체를 분열시키는 장소이다.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이 도시엔 경계망이 대단하오/ 하루 세 번 교대되는 경비 초소의 무장 군인들/ 시간은 촌촌한 그물망처럼 규격이 단단하오(「집행자는 편지를 읽을 시간이 없다」).”에서 볼 수 있듯 이 닫힘을 작동시키는 타자의 시선이다.

그런데 이 주체를 감시하는 이 시선의 주인공을 타자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도시라는 장소의 특정성을 이연주가 배치하고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선의 주인은 도리어 이연주 자신이지 않을까? 이는 장소의 폐쇄성이 주체에게 무능을 강요하고, 주체의 신체로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에 의하여 방증된다. “악성 화학물질들이 바리케이드 치고 있다/ 폐 속의 싹틔줄마다 온통 시킴케/ 먹구름의 종양이 터를 잡고 있다(「모음의 부드러운 지령 앞에서」)”에서 알 수 있듯, 주체의 신체는 곧 시가 재현되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신체로부터 파생된 이 장소는 곧 도시가 된다. 이와 같은 분열과 재현의 양태는 가족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최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바람난 애미가 도망치고 애비가 땅을 치고 울고

애비가 섰다판에서 날을 새고

그 애비의 아이가

애비를 찾아 섰다판 방문을 두드리고

본드 마신 누이가 찢어진 속옷을 뒤집어 입고

지하상가 쓰레기장 옆에서

면도날로 팔목을 긋고

세 살난 막내가 절룩, 절룩 자라가고  
에미 애비와 누이의 일들을 거침없이 이해하고

오늘,  
밤마다 도시가 하나씩 함몰되고, 나는  
등불에서  
등심지를 싹둑, 싹둑 잘라내고

- 「가족사진」 전문

가족사진 속 가족이라는 구성체는 서로 분리된다. 집이라는 장소가 지닌 실체가 파괴된다. 먼저 ‘에미’가 찢겨져 나가고, ‘에비’는 집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아이를 찾아오도록 만든다. ‘누이’는 팔목을 긋고, 막내는 “절룩, 절룩 자라”간다. 이 해체된 가족은 각각의 지옥을 이루고, 그것이 한데 모인 도시는 함몰된다. 가족사진은 가족이 해체되어, 각자의 지옥으로 나아가, 하나의 지옥으로 완성되는 풍경이다. 이것은 세 살이 된 막내가 가족을 거침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진술로 완성된다. 이 지옥은 대물림될 것이고, 이 대물림은 연쇄를 통하여 도시의 함몰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주체가 하는 일은 “등심지를 싹둑, 싹둑 잘라내”는 것뿐이다. 등불에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도록, 등심지를 잘라내는 행위가 시어의 반복을 통하여 강조된다. 이 강조의 배치는 주체가 시를 통하여 재현한 장소로부터 그 자신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등심지를 잘라냄으로써 전망의 부재 속으로, 그 어둠에 빠져들고자 하려는 의도 속에는 무능하게 자신이 해체되는 것을 기록하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연주에게 있어서 실재이다. “집이라는 장소와 일상적인 삶은 실재를 느끼는 것”<sup>14</sup>이기 때문이다.

---

<sup>14</sup> 이투 푸안, 앞의 책, 73쪽.



이 실제감은, 결국 시적 주체의 신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주체의 무능을 거쳐 신체의 해체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의 생리가 잘 드러나는 시장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한 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좌판에 누워」에서 나는 자반고등어이고, 식탁으로 가는 길을 기다릴 뿐이고, 「유토피아는 없다」에서는 “간음한다 / 간음당한다/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이/ 뼈를 발라낸/ 도살당한 고깃덩어리와 씹한다”에서 보듯 진열되어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여 “맹렬한 분열을 거듭한다”.

이연주의 시에서 도시를 나타내는 일련의 장소 속에서 주체는 무능하게 놓여 있을 뿐이고, 그것은 신체의 분리로 작동하여, 분열을 일으킨다. “이연주 시편들이 섬찍하리만치 절망적인 색채를 보여주게 되는 까닭은 그런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삼아 그것들을 비판하고 부정할 수 있는 거리감을 확보해 놓지 않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sup>15</sup>는 지적처럼, 이연주 시에 나타난 시적 주체의 신체는 곧 장소, 도시화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신체에 도시가 재생산되는 양상인 것이다. 에드워드 랄프는 “장소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정적인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는 장소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중략)… 장소의 의미는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속성으로 한다. 의미는 변화할 수 있으며,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리고 의미는 복잡성, 모호성, 명확성 등 자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sup>16</sup>고 지적하는 바, 장소는 곧 개인이나 공동체의 장소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으로 융합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연주가 도시라는 특정한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했을 때, 그것은 부득불, 그의 내면에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무능과 신체의 분열로 도시를 주체 안에 재구성하는 양상은 이연주의 시세계가 가지는 중요한 특질 중 하나이다. 여기에 또 다른 장소가, 즉 분열된 신체를 치료해야 할 장소가 호출된다. 바로 병원이다.

<sup>15</sup> 이경호, 「부패한 삶의 굴형에서 벗어나는 절망의 노래」, 『속죄양, 유다』 해설, 세계사, 1993, 100쪽.

<sup>16</sup> 에드워드 랄프, 112-113쪽.

#### 4. 병원: 무장소성의 구성

도시와 병원은 극단에 위치한 장소로 보인다. 양극단에 위치해 보이는 두 장소의 특징적 배치는 시인 스스로 분명한 목적성 속에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성은 되려 이중구속으로 작동된다. 시인은 이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도시에 의하여 분할되어 찢겨진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조각들을 다시 모아야 하고, 그것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종교적 장소를 통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장소, 바로 병원이나 진료실을 통한 것이다. 특히나 기지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력을 지닌 이연주에게 있어서 후자의 장소는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장소다. 이 장소가 그의 경험과 맞붙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을 통한 시적 주체의 체험 밀도는 그의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서 다르게 발현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먼저 병원, 진료실이라는 장소가 도드라지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시집 『속죄양, 유다』이다. 첫 시집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에서 병원이 나타난 작품은 「발작」, 「죽음을 소재로 한 두 가지의 개성 1」, 「무엇이 잘못?」, 「차용된 인생」, 「신생아실 노트」, 「인큐베이터에서의 휴일」, 「출산 에피소드」 등이고, 『속죄양, 유다』에서는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이란 부제를 단 9편의 시 외에도 「성자의 권리」 연작 11편, 「충격요법을 실험 중인 진료실」 등으로 늘어난다. 두 시집 간의 구성과 배치는, 그것이 비교적 순차적으로 쓰였다는 가정 하에서 보자면 도시라는 공간에 대한 주체의 무능과 신체적 분열에 따른 재도시화의 치유나 치유 불가능성을 향하여 확장되고 있을 심산이 크다. 이를 위해 먼저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에 나타난 병원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살펴야 한다.

이연주의 첫 시집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에서 병원은 주로 신생아의

탄생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난관절제수술을 받은 여성은 “이 너저분한 판국에 무슨 배짱으로 자식새끼를……”이라고 하지만, 수술을 받은 후 “바퀴벌레처럼/ 장롱 밑구멍에 누워 저렇게 조용한 것입니다(「무엇이 잘못?」).”처럼 누워 있을 뿐이다. 태어난 아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출산 에피소드」에서는 분만중인 산모가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죽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신생아실 노트」에서는 태어난 아기들이 “방치된 탄생이 관 같은 요람에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분만실, 혹은 신생아실이란 장소는 탄생의 공간임과 동시에 죽음을 체험하는 곳인 셈이다. 이는 “총과 칼로써 네 몸을 무장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문제는 맨몸으로 기도문 한 구절 없이 버티는 용기와 저항의 힘이란다. 기도문이란 다만 죽은 자들을 위한 문장일 뿐이니까”에서 보듯, 그들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첫 시집에서 나타난 병원은 치유가 아닌, 도시적 경험의 동어반복적 확장일 뿐이다.

또한 병원을 통한 시적 주체의 발화는, 텍스트 내부 정황에 대한 서술적 묘사에 멈추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 「무엇이 잘못?」는 “한 젊은 여자가 난관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로 시작하면서 그녀의 생각과 상태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역할로 몰어나 있으며, 「죽음을 소재로 한 두 가지의 개성 1」 또한 김간호사가 바라보는 환자들과 그로 인한 감정들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출산 에피소드」 또한 출산 장면에 대한 이율배반적 성질의 전달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의 장소성에 대한 시적 주체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앞서 살펴본 도시에 대한 주체의 반응과 비교했을 때 그 내적 열도가 낮다. 이는, 이경호의 지적을 빌어 말하면, 비판하고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거리감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연주가 체험한 이 병원이라는 장소는 도시와는 다른 거리감 속에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연주에게 있어 도시는 감시되고, 닫혀 있으며, 전망이 없는 의미 부여에 의하여 재생산된 장소이다. 주체의 인식틀에

준거한 이 도시는, 곧 주제에 귀속되면서 그 신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시인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장소의 구성은 그 실재감에 의하여 재구성이 불가능해진다. “장소에는 끔찍한 고역, 즉 이 장소에 꼼짝없이 묶여있다는 느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환경과 상징 그리고 틀에 박힌 일상에 속박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일상 생활의 기반으로서의 장소는 앙이 르페브르가 ”일상 생활의 끔찍함“이라고 부른 특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일상 속에는 지루한 일들, 굴욕, 또 끊임없이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필요들, 고난, 보잘것없음, 탐욕이 점철되어 있다. 개인과 장소간에는 융합뿐만 아니라 긴장도 존재한다.”<sup>17</sup> 결국 이연주에게 병원이라는 장소는 고역의 장소이자 그 존재감이 온통 묶여 있는 장소,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시인의 긴장이 텍스트 내부에 있는 병원이라는 장소에 투영됨으로써, 시적 주체는 머뭇거리게 된다. 그 머뭇거림의 증거가 이 거리감이다. 이 거리감 속에서 병원은 치료와 치유라는 원초적 장소경험을 상실하며 도시의 재확장에 불과한 양태가 된다.

하지만 『속죄양, 유다』에서는 다르게 그려진다. 먼저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이란 부제를 단 일련의 시편들은, 이와 같은 것은 의식이라도 한 듯, 대개 진료실이라는 장소를 시 텍스트에서 소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대신하여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그리고 있다.

내가 당신, 하며  
 꽃가루를 공중에 뿌려주면 공기들은 명랑해질 거네.  
 새털 옷은 하늘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사랑인데.

- 「익명의 사랑 -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 · 1」 부분

<sup>17</sup> 에드워드 랄프, 앞의 책, 101-102쪽.

너를 만나러 가던 좁은 골목길.

내 숨소리의 저장소, 그 밑바닥에서

암종의 살점들 터지고 있는지 툭, 툭, 소리 들렸네.

나무가 내 속으로 들어온 것이었을까?

- 「겨울나무가 내 속에 -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 · 2」 부분

웅크렸던 어떤 神이 일어서고

서로의 나인 당신,

바람의 방향은 바뀌게 되고 말지

- 「사랑은 햇빛을 엑기스로 뽑아 -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 · 4」 부분

왜 이 연작에서 텍스트 내부에 병원, 혹은 진료실이라는 장소가 배제되어 있는가. 장소성은 “‘존재’에 기인하며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요소들의 조합과 관련 있다.”<sup>18</sup> 한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간적 지속성과 환경적 요소 등 외적 요소 또한 작동하면서 생겨난다. 때문에 장소가 주체에게 작동하여 장소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의 조합이 주체의 내면에서 기시감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기시감은 곧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산출하게 된다. “한 장소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로 장소는 존재(presence)와 부동성(immobility)의 성격을 지닌다.”<sup>19</sup> 부동성의 성격을 지닌 이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는 곧 주체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로부터 장소성이 존재에 기인한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체의 경험은 공통 기억으로까지 나아간다. ‘진료실’이라는 장소를 내세운 일련의 연작시들이, 그 장소성을 숨긴 채 사랑이라는 주제로 포섭되어 있는

<sup>18</sup> 방승애 · 윤준성, 「공간특정성과 장소특정성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1, No.3, 2010, 178쪽.

<sup>19</sup> 방승애 · 윤준성, 앞의 글, 179쪽.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진료실은 치료(치유)를 행하는 장소이며, 이연주에게 치유는 사랑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공통 기억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통 기억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폭력적인 자본제 가부장사회 아래 억압받는 여성들의 기억이다. 이 공통 기억들에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이란 부제를 붙일 때, 결국 진료실이란 특정적 장소에서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 즉 치유적 성격일 수밖에 없다. 이 연작에 ‘진료실’이라는 장소가 부재한 까닭이다. 진료실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장소가 지닌 경험적 측면이 온전히 전경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통 기억을 현재화하려는 의지이다. 장소를 배제함으로써, 그 특정적 성질을 강화하려는 시도인 것, 이것은 물론 치유에 대한 강렬한 의지이다. 사랑이 실패할수록, 주체가 실패한 사랑의 대상을 그리워할수록 치유에 대한 의지가 더 강렬해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는 새로운 치유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과연 그 치유가, 그 사랑이 가능할까.

기어코 사랑은  
무덤 파는 인부가 되는 것이네.  
식초즙 같은 체액으로  
간이며 심장이며  
깨진 두개골들 이마를 적셔

잘가라,  
내 옛사랑.

- 「적과의 이별 -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 · 3」 부분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 연작에서 주체는 대상을 갈구하면서도 적대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사랑이고, 그 대상은 나의 “무덤 파는 인부”와 같은 존재다. “내가 벌거숭이로 태어나던/ 날, 내 忌日(「탄생의 머릿돌에 관한 화상-위험한 시절의 진료실·6」)”에서 보듯, 주체에게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과 동일성을 지니고, 이 예견된 죽음은 그 어떤 사랑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도리어 그 사랑의 대상을 ‘적’이라고 명명한다. 이 대상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양성을 버린 동성, 한,/ 몸으로의 환생(「우리라는 합성여로의 환생-위험한 시절의 진료실·5」)”에서 보듯 성을 버림으로써 가능할 뿐이다. 이는 “당신이라는 대명칭을/ 탄생의 머릿돌로 세웠네.// 길목엔 붉은 고추 걸어놓고/ 검정 숯 검댕이도(「탄생의 머릿돌에 관한 화상-위험한 시절의 진료실·6」)”에서 볼 수 있듯,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탄생의 지표로 남성을 상징하는 “붉은 고추”, 여성을 상징하는 “검정 숯 검댕이”를 함께 걸어놓는 것을 말한다. 즉, 남성이고 여성인 당신, 성적 구분이 무의미한 당신이어야만 합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 불가능한 사랑의 완성은 곧 진료실의 배제를 통해 경험적 측면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의 실패를 뜻한다. 결국 시인은 진료실이라는 장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의사일지 1999년 12월 15일.

환자번호 0007을 충격요법으로써 다뤄보다

그런데, 그는 치유되어야만 되는 걸까?

만일 치유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개인적 차원의 진보적 의미를 갖는 걸까

그를 치유해야 할 이유에 대한, 지금

신념이 내겐 없다.

- 「충격요법을 실험중인 진료실」 부분

시인은 모든 치유의 포기를 선언하고 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치료를 계속 행할 신념 또한 없다. 이미 몰락한 사랑을 확인하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몰락예의 사랑」)”라고 자조하거나, 이미 몰락했으므로, 사랑이 찾아온들 “나는 치사랑의 주검 (「만일 누군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일 뿐이고, “애정 없는 섹스 (「최수 사랑법」)”일 뿐이다. 사랑이 불가능함으로, 치유의 신념 또한 없으며,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진료실은 그 장소성을 상실한다.

결국 이 연작은 진료의 실패를, 진료실이라는 장소의 무장소성을 향하여 구성되어 있다. “**무장소성**은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 양자를 함께 기술하는 말이다. 그것은 뿌리를 잘라내고, 상징을 침식하고,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경험적 질서를 개념적 질서로 바꾸어 버리면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다.”<sup>20</sup> 병원, 혹은 진료실은 더 이상 아무런 기능을 행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장소이고, 그 자체로도 어떤 의미를 생산할 수 없다. 이는 첫 시집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에서 실재적 경험으로부터의 압박으로 생성된 병원에 대한 객관적 거리감을 지워버리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병원, 혹은 진료실이 지닌 그 장소적 성격 및 기능의 불가능함을 보고함으로써, 이 장소들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이 무장소성을 바탕으로 이연주는 새로운 장소를 구성한다. 바로 「성자의 권리」 연작에서 보이는 장소이다. 이 연작에서 병원이라는 장소는 새로운 특정성을 부여받아 변모한다. 시체를 부검하는 장소이다.

---

<sup>20</sup> 에드워드 랄프, 앞의 책, 290-291쪽.



## 5. 시체 안치실실: 가상의 장소

병원이 신체를 치유하는 장소라면, 사랑은 영혼을 치유하는 내면의 사적이며 은밀한 장소이다. 살펴봤듯,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일련의 작품들에서 부각되는 것은 신체의 치유가 아닌 영혼의 치유이자, 그것의 불가능함이다. 진료실이라는 장소를 특정하는 순간, 그 장소성이 주체에게 사랑을 강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치유가 진정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속죄양’이 필요했던가? 그리고 그 속죄양은 이연주 자신이었던가? 이 물음에 대하여 일련의 연구들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답들은, 다시금 이연주의 비극적 삶에 의하여 회귀된 결론이며, 이 결론으로 향하는 논리는 성급하고 가파를 수밖에 없다. 이 성급한 논리적 일반화에 저항하는 것이 「성자의 권리」 연작이다. 「성자의 권리」 연작을 비롯하여 『속죄양, 유다』에서 두드러지는 진료실의 풍경은 아래와 같다.

나는 수술용 가운을 입었다  
나는 메스대에 날을 끼웠다  
바람이 영안실 서쪽 벽을 치고 갔다

나는 의무를 임명받았다  
나는 톱을 들었다  
아카시아 향내가  
5월이었다 톱날 끝을 지나갔다  
그는 왜 늙지로 돌아왔을까

여기 돌아와서 곱게 매장되는 일은 없다

사람이 사자에 먹힐 때 기립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 원한다  
나는 메스를 든 손에 힘을 모았다  
그자의 두피를 벗기고 뇌막을 열었다  
사람들이 흥분했다

톱날 앞에  
골수를 다 내어놓은 그는  
죽은 무저항의 시민 김기석인지도 모른다  
아카시아 향내가 벌려진 골 속으로  
검은 피에 박혔다

- 「성자의 권리 · 1」 부분

이연주의 「성자의 권리 · 1」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장소는 시체 안치실이  
다. 이 장소는 이미 죽은 자를 부검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부검을 행하는  
이는 ‘나’이다. 수술용 가운을 입고 메스대에 날을 끼우는 구체적 행동으로부  
터 시작하고 있으며, 영안실 안을 울리는 바람 소리 또한 느끼고 있을 만큼  
육체적 감각이 살아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생생한 감각은 2연에  
서 시체를 부검하기 위하여 든 톱날 끝에 지나가는 아카시아 향내로 이어진  
다. 이 생생한 감각으로부터 진정한 장소감이 도드라진다. “**진정한 장소감**이  
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  
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sup>21</sup>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부  
터 진료실, 병원 등으로 묶을 수 있는 의료행위의 장소를 배회하던 주체가  
비로소 연대적 감각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인 아이

---

<sup>21</sup> 에드워드 랄프, 앞의 책, 2005, 150쪽.

러니하게도 치유의 장소가 아닌, 부검의 장소, 죽음의 원인을 찾고, 죽음을 전시키는 장소이다.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서쪽 벽을 치는. 그리고 아카시아 향내를 옮기는 바람이다. 이 바람은 「성자의 권리 · 1」 마지막 연에서 “바람이 다시 와서 서쪽 벽을 치고 간다/ 시체 안치실로 자꾸만 날아 들어오는/ 생각이 많은 무성한 흰 꽃잎들” 반복, 변주된다. 이 극명한 대비적 효과를 통해 “죽은 무저항의 시민 김기석인지도” 모를 죽은 자를 부검하는 이 장면은 더욱 부각된다. 또한 이 바람이 서쪽 벽을 치고 감으로써, 첫 시집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의 자서 격인 「겨울 석양」의 첫 부분의 물음을 환기시킨다. “서역, 그 뒤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은 첫째, 이연주의 시 텍스트 내면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관계임을 암시한다. 이연주의 시에서 나와 타자는 뒤섞임의 상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몸의 뒤섞임이고 정신의 뒤섞임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에 대한 태도일 것이다. 결국 이 물음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반대로 사람이 있다면 다시 가겠다는 의미, 이 양자로 읽힌다. 둘째, 이 물음 이후 이어지는 2연 “다시 시작해 보자./ 더러운/ 추억의 힘이며.”을 통하여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더러운/ 추억”을 만든 길에서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이 물음은 종언, 혹은 떠남으로 읽을 수 있다. 즉, 서역 너머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가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더러운/ 추억의 힘”으로 다시 떠나보겠다는 다짐, 이 양자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겨울 석양」을 통해 이연주가 처음 던진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이 「성자의 권리 · 1」에 놓여 있다. 그곳에 있는 장소는 이미 죽은 자들만 있는, 그들의 “두피를 벗기고 뇌막을 열” 수밖에 없는 부검의 장이라고. 이는 「성자의 권리 · 5」에서도 이어지는바,

비명을 참는 한 사람이  
 집도주의 시행명령을 기다리네.  
 포르말린에 담겨 한 분과연구실로 보내질  
 가슴,  
 그가 벗어둔 피 묻은 장갑이  
 빵가게 모퉁이를 돌아 골목 끝에서 울고 있네.

- 「성자의 권리·5」 부분

처럼 이어진다. 죽음을 전시하는, 그리고 그 원인을 탐구하는 이 장소에서 주체는 마취제를 거부하고 수술대에 올라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마취할 필요가 없는 이미 죽은 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시인은 그가 비명을 참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의 신체 일부분이 포르말린에 담겨 연구실로 보내질 것이라는 인용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이곳은 진료가 아닌 죽음을 확인하는 장소이며,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이미 죽은 존재이다. 이미 금속기계체에 의하여 환하게 열린 몸속에서는 구더기 떼가 나오고 있다. 이 구더기는 “선하게 번식될 원시세포”이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성자는 누구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 연작 전체를 통어하는 시적 진실이다.

「성자의 권리·1」이 부검을 행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성자의 권리·5」에서는 부검이 되는 자와, 부검을 행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다. 부검을 당하는 자는 스스로 마취제를 거부하고, 비명을 참는다. 죽어서도 이어지는 고통과 수난을 감내하는 것. 그것은 성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순교적 자세다. 성자는 “소멸과 생성(「성자의 권리·6」)”을 행하는 자다. 소멸을 통하여 생성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성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 생성의 권리가 한데 모이는 존재는 구더기 떼다. 이것은 무너진 오래된 건물(「성자의 권리·6」)로, 폐수 속에서 죽은 물고기(「성자의 권리·9」)

로 이어지며, 각각 금이 간 벽돌 속으로 기어든 소리나 가슴살을 떼어내며 산소를 만든다는 진술을 통하여 순환 구조를 그려내고 있다. 물론 그것은 생성의 순환 구조가 아니라, 죽음의 재확인이다. 이는 부검 자체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즉, “서역, 그 뒤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행동인 셈. 그리고 그곳에 사람은 없다. 소리가 있고, 짐승이 있고, 구더기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부검이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시체 안치실을 둘러싼 텍스트들은 그것이 가상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연주가 구성하고자 한, 그 서역 너머를 확인해주고 있다. 도시를 통해서 주체의 무능을 거쳐 신체의 해체에 이르고, 그 해체된 신체를 치료해야 할 진료실은,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장소적 속성을 잃게 된다. 치유가 불가능하기에, 동시에 사랑이 불가능하기에, 남겨진 것은 죽음이고, 죽음의 확인 과정일 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인을 시체 안치실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위치하게 한다. 이연주의 시는 죽음의 확인 과정이며, 그것의 완성은 그 스스로 속죄양이 되는 것이다. 『속죄양, 유다』에 마지막으로 놓인 「終身」에 놓인 마지막 시구 “불을 그어다오.”처럼 말이다.

마지막 시 「終身」에서 주체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납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혼신을 다해 촛대에 올라 불을 그어달라고 청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연주에게서 신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가 시를 통하여 그 스스로 속죄양이 될 것을 선언했을 때, 그에게 신은, 그리고 그가 들은 신의 목소리는 무엇이였을까? 신의 메시지라는 것은 증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증여는 그 수신자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존재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연주가 속죄양을 그린다는 것은, 죽음을 통한 속죄가 곧 희망의 제(祭)가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그 마지막 희망은 아래의 시처럼 그려진다.

내가 죽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주부의 손끝에서

비늘 벗겨져

내가 도마에 오른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서

등빛을 등에 달고 펄펄 끓는 솥에 들어가

살에 매운 고춧가루 박고

아이들과 그 아버지의 한때

즐거움이 되어서

그들의 잠자리에 내가 함께

내가 죽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서

- 「즐거운 일기」 전문

「가족사진」의 가족과 「즐거운 일기」의 가족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앞서 언급했듯 「가족사진」 속 가족이 신체의 분열로 이어지며, 각자의 지옥을 다 시금 유전시키는 양상으로 그려져 있다면, 「즐거운 일기」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아버지는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죽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는 것이다. 성(聖)과 속(俗)의 극명한 대비와 자살이라는 전기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연주가 그리고자 한 것은, 그 스스로 죽어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시작해 보자./ 더러운/ 추억의 힘이며.”에서처럼 그 스스로 속죄양이 될 때까지 끝없이 죽음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어떤 이상향을 향한 몸짓이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으나, 여기에서 비극적 영토에 갇혀 있던 이연주의 시 세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 새로운 해석 지평을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룬다.

## 6. 결론

본고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연주의 시세계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했다. 장소의 미세한 변화들이 시인의 사유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이연주 시 세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 새로운 해석지평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연주의 시 세계는 비극으로 종결된 전기적 사실에 의하여 고정된 틀로 해석되어왔다. 성(聖)과 속(俗), 가부장적 남성 폭력에 대한 저항,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조소, 부패한 도시문명의 형상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들에서 동원된 것은 장소가 아닌 공간이다. 공간은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석하는 이들의 각자의 개별성 속에 마련된다. 즉, 문학 텍스트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장소는 주체의 구체적이며 경험적 측면이 강조된다. 장소의 변화에 따른 주체의 대응 양상을 살필 때, 이연주 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먼저 3장에서는 도시, 그리고 이 도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가정이다. 이 장소에서 주체는 무능하고, 이 무능은 곧 신체적 분열로 이어진다. 이는 도시의 폐쇄성을 통하여 끝없이 유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4장에서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병원을 살펴보았다. 이연주의 시에서 병원은 두 번째 시집에서부터 더욱 중요한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위험한 시절의 진료실」 연작에서는 ‘진료실’이란 장소를 배제한 채, 구성하고 있다. 대신 사랑의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치유의 불가능

함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하여 진료실은 치유가 실패하는 공간, 그리하여 그 장소성을 잃은 공간으로 그려진다. 5장에서는 부검을 행하는 시체 안치실을 살펴보고 있다. 이 장소는 실패한 진료 이후에만, 죽음 이후에만 허락된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죽음을 확인할 뿐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곧 속죄양의 죽음이다. 그리고 이 속죄를 위한 죽음을 끝없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정란, 「멋진 그녀를 추억하다: 자살한 시인 이연주」, 『여성신문』, 2003.6.17.
- 방승애 · 윤준성, 「공간특정성과 장소특정성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1 No.3, 2010, 178-179쪽.
- 심재민, 「생성과 가상에 근거한 니체의 미학」, 『뷔히너와현대문학』 제17집, 한국뷔히너학회, 2001, 119쪽.
- 에드워드 랄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9쪽, 101-102쪽, 112-113쪽, 150쪽, 290-291쪽.
- 유준, 「번제에 이르는 시와 삶, 혹은 사라지는 매개자: 이연주의 시와 삶에 대한 소고」, 『비평문학』 70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114-115쪽.
- 이경호, 「부패한 삶의 굴형에서 벗어나는 절망의 노래」, 『속죄양, 유다』 해설, 세계사, 1993, 100쪽.
- 이연주,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 세계사, 1991.
- \_\_\_\_\_, 『속죄양, 유다』, 세계사, 1993
- 이푸 투안, 윤영호 · 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55쪽, 73쪽.
-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474쪽.
- 최성민 · 김장원, 「기억의 종말로서의 죽음 판타지 - 이연주론(論)」, 『문학치료연구』 41권 0호, 한국 문학치료학회, 2016.10, 283쪽.
- 프리드리히 니체, 박찬국 옮김, 『안티크리스트』, 아카넷, 2013, 24쪽.
- 허경, 「서구 근대도시 형성의 계보학-미셸 푸코의 도시관」, 『도시인문학연구』 제5권 2호, 도시인문학 연구소, 2013, 10쪽.

## A Study on Lee Youn-Joo's Sense of Place

Kim, Myung-In | Inha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Studies

In Lee Youn-Joo's poetry, it is his tragic life that always becomes an obstacle in interpreting the world. The biographical history of ending life with suicide becomes an obstacle to a rich interpreta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etry of spectacles focusing on placeness. It is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space and place. Space has an ideology, which is influenced by the appearance of text. Place, by comparison, is geared to the experiential aspect of the poetic subject.

The main places in Lee Youn-Joo's poetry are cities and hospitals. Here, the hospital is again divided into a place of medical treatment aimed at healing and a morgue where the dead are dissected. The city monitors the subject and encourages the division of the subject, thereby causing the urbanization of the body. Clinics aimed at healing contain the impossibility of healing. It is configured for armed plasticity. By contrast, the morgue, as a virtual location, provides the poet with a real sense of place, opening up the western region on the other side of the city. For Lee Youn-Joo, poetry is one way to get to the ideal place of Western Regions.

You can discover the desire to acquire affirmation of life through sacrifice. When you live the world of spectacle through place, you will be able to overcome interpretations in between that are confined to tragic territory.

**Key words** : Lee Youn-Joo, City, Hospital, Space, Place, Fiction

논문접수일: 2023.03.15 심사기간: 2023.03.29~04.10 게재확정일: 2023.04.12.

## 가곡(歌曲)을 통해 본 불우헌(不憂軒)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

윤인현\*\*

1. 서론(序論)
2. 적극적인 삶으로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
3. 불우헌의 가곡(歌曲)에 나타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
4. 결론(結論)

### | 국문초록 |

본고는, 불우헌의 삶과 가곡(歌曲)을 통해 그 삶과 작품 속에 담긴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고구한 글이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빈낙도라고 하면 가난한 삶이나 그가 처한 환경을 막연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어 자연 속에 은둔하는 삶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안빈낙도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논어』의 공자(孔子)와 자공(子貢)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기가 처한 현실을 마음 편히 여기면서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을 살고자 했던 태도이다. 안빈낙도는 공자가 말씀한 ‘빈이락(貧而樂)’ 곧 ‘가난하면서도 학문과 인생의 도를 즐긴다.’는 말로, 그와 같은 뜻에서 생겼다. 곧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성의(誠意)와 수신(修身) 등으로 도를 닦아 나가면서 끊임없이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인생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교수.

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불우현의 가곡에 나타난 삶이 이런 유자의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가 반영되어 있었다.

철저한 유자(儒者)일수록 그 문학이나 문학론에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적극적인 현실관이 나타난다. 그것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과정이나 성현(聖賢)의 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 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유자의 문학은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삶의 이치를 노래하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와 삶의 이치가 일치하기에, 자연을 노래하는 과정에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유자의 안빈낙도의 정신인 것이다. 따라서 불우현이 남긴 세 편의 가곡을 통해 드러난 안빈낙도의 정신은 자기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기체가인 「불우현곡(不憂軒曲)」에서 불우현은 자연에서 평소에 세운 뜻에 따라 소요하고 성현의 도를 행하고자 하였으며, 시조의 초기 형태인 「불우현가(不憂軒歌)」와 가사인 「상춘곡(賞春曲)」에서는 한가로운 자연 속 생활을 즐기며 자연의 이치로 인생의 도를 찾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 그래서 상자연(賞自然)에만 그치지 않았고 또한 부귀공명이라는 헛된 생각을 멀리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런 태도가 유자 불우현이 지녔던 안빈낙도의 정신이었다.

**주제어:** 정극인, 가곡(歌曲), 안빈낙도(安貧樂道), 상자연(賞自然), 수기치인(修己治人), 현실관, 본성 회복

## 1. 서론(序論)

본고는,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의 생애와 그 삶이 반영된 그의 가곡(歌曲)을 통해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아는 안빈낙도는 그저 가난한 삶을 즐기면서 자연에 은둔하는 삶쯤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안빈낙도는 그저 자연과 더불어 가난한 삶을 숙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정도의 삶이 아님을 밝히면서, 15세기를 살았던 유자(儒者) 불우헌의 생애가 반영된 가곡 작품을 통해 그가 지닌 안빈낙도의 정신을 고구해 보고자 한 것이다. 가곡은 현재 전하는 『불우헌집(不憂軒集)』 제2권에 「불우헌가(不憂軒歌)」·「불우헌곡(不憂軒曲)」·「상춘곡(賞春曲)」 등 세 작품이 있다. 이 세 작품을 텍스트로 한다.

불우헌 정극인은 1401년에 서울 두모포(옥수동)에서 출생하여 태인(정음) 고현에서 1481년에 타계한 유자(儒者)이다. 불우헌은 태종부터 성종까지 일곱 분의 임금에 권좌를 계승한 기간에 생존했던 인물이다. 이 기간은 조선 건국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기에 유교적으로 국정이 잡혀가는 시기이면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이기도 하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의 인물이기에 우리말 가곡도 남길 수 있었다. 조선 초기를 살았던 불우헌의 삶이 가곡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안빈낙도가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면, 안빈낙도의 개념도 공자께서 말씀한 의미로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다.

불우헌 정극인의 출사 시작은 17세 되던 해(1417, 태종17) 향시(鄉試)에서 으뜸을 차지하면서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이후 1429(세종11)년 29세 되던 해 생원시에 급제하여 성균관(成均館)에 유학(遊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8년 동안 성균관에 유학했는데, 대과(大科)는 통과하지 못했다. 1436(세종18)년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유랑하는 백성들이 많아 굶어 죽었는데, 다음 해인 1437년에 세종이 특명을 내려 태조가 창건한 옛 정릉의 흥천사(興天寺)를 한성(漢城)

서부 황화방(皇華坊)에 중건하도록 하였다. 농한기도 아닌데 크게 토목 공사를 일으켰으나, 대신들은 침묵하고 오직 대간(臺諫, 사간원·사헌부 대신)이 간(諫)할 뿐이었다. 세종은 대간의 간언(諫言)도 듣지 않고 오히려 금과 옥·비단 등을 승려들에게 하사할 뿐만 아니라 요승(妖僧) 행호(行乎)를 두둔하여 승도들에게 문과와 무과처럼 과거를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유생(儒生) 신분인 정극인은 성균관의 유생들과 함께 「태학청주요승행호소(太學請誅妖僧行乎疏)」를 올려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행호의 망령됨을 물리칠 것을 간하였다. 세종은 이들의 지극한 상소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생원 불우현은 성균관 유생들과 권당(捲堂, 동맹 휴학)을 하기로 약속하고 혼자 남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금이 명하여 불러 보고 학관(學館)을 비운 문제를 책망하였다. 이에 불우현이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하니 여러 유생이 돌아가 승도가 되고자 합니다.”라고 고하니, 임금이 대노(大怒)하여 사사(賜死)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상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의 만류로 북방으로 귀양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귀양에서 풀려난 37세의 불우현은 처향(妻鄉)인 태인 고현으로 낙향하여 14년간 처사(處士)로 살았다. 그러나 불우현은 이 시기 낙향하여 세상을 등진 채 은둔자의 모습으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 불우현(不憂軒)이라는 집을 지어 청빈한 삶의 태도를 보였으며 ‘고을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고 향약계축(鄉約契軸)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상부상조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속 교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불우현의 1차 출사는 51세인 1451(문종1)년 일민(逸民)의 추천으로 시작되었으며, 1453(단종1)년에 대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로 1456년쯤 전주부 교수직을 물리고 태인 고현으로 다시 낙향하였다. 그래서 제2차 낙향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한 낙향이었다. 이 낙향의 시기는 56세에서 68세로 12년의 기간이다. 이때의 행적은 「행장」이나 「묘갈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때와 별

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태인 고현에서 처사(處士)의 삶을 살던 불우현은 예종 원년인 1468년(68세)에 성균관 주부로 재출사하였다. 69세 되던 1469년에는 태인의 훈도를 거쳐 사간원 헌납 그리고 사간원 정언을 마지막으로 예종 승하와 성종 등극에 맞춰 미리 사직 상소를 올리고 1470년 1월에 퇴임하였다. 제3차 낙향은 70세 치사로 돌아가시는 81세까지 11년의 삶이다. 고희(古稀)가 넘은 나이에 또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어 임금으로부터 구어의 하교가 있으며 노신으로서의 충심을 보였고, 노래를 지어 받쳐 임금의 천수를 기원하였다.<sup>1</sup>

지금까지 불우현의 가곡에 대한 연구는 「상춘곡(賞春曲)」<sup>2</sup>을 비롯하여, 「불우현곡」에 대한 연구<sup>3</sup>가 있었다. 또한 한시(漢詩)에 대한 연구<sup>4</sup>도 있었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불우현의 삶과 가곡을 통하여 그의

1 불우현의 연보는 孫比長, 「不憂軒墓碣缺文」, 黃胤錫,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不憂軒集』附錄, 「不憂軒家狀草」, 『不憂軒集』附錄, 「不憂軒家狀草」 등 참조.

2 鄭在皓, 「不憂軒攷」, 『어문논집』 4권, 민족어문학회, 1960; 權寧徹, 「不憂軒歌曲 研究」, 『國文學研究』 제2집, 효성여대, 1969; 姜銓燮, 「賞春曲의 作者를 둘러싼 問題」 『東方學志』 24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崔康賢, 「賞春曲과 不憂軒集 研究」, 『홍대논총』 제16집, 홍익대학교, 1984; 김민화, 「丁克仁의 ‘상춘곡’ 研究 - 그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87; 김대행, 「상춘곡: 추상의 의미」,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학회, 1998; 尹錫山, 「賞春曲 구조 연구」, 『고전문학연구』 13권, 한국고전문학회, 1998; 김명준, 「상춘곡(賞春曲)의 결어(結語) 재해석과 시가사적 위치」, 『한국시가연구』 20권, 한국시가학회, 2000; 김광조, 「江湖歌辭의 作中空間 設定과 意味 - 賞春曲 · 俛仰亭歌 · 星山別曲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3권, 한국시가학회, 2007; 양희찬, 「賞春曲의 作者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65권, 민족어문학회, 2012; 박경주, 「정극인의 시가 작품이 지닌 15세기 사대부문학으로서의 위상 탐구」, 『고전문학과 교육』 29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최상은, 「不憂軒과 紅塵의 양면성 - 丁克仁 문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35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권순희, 「필사본 불우현유고(不憂軒遺稿)의 발굴과 <상춘곡(賞春曲)>의 작자문제」, 『韓國詩歌研究』 第56輯, 한국시가학회, 2022.

3 金成基, 「丁克仁의 不憂軒歌에 나타난 時調性 研究」, 『시조학논총』 19집, 2002, 155-177쪽; 박경주,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경기체가 장르의 정서변화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4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4 유옥례, 「정극인 한시의 미학」, 『古詩歌研究』 第22輯, 2008; 朴明姬, 「不憂軒 丁克仁 한시의 江湖閑情 미의식」, 『東方漢文學』 第50輯, 2012; 윤인현, 「문(文)과 시(詩)를 통해 본 불우현(不憂軒)의 선비정신과 자연관」, 『비교한국학』 30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안빈낙도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자가 『논어』에서 자공과 나누었던 대화에 그 안빈낙도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15세기를 살았던 유자 불우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형상화되는지를 살펴, 그동안 일반적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던 안빈낙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 유자가 지녔던 안빈낙도의 삶의 가치를 드러낼까 한다.

## 2. 적극적인 삶으로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안빈낙도(安貧樂道)는 ‘일부러 자연 속에 은둔한다거나 가난한 것을 좋아해서 일부러 가난한 삶을 마음 편히 여기고 즐긴다.’는 뜻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참되게 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행위를 행하다 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리한 방법으로 벗어나고자 하다가 더 큰 잘못을 범하기보다 그가 처한 처지를 마음 편히 여기고 현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문의 도와 인생의 도를 즐기는 것이 안빈낙도의 의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안빈낙도는 『논어(論語)』 「학이(學而)」편 ‘빈부(貧富)’장에 자공과 공자의 대화에서 유래하였다.

자공이 말씀 드리기를, ‘가난하면서도 아침하지 않으며 부자이면서도 교만 부리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이지 하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며 부자이면서도 예(禮)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하셨다.<sup>5</sup>

<sup>5</sup> 『論語』 「學而」篇 ‘貧富’章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자공의 물음인 가난하면서 아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 부리지 않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공자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칭찬하면서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가난하면서도 언제나 낙천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학문의 도 곧 인생의 도를 즐기며, 부자이면서 그 재물을 쓸 때 쓸 수 있도록 아는 예를 알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나온 공자의 말씀인 ‘빈이락(貧而樂)’ 곧 ‘가난하면서도 학문과 인생의 도를 즐긴다.’는 말로,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안빈낙도(安貧樂道)가 그와 같은 뜻에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안빈낙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마음 편히 여기며 학문과 인생의 도를 즐긴다는 말이다. 열심히 참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처했을 경우에, 그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런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된 가난한 처지를 마음 편히 여기며 학문과 인생의 참된 도와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며 즐긴다는 의미이다.

불우현이 세 번의 낙향에서 즐긴 삶도 안빈낙도의 모습이 있다. 첫 번째 낙향은 타의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성의(誠意)와 수신(修身) 그리고 학문의 도를 즐긴 것이다.

그의 「행장(行狀)」을 보자.

공은 남쪽으로 돌아온 뒤로 한결같이 유정(幽貞)한 뜻으로 과거에 응시하기를 즐기지 않고, 초가삼간을 짓고는 그 집을 불우현(不憂軒), 그 내를 비수(泌水)라고 명명했으며, 송죽(松竹)을 심어 두고는 농사짓는 사람, 나무하는 사람들과 섞여 지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신을 기쁘게 하고 심성을 기르며, 평이하게 처하여 천명을 기다리며, 한가로이 노닐면서 즐거워하고 근심을 잊었다. 오

직 자질(子姪)과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서 가르치되 부지런히 힘쓰고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향약계축(鄉約契軸)을 만들어 정성과 신의로 권장하였다.<sup>6</sup>

불우현이 첫 번째 처가 동네로 낙향하여 한 일을 황윤석이 「행장」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유정(幽貞)한 뜻인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욕심 없음을 드러내는 초가삼간을 지어 불우현이라 명명(命名)하였다. ‘유정(幽貞)’은 『주역(周易)』 「상사(象辭)」 ‘이괘(履卦)’에 “유인이여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지면 좋다함은 중심이 스스로 어지럽지 않다는 것이다.”<sup>7</sup>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유인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산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앞 냇물을 ‘비수(泌水)’로 명명한 것은 ‘가난한 삶을 즐긴다.’는 의미이다. ‘비수’는 『시경(詩經)』 「진풍(陳風)」 ‘형문(衡門)’에 나오는 “사립문 아래 한가로이 지낼 만하다. 샘물 넘쳐흐르니 주림도 즐길 수 있다네.”<sup>8</sup>에서 온 말이다. 이는 자기가 처한 처지를 감내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불우현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유생이었지만 과거시험에 얽매이지 않았다. 척불 상소로 인해 낙향한 이후에도 처음 가졌던 유자로서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최선을 다 하였다. 또 그 앞에 흐르는 비수 주변에 송죽을 심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천명을 기다리고 한가로이 노닐면서 근심을 잊고 고을의 학동을 모아 가르침에 부지런히 하고 향약계축을 만들어 교화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철저한 유자들이 지니고자 했던 안빈낙도의 삶이다.

6 黃胤錫,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不憂軒集』附錄 “公既南歸, 壹意幽貞, 不樂赴舉, 築草舍三間, 名其軒曰不憂, 名其川曰泌水, 植松竹, 混耕樵. 怡神養性, 居易俟命, 徘徊夷猶, 樂而忘憂. 惟子姪及鄉子弟, 是聚是誨, 孜孜不倦, 爲修鄉約契軸, 而勉之以誠信.”

7 金敬琢 譯著, 『周易』, 明文堂, 2011, 384~386쪽 참조.

8 『詩經』 「陳風」 ‘衡門’ “衡門之下 可以棲遲. 泌之洋洋 可以樂飢.”

「태인향약계축(泰仁鄉約契軸)」

인륜 다섯 가지 가운데,	人倫有五(인륜유오),
붕우가 그 하나라네.	朋友居一(붕우거일).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並生斯世(병생사세),
얻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	號曰難得(호왈난득).
더구나 같은 고을에서,	矧同一鄉(신동일향),
조석으로 따라 노닐어랴.	從遊朝夕(종유조석).
벗으로서 인을 도움이,	以友輔仁(이우보인),
곧 유익한 세 벗이라 하네.	是謂三益(시위삼익).
정성과 믿음으로 계를 이루니,	作契誠信(작계성신),
끈끈한 정이 교칠과 같다네.	猶膠與漆(유교여칠).
경사엔 반드시 하례하고,	吉慶必賀(길경필하),
우환엔 반드시 구휼하네.	憂患心恤(우환심휼).
안회와 자로 관중과 포숙이,	回路管鮑(회로관포),
책에 빛나는 이름을 남겼듯이.	輝映簡策(휘영간책).
산이 닳고 바닷물이 마르도록,	山礪海帶(산려해대),
시종 변하지 말아야 하리.	終始不忒(종시불득).
우리 모든 계원은,	凡我同盟(범아동맹),
마땅히 공경하고 본받아야 하리.	最宜矜式(최의공식).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하여,	言不盡意(언부진의),
거듭 약조를 하네.	重爲之約(중위지약).
자신의 부귀함을 믿고,	挾富挾貴(협부협귀),
뒤에서는 미워하고 면전에서 기뻐하랴.	背憎面悅(배증면열).
교묘하게 속이는 갖은 행위들,	多般巧詐(다반교사),
그 덕을 돌아보지 않음이니.	不恤其德(불휼기덕).
어찌 정성과 믿음일까?	豈曰誠信(기왈성신),

신명이 별하리라.

神明其殛(신명기극).

어찌 정성과 믿음일까?

豈曰誠信(기왓성신),

죄가 있으면 마땅히 축출당하리.

罪當黜伏(죄당출복).

첫 번째 낙향했을 때 만든 「태인향약계축(泰仁鄉約契軸)」은 인륜 중 붕우(朋友)의 도(道)로 설명한 내용이다. 착한 일은 서로 권면하고 나쁜 일은 멀리하여 모든 계원은 이를 공경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경사엔 반드시 하례하고, 우환엔 반드시 구휼하네.’라고 하여, 상부상조의 미덕을 내세웠다. 척불 상소로 귀양 갔다가 타의에 의해 낙향하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향약을 만들어 풍속 교화에 힘썼다. 이처럼 그가 처한 처지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의 태도도 안빈낙도인 것이다.

두 번째 낙향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해 사직하고 태인 고현에 우거한 때이다. 도(道)가 서지 않은 시기에 출사하지 않는 자세는 선비정신이다. 이 시기에 대한 불우현의 삶이 「행장」이나 「묘갈명」에 따로 소개된 부분은 없다. 하지만 그의 한시에 「교화를 베풀어 못된 아전을 가르치다(敎化訓頑吏서화 혼완리)」는 시가 있다.

덕을 높이고 형을 늦춤이 비록 옛법이나,

德緩刑雖古法(상덕완형수고법),

백성을 살피고 가르침을 베풀기에 또한 시중을 따라야 하네.

觀民設教亦隨時(관민설교역수시).

형벌은 모름지기 한 등급 더해야만 하는데,

其刑其罰須加等(기형기벌수가등),

덕과 위엄을 아울러 써야 하리라.

惟德惟威並用之(유덕유위병용지).

낙향하여도 그 처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지내는 것이 유자(儒者)의 안빈낙도인 것이다. 고을 아전이 못된 짓을 일삼았다. 그리고 융통성 없이 형벌을 집행하는 아전에게 중용(中庸)의 도인 권도(權道) 곧 시중(時中)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그 사안에 맞게 곧 저울추처럼 융통성 있게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엄하게 적용하되, 아울러 위엄을 세우고 덕을 베풀 것을 요구하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면모를 보여, 덕으로써 위엄을 세우라는 유자로서의 가르침이다.

세 번째 낙향은 치사(致仕)로 인해 이루어졌는데, 자연을 벗 삼아 ‘가난하더라도 도를 즐기며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다음 글을 보자.

공은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한가로이 노닐면서 즐거워하고 근심을 잊음이 지난날에 하던 것과 다름이 없었고, 남에게 알려지거나 영달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차 그대로 몸을 마칠 것 같음도 지난날에 하던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인하여 『불우헌기(不憂軒記)』를 지어 한가로이 지내며 근심이 없는 뜻을 서술하였다.<sup>9</sup>

이 헌(軒)을 불우(不憂)라고 명명한 것은 한가로이 지내는 뜻이다.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한가함이 없으면 근심이 있고 한가함이 있으면 근심이 없음이 예로부터 그런 것이다.<sup>10</sup>

<sup>9</sup> 黃胤錫,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不憂軒集』附錄 “公自既歸, 猶且徘徊夷猶, 樂而忘憂, 無異於前之爲也. 不求聞達, 若將終身, 亦無異於前之爲也. 因記不憂軒, 以敘閑而無憂之意.”

<sup>10</sup> 丁克仁, 『不憂軒集』제2권 ‘文’ 「不憂軒記」 “軒以不憂名, 志閑也. 人之於世, 無閑則有憂, 有閑則無憂, 從古則然.”

「행장」과 「불우헌기(不憂軒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세상의 욕심을 잊기 위해 ‘불우헌’ 곧 ‘근심이 없는 집’이라고 명명했다는 말이다. 불우헌은 자연 속에 살면서 헛된 명예욕과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않으며 한가롭게 살겠다고 하였다. 세상사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연 속의 삶을 택했다는 말이다. 이는 자연으로부터 본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이다. 철저한 유자일수록 요산요수(樂山樂水)하면서 인간 본성의 회복을 학문의 궁극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삶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는 가운데 인간 본성을 노래하기도 하고 현실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문학에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충실성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세조가 붕(崩)하고 그의 아들 예종이 19세의 나이로 등극하였지만, 1년 2개월 만에 급사하여 짧은 권좌를 끝내고 성종이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종친과 훈신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개혁을 꿈꾸었던 예종이 갑자기 승하한 것이다. 예종이 1468년 9월 7일에 왕위에 오르고 불우헌은 1469년 8월에 사간원 헌납에 임명되었다가 곧 사간원 정언이 된다. 그리고 또 척불 상소를 올렸다가 잠시 투옥되었다. 그런데 1469년 11월 28일에 예종이 붕(崩)하고 다음 날 한명회의 사위인 자산군(者山君)이 성종으로 등극하였다. 그리고 불우헌은 1469년 12월 24일에 치사(致仕)를 미리 올리고 1470년 1월 6일에 윤허를 받았다.

예종과 성종의 교체기와 불우헌의 삶의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 급박하다. 척불의 상소로 감옥에 갇히고 또 예종의 갑작스런 죽음에 불우헌은 치사를 미리 올린다. 등등의 사건들이 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70세가 되기도 전에 사직 상소를 올려 빨리 물러나고픈 생각을 했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낙향하게 된 불우헌에게 왕은 특별히 예조판서 이승소에게 전별연을 베풀게 하였다. 그리고 성종은 1472년 불우헌에게 ‘영달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낙향한 후 향리에서 향촌의 자제를

모아 가르친다.’하여, 삼품(三品)의 산관(散官)을 더해 주고 본도의 관찰사에게 제 때에 보살피도록 당부하였다. 성종의 하교에 나온 내용처럼 영달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향약을 만들고 학당을 열어 고을의 풍속 교화에 힘쓰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이 안빈낙도의 삶인 것이다.

그리고 75세 때에는 향음주례(鄉飲酒禮)를 만들어 마을의 규약을 세우기도 하였다.

예(禮)의 문(文)·기(器)·용(用)은 비록 다 고례에 합하게 할 수 없으나 경(敬)·예(禮)·결(潔)·효(孝)·제(悌)·손(遜)인즉 준수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 치(侈)·음(淫)·욕(慾)인즉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이니, 어찌 다만 고을의 친목에 그칠 뿐이겠는가? 그 효험이 천리가 얻어지고 인심이 바로잡히기에 이르러 충신이 나오고 효자가 나오고 사람들과 사귀기를 잘함어 계속 이어져서 다하지 않아 주나라의 풍화를 오늘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향약주례 서문에서 밝힌 내용으로, 공경스러움과 예절 그리고 효제는 행하고 사치와 음란한 행위와 욕심은 삼가고 경계하게 되면 저절로 풍속이 미풍양속으로 변해 한 고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효자와 충신이 나는 곳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불우현은 낙향하여도 은둔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따라서 불우현의 생애와 문(文)을 통해 본 바는 『논어』에서 공자가 공자에게 칭찬받기 위해 말했던 가난하면서도 아침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교만도 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자가 말씀한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며 예를 좋아한 삶이었다. 3번의 낙향에서 보여준 불우현의 삶 곧 마을 사람들을 위

<sup>11</sup> 黃胤錫,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不憂軒集』附錄 “禮之文, 禮之器, 禮之用, 雖未能盡合於古, 而敬也禮也潔也孝也悌也遜也, 則遵而勿失, 侈也淫也慾也, 則戒之慎之, 豈但親睦鄉閭而已. 其效至於天理得人心正, 而忠臣也孝子也善與人交也, 源源而不竭, 周之風化, 復見於今日矣.”

해 향약을 만들고 풍속을 미풍양속이 되게 함음주례를 베풀었으며, 아이들에게 예를 가르치기 위해 서원의 초기 형태인 학당을 열어 가르침을 행하고, 불우헌의 집을 지어 스스로 삶에 만족을 느끼는 등 안빈지족의 삶을 실천하였다. 이처럼 불우헌의 글과 행적에는 공자가 주장했던 안빈낙도의 삶이 투영되어 있었다.

### 3. 불우헌의 가곡(歌曲)에 나타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

황윤석의 「행장」에는, “천은이 망극함을 생각하고 고려 「한림별곡(翰林別曲)」의 음절에 따라 「불우헌곡(不憂軒曲)」을 지었는데, 먼저 단가(短歌)인 「불우헌가(不憂軒歌)」로써 그 영광을 때때로 노래하고 이어서 왕의 천수를 축원하였다.”<sup>12</sup>라고 하여, 치사(致仕)한 불우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불우헌집(不憂軒集)』 「가곡(歌曲)」편(篇)에 기록되어 전하는 것은 「불우헌가(不憂軒歌)」·「불우헌곡(不憂軒曲)」·「상춘곡(賞春曲)」 등 3편의 노랫말이다. 「불우헌가(不憂軒歌)」는 단가(短歌)의 초기 형태이고 「불우헌곡(不憂軒曲)」은 경기체가 형태의 노래이다. 그리고 「상춘곡(賞春曲)」은 가사로 전하고 있다. 이들 노래는 모두 불우헌의 안빈낙도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불우헌가(不憂軒歌)」

浮雲似宦海上애 事不如心흔이 하고만코흔니이다

뵈고시라 不憂軒翁뵈고시라

時致惠養흔신 口之於味뵈고시라

<sup>12</sup> 黃胤錫, 위의 글 “天恩罔極, 倚高麗翰林別曲音節, 作不憂軒曲. 先以短歌, 以時歌詠其榮, 申祝上壽.”



뵈고뵈고시라 三品儀章뵈고시라  
 光被聖恩<sup>ㅎ</sup>신 馬首腰間뵈고시라  
 嵩三呼華三呼<sup>를</sup> 何日忘之<sup>ㅎ</sup>리잇고

뜬구름 같은 벼슬살이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많습니다.  
 보이고 싶어라. 불우현웅을 보이고 싶어라.  
 때로 은혜롭게 보살피게 한, 맛있는 음식 보이고 싶어라.

보이고 보이고 싶어라. 삼품 벼슬의 의장(儀章)을 보이고 싶어라.  
 영광스럽게 성은(聖恩) 입은 마수요간(치장물)을 보이고 싶어라.  
 송삼호 화삼호(축원하는 말)를 어느 날엔들 잊으리이까?

시조 형태인 3장으로 나누었으며, 위는 원문이고 아랫글은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뜬구름 같은 벼슬살이 환해풍파가 많기도 많다. 하지만 그 동안 많은 임금의 은혜를 입은 불우현 저를 보여드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올리고 싶은 간절함을 노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께서 하사하신 귀한 삼품 의장과 성은(聖恩)이 담긴 마수요간(馬首腰間)을 통해, 스스로 은혜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모두 연군지정(戀君之情)이다. 마지막으로 임금께서 오래오래 살기를 축원하였다. “송삼호”와 “화삼호”는 신하가 임금의 수복(壽福)을 축원하는 말로 송산과 화산처럼 성수(聖壽)가 오래도록 빛나기를 빌었다. 한 무제(漢武帝)가 송산(嵩山)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래에서 만세를 부른 일이 있었고, 화(華) 땅의 봉인(封人, 관직명으로 변방 수호와 제단 축조 등을 맡았던 지방 관리)이 수(壽)·부(富)·다남자(多男子) 세 가지로써 요(堯) 임금을 송축한 일이 있는 데서 유래하였다. 위의 노래처럼 불우현은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80의 노구를 이끌고 직접 한양에 올라가 성은(聖恩)에 감사드리기도 하였다.

위의 노래 「불우현가(不憂軒歌)」는 시조(時調)의 원형인 3단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72세의 불우현이 성종으로부터 삼품산관을 받은 직후 감격하여 자신의 영화를 읊조리고 임금의 지중함을 노래한 것이다. 『성종실록』의 22권 성종 11년(1480) 10월 26일 임신(壬申) 5번째 기사에 보면, “삼가 장가(長歌) 6장(章)과 단가(短歌) 2장(章)을 지어서 올렸다.”<sup>13</sup>는 말이 나온다. 장가 6장은 「불우현곡」일 것이고, 단가 2장은 「불우현가」일 것이다. 위의 「불우현가」를 2장으로 나눈 것은 『성종실록』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장가와 단가 모두 리어(理語, 우리말)가 섞여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종의 물음에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지은 바 장가(長歌)와 단가(短歌)는 모두 자기가 어질다는 것을 과장(誇張)한 말들이다.”<sup>14</sup>라고 하여, 불우현이 스스로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종께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가는 3장 6구 형식이 보인다. 현재 시조의 정형인 3장 6구 12음보가 갖추어지지 않는 않지만, 두 번째 장 종장의 형식은 어느 정도 시조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장 부분에 해당하는 2연을 살펴보면 4·4조의 4음보 율격인 가사 형식도 나타난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시조의 초기 형태일 수 있다.

선행 연구 중, 중장의 내용이 다른 장과 다르게 길어 사설시조 형태라고 하면서 ‘사설시조 발생을 임난 이후라는 생각은 제고되어야 한다.’<sup>15</sup>라고 하여, 사설시조 발생을 임난 이전으로 본 연구 논문도 있었다. 그리고 “不憂軒翁 퇴고시라”와 “三品儀章퇴고시라”를 들어 ‘후대의 인물이 창작했을 것’<sup>16</sup>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주장에는 불우현 자신이 자기를 높일 수 없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성종실록』의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의 말을 참조로

<sup>13</sup> 『성종실록』의 22권 성종 11년(1480) 10월 26일 壬申 5번째기사, 「前正言丁克仁, 詣闕上書曰 “謹作長歌六章, 短歌二章.”」

<sup>14</sup> 위의 글, “且所著長, 短歌, 皆自賢誇大之辭.”

<sup>15</sup> 金成基, 「丁克仁의 不憂軒歌에 나타난 時調性 研究」, 『시조학논총』 19집, 2002, 171쪽.

<sup>16</sup> 金成基, 위의 논문, 173-174쪽.

하면 왜 불우현 자신이 자기를 높였는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래에서 불우현이 ‘자신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한 것은 성은에 감격하여 직접 임금을 뵈고 싶다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법은 연군지정으로, 영광스러움을 입은 자기 모습과 지금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여드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송축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주객이 전도된 표현법인 것이다. 불우현의 이와 같은 표현법은 「상춘곡」에서도 드러난다. “功名도 날씩우고, 富貴도 날씩우니” 곧 ‘공명도 날 끼리고 부귀도 날 끼리니’처럼 내가 주체가 아니라 공명과 부귀가 주체로 전도된 표현이다. 「불우현가」에서도 불우현 자신을 목적어로 내 세운 일종의 주객이 전도된 표현인 것이다. 오히려 이 같은 표현법은 불우현만의 표현법으로 그의 특징을 드러내는 한 가지 표현법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선행 연구에서 불우현의 작품이 아니라고 내세운 논거로 “삼품의장(三品儀章)”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받은 것이 80세 때인데, 72세 때 지은 노래에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 불우현이 작가가 될 수 없다.’<sup>17</sup>고 하였다. 하지만 “삼품의장(三品儀章)” 받은 때는 72세이다.

성화 8년 임진년(1472, 성종3) (당시 공의 나이는 72세였다.)에 임금이 유서(諭書)를 내려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그대는 청렴결백한 인품으로 남에게 알려지거나 영달하기를 구하지 않고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기에 게으르지 않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불려서 쓰고자 하나 그대가 연로하여 정사를 맡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특별히 삼품(三品)의 산관(散官)을 더해 주고(삼품은 곧 종3품 중직대부인데 후에 통정대부를 더 하였다.) 또 본도(本道)에 명하여 때로 은혜를 베풀어 보살피게 한다.” 하니, 공은 감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고, 또 가곡(歌曲)을 지어서 그 영화와 은총을 노래하였다.<sup>18</sup>

<sup>17</sup> 金成基, 위의 논문, 173쪽.

<sup>18</sup> 『不憂軒集』附錄, 「不憂軒家狀草」 不憂軒一號茶角, 亦號茶軒. “八年壬辰, (時年七十二) 上降諭書曰,

성종이 불우현의 청렴결백하고 안분지족하는 삶을 알기에 특별히 삼품의 벼슬을 내리게 되었다는 내용과 불우현은 그 은혜를 가곡으로 노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곡인 「불우현가(不憂軒歌)」를 짓게 된 목적으로 영화와 은총을 노래할 목적이라고 하였다.

지금 전하는 시조(時調)는 대체로 18세기와 19세기 가집(歌集) 속에 전해지고 있는 작품들이다. 고려 말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르자,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조의 완성을 고려말(末)로 보게 되는 근거의 하나였다. 하지만 「하여가」와 「단심가」에 관련된 이야기 생성은 16세기 후반의 문헌에서부터 보인다.<sup>19</sup> 그리고 퇴계 이황도 「도산십이곡발」에서 「한림별곡」류와 이별의 「육가」만 전해지고 있어, 도산서원의 학동들이 따라 부를 만한 작품이 없어 「도산십이곡」을 짓는다고 하였다. 충절의 최고인 「단심가」가 퇴계 시절에 널리 전해지고 있었다면, 퇴계의 이런 주장은 없었을 것이다. 시조의 발생과 완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우현의 단가인 「불우현가(不憂軒歌)」가 시조의 초기 형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림별곡」류인 경기체가 형식의 노래인 「불우현곡(不憂軒曲)」도 있다. 모두 6장이다. 전원생활의 즐거움과 교육의 즐거움, 출사의 기쁨·전원생활의 만족감·유자의 삶에 대한 자부심·성인에 대한 감사와 안분지족 등이다. 지면 관계로 그 중 제1장만 살펴보자.

---

予聞爾廉介自守，不求聞達，聚鄉子弟，教誨不倦，予甚嘉焉，欲招用之，然難於任事，故特加三品散官，(三品即從三品中直大夫，後加通政大夫)，又令其道，時致惠養，公不勝感激，拜稽以謝，又作歌曲，以詠其榮寵。”

<sup>19</sup> 김진희, 「〈단심가〉와 〈하여가〉의 형성 시기 - 역사화를 통한 시조 대중화의 한 부면」, 『韓國詩歌研究』 第49輯, 한국시가학회, 2020, 121-136쪽.

「불우현곡(不憂軒曲)」何叱多, 方言譯之則何如也. 曰偉曰何如, 用高麗翰林別曲音節. - 불우현곡(不憂軒曲) ‘하질다(何叱多)’는 우리말로 옮기면 ‘어떠하리 잇고[何如]’라는 말이다. ‘위(偉)’와 ‘하여(何如)’를 말한 것은 고려 「한림별곡(翰林別曲)」의 음절을 사용한 것이다.

산이 사면에 두르고	山四回
물이 거듭 감싼 곳	水重抱
넓지 않은 선비의 집이	一畝儒宮
양지를 향하여	向陽明
남창을 열었으니	開南牕
불우현이라 이름하네.	名不憂軒
왼쪽엔 거문고와 책	左琴書
오른쪽엔 바둑과 장기로	右博奕
뜻에 따라 소요하네.	隨意逍遙
아,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은 광경이 어떠한가?	偉樂以忘憂景何叱多
평소에 뜻을 세움이	平生立志
성현을 사우로 하니	師友聖賢
아, 도를 따라 행하는 광경이 어떠한가? - 재창 -	偉遵道而行景何叱多 - 再唱 -

먼저 자신이 우거하는 불우현의 경치 묘사와 더불어 위치를 설명하고 욕심 없이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하여, 치사 후의 삶은 세속적인 근심을 잊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소의 뜻을 세움에 성현의 도를 스승으로 삼고 그 학문의 도를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는 70세에 지은 「불우현기」에 나오는 ‘경사(經史)를 섭렵하고 성현(聖賢)을 사우(師友)로 하였으며 신세를 뜬 구름 같이 여기고 일의 기미를 보아서 일어나 기쁜 마음과 자득한 모습으로 생활한다.’고 한, 내용과 같다. 따라서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현의 삶을 사우(師友)로 삼아 수신제가하는 자세를 잃지 않은 것으로 예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공자가 가난하면서도 언제나 낙천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인생의 도를 즐기며, 부자이면서도 그 부를 쓸 곳에 쓸 줄 알아 예(禮)를 좋아하면서 도를 즐기는 삶이라고 가르침을 내린, 그 안빈낙도 자체인 것이다. 불우현이 안빈낙도로 자연 속에서 심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은 16세기 사람과 문인들의 자연관과 거의 유사하다. 노력해도 세상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심신을 수양한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최초의 가사인 「상춘곡(賞春曲)」은 자연물을 통해 요산요수(樂山樂水)하면서 삶의 이치를 노래한 것으로 심신 수양의 노래이다. 먼저 시적화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자고 권유하였다. 그래서 시냇물 앞에 초가삼간을 지어 자연의 주인으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자고 하였다. 그러면 자연에서 한층진미를 느끼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봄 경치를 함께 누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봄 등산에 올라가서 봄 들판을 바라보니, 옛그제까지 검은빛의 겨울 들판이 봄빛으로 가득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자연의 모습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 모든 사물은 바른 이치로 돌아온다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부귀공명에 얽매이지 말고 만물이 생동하는 자연을 벗삼아 인생의 도 또는 본성을 찾는 즐거움을 누리자고 하였다. 이것이 공자가 자공에게 일러준 안빈낙도의 정신인 가난하면서도 언제나 낙천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인생의 도를 찾는 삶의 태도인 것이다.

『성종실록』에는 「전 정언 정극인이 탐관 오리의 처벌·불교의 폐단 시정 등에 관해 상소하다(前正言丁克仁, 詣闕上書曰)」는 기사가 실렸다. 여기에 불우현 자신이 여생 동안 다시 임금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리기를, “삼가 장가(長歌) 6장(章)과 단가(短歌) 2장(章)을 지어서, 간혹 벗들과 노래 부르고

옹조리며 간혹 밤이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송도(頌禱)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거의 송도하지 않는 날이 없으나, 맹세코 장차 이 몸이 직접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 연후에야 저승에서도 유감(遺憾)이 없을 듯합니다.”<sup>20</sup>라고 한 부분이 있다. 장가와 단가를 지어 매일 자연 속의 삶을 즐기면서 송도하였다는 것이다. 자연 속 삶을 즐기면서 그 은혜까지 잊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 선비정신이면서 안빈낙도의 자세인 것이다. 「상춘곡」도 이런 삶의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다.

「상춘곡(賞春曲)」은 작가 문제가 거론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우현집(不憂軒集)』 「가곡(歌曲)」편(篇)에 실린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상춘곡(賞春曲)」이 300여 년이나 지난 후 기록된 작품이다 보니,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록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불우현집』 「서문」과 「행장」을 쓴 황윤석이 “대개 선현의 시말(始末)은 비록 한 글자 반 구절이라도 구차히 할 수 없다.”<sup>21</sup>고 한 것처럼, 없는 사실을 보태어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불우현의 한시에는 「상춘곡(賞春曲)」의 의미와 유사한 표현들이 있다.

#### 「불우현음(不憂軒吟)」

청산에 또 백운을 길게 차지하니,	長占靑山又白雲(장점청산우백운),
불우현 위에서 천군(天君, 마음)을 섬기네.	不憂軒上事天君(불우현상사천군).
주리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한중의 재미,	飢餐渴飲閑中味(기찬갈음한중미),
청풍명월이 함께 하리라.	明月淸風可與云(명월청풍가여운)

<sup>20</sup> 『成宗實錄』 122권, 성종 11년 10월 26일 다섯 번째 기사 「前正言丁克仁, 詣闕上書曰 “謹作長歌六章, 短歌二章, 或與朋友歌詠, 或夜歌且舞, 頌禱之勤, 殆無虛日, 誓將身親詣闕謝恩, 然後無憾於九泉之下”」

<sup>21</sup> 黃胤錫, 「不憂軒集序」, 『不憂軒集』 附錄, “蓋先賢始末, 雖一字半句, 不可苟故也.”

이는 「상춘곡(賞春曲)」 결사 부분의 의미와 유사하다.<sup>22</sup> 「상춘곡(賞春曲)」 결사의 “功名도날씨우고 富貴도날씨우니 淸風明月外에 엇던벗이잇스올고 簞瓢陋巷에 هوت혜음아니호니 아모타百年行樂어이만호들엇지호리”는,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즐기는 모습이다. 부귀공명을 바라지 않고 청풍명월을 벗 삼아 비록 청빈한 삶이기는 하지만 분수 밖의 헛된 생각은 하지 않고 한평생을 즐겨 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불우현음(不憂軒吟)」의 한중진미와 청풍명월을 즐기는 것처럼, 낙천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안빈낙도인 것이다.

「영회(詠懷, 심회를 읊다)」 9수 중, 4수 · 5수 · 7수이다.

몇몇 어진 신하는 한 몸 다 바치고,

多少良臣獻一身(다소양신헌일신),

한가로운 선비는 삼춘을 완상하네.

幽閑逸士賞三春(유한일사상삼춘).

행하고 물러나며 나아가고 처함은 하늘이 부여한 것,

行藏出處由天賦(행장출처유천부),

공자께서 어찌 수고롭게 멀리 문진(問津)하였던가?

大聖何勞遠問津(대성하로원문진).

넓지 않은 선비의 집 비록 치우쳐 누추하나,

一畝儒宮雖僻陋(일무유궁수벽루),

꽃 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 흥을 형언하기 어렵네.

花朝月夕興難言(화조월석흥난언).

<sup>22</sup> 박경주도 「불우현음」은 「상춘곡」의 내용 중 한중진미, 청풍명월 등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박경주, 「정극인의 시가 작품이 지닌 15세기 사대부 문학으로서의 위상 탐구」, 『고전문학과 교육』 29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06-207쪽 참조.



시서와 바둑으로 한가로이 날을 보내니,

詩書某奕閑消日(시서기혁한소일),

앉고 눕기를 뜻대로 하는 불우현일세.

坐臥隨意不憂軒(좌와수의불우현).

벼슬길에 부침함은 본디 같은 근원이고,

浮沈宦海本同源(부침환해본동원),

영욕은 서로 순환하여 함께 뿌리를 이루네.

榮辱相乘互作根(영욕상승호작근).

누가 알라 자미화(사간원) 아래 놀던 객이,

誰識紫薇花下客(수식자미화하객),

한가함을 구하여 불우현(不憂軒)에 크게 누웠네.

求閑大臥不憂軒(구한대와불우현).

이처럼 「상춘곡(賞春曲)」의 의미인 풍월주인으로서의 전원생활을 예찬한 한시가 있다는 것은 불우현이 노랫말로도 춘경과 춘흥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춘곡(賞春曲)」의 결사 표현인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고 청풍명월을 벗 삼아 자신이 처한 청빈한 삶을 통하여 인생의 도를 즐기는 삶이 안빈낙도를 누리는 자세이다. 제4수는 치사한 선비의 상춘(賞春)과 천명(天命)이라는 출처관이 제시되어 있다. ‘행장출처’는 하늘에 달려 있기에, 공자가 행한 것처럼 학문의 길을 가면서 이제는 하늘이 부여한 대로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문진(問津)”은 『논어(論語)』 「미자(微子)」편 ‘우경(耦耕)’장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나루터를 묻는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전이되어 ‘학문의 길을 묻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문의 길’ 또는 ‘학문의 도’를 의미하는 뜻으로 활용되었다. 모든 것이 천명에 달려 있으니 한가로운 선비처럼 자연 속의 삶을 즐기자는 4수의 내용은 「상춘곡」의 일부

내용과 일치한다. 제5수는 「상춘곡」 춘흥의 모습이다.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를소냐? 사립문 앞에 걸어도 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는 한중진미를 즐기’는 모습이다. 제7수는 벼슬길의 부침과 영욕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헛된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청빈한 삶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자고 한 「상춘곡」의 결사의 내용과 유사하면서, 치사한 후 노유(老儒)가 한가로움을 노래한 부분이다. 그런데 제7수는 『성종실록』에 전하는 내용과 약간 글자의 출입이 있다.

환해(宦海)에서 부침(浮沈)함은 같은 근원에서 나옴이며,

浮沈宦海出同源(부침환해출동원),

영욕(榮辱)의 엇갈림은 서로가 뿌리 됨이어라.

榮辱相乘互作根(영욕상승호작근).

누가 알리, 자미화(사간원) 아래 놀던 객이.

誰識紫薇花下客(수식자미화하객),

걸해골(乞骸骨)하고 불우헌(不憂軒)에 높이 누웠어라.

乞骸高臥不憂軒(걸해고와불우헌).

마지막 구의 ‘걸해골’이 차이가 있다. 걸해(乞骸)는 나이 많은 관원이 사직(辭職)을 주청(奏請)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걸해골’은 ‘자신의 뼈를 가져다 고향에 묻겠다.’는 의미이다. 치사할 때의 취지가 잘 드러난 표현이다. 하지만 『불우헌집』의 한시에는 한가함을 구하기 위해 불우헌에 크게 누웠다고 하였다. 전체적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글자의 출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표기하는 시대에 따라 표기법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상춘곡(賞春曲)」의 표기도 18세기 표기법으로 기록된 것으로 간주하면 원 작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유자의 안빈낙도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최선의 삶의 자세를 택하여

그 삶을 즐기면서도 학문의 도나 더 나아가 수신까지 성찰하는 자세인 것이다. 불우현의 전 생애를 통해 안빈낙도의 삶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치사 후 말년의 삶에서는 그 안빈낙도라는 삶 자체를 즐기는 모양새로 승화되고 있음을 「상춘곡(賞春曲)」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불우현이 남긴 세 편의 가곡을 통해 드러난 안빈낙도의 정신은 자기가 현존하는 현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기체가인 「불우현곡(不憂軒曲)」에서는 자연에서 평소에 세운 뜻에 따라 소요하면서 성현의 도를 행했고, 시조의 초기 형태인 「불우현가(不憂軒歌)」에서는 성은(聖恩)으로 편안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충절을 보였으며, 가사인 「상춘곡(賞春曲)」에서는 한가로운 자연 속 생활과 인생의 도를 낙천적으로 즐기면서 인간의 헛된 공명(功名)을 멀리하여,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結論)

철저한 유자(儒者)들의 문학이나 문학론에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적극적인 현실관이 나타난다. 그것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겸양의 덕을 중시하거나 변함없는 충절의식으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성현(聖賢)의 도에 따라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성도지학(聖道之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유자들의 문학은 자연을 노래할 때도 단순히 상자연(賞自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염려하거나 군주에 대한 충절의식까지도 드러나게 하였던 것이다. 자연의 이치와 삶의 이치는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을 노래하다가도 인생을 노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자들은 자연을 노래하는 가운

데 인생 또는 현실을 동시에 노래하였다. 15세기 유자의 삶을 지향했던 불우현의 시가에도 이 점은 확인되었다. 철저한 유자야말로 인간 본성의 회복을 학문의 궁극 목표로 삼기에, 도덕 높은 유자일수록 인간의 본성을 참되게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자연물에서 그 참됨을 찾고자 하여, 그 대상인 자연에서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면서 학문의 도(道) 추구하고 본성 회복을 염원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안빈낙도의 삶도 실현되었다.

가곡(歌曲) 통해 불우현의 삶을 안빈낙도의 관점에 살펴보았다. 살펴본 불우현의 안빈낙도의 정신은 자연 속에 노닐면서도 도를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불우현이 첫 번째 낙향했을 때는 자연과 벗하면서 학동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향약을 만들어 고을 백성들의 교화에 힘썼다. 그리고 두 번째 낙향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항거의 행위로 물러난 경우인데, 유자의 지조를 보여 준 행동으로 선비정신의 발로였다. 그래서 은둔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면서 타락한 관리를 훈계하여 바른 치도(治道)가 될 수 있도록 풍속 교화에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 치사 후 낙향에서는, 향음주례(鄉飲酒禮)를 마련하여 백성들의 풍속을 미풍양속으로 바로잡았으며, 또한 한때도 현실을 잊지 않는 마음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있으면 덕치를 위한 방안을 올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은에 감격하여 노래를 짓기도 하였고 직접 용안을 뵈고자 80 노구를 이끌고 한양 땅 대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낙향한 불우현은 현실에 좌절하거나 은둔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이웃과 고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처럼 불우현은 한때도 현실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가졌기에 어디에 처해도 환경과 처지에 맞게 처신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인생의 도를 노래할 수 있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유자의 선비정신이면서 안빈낙도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불우현은 경기체가인 「불우현곡(不憂軒曲)」에서 자연에서 평소에 세운 뜻에 따라 소요하고 성현의 도를 행하고자 하였으며, 시조의 초기 형태인 「불우현가(不憂軒歌)」에서는 성인에 감사드리는 연군지정을 보였으며, 최초의 가사인 「상춘곡(賞春曲)」에서는 한가로운 자연 속 생활을 즐기며 인생의 도를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상자연(賞自然)만 노래하지 않고 현실을 노래하는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것이 불우현의 삶과 가곡에 반영된 유자가 지녔던 안빈낙도의 정신이면서 가치인 것이다.

남은 과제로 「상춘곡」과 「불우현가」의 작가 문제이다. 『불우현집(不憂軒集)』이 불우현 사후 305년 후에 편집된 문집이기에 전하는 작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치고는 형식면에서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문점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황윤석이 쓴 「서문」을 보면 “삼가 유집 가운데 본편(本編)과 여러 사람들이 창수(唱酬)한 것에 주로 의거하고, 작자가 분명하지 않은 엉성한 「가장(家狀)」, 영귀(詠歸) 손비장(孫比長)이 지은 잔결한 「묘갈문(墓碣文)」, 용재(容齋) 이행(李荇)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놀암(訥庵) 송세림(宋世琳)의 「향약발(鄉約跋)」, 영남 지방의 선배가 지은 『군표일반(群豹一斑)』, 방손 벽오(碧梧) 선(璿)의 『술선록(述先錄)』 등 뚜렷하게 징험할 만한 것들을 참조함으로써 공의 행적을 두루 모으고 차례를 바로잡아 「행장(行狀)」 한 편을 이루기를, 주자(朱子)가 뒤늦게 주염계(周濂溪)의 「사장(事狀)」을 지은 것처럼 하니, 공의 학행(學行) 사공(事功) 출처(出處)를 어렵게나마 드러내어 거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후에야 붓을 적서 「서문」을 쓸 수 있었으니, 그것은 대개 선현의 처음과 끝은 비록 한 글자 반 구절이라도 구차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sup>23</sup>라고 하였

23 黃胤錫, 「不憂軒集序」. 『不憂軒集』附錄, “謹依集中本編及諸所唱酬, 以爲之主, 而參以不知何氏家狀之掛漏, 孫詠歸碣文之破缺與夫李容齋荇新增勝覽, 宋訥庵世琳鄉約跋, 嶺南前輩群豹一斑, 旁孫碧梧璿述先錄, 凡表表可徵者, 會通是正, 成行狀一道, 如朱子追爲周子事狀, 而公之學行事功出處, 方隱約可舉, 然後乃得泚筆而弁卷, 蓋先賢始末, 雖一字半句, 不可苟故也.”

다. 황희 정승의 후손인 황윤석이 「행장(行狀)」을 쓰기 위해 여러 책을 참조하였고, 한 글자 반 구절도 구차히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런 「행장(行狀)」이 실린 문집에 남의 작품을 실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가곡」편에 실린 노랫말은 노래와 가사 자체로 전해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특히 긴 노래인 「상춘곡」은 집안에 『가집(家集)』 형태로 전해지다가 후손에 의해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황윤석의 「행장」에는 “공이 지은 시문과 가곡, 그리고 벗들과 주고받은 시문을 합하여 1책이 있었는데, 왜란의 병화(兵火)를 겪은 뒤 그 가운데 겨우 한두 가지만 전하게 되었다.”<sup>24</sup>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 이는 임진왜란 때 불우현의 시문과 「가곡」 일부가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겨우 한두 가지 전해지는 것 중에 「상춘곡」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 「상춘곡」이 후손들에 의해 그 당시의 어법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기록할 당시 글자의 출입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성종실록』에 전하는 한시와 『불우현집』에 전하는 한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을 확인해 준다고 할 것이다.

다음 한시를 보자.

『불우현집』 중에 실린 「치사음」 3수 중 제1수

벼슬에서 물러나 읍조리며 사립문에 이르러	致仕行吟到華門(치사행음도필문),
갓을 걸어 놓고 다시 불우현에 기대었네	掛冠還倚不憂軒(괘관환의불우현).
호남(湖南)이라 군현(郡縣)이 얼마인가?	湖南郡縣知多少(호남군현지다소),
선 세 된 정언 한 사람뿐이네.	五十三分一正言(오십삼분일정언).

<sup>24</sup> 黃胤錫,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不憂軒集』附錄, “有詩文歌曲并知舊唱酬一冊, 閱倭燹僅傳一二.”

『성종실록』에 실린 한시 2수 중 첫 번째 시

치사(致仕)하고 늦디늦게 옛 고향에 돌아와,

致仕遲遲返故園(치사지지반고원),

갓 벗어 걸어 놓고 책 들어 남헌(南軒)에 기대었도다.

掛冠携卷倚南軒(괘관휴권의남헌).

전라도(全羅道)라 군현(郡縣)이 얼마인가!

全羅郡縣知多少(전라군현지다소),

선 세 된 관리의 한 정언(正言)이로다.

五十三官一正言(오십삼관일정언).

위의 한시를 대비해 보면 몇몇 시어의 차이만 날 뿐이다. 「상춘곡」도 이런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미의 큰 줄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도 후손들에게 세전(世傳)되어온 유고(遺稿)나 구송본(口誦本) 등이 있었고, 그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305년 후에 기록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로 권순회는 ‘필사본 『불우헌유고』를 통해 「상춘곡」이 그 곳에 실려 있지 않았기에 「상춘곡」을 불우헌의 작으로 보기 어렵다.’<sup>25</sup>고 하였다. 그런데 필사본 『유고』는 기록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작품이 취사선택될 수 있다. 그리고 「상춘곡」이 정극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논거로 ‘후대의 그의 집안 자제나 향리의 누군가가 지었던 것으로 생각한다.’<sup>26</sup>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선조에 대한 불경(不敬)스러운 일이다. 후손들이 문집을 내는 이유는 그 선조의 업적을 후대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는 문집 발간에 불경스럽게도 없는 사실을 더 보탠다는 것

<sup>25</sup> 권순회, 「필사본 불우헌유고(不憂軒遺稿)의 발굴과 <상춘곡(賞春曲)>의 작자문제」, 『韓國詩歌研究』 第56輯, 한국시가학회, 2022, 5-41쪽.

<sup>26</sup> 위의 논문, 31쪽.

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유고의 간행 과정에서 ‘교정을 본 외후손(外後孫)인 황윤석이 불우현이 짓지도 않은 「상춘곡」을 『불우현집』에 수록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sup>27</sup> 후손들이 문집을 편찬할 때 주변의 석학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더 좋은 문집을 만들기 위해 다소의 교정을 한다. 일생 동안 추구했던 학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감(減)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의 작품을 선조의 작품인 양 통째로 가져다 문집에 싣는 경우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문집을 간행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차후 선조를 욕보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일부러 집안 자제나 향리의 누군가가 쓴 작품을 『불우현집』에 실었다는 추측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불우현가(不憂軒歌)」에 대한 작가 문제는 작가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찬미할 수 있는가와 삼품의장을 받은 시기를 80세로 보아, 작가를 불우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불우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직접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성은에 감사드린 점을 감안하면, 「불우현가」에서 자기 자신을 임금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한 말이 전혀 엉뚱한 논리는 아니다. 성은을 입어 지금 미천한 백성이 잘살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품의장을 받은 해는 72세로 「불우현가」를 지은 해이다. 삼품의장을 받은 후 임금의 천수를 축원 드리기 위해 지은 노래라고 하였다. 그러니 「불우현가」의 작가는 불우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종실록』에서도 이 노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불우현가」의 작가는 불우현인 것이다.

---

<sup>27</sup> 위의 논문 주)48, 31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한국고전종합DB, 『不憂軒集』.

丁克仁 著, 김홍영 역, 『국역 불우헌집』, 민족문화추진회, 1998.

金敬琢 譯著, 『周易』, 明文堂, 2011.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 『詩經』, 藝文印書館, 1981.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 『論語』, 藝文印書館, 1981.

『성종실록』 22권 성종 11년(1480) 10월 26일 壬申 5번째 기사, 「前正言丁克仁, 詣闕上書曰」.

### 2. 논저

權寧徹, 「不憂軒歌曲 研究」, 『國文學 研究』 제2집, 효성여대, 1969, 79-91쪽.

권순희, 「필사본 불우헌유고(不憂軒遺稿)의 발굴과 <상춘곡(賞春曲)>의 작자문제」, 『韓國詩歌研究』 第56輯, 한국시가학회, 2022, 5-41쪽.

姜鎰燮, 「賞春曲의 作者를 둘러싼 問題」, 『東方學志』 24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229-251쪽.

김광조, 「江湖歌辭의 作中空間 設定과 意味 - 賞春曲 · 俛仰亭歌 · 星山別曲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3권, 한국시가학회, 2007, 115-147쪽.

김대행 · 남경(南耕) 박준구 박사 정년기념 특집호: 「상춘곡: 추상의 의미」,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71-81쪽.

김민하, 「丁克仁의 '상춘곡' 研究 - 그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87, 77-95쪽.

김명준, 「상춘곡(賞春曲)의 결어(結語) 재해석과 시가사적 위치」, 『한국시가연구』 20권, 한국시가학회, 2000, 33-62쪽.

金成基, 「丁克仁의 不憂軒歌에 나타난 時調性 研究」, 『시조학논총』 19집, 2002, 155-177쪽.

김진희, 「<단심가>와 <하여가>의 형성 시기 - 역사화를 통한 시조 대중화의 한 부면」, 『한국시가연구』 49권, 한국시가학회, 2020, 121-136쪽.

박경주,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경기체가 장르의 정서변화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4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67-95쪽.

\_\_\_\_\_, 「정극인의 시가작품이 지닌 15세기 사대부문학으로서의 위상 탐구」, 『고전문학과 교육』 29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06-207쪽.

朴明姬, 「不憂軒 丁克仁 한시의 江湖閑情 미의식」, 『東方漢文學』 第50輯, 2012, 105-134쪽.

박종배, 「불우헌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69-78쪽.

양희찬, 「賞春曲의 作者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65권, 민족어문학회, 2012, 139-164쪽.

- 유옥례, 「정극인 한시의 미학」, 『古詩歌研究』 第22輯, 2008, 212-229쪽.
- 尹錫山, 「賞春曲 구조 연구」, 『고전문학연구』 13권, 한국고전문학회, 1998, 69-91쪽.
- 윤인현, 「문(文)과 시(詩)를 통해 본 불우현(不憂軒)의 선비정신과 자연관」, 『비교한국학』 30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121-151쪽.
- 정요일, 「유가(儒家)의 자연관(自然觀)」, 『어문연구』 3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425-442쪽.
- 鄭在皓, 「不憂軒放」, 『어문논집』 4권, 민족어문학회, 1960, 46-57쪽.
- 崔康賢, 「賞春曲과 不憂軒集 研究」, 『홍대논총』 제16집, 홍익대학교, 1984, 229-264쪽.
- 최상은, 「不憂軒과 紅塵의 양면성 - 丁克仁 문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35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367-393쪽.
- 崔珍源, 「江湖歌道の 研究」, 『논문집』 8집, 성균관대학교, 1963, 18쪽.

## A Study on “The Spirit of Anbin-Nakdo(安貧樂道)” Reflected in the Song(歌曲) Lyrics of Bul-Woo-Heon(不憂軒)

Yun, In-hyun | Inha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Chong Kug-in(丁克仁), whose literary name is Bul-woo-heon(不憂軒), expresses his life philosophy, “the spirit of Anbin-nakdo(安貧樂道),” in his song lyrics. Anbin-nakdo is typically understood as a passive way of living that withdraws into nature and accepts the environment, such as poverty. However, the dialogue between Confucius and Zigong in the Analects, which gave rise to Anbin-nakdo, reveals its true meaning as a comprehensive attitude toward life that actively develops “life through effort” while endorsing passive acceptance of the environment. This concept encompasses “bin-i-rak(貧而樂),” which refers to enjoying a simple life despite poverty and having a positive outlook on life while singing how beautiful nature is, being sincere, and cultivating oneself.

The literary works of contemporary true Confucians, like Bul-woo-heon, who seek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while appreciating nature and working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primarily reflect this attitude toward life. Bul-woo-heon’s song lyrics capture the spirit of Anbin-nakdo, which speaks of a true Confucian who cultivates himself in accordance with wisdom and virtue, singing the nature and essence of life while striving to better the world. Among his three songs, the first song, “Bul-woo-heon-gok(不憂軒曲),” one of the “kyung-gi-che-ga,” shows an active attitude toward practicing the way of the sage in accordance with one’s intention. The next two songs, “Bul-woo-heon-ga(不憂軒歌)” and “Sang-chun-gok(賞春曲),” which are early sijo compositions, exhibit a positive outlook on living a peaceful life in nature and looking for the meaning of life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All of Bul-woo-heon’s songs discuss the character and essence of life in nature, displaying an engaged perspective on reality that aims to restore human nature by rejecting the erroneous notion of material prosperity. This paper demonstrates how “the spirit of Anbin-nakdo” is a significant driving force behind Bul-woo-heon’s literary works and life theme.

**Key words :** Chong Kug-in, Song(歌曲), Anbin-Nakdo(安貧樂道), Nature appreciation, Sugichiin(修己治人), View of reality, Restoring human nature

논문접수일: 2023.03.15 심사기간: 2023.03.29~04.10 게재확정일: 2023.04.12.

## 「풍랑몽」과 「바다」 시편 사이, 지용의 ‘바다’\*

이경수\*\*

1. 서론
2. 상상 속 풍경과 연모의 마음 - 「풍랑몽」의 바다
3. 정지용의 일본 유학 경험과 육화된 공간 - 「해협」과 「바다」 시편의 바다
4. 금강산 기행과 동해 - 「절정」과 「비로봉」의 바다
5. 결론

### | 국문초록 |

이 논문에서는 1922년 3월에 썼다고 정지용이 창작 시기를 직접 밝힌 「풍랑몽」<sup>1</sup>이 직접 바다를 체험하기 이전에 쓰인 시라는 사실에 주목해 정지용의 초기 시에 압도적으로 등장한 바다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923년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부관연락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일본 도시샤 대학으로 유학을 간 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갈 적마다 건넌을 ‘바다’를 실컷 체험한 후에 쓰인 「바다」 시편은 정지용의 ‘바다’ 표상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금강산 기행과 관련 있어 보이는 ‘동해’가 등장하는 두 편의 시 「절정」과 「비로봉」에서는 또 다

\* 이 글은 2022년 9월 24일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제35회 자용제 제5회 정지용 동북아국제문학포럼 <정지용 현대시 100주년, 지용의 시세계>에서 발표한 「「풍랑몽」과 「바다」 시편 사이, 지용의 ‘바다」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른 바다가 포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인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바다’가 타고르의 영향을 받은 낭만적으로 채색된 바다의 모습에 가까웠다면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으로서 바다를 직접 체험한 후 그려진 ‘바다’에는 정지용이 느낀 시대 감각과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비애와 자조의 심정이 조형화되어 한층 복합적인 표상으로 ‘바다’가 형상화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금강산 기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등장한 ‘동해’에는 이전의 추상화된 바다와는 다른 구체적인 장소성이 새겨지면서 시집 『백록담』 수록 시편을 예비하는 변화를 드러내 보였다.

정지용의 초기 시에 나타난 바다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정지용의 시에 대한 선입견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 초기의 정지용 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구 이미지즘의 영향을 받은 시라는 편견을 걷어내면 생각보다 정지용의 시는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바다’를 우주적 감각으로 조형화해낸 정지용의 독특한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획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바다 체험을 바탕으로 바다라는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하고자 한 시인의 오랜 시적 수련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정지용, 「풍랑몽1」, 「바다」 시편, 부관연락선, 금강산 기행, 동해(東海), 비애, 체험

## 1. 서론

1927년 7월 『조선지광』에 발표된 정지용의 시 「풍랑몽」<sup>1</sup>에는 1922년 3월에 썼다는 창작 메모가 부기되어 있다.<sup>1</sup> 창작 시기를 고려할 때 「풍랑몽」은 정지용이 21세 때 휘문고보 5학년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시가 된다. 휘문고보는 1922년 학제 개편으로 5년제가 되고 정지용은 이때 휘문고보 5년으로 진급해 이듬해 졸업한다.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충북옥천공립보통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다닌 정지용의 생애 이력을 고려하면 이 시를 쓸 무렵 정지용은 실제로 ‘바다’를 체험했을 가능성이 적다. 충북 옥천의 시인임을 감안하면 ‘바다’를 목격했을 가능성도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풍랑몽」의 바다는 시인의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상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륙에서 태어나 자란 정지용에게 ‘바다’를 처음 본 순간은 강렬한 체험을 선사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 유학을 경험한 시인, 작가들에게 ‘바다’를 건넌 체험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닷가에서 자란 시인이었다면 바다가 익숙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바다는 처음 본 순간부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만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다. 더구나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유학을 간 체험은 단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직접 그 위력과 바람과 습도와 냄새와 생태와 뱃멀미를 체험하는 경험이었을 테니 몸으로 육박해 들어오는 강렬한 체험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바다를 독서 체험으로 상상한 시 「풍랑몽」과 실제 배를 타고 뱃멀미를 겪으며 바다를 건너간 경험, 항구에 배가 정박하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짐을 싣고 하는 모습을 직접 몸으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시 사이에는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지용의 초기 시를 검토하고자 한다. 정지용의

<sup>1</sup> 정지용, 「풍랑몽」, 『조선지광』 69호, 1927.7, 11-12쪽.

초기 시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졌지만 뛰어난 완성도와 언어 감각을 지니고 있는 정지용의 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외로 부족한 부분은 실제 체험이나 장소성과 관련된 실증적 관점의 연구이다.<sup>2</sup>

정지용이 『조선지광』에 시를 발표한 사실에 주목해 정지용 시의 현실 인식을 탐구한 비교적 최근의 선행 연구<sup>3</sup>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정지용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의 시에 대한 연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상당 부분 깊이 있게 진행되었지만 정지용 선행 연구의 주류적 관점에서 벗어나 각도를 달리한 관점의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도 시작된다.

## 2. 상상 속 풍경과 연모의 마음 - 「풍랑몽」의 바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풍랑몽」은 1927년 7월 『조선지광』 69호에 발표된 시인데, 이 시의 뒤에는 ‘一九二二・三月・麻浦下流玄石里’라는 부기가 붙

- 
- 2 정지용의 ‘바다’ 시편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이상오, 「정지용의 초기 시와 ‘바다’ 시편에 나타난 자연 인식」, 『인문연구』 제4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12, 215-248쪽; 하재연, 「일본 유학 시기 정지용 시의 특성과 창작의 방향」, 『비교한국학』 제15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6, 255-277쪽; 신용목, 「정지용의 「바다 2」 분석 - 자연을 대상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5, 한국언어문학회, 2010.12, 535-557쪽; 정우택, 「현해탄의 청춘공화국 - 『정지용 시집』(1935)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44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12, 122-153쪽; 이종옥,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 『한국문학논총』 제59집, 한국문화회, 2011.12, 217-242쪽; 송기한, 「정지용 시에서의 바다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제42집, 한중인문학회, 2014.3, 21-42쪽; 엄홍화, 「문학지리학으로 본 정지용 초기 바다시의 지리공간」, 『한중인문학연구』 제73집, 한중인문학회, 2021.12, 369-387쪽; 이수정, 「정지용의 「바다2」, 혼돈에서 질서로」, 『우리어문연구』 제75집, 우리어문학회, 2023.1, 89-118쪽. 그중에서 장소성에 주목한 연구로는 현해탄이라는 장소성에 주목한 정우택의 연구와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정지용의 바다 시편을 살펴본 엄홍화의 연구가 있다.
- 3 성현아, 「1920~30년대 정지용의 문학사적 의미 - 『조선지광』·시문학과 구인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38쪽.



어 있다. 정지용의 시 중 창작 시기를 직접 밝힌 시는 32편<sup>4</sup> 정도로 대개 첫 시집 『정지용 시집』 수록시들인데 「풍랑몽」<sup>1</sup>은 그중 가장 창작 시기가 앞서는 시이다. 이 시에는 창작 시기와 함께 장소가 명확히 밝혀져 있다. 1922년 3월이면 휘문고보 재학 시절이고 당시 정지용은 『요람』이라는 동인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작품 또한 『요람』에 실었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정지용 시가 1926년부터 지면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는 창작 시기가 밝혀진 시 중 지용의 최초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흥미로운 것은 창작 시기만이 아니다. 이 시가 쓰인 곳이자 창작의 계기가 되는 곳의 정보가 ‘마포 하류 현석리’로 함께 밝혀져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당시 마포나루는 각종 수화물이 들어오는 교통의 요지였던 것은 물론이고, 당대의 마포나루 사진을 보면 수많은 나룻배가 마포나루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북적대며 짐과 사람들이 오가는 분위기는 비록 바다는 아니지만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자란 시인에게는 마치 바다의 항구와도 같은 북적임과 신기한 감각을 선사했을 것이다. 마포 현석리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밤섬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도 지용이 당시 마포나루 현석리에서 체험한 한강을 마치 바다와도 같은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당시 정지용은 휘문고보 5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여러 고민에 휩싸였을 시기였을 것이다. 휘문고보의 당시 위

<sup>4</sup> 『정지용 시집』 수록시 중 최초 발표 지면에 창작 시기를 밝혀 놓은 시는 다음과 같다.  
 『Dahlia』, 「紅椿」, 「산에 스며들, 들녘사내」, 「바다」, 「湖面」, 「셋빛안機關車」, 「내맘에맞는이」, 「무어래요?」, 「숨끼내기」, 「비들기」, 「이른 봄 아침」, 「鄉愁」, 「바다」, 「石榴」, 「셋나무열매」, 「엽서에 쓴 글」, 「슬픈汽車」, 「산넘어저쪽」, 「해바라기씨」, 「五月消息」, 「幌馬車」, 「船聲」, 「鴨川」, 「發熱」, 「風浪夢」, 「太極扇에 날리는 꿈」, 「말」, 「三月 삼짇날」, 「갈매기」, 「琉璃廠」, 「저녁 햇살」, 「성부활주일」.  
<sup>5</sup> 물론 장르를 넓혀 보면 1919년 12월 『서광』 창간호에 발표한 소설 「三人」을 정지용의 최초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三人」은 비록 미완성이지만 지면에 발표된 최초의 작품인 것은 물론이고 창작 시기가 밝혀진 작품까지 포함해도 압도적으로 시기가 앞선 작품이다.

치를 살펴보면 주소지는 원서동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계동 현대사옥이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1922년 당시 경성의 전차는 청량리선, 종로선, 마포선 등이 다니고 있었다. 휘문고보에서는 종로를 관통하는 종로선이 위치상 가까웠고 서대문~마포에 이르는 전차를 타고 종점인 마포까지 가는 것도 가능했다.<sup>6</sup> 정확한 동선을 알 수는 없지만 정지용은 아마도 전차를 이용해 종점인 마포까지 가 봤을 것이다. 교내 문제로 정학을 당하기도 했던 혈기왕성한 청년 정지용은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휘문고보 선배였던 홍사용의 영향으로 타고르<sup>7</sup>에 심취해 있기도 했던 정지용은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서 자신의 미래와 식민지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전차의 종점인 마포나루에 가서 바다를 상상하며 이 땅 너머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6 '서대문~마포' 구간의 전차는 1907년에 개통되었다. 「마포 전차 종점과 돈암동 전차 종점 -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 <https://kibaek.tistory.com/999>.

7 『휘문』 창간호(1923.1)에 타고르의 「씨텐젤리」 1~9까지의 번역을 정지용이 실은 사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다(최동호, 「정지용의 타고르 시집 「기탄자리」 번역 시편 - 1923년 1월 발간된 『휘문』 창간호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9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12, 11-48쪽). 이것이 교지 『휘문』에 실은 정지용의 첫 흔적이었음도 상기해야겠다. 『휘문』 창간 시집을 고려할 때 지용은 이미 그 전부터 타고르에 심취해 있었고 타고르 작품을 번역해 가며 읽고 있었는데 교지 『휘문』이 창간되면서 『기탄자리』의 번역을 창간호를 기념해 실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타고르를 비롯해 외국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번역하기도 했고 이러한 번역 작업이 자신의 시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의 견해를 참조하면 1922년에 쓴 것으로 알려진 지용의 초기작 「풍랑뭉1」에도 정지용의 독서 체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드러나 있는 시기상으로는 「기탄자리」의 번역 작품을 발표한 시점보다 「풍랑뭉1」의 창작 시기가 앞서지만 휘문 시절 『요람』이라는 동인지지를 발간했다는 점, 2학년 재학 시절인 1919년에 『서광』에 소설 「三人」을 발표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지용의 창작욕은 휘문고보 재학 시절에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졸업을 앞둔 시기에 정지용이 『휘문』 창간호 편집위원을 맡고 자신이 탐독하던 시인 타고르의 「씨텐젤리」 9수의 번역을 실는 등 『휘문』 창간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것을 보면 휘문 시절의 문학청년으로서의 정지용의 열정이 『휘문』 창간을 통해 꽃 피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 정지용은 1923년 3월에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4월에 일본 교토의 도시사 대학에 입학한다.

당신 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까.

끝없는 우름 바다를 안으올때  
葡萄빛 밤이 밀려 오듯이,  
그모양으로 오시랴십니까.

당신 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까.

물건너 외딴 섬, 銀灰色 巨人이  
바람 사나운 날, 덮쳐 오듯이,  
그모양으로 오시랴십니까.

당신 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까.

窓밖에는 참새떼 눈초리 무거웁고  
窓안에는 시름겨워 턱을 고일때,  
銀고리 같은 새벽달  
붓그림성 스런 낮가림을 벗듯이,  
그모양으로 오시랴십니까.

외로운<sup>8</sup> 조름, 風浪에 어리울때  
앞 浦口에는 굵은비 자욱히 돌리고  
行船배 북이 읊니다, 북이 읊니다.

- 정지용, 「風浪夢1」(『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

<sup>8</sup> 『조선지광』 수록시에서는 “괴로운 조름”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정지용 시집』에 이 시를 실으면서 “외로운 조름”으로 개작했다.

“당신 계서 오신다니/당신은 어찌나 오시라십니까.”라는 연과 “그모양으로 오시라십니까.”라는 시행이 시의 1~6연에 걸쳐서 세 차례 반복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2, 4, 6연이 각각 3, 3, 5행으로 구성되면서 “그모양으로 오시라십니까.” 앞에 오는 행의 내용이 달라지는 변화만 있을 뿐 1~6연까지의 형식은 1, 3, 5연의 반복과 2, 4, 6연의 변주로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7연만 앞서와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시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시의 주체의 위치가 여기서 드러난다. ‘당신’과 ‘당신이 오신다는 소식’을 계속 감격에 겨워 되뇌는 시의 주체는 “앞 浦口”가 바라보이는 위치에서 “行船배 북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 “葡萄빛 밤”이 밀려드는 모습, 바람 사나운 날 “銀灰色 巨人” 같은 파도가 치는 바다의 모습, 풍량이 치고 포구에 굶은비 자욱히 내리고 행선배 북이 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지만 이 시를 쓴 장소는 시인이 밝히고 있듯이 ‘마포 하류 현석리’이며 시를 쓴 시기도 바다를 직접 건넌 체험을 하기 이전이다. 마포나루에서 북적대는 포구의 분위기를 바라보며 독서 체험을 통해 상상한 바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다. 낭만적으로 채색된 바다를 건너오는 대상으로 ‘당신’이 호명되면서 시의 주체가 그리는 ‘풍랑몽’은 완성된다. 마치 졸업을 앞두고 방황하는 시의 주체의 마음처럼 한바탕 풍량이 이는 꿈은 ‘당신’을 향한 기다림과 열망으로 가득하다. 『조선지광』 수록시에서 7연의 첫 행이 “괴로운 조름”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방황하는 시적 주체의 괴로운 심경이 좀 더 진솔하게 그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 시에 그려진 ‘당신’은 시의 주체가 간절히 회구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신(神)을 연상시킨다. 시의 주체가 간절히 기다리고 염원하는 대상이라면 누구라도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920년대 시에서 종종 노래된 ‘님’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특히 이 시를 쓸

무렵 정지용이 타고르에 심취해 있었고 실제로 1923년 『휘문』 창간호에 타고르의 『기탄잘리』 중 9수를 번역해 실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도 있다. 『기탄잘리』는 ‘신에게 바치는 송가’ 또는 ‘님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의미를 지닌 서정시로 종교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님’이 등장하는 시이다. 정지용의 「기탄잘리」 번역본에도 ‘님’, ‘당신’, ‘그대’ 등으로 주체가 희구하는 대상이 등장한다. 특히 정지용이 번역한 「씨텐젤리」 2에 등장하는 “당신은이러케사나운밤에당신의사랑의길을써나십니까나의친구시여?”라든가 「씨텐젤리」 3에 등장하는 “그대여, 그의, 고요한, 발자취를듯지, 못하나?/ 瞬間마다, 時代마다, 날마다, 밤마다그는오시네 -” 같은 구절에서는 당신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희구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풍랑몽」에 미친 영향의 흔적이 느껴지기도 한다.

최동호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탄잘리」에 대한 노아와 김억의 번역과 비교해 정지용의 『기탄잘리』 번역을 살펴보면서 김억의 번역이 좀 더 종교적인 색채를 드리우고 있고 직역투의 번역인 데 비해 정지용의 번역은 재기발랄한 행간 배치와 신선한 언어 구사가 눈에 띄어 독자적인 수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9</sup> 정지용이 직접 밝힌 「풍랑몽」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면 영향의 선후 관계를 논하기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정지용이 휘문고보에 다닐 때 홍사용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타고르를 사숙했다는 점, 『기탄잘리』를 읽은 독서 체험이 시작된 시기와 번역을 결심하고 시작한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극 등을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추정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지용은 창작 초기에 일본어 시를 먼저 쓰고 조선어로 동일한 시를 다시 쓴 경우가 많았다는 점,<sup>10</sup> 외국 작품의 번역을

<sup>9</sup> 최동호, 「정지용의 타고르 시집 『기탄잘리』 번역 시판·1923년 1월 발간된 『휘문』 창간호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9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12, 45쪽.

<sup>10</sup> 김동희, 「정지용의 이중언어 의식과 개작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77-79쪽.

통해 창작 훈련을 거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탄잘리」를 읽고 번역한 체험이 그의 시 창작에 미친 영향을 논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용시 「풍랑몽1」에서 실제 시의 주체가 보고 있는 풍경은 포구의 풍경이다. ‘마포 하류 현석리’에서 바라본 풍경이겠다. “행선배 북이” 우는 풍경 역시 포구에서 바라본 실제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다. 1~6 연에 등장하는 바다는 실제의 풍경이라기보다는 연모의 대상인 ‘당신’이 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는 상상 속 풍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춘의 고생스럽고 방황하는, 마치 풍랑과도 같은 꿈이라는 비유적 의미와도 잘 어울리는 시의 제목은 그런 풍랑을 헤치고 오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파도치는 ‘바다’의 모습을 상상해 본 것이겠다. 물론 그 상상의 바탕에는 마포 하류 현석리 포구에서 본 실제의 풍경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다가 육지를 벗어나 향하는 곳이자 바다 건너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당신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오는 공간으로 상상하기에 적합한 곳이자 낭만적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초기의 정지용 시에는 시의 주체이자 화자로서의 ‘나’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후의 시에서는 점점 ‘나’를 숨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에는 ‘나’가 직접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희구를 통해 ‘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한다. 이후의 「바다」 시편에서 ‘나’가 모습을 감춘 채 ‘바다’의 풍경에 집중하는 경향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인다.

1923년 3월에 창작했다고 부기된 『조선지광』 65호(1927.3)에 발표된 「향수」의 경우에도 “傳說바다 에 춤 추는 밤물결 가튼”이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1923년 3월 휘문고보를 졸업한 후 같은 해 4월에 도시샤 대학에 입학했음을 기억한다면 현해탄을 건너 실질적인 바다 체험 이전에 쓰인 시에서 등장한 구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바람은 이렇게 몹시도 부옇는데  
 저달 永遠의 燈火!  
 꺼질법도 아니하옵거니,  
 엇저녁 風浪우에 님 실려 보내고  
 아닌 밤중 무서운 꿈에 소스라쳐 깨웁니다.

- 정지용, 「風浪夢2」(『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바람은 부옇는데」라는 제목으로 『시문학』 3호(1931.10)에 발표한 시를 정지용은 첫 시집에 수록하면서 ‘풍랑몽2’로 제목을 바꾼다. 「풍랑몽1」이 직접 바다를 체험하고 쓴 시가 아니라 마포 하류 현석리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바다를 상상한 시에 ‘몽’을 붙임으로써 상상의 장면을 완성한 시였다면, 이 시는 바람이 몹시도 불던 날 밤 무서운 꿈에 소스라쳐 깬 경험에 ‘풍랑몽’이라는 제목을 더함으로써 바람과 바다와 꿈이 결합한 연작시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 시의 주체의 불안이 ‘님’을 향한 갈구와 관련된 것임을 이 시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 3. 정지용의 일본 유학 경험과 육화된 공간 - 「해협」과 「바다」 시편의 바다

1923년 4월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예과에 입학하면서 휘문고보 동창 박제찬과 함께 정지용은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것이 바다를 건넌 정지용의 첫 경험이었다. 당시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으로 부관연락선<sup>11</sup>을 타고 가

<sup>11</sup> 부관/관부연락선은 1905년 9월 11일부터 1945년 6월까지 운행되었다. 관부연락선은 일본의 철도성이 관할한 해상 철도로 기능하며 철도와 연결됨으로써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기능했다. 경부선 부산잔교역과 산요 본선 시모노세키역을 연결하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연락선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조선과

는 것이 일본 유학생들이 밟은 일반적인 경로였으니 정지용 또한 동일한 경로로 일본에 이르렀을 것이다. 6년이라는 일본 유학 기간 동안 정지용이 몇 차례나 고향 땅을 다시 밟으며 교토와 경성, 또는 교토와 옥천을 오갔는지는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사이에 발표한 시의 부기에 이따금 창작 시기와 장소를 명시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몇 차례 오갔음을 알 수 있다. 정지용은 1923년 4월 도시샤 대학에 입학해 1929년 3월에 도시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귀국하기까지 6년의 일본 유학 생활을 했지만 『조선지광』 69호(1927.7)에 발표된 「발열」에는 ‘1927. 6月. 沃川’이라는 창작 시기와 장소를 밝힌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927년에는 30여 편의 시를 『신민』, 『문예시대』, 『조선지광』, 『신소년』 등에 잇달아 발표했으며, 1928년 음력 2월에는 옥천면 하계리 자택에서 장남 구관이 태어났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교토 도시샤 대학 유학 시절에 정지용은 종종 고향인 충북 옥천과 경성에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유학을 간 1923년 4월 이후 정지용의 시에서는 ‘바다’가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데 특히 바다를 건넌 체험이 직접 드러나 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할 만하다. 먼저 대한해협<sup>12</sup> 바다를 건넌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로 「船醉」와 「해협」과 「다시 해협」을 들 수 있다.

---

일본 사이를 오간 약 80~90%가 관부연락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항 초기의 소요 시간은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까지 약 1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일제 말에는 운항 소요 시간이 7시간 반까지도 단축되었다고 한다. 철도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쿄에서 서울(경성)까지도 60시간이면 갈 수 있었다고 한다(전성현, 「그림·사진으로 읽는 역사 24. 일제강점기 해상철도 관부연락선」, 『부산일보』, 2015.6.17.). 부관연락선의 역사와 상세한 운항 관련 역사적 자료는 최영호·박진우·류교열·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 <sup>12</sup> 정지용의 시에서도 부기에 ‘현해탄’이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 당시 일본 유학생들은 이 바다를 흔히 ‘현해탄’으로 부른 것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한해협과 현해탄은 다르다. 여기서는 정지용이 직접 현해탄으로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해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배 난간 에 기대 서서 회파람을 날니 나니,  
색감은 등술기 에 팔월달 해쌀 이 싸가 워라.

금 단초 다섯 개 다른 자랑스러 움, 내쳐 시달 품.  
아리랑 쯔 라도 차저 볼 까, 그 전 날 불으 던,

아리랑 쯔 그도 저도 다 니졌 습네, 인제는 버얼서,  
금단 초 다 섯 개 를 세우고 가자, 파아란 바다우 에.

담배도 못 먹고 온, 숫닭 가튼 머언 사랑 을  
홀 로 피우며 가노니, 늑긋늑긋 흔들 흔들니 면서.

- 정지용, 「船醉」(『학조』 2호, 1927.6) 전문

이 시는 『학조』 2호에 1927년 6월에 발표된 후 『시문학』 1호(1930.3)에도 실리고 이후 『정지용 시집』에도 실린다. 처음 지면에 발표된 『학조』 발표본 뒤에는 ‘一九二六・八・玄海灘우에서’라는 부기가 붙어 있다. 정지용이 교토 도시샤 대학으로 유학을 가며 처음 현해탄을 건넌 것은 1923년 4월이었고 이후 방학에는 고향에 돌아오기도 하면서 현해탄을 건너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이때의 경험은 정지용의 시에서 현해탄 바다 위의 경험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바다’에 대한 탐색과 묘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는 전자에 해당된다. 시의 주체는 금단추 다섯 개 달린 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갔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단추 다섯 개 단 제복을 입은 모습의 주체는 자랑스러운 감정이 들다가 이내 시들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아리랑 쯔라도 찾아볼가, 그전날

<sup>13</sup> 정우택은 ‘현해탄’이 새로운 의미와 표상으로 발견된 것은 1905년 관부연락선이 개통되면서부터라고 보았다. 정우택, 앞의 글, 126쪽.

불으던”이라는 구절을 통해 고향에 가서 아리랑조를 부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시들한 감정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고향을 떠나 다시 일본행 배에 오르는 순간 “아리랑조 그도 저도” 다 잊은 자신의 모습과 마주한다. “파아란 바다 우에” “금단초 다섯 개를” 뿌리고 가자고 하는 주체의 발화는 금단추 단 제복을 입은 모습에 잠시나마 우쭐댄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회한, 비애의 감정 때문일 것이다. 뱃멀미에 시달리며 흔들리는 주체의 모습은 뱃멀미를 빙자해 흔들리며 방황하는 식민지 조선 청년의 모습이기도 하다. “담배도 못 먹고 온”이라는 구절은 이후에 발표되는 시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는”으로 개작되는데 “담배도 못 피우는, 송닭같은 머언 사랑을/홀로 피우며 가”는 모습은 어수룩하고 외로운 신세인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늑긋늑긋 흔들 흔들니”는 모습은 뱃멀미에 시달리는 주체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자 시인이면서 배움을 위해 현해탄을 건너야 하는 신세를 뱃멀미로 흔들리며 속이 메스꺼리는 상태로 표현한 것이겠다. 뱃멀미를 느낄 때마다 시의 주체는 자괴감과 비애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砲彈으로 뚫은듯 동그란 船窓으로  
 눈썹까지 부풀어 오른 水平이 엿보고,

하늘이 함푹 내려 앉어  
 큰악한 암담처럼 품고 있다.

透明한 魚族이 行列하는 位置에  
 훗하게 차지한 나의 자리여!

망토 깃에 솟은 귀는 소라스속 같이

소란한 無人島의 角笛을 불고—

海峽午前二時の 孤獨은 오롯한 圓光을 쓰다

설어올리 없는 눈물을 少女처럼 짓자.

나의 青春은 나의 祖國!

다음날 港口的 개인 날세여!

航海는 정히 戀愛처럼 沸騰하고

이제 어드메쯤 한밤의 太陽이 피여오른다.

- 정지용, 「海峽」(『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특히 「해협」은 『정지용 시집』에 「해협」으로 실리지만 『가톨릭청년』 1호(1933.6)에 처음 발표될 당시에는 「海峽의 午前 二時」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전 2시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시의 주체를 상기한다면 이 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일본 유학을 갔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시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11시간이 넘는 시간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sup>14</sup> 많은 이들이 잠들었을 새벽 두 시에 홀로 바다를 바라보았을 시의 주체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시를 온전히 감상하기 어렵다.

<sup>14</sup> 홍연진은 1904년 5월에 만들어져 1905년 9월에 운항을 시작한 부관연락선 이키마루(壹岐丸)와 1905년 11월에 취항한 부관연락선 쓰시마마루(對馬丸)는 운항 시간이 11시간 정도 걸렸고, 1912년에 급행 선박이 운항하면서 9시간 30분, 1922~23년에 취항한 게이후쿠마루, 도쿠주마루, 쇼케이마루 3척은 8시간 정도로 운항 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히고 있다(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부 일본인」, 최영호·박진우·류교열·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 18-24쪽). 이에 따르면 정지용이 일본 유학을 갔을 시기에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데 대략 8시간 정도나 그 이상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실에서 조그맣게 난 동그란 선창으로 내다본 바다는 눈높이와 비슷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그것을 시의 주체는 “눈썹까지 부풀어 오른 水平이 엿보”는 풍경으로 그려낸다. 긴 시간 바다 위에 머무르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닿은 경계선이 잘 구별되지 않을 것도 같다. “하늘이 함푹 내려 앉어/큰악한 암혈처럼 품고 있다”고 배에서 바라본 바다의 풍경을 시의 주체는 묘사한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동안 내내 들려올 바닷물을 가르느 소리, 갈매기 소리, 배의 기적 소리는 “소란한 無人島의 角笛을” 부는 소리로 형상화되고 학생복에 망토를 걸친 시의 주체의 모습도 “망토 깃에 솟은 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오전 두 시에 해협을 지나는 관부연락선 위에서 시의 주체가 느꼈을 고독에서 식민지 조선 청년의 비애감이 느껴진다. “설어울리 없는 눈물을 少女처럼 짓자.”는 말은 일종의 반어인 셈이다. 해협을 건널 때마다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은 “나의 靑春은 나의 祖國!”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새벽 2시에 잠 못 이루며 홀로 고독한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靑春은 나의 祖國!” 바로 다음 행에 “다음날 港口의 개인 날 세여!”가 나란히 놓이는 것은 “나의 청춘”과 “나의 조국”의 내일에도 ‘겐 날씨’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주체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항해도 청춘도 “戀愛처럼 沸騰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청년에게는 잃어버린 조국의 운명이 가로놓여 있다. 정지용의 이 무렵의 고독과 비애가 이와 무관할 리는 없다.

正午 가까운 海峽은  
白墨痕迹이 的歷한 圓周!

마스트 끝에 붉은旗가 하늘 보다 곱다.  
甘藍 포기 포기 솟아 오르듯 茂盛한 물이랑이어!

班馬같이 海狗 같이 어여쁜 섬들이 달려오건만  
一一히 만져주지 않고 지나가다.

海峽이 물거울 쓰러지듯 휘뚝 하였다.  
海峽은 업지리지지 않았다.

地球우로 기여가는것이  
이다지도 호수운 것이냐!

외진곳 지날제 汽笛은 무서워서 운다.  
당나귀처럼 淒涼하구나.

海峽의 七月해살은  
달빛 보담 시원타.

火筒옆 사닥다리에 나란히  
濟州島사투리 하는이와 아주 친했다.

수물 한살 적 첫 航路에  
戀愛보담 담배를 먼저 배웠다.

- 정지용, 「다시 海峽」(『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조선문단』 24호(1935.8)에 먼저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에 『정지용 시집』에 수록한 이 시에도 관부연락선을 타고 대한해협을 건넌 경험이 잘 드러나 있다. 정오 가까운 무렵의 해협을 “白墨痕迹이 的歷한 圓周!”로 묘사한 것은 그 시간의 해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표현이다. 배가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다도해를 지나치는 모습은 “班馬같이 海狗같이” 달려오는 “어여쁜

섬들”을 일일이 만져주지 않고 지나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바닷물을 가르며 항해하면서 보았을, 멀리서 섬들이 가까워졌다 빠르게 멀어져 가는 모습을 말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정지용 특유의 묘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지용에게 바다는 이렇게 활달하고 생동감 있는 움직임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 위에서 경험한 바다는 기우뚱 몸이 흔들리는 생생한 경험과 뱃멀미로 전해져 왔을 것이다. “해협이 물거울 쓰러지듯 휘뚱 하”면서도 “업지러지지 않”는 모습은 바로 그 경험을 표현한 것이겠다. 시의 주체는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는 자신의 항해를 “地球으로 기여가는것”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짜릿함을 느낀다. 지구적인 감각은 이후 「바다2」의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스물한 살 적 첫 항로’에 “연애보담 담배를 먼저 배웠다”<sup>15</sup>는 고백으로 미뤄볼 때 시의 주체에게 유학과 항해에 대한 설렘보다는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서의 고뇌와 비애가 앞서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하게 된다. 1926년 8월에 쓴 「船醉」에서만 해도 담배를 못 피운다고 했던 시의 주체가 ‘현해탄’을 오가는 사이 담배를 먼저 배웠음을 짐작게 하는 시이기도 하다. “무서워서” 우는 “기적”과 “당나귀처럼 처량”한 신세임을 자각하는 시의 주체, 그리고 “제주도사투리 하는이와 아주 친했다”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동족끼리의 연대감, 연애보다 담배를 더 가까이하게 만드는 번뇌까지 관부연락선에 올라 대한해협을 건너 경험은 정지용에게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으로서의 자산을 자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이다.

오 · 오 · 오 · 오 · 오 · 소리치며 달녀가니

오 · 오 · 오 · 오 · 오 · 연달아서 몰아온다.

<sup>15</sup> 이경수는 이 구절을 임화의 「현해탄」이 의도적으로 겨냥했다고 보고 정지용의 「다시 해협」과 임화의 「현해탄」을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이경수, 「말년이 허락되지 않은 시인의 말년의 양식」, 『픽션과논픽션』 제4집, 픽션과논픽션학회, 2022.12, 39-44쪽.

간밤에 잠설푸시 먼— 뇌성이 울더니  
오늘아침 바다는 포도비츠로 부푸러졌다.

철석 · 처열석 · 철석 · 처열석 · 철석 · 처열석  
제비날아들듯 물결 새이새이로 춤을추어

...(중략)...

후주근한 물결소리기 등에지고 홀로 돌아가노니  
어데선지 그누구 썰어져 우름 우는듯 한기척,

돌아서서 보니 먼 燈臺가 켜작 켜작 깜박이고  
갈매기새 끼루룩 끼루룩 비를불으며 날어간다.

우름우는 이는 燈臺도 아니고 갈매기도 아니고  
어텐지 홀로 썰어진 이름도모를 스러움이 하나.

- 정지용, 「바다」(『조선지광』 64호, 1927.2) 부분

『조선지광』 64호(1927.2)에 ‘바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시의 뒤에는 ‘一九二六・六・京都’라고 창작 시기와 장소가 부기되어 있다. 이 시는 『정지용 시집』에 「바다1」, 「바다2」, 「바다3」, 「바다4」로 나뉘어 실린다. 1926년이던 도시샤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로 교토와 고향인 옥천을 오가며 자주 배에 몸을 실었을 때이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일이 종종 있었을 이 무렵의 지용에게 바다는 이처럼 요란한 소리와 몸짓을 동반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바둑 돌 은  
내 손아귀 에 만저지는 것이,  
찍은 조흔 가보아.

그러나 나 는  
푸른 바다 한복판에 던졌 지.

바둑 돌 은  
바다 로 각구로 썩러지는 것이,  
찍은 신기 한가 보아.

당신 도 이제는  
나 를 그만 만 만지시 고,  
귀 를 들어 팽개 를 치십시오.

- 정지용, 「바다」(『조선지광』 65호, 1927.3) 부분

『조선지광』에 발표된 이 시의 뒤에는 ‘一九二五・四・’로 창작 시기가 밝혀져 있다. 유학 시절의 바다 체험이 반영된 시 중에서는 꽤 앞 시기에 놓이는 작품이다. 이 시는 『정지용 시집』에는 「바다5」로 실린다. 실제 창작 시기와 시집의 시 배치는 사실상 무관하다. 초기의 「바다」 시편에서 바둑돌을 푸른 바다 한복판에 던져 바둑돌이 떨어지는 이미지와 바다로 거꾸로 떨어지는 ‘나’의 모습을 겹쳐 놓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바다는 요란한 소리와 몸짓을 동반하는 활달하고 소란한 이미지로 감각되기도 하고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오는 고요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이 시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의 깊이를 몸으로 겪어 직접 체감하려는 지향이 정지용 시에서 느껴지기도 한다.



구름이 대리석 빛으로 퍼져 나간다.

채축이 번뜻 배암을 그린다.

「오호! 호! 호! 호! 호! 호!」

말님의 앞발이 뒤스발이오 뒤스발이 앞발이라.

바다가 네귀로 돈다.

췌! 췌! 췌!

말님의 발이 여덜이오 열여섯이라.

바다가 이리떼처럼 짓으며 온다.

췌! 췌! 췌!

어깨우로 넘어닷는 마파람이 휘파람을 불고

물에서 물에서 팔월이 퍼덕인다.

「형제여, 오오, 이 꼬리 긴 英雄이야!

날새가 이리 휘양청 개인날은 곱슬머리가 자랑스럽소라!」

- 정지용, 「말1」(『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부분

「말」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지광』 71호(1927.9)에 먼저 발표되었다가 『정지용 시집』에 실리면서 「말1」로 제목이 바뀐 시이다.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배의 움직임을 달리는 말의 모습에 비유한 이 시는 속도감과 생동감이 살아 있는 바다를 재현한다. 바다의 움직임, 파도치는 모습, 소리와 냄새 등을 살아 날뛰는 말의 모습에 비유한 상상력이 신선하다.<sup>16</sup> 말의 앞발이 뒷발이고

<sup>16</sup> 이 시에서는 속력을 내며 바다 위를 달러가는 배의 움직임을 말의 움직임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왜 하필 '말'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 바다의 움직임은 '이리떼'에 비유하고 있기도 하니 말이다. 홍연진에 따르면 1905년 11월에 취향한 초창기의 부관연락선 쓰시마마루(對馬丸)의 이름에는 '馬'가 들어간다(홍연진, 앞의 글, 19쪽). 이것은 대한해협에 있는 쓰시마 섬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부관연락선과 부산』의 화보를 참조할 때 1905년 11월에 운항을 시작한 이 배는 1925년 12월까지 운항했다. 그렇다면 정지용이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 처음 탄 배는 이 배였을

뒷발이 앞발인 모습으로 표현되던 속도감은 점점 빨라져 발이 여덟이요 열여섯이 되는 시각적 감각으로 전이된다. 정지용이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배로 왕복하며 처음 경험한 바다의 이미지는 온몸의 감각으로 겪는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뱃멀미에 시달리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배 위에서 출렁여 본 체험이 바다와 배를 속도감과 생동감을 지닌 동물로 상상하게 한 것이겠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으로 체험한 바다의 감각이 이처럼 정지용의 초기 시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아는듯 모르는듯 너는 생겨났지?  
 내사 검은 밤스비가 섬돌우에 올때 호롱스불앞에 났다더라.  
 내사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그이들은 머리가 히시다.  
 나는 허리가 가는 청년이라, 내홀로 사모한이도 있다, 대추나무 꽃 피는 동네  
 다 두고 왔단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너는 목으로 물결을 감는다, 발톱으로 민다.  
 물속을 든다, 솟는다, 떠돈다, 모로 날은다.  
 너는 쌀을 아니 먹어도 사나? 내 손이사 짓부푸러졌다.  
 水平線우에 구름이 이상하다, 돛쪽에 바람이 이상하다.  
 팔뚝을 끼고 눈을 감었다, 바다의 외로움이 검은 넥타이처럼 맏어진다.

- 정지용, 「갈매기」(『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부분

『조선지광』 80호(1928.9)에 먼저 발표되고 이후 시집에 실린 이 시의 최초 발표지면 뒤에는 ‘一九二七, 八’이라는 창작 시기가 밝혀져 있다. 역시 일본 유학 기간에 쓰인 시이다. 정지용의 시에서는 드물게 시의 주체의 처지와 심경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지만 그분들은 머리가

---

가능성도 있다. 처음 탄 배의 기억이 강렬해서 바다를 가로지르며 달려가는 배의 이미지를 정지용이 말이 달리는 모습으로 상상했을 수도 있겠다는 흥미로운 상상을 덧붙여 본다.

회고 자신은 허리가 가는 청년이라 홀로 사모한 이도 있는데 대추나무 꽃 피는 동네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주체는 고백한다. 이런 자기 고백적인 발화가 「카페 프란스」 같은 초기 시를 제외하고는 정지용의 시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억할 만한 시이다. 바다를 오가며 시의 주체는 “바다의 외로움”을 마치 “검은 넥타이”를 만지듯 피부로 감각한다. 검은 빛을 띠고 있는 밤의 바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바다를 보며, 그리고 그런 바다에 드나들며 솟구치거나 떠돌면서 목으로 물결을 감기도 하고 발톱으로 물결을 밀기도 하는 갈매기를 보면서 시의 주체는 갈매기와 교감하고 바다와 교감한다.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며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 등 온갖 감각으로 바다를 느끼면서 정지용 시의 바다 표상은 형성되어 간다.

『시문학』 2호(1930.5)에 처음 발표한 후 첫 시집에 실은 「갑판 우」는 경성과 교토를 왔다갔다하며 관부연락선 갑판 위에서 바다를 보고 겪은 체험이 바탕이 되어 쓰인 시이다. “白金빛으로 빛나”는 “나지익 한 하늘”,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끓어오”르는 “물결”, “둥글둥글 굴러오는 짝바람”, “華麗한 김승처럼 짓으며 달려나”가는 배, “문득 앞을 가리는 검은 海賊같은 외딴섬”, “흩어져 날으는 갈매기떼” 등은 배를 타고 가며 목격한 풍경을 토대로 구축한 것이다. 온몸의 감각으로 바다를 느끼며 시의 주체는 “地球덩이가 동그랗타는것”을 실감하며 즐거워한다. 갑판 위에서 출렁대는 몸짓은 그대를 향한 연애 감정과 닮아 있기도 한데 밝으면 미끄러지는 “빠나나 껍질로 바다를 놀려대”는 모습으로 이를 비유한 점은 유머러스하기까지 하다.

비스방을 나리다 누워알로 구울러

한 밤중 잉크빛 바다를 건넌다.

- 정지용, 「겨울」(『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조선지광』 89호(1930.1)에 먼저 발표된 후 『정지용 시집』에 실린 시이다. 최초로 지면에 발표된 시기가 아래 인용한 「바다1」과 「바다2」보다 앞서는 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다에 대한 감각적 묘사가 어떻게 훈련되고 축적되어 「바다」 시편의 세계로 나아갔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빗방울이 내리다 우박으로 바뀌는 겨울 밤바다의 장관을 잉크빛 바다의 짙고 깊은 어둠과 차가움으로 형상화해낸 감각을 통해 정지용의 바다는 점점 주체의 감정을 숨긴 이미지로 완성되어 간다.

고래가 이제 橫斷 한뒤  
海峽이 天幕처럼 퍼덕이오.

……한물결 피여오르는 아래로 바둑돌 자꼬 자꼬 내려가고,

銀방울 날리듯 떠오르는 바다종달새……

한나잘 노려보오 흠켜잡어 고 뺨안살 빼스랴고.

\*

미억늪새 향기한 바위틈에  
진달래꽃빛 조개가 해스살 쪼이고,  
청제비 제날개에 미끄러져 도—네  
유리판 같은 하늘에.  
바다는—속속 드리 보이오.  
청대스늪 처럼 푸른  
바다  
봄

\*

꽃봉오리 줄등 켜듯한  
조그만 산으로—하고 있을까요.

솔나무 대나무  
다옥한 수풀로—하고 있을까요.

노랑 검정 알롱 달롱한  
블랑키트 두르고 쪼그린 호랑이로—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이러한風景」을 데불고  
힌 연기 같은  
바다  
멀리 멀리 航海합쇼.

- 정지용, 「바다1」(『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첫 시집의 첫 시로 수록된 인용시<sup>17</sup>는 『시문학』 2호(1930.5)에 먼저 발표되었다. 세 부분으로 나뉜 이 시는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에 이르는 부관연락선이 지나는 대한해협을 여러 차례 오간 정지용의 ‘바다’ 체험이 집대성된 시라고 볼 수 있다. 첫 부분에서는 천막처럼 퍼덕이는 해협의 출렁이는 물결을 “바둑돌 자꼬 자꼬 내려가”는 풍경과 “은방울 날리듯 떠오르는 바다 종달새”의 대비로 형상화한다. 바닷속으로 수직적으로 들어가는 방향과 바다 종달새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의 대비가 흥미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의 속을 궁금해하는 주체의 시선과 하늘과의 대비를 통해 바닷속의 이

<sup>17</sup> 주지하다시피 『정지용 시집』에는 여러 편의 「바다」라는 제목의 시가 실렸다. 시집 수록 전에 잡지에 먼저 발표된 시들도 있는데, 정지용은 첫 시집 『정지용 시집』을 출간하면서 I부에 「바다1」, 「바다2」를 수록하고 II부에 「바다1」, 「바다2」, 「바다3」, 「바다4」, 「바다5」를 수록했다. 여기서 인용한 「바다1」은 I부 첫 시로 실린 시를 가리킨다.

미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흠켜잡어 고 뺨 안살 빼스라고” “한나잘 노려보”는 시선을 통해 전해진다. 두 번째 부분에서도 “청제비 제날개에 미끄러져 도”는 “유리판 같은 하늘”과 “속속 드리 보이”는 “바다”가 대비를 이루어 “청대늪 처럼 푸른/바다/봄”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다의 다채로운 모습을 “꽃 봉오리 줄등 켜듯한/조그만 산”과 “솔나무 대나무/다옥한 수풀”과 “노랑 검정 알롱 달롱한/블랑키트 두르고 쪼그린 호랑이”로 형상화함으로써 긴 항해에서 만나는 바다가 “「이러한 風景」을 대불고/힌 연기 같은 바다”를 “멀리 멀리 航海”하는 일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멀리 멀리 항해합쇼”라는 어투에서는 바다를 겪을 만큼 겪어 본 주체의 여유로운 시선이 감지되기도 한다. 바다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던 태도에서 더 나아가 바다를 관찰하고 파악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보이지 않는 바다의 속까지 들여다보려는 달라진 주체의 시선이 흥미롭다.

地理教室專用地圖는

다시 돌아와 보는 美麗한 七月의庭園.

千島列島附近 가장 질푸른 곳은 眞實한 바다 보다 깊다.

한가운데 검푸른 點으로 뛰어들이가 얼마나 恍惚한 諧謔이냐!

椅子우에서 파이빈姿勢를 取할수있는 瞬間,

敎員室의 七月은 眞實한 바다보담 寂寞하다.

- 정지용, 「地圖」(『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독서 체험을 통해 바다를 먼저 간접 체험하고 바다에 대한 상상을 키운 시인은 “지리교실전용지도”에서도 바다를 보았을 것이다. 실제 바다를 체험하기 전에 본 지도 속 바다와 실제 바다를 질리도록 체험한 후에 보는 지도 속 바다는 분명 다른 느낌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쿠릴열도 부근 “가장 질

푸른 곳은 진실한 바다 보다 깊다”고 시의 주체는 말한다. 바다를 건너며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도 느끼며 그 위력을 체감한 시인에게 지도 속에 고요히 담긴 바다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정지용이 체험한 바다는 달리는 말처럼 역동적인 생명체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지도 속 바다는 “眞實한 바다”보다 “寂寞하다”. “倚子우에서 따 이빙자세를 취”하며 “한가운데 검푸른 점으로 뛰여”드는 상상에서 “恍惚한 諧謔”을 느끼며 비로소 정지용 시의 주체는 직접 체험한 낭만적 공간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 바다를 감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모르겠다. 정지용의 바다는 그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바다는 뿔뿔이  
달어 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 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켰다.

이 앨슨 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회동그란히 바쳐 들었다!  
地球는 蓮잎인양 움으라들고……떠고……

- 정지용, 「바다2」(『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정지용 「바다」 시편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에서 시의 주체는 모습을 숨기고 바다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데 성공한다. 파도가 칠 때 흰 포말이 일어나는 모습이나 파도가 밀려갔다 밀려오는 모습을 “뽳뽳이/달어 날랴”는 바다의 모습, “푸른 도마뱀때 같이/재재”바른 모습으로 감각적으로 그리면서도 바다를 의지를 지닌 주체로 묘사함으로써 생명력을 지닌 활달한 대상으로 바다를 인식하던 지용 시 특유의 포착을 잃지 않는다.

오래 바다를 관찰하고 바다에 대해 시를 써 온 시인의 바다에 대한 사유와 이미지의 결정체가 이 시에는 나타나 있다. 주체는 숨고 바다가 움직이며 “흰 발톱에 찢긴/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고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며 “앨슨 海圖”를 구축하는 모습을 구현해 내며 지구로 확장되는 우주적 감각을 보여준 점은 놀라운데, 바다를 오래 겪으며 바다의 속을 알고 싶어하고 탐구하고 그 활달한 움직임을 살아 있는 생명체의 것으로 포착해 내는 시선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감각이었을 것이다.



#### 4. 금강산 기행과 동해 - 「절정」과 「비로봉」의 바다

정지용의 초기 시에 나타난 ‘바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외에도 정지용에게는 구체적인 지명의 바다가 등장하는 시가 있다. 「절정」과 「비로봉」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인데 두 편 모두 ‘東海’가 등장하고 첫 시집 『정지용 시집』에 두 편 다 실렸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살펴본 시에서 바다가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라 ‘바다’, 또는 ‘해협’처럼 일반명사의 형태로 등장했다면 「절정」과 「비로봉」에는 ‘東海’라는 구체적 지명을 지시하는 바다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 두 편의 시를 중심으로 앞서의 바다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石壁에는  
朱砂가 찍혀 있오.  
이슬같은 물이 흐르오.  
나래 붉은 새가  
위태한데 앉아 따먹오오.  
山葡萄순이 지나갔오.  
香그린 꽃땀이  
高原꿈에 움치고 있오.  
巨大한 죽엄 같은 莊嚴한 이마,  
氣候鳥가 첫번 돌아오는 곳,  
上弦달이 살어지는 곳,  
쌍무지개 다리 드디는 곳,  
아래서 볼때 오리온 星座와 키가 나란하오.  
나는 이제 上上峰에 섰오.  
별만한 흰꽃이 하늘대오.

밈들레 같은 두다리 간조롱 해지오

해숫아 오르는 東海—

바람에 향하는 먼 旗폭 처럼

뺨에 나뭇기오.

- 정지용, 「絶頂」(『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학생』 2권 9호(1930.10)에 발표되었다가 『정지용 시집』에 실린 이 시에는 금강산 상상봉에 올라선 주체가 등장한다. 금강산에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정지용의 시에는 어김없이 동해가 등장한다. 지용의 시에 등장하는 바다가 다 같은 바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동해’는 장소성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시어이다. 동해가 등장하는 시들은 금강산 등반의 체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후 『백록담』에 수록된 「비로봉」, 「구성동」, 「옥류동」 등의 일련의 시편을 예비하는 시들이기도 하다.<sup>18</sup> 정지용의 초기 시에 대해서는 이미지즘, 모더니즘의 경향이 뚜렷한 시들로 선행 연구에서 읽어 오곤 했는데 그런 선입견을 견어내고 정지용의 첫 시집을 읽으면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시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구체적인 등반 체험의 흔적이 붉은 색채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朱砂 - 나래 붉은 새 - 山葡萄순<sup>19</sup> - 향그런 꽃땀 - (숫아오르는)해 - 뺨’으로 이어지는 붉은 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동해의 푸른 빛과 “별만한 헌 꽃”과 대비되며 금강산 상상봉에 오르는 주체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sup>18</sup> 『백록담』 수록시 중 「비로봉」, 「옥류동」, 「구성동」 등에는 금강산 기행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 시들은 『백록담』에 수록되기 전에 「비로봉」과 「구성동」은 『조선일보』 1937년 6월 9일자에, 「옥류동」은 『조광』 25호(1937.11)에 먼저 실렸다. 박용철과 함께 한 금강산 기행에 대해 정지용이 1937년 2월과 6월에 발표한 일련의 산문(「내금강소묘1」, 「내금강소묘2」, 「수수여2」)에서 회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이 세 편의 시 창작에도 박용철과의 금강산 기행 체험이 반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sup>19</sup> ‘山葡萄순’이 붉은색을 띠다고 볼 수는 없지만 ‘山葡萄’에서는 포도 열매의 검붉은 빛이 연상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붉은 색채 이미지의 계열에 포함해서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 그려진 금강산 상상봉의 절정에 이르는 풍경이 상상 속 풍경이 아니라 시적 주체의 체험에 의해 구성된 풍경임을 짐작케 한다.

박용철과 함께 간 정지용의 금강산 기행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1937년 2월 14일과 2월 16일에 연재된 「내금강소묘 1」과 「내금강소묘 2」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sup>20</sup> 1937년 6월 9일자에 실린 「愁誰語 2」에는 정지용이 금강산을 두 번 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해 여름 八月下旬 닥아서 金剛山에 간적이 잇섯스니 남은 高麗國에 태어나서 金剛山 한번 보고지고가 願이라고 일론 이도 잇섯거니 나는 무슨 福으로 高麗에 나서 金剛을 두 차례나 보게 되었든가.

- 「愁誰語 2」(『조선일보』, 1937.6.9.) 부분

어느 해 여름 8월 하순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은데 「내금강소묘」에는 박용철과 함께 금강산에 오른 때가 8월 중순경임이 명시되어 있어 박용철과 함께한 산행을 가리킴을 짐작할 수 있다.<sup>21</sup> 어쨌든 두 번의 금강산 기행으로 인해 “금강은 마침내 병인 양하게 나의 골수에 비치어 사라질 수 없었다”고 이 글에서 정지용은 고백한다. 정지용의 금강산 기행이 주목받은 것은 그의 「내금강소묘」라는 기행문과 「비로봉」, 「옥류동」, 「구성동」 등 금강산을 다녀와서 썼다고 그가 이 글에서 언급한 시들로 인해 서이다. 이 시들은 모두 지용의 두 번째 시집 『백록담』에 수록되었다.

<sup>20</sup> 『조선일보』(1937.2.14., 2.16)에 연재될 때는 「수수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문학독본』에 실리면서 「내금강소묘」로 제목이 바뀐다. 「수수어」라는 제목의 산문이 여러 편이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내금강소묘」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sup>21</sup> “山그림자가 갑자기 어두어지며 등에 흠식 젖은 땀이 섯뜻섯뜻하여 八月中旬 기후가 벌써 춥다싶이 하다(정지용, 「수수어」, 『조선일보』, 1937.2.16(정지용, 「내금강소묘 2」, 『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94쪽).”

그러나 그의 첫 시집 『정지용 시집』 수록시 중에도 금강산 기행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시가 두 편 눈에 띈다. 앞서 살펴본 「절정」과 다음에 살펴볼 「비로봉」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 시집 수록시 「절정」과 「비로봉」 또한 금강산을 다녀와서 쓴 시로 보고자 한다. 정지용의 시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시가 많다는 사실, 금강산과 관련된 시에서만 ‘동해’가 등장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금강산을 두 차례나 보았다고 위의 글에서 밝힌 것으로 보아 박용철과 금강산을 가기 전에 이미 금강산을 가 본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이다. 최동호는 첫 시집 수록시 「비로봉」이 발표된 시점을 고려해 1933년 이전에 정지용이 금강산에 다녀왔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22</sup> 이 글에서는 「절정」 역시 금강산을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쓰였다는 판단에 따라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 특정해 보고자 한다.

白樺수풀 양당한 속에  
季節이 쪼그리고 있다.

이곳은 肉體없는 寥寂한 饗宴場  
이마에 시며드는 香料로운 滋養!

海拔五千呎에 卷雲層우에  
그것는 성냥불!

東海는 푸른 插畫처럼 움직 않고  
누워 알이 참별처럼 움겨 간다.

<sup>22</sup> 최동호, 『그들의 문학과 생애, 정지용』, 한길사, 2008, 102쪽.

戀情은 그림자 마자 벗자

산드랑게 얼어라! 귀뜨람이 처럼.

- 정지용, 「崑廬峯」(『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전문

「비로봉」은 1933년 『가톨릭청년』 1호(1933.6)에 먼저 발표되고 이후 『정지용 시집』에 실렸다. 정지용 시에 등장하는 바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랑몽1」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시샤 대학으로 일본 유학을 가면서 체험한 바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향하는 남해와 대한해협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인용한 시 「비로봉」에는 ‘東海’가 등장한다.

비로봉은 금강산 최고봉으로 이 시는 금강산 기행을 바탕으로 쓰인 시임을 알 수 있다. 동해가 등장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지용이 본격적인 금강산 기행문을 써서 지면에 발표한 시기는 1937년부터이다. 밝혀져 있는 산행의 시기는 1936년 8월이었는데 「내금강소묘」에는 박용철과 함께 금강산행을 한 이야기, 박용철이 몸이 안 좋아 산행을 포기해 혼자 올라갔다 온 이야기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정지용의 시를 토대로 살펴보면 그는 이미 「절정」과 「비로봉」이라는 시를 써서 발표할 무렵 금강산 기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이 도시샤 대학을 졸업한 시기가 1929년 3월, 모교인 휘문고보에 영어과 교사로 취임한 시기가 1929년 9월이라는 점, 그리고 금강산 기행을 바탕으로 쓰인 시로 추정되는 「절정」이 지면에 발표된 시기가 1930년 10월이라는 점을 두루 고려할 때 정지용이 금강산 산행에 나섰을 시기는 1929년 3월에서 9월 사이의 6개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sup>23</sup>

<sup>23</sup> 물론 휘문고보 영어교사로 부임한 이후에 1930년 10월 「절정」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시기에 금강산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방학도 있었을 것이고 수학여행 기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되 좀 더 합리적 판단은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휘문고보 교사로 가기 전까지의 6개월이라는 기간 중에 금강산에 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정지용이 현해탄을 건너 6년 가까운 시간을 일본 땅에서 학업에 임하면서 느꼈을 자조적인 감정과 비애감은 그의 초기 시편에서 종종 확인되곤 했다. 그 긴 유학 시절을 마치고 식민지 조선 땅을 다시 밟은 정지용은 모교 교사로 돌아가기 전에 조선 땅에서도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금강산을 직접 밟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바다’가 지용을 비롯한 식민지 조선 청년에게 식민지 조선을 벗어나 바깥으로 향하는 도정에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 땅에서 우뚝 솟아오른 땅은 다른 의미의 상징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유학을 통해 영문학이라는 외래의 학문을 배우고 온 정지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시인이자 교육자로서의 행보를 걷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금강산행은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는 상징적 사건일 수 있었을 거라는 추정을 해 본다. 그가 금강산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까닭도 어쩌면 첫 금강산행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정지용의 초기 시에 압도적으로 등장한 바다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지용이 직접 밝힌 창작 시기로부터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한 「풍랑몽」이 직접 바다를 체험하기 이전에 쓰인 시라는 사실에 우선 주목하였다. 1923년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바다를 건너 일본 도시샤 대학으로 유학을 간 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갈 적마다 건너왔다 건너가곤 했을 ‘바다’를 실컷 체험하고 나서 쓰인 「바다」 시편은 정지용의

---

정지용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바다’ 표상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금강산 기행과 관련 있어 보이는 ‘동해’가 등장하는 두 편의 시 「절정」과 「비로봉」에서는 또 다른 바다가 포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인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바다’가 타고르의 영향을 받은 낭만적으로 채색된 바다의 모습에 가까웠다면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으로서 바다를 직접 체험한 후 그려진 ‘바다’에는 정지용이 느낀 시대 감각과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비애와 자조의 심정이 조형화되어 한층 복합적인 표상으로 ‘바다’가 형상화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금강산 기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등장한 ‘동해’에는 이전의 추상화된 바다와는 다른 구체적인 장소성이 새겨지면서 『백록담』 수록 시편 「비로봉」, 「구성동」, 「옥류동」 등을 예비하는 변화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정지용의 초기 시에 나타난 바다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정지용의 시에 대한 선입견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 초기의 정지용 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구 이미지즘의 영향을 받은 시라는 편견을 걷어내면 생각보다 정지용의 시는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바다’를 우주적 감각으로 조형화해낸 정지용의 독특한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획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바다 체험을 바탕으로 바다라는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하고자 한 시인의 오랜 시적 수련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시의 “기법은 연습 숙통에서 얻는다”<sup>24</sup>는 생각을 하면서도 “표현의 기술적인 것은 차라리 시인의 타고난 재간 혹은 평생 숙련한 완법의 부지중의 소득”<sup>25</sup>이라고 했던 시론을 정지용은 이렇게 실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sup>24</sup> 정지용, 「시의 옹호」, 『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212쪽.

<sup>25</sup> 위의 글, 208쪽.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정지용, 「풍량몽1」, 『조선지광』 69호, 1927.7.  
\_\_\_\_\_, 『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1935.  
\_\_\_\_\_, 「내금강소묘 2」, 『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_\_\_\_\_, 「시의 옹호」, 『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 2. 논문 및 단행본

- 김동희, 「정지용의 이중언어 의식과 개작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성현아, 「1920~30년대 정지용의 문학사적 의미 - 『조선지광』 · 시문학과 · 구인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송기한, 「정지용 시에서의 바다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제42집, 한중인문학회, 2014.3.  
신용목, 「정지용의 「바다 2」 분석 - 자연을 대상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5, 한국언어문학회, 2010.12.  
엄홍화, 「문학지리학으로 본 정지용 초기 바다시의 지리공간」, 『한중인문학연구』 제73집, 한중인문학회, 2021.12.  
이경수, 「말년이 허락되지 않은 시인의 말년의 양식 - 정지용과 입화의 경우」, 『픽션과논픽션』 제4집, 픽션과논픽션학회, 2022.12.  
이상오, 「정지용의 초기 시와 「바다」 시편에 나타난 자연 인식」, 『인문연구』 제4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12.  
이수정, 「정지용의 「바다2」, 혼돈에서 질서로」, 『우리어문연구』 제75집, 우리어문학회, 2023.1.  
이종옥,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 『한국문학논총』 제59집, 한국문학회, 2011.12.  
정우택, 「현해탄의 청춘공화국 - 『정지용 시집』(1935)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0.12.  
최동호, 「정지용의 타고르 시집 『기탄자리』 번역 시편 - 1923년 1월 발간된 『휘문』 창간호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9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12.  
\_\_\_\_\_, 『그들의 문학과 생애, 정지용』, 한길사, 2008, 102쪽.  
하재연, 「일본 유학 시기 정지용 시의 특성과 창작의 방향」, 『비교한국학』 제15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6.  
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부 일본인」, 최영호 · 박진우 · 류교열 · 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



### 3. 기타

전성현, 「[그림 · 사진으로 읽는 역사] 24. 일제강점기 해상철도 ‘관부연락선」, 『부산일보』, 2015.6.17.

「마포 전차 종점과 돈암동 전차 종점 -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 <https://kiback.tistory.com/999>.

## Jeong Ji-Yong's "Sea" between His *Pungrangmong* and *The Sea*

Lee, Kyungsoo | Chung-Ang University

Focusing on the fact that Jeong Ji-yong wrote *Pungrangmong 1*, for which he personally revealed the time of creation in March, 1922, before he had first-hand experiences with the sea, this study divided and examined the sea whose overwhelming appearance is found in his early poems into a couple of types. After graduating from Huimungobo in 1923, he went to Japan by crossing the sea on a cross-channel liner between Busan and Shimonoseki in April of the same year for further study at Doshisha University in Japan. He studied in Japan for six years during which he experienced the "sea" to his heart's content every time when he visited his hometown across the sea. His *The Sea* works were written after these ample experiences and show the essence of his "sea" representations. In his *Peak* and *Birobong*, which present the "East Sea" seemingly related to his travel to Mt. Geumgang, the poet captured a different sea.

The "sea" depicted in his imagination was close to the aspects of a sea painted in romantic colors under the influence of Tagore. The "sea" depicted after his first-hand experiences with the sea as a young poet of colonized Joseon was embodied in much more complicated representations with the formation of the sense of the times that he felt and the sorrow and self-deprecation that he felt as an intellectual of colonized Joseon. He inscribed specific placeness different from his old abstracted seas in the "East Sea," which appeared in his works based on his experiences during a trip to Mt. Geumgang, showing changes to prepare for the poems included in the collection '*Baekrokdam*'.

The study examined the sea in his early poems in these three types and raises a possibility of revising some of the prejudices of his poetry. Once the old prejudice is removed that his early poems were under the influence of Western imagism, it becomes apparent that his poems are based on his specific experiences more than expected. His unique sense of shaping

the “sea” with his cosmic sense was not acquired suddenly one day, but it was the outcome of his long poetic training to observe and figure out the sea as an object based on his many experiences with the sea.

**Key Words :** Jeong Ji-yong, *Pungrangmong 1*, *The Sea*, Cross-channel liner between Busan and Shimonoseki, Trip to Mt. Geumgang, East Sea, Sorrow, Experience

논문접수일: 2023.03.15 심사기간: 2023.03.29~04.10 게재확정일: 2023.04.12.



## 국제비교한국학회

### 연혁

- 1991.12.29 국제한국학및비교학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Etudes Coréennes et Comparées) 창립총회 및 학술토론회 (독일 베를린: 참가자 6명)  
홀머 브로홀로스(독일 본대학교 교수)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김문학(일본 경도대학교 학위과정 이수중)  
송영인(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헤이워드 캠퍼스 교수)  
고송무(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교수)  
김필영(파리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 1992.05 프랑스 법에 따라 학회 등록 및 로고 창안 (법인 대표: 김필영)
- 1992.10.22-26 제2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과학아카데미)  
공동개최: 카자흐스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약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구소련 붕괴 후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한국학 학술대회
1993. 07.12-16 제3회 국제학술대회 (벨기에 루뱅 카톨릭대학교)
- 1994 국제비교한국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 IACKS)로 학회 명칭 변경
1995. 07.24-26 제4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크질오다 사범대학)  
크질오다 사범대학 당국으로부터 “쌀알 위에 그려진 홍범도 장군의 영정”을 기증받아 귀국 후 독립기념관에 회사함
- 1995.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권 발간
- 1996.0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권 발간
- 1996.10.04-05 제5회 국내학술대회 (부경대학교)
- 1997.07.29 제6회 국제학술대회 (몽고 울란바토르대학교)
- 1997.0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권 발간
- 1998.10.24 제7회 국내학술대회 (경기대학교)
- 1998.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4권 발간

- 1999.07.26 제8회 국제학술대회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과 과제”
- 1999.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5권 발간
- 2000.06.09 제9회 국내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1세기 한국학의 전망과 과제”
- 2000.0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6권 발간
- 200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7권 발간
- 2001.0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8권 발간
- 2001.07.03 제10회 국제학술대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후원 : 한국번역금고, 한국교류재단, 뉴욕 버팔로대학교 아시아연구전공
- 2001.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 200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9권 발간
- 2002.06.07 제11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Korean Studies at the Crossroads”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2.06.29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1호 발간
- 200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2호 발간
- 2003.05.23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후원 : 대산문화재단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UC Berkeley, Korean Studies Center와 공동 기획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각각 따로 개최하고 단행본은 공동 발간함
- 2003.0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1호 발간
- 200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2호 발간
- 2004.0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1호 발간
- 2004.11.30 단행본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발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12.10~11 제13회 국제학술대회 (UC/Berkeley, USA)
- 200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2호 발간
- 2005.0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1호 발간
- 2005.09.23 제14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 2005.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2호 발간
- 2006.0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1호 발간

- 2006.11.22-23 제15회 국제학술대회 (Tottori University, Japan)  
 “Cultural Exchange and Hallyu in Northeast Asia”  
 후원: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 2006.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2호 발간
- 2006.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 2007.0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1호 발간
- 2007.08.24-25 제16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현대문학”  
 공동주최: 한국현대문학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7.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2호 발간
- 2008.0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1호 발간
- 2008.07.01-02 제17회 국제학술대회 (Burapha University, Thailand)  
 “Korean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 2008.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2호 발간
- 2009.0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1호 발간
- 2009.0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2호 발간
- 2009.10.30-31 제18회 학회 및 연구소 연합학술대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와 디아스포라”  
 공동주최: 한국비평문학회, 현대문학이론학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후원: 동국대학교 BK21 인재양성사업단
- 2009.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3호 발간
- 2010.0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1호 발간
- 2010.05.08 제19회 국내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이상과 모더니즘” (이상 탄생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 2010.08.19 제19차 국제비교문학대회 (ICLA)에 패널 구성 참가
- 2010.0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2호 발간
- 2010.10.15-17 제20회 국내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1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3호 발간
- 2011.04.21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USA)  
 “Colonial Modernity and Cultural Politics in 1930s Korea/East Asia”  
 공동주최: Korean Studies Institute, USC, LA, USA, 후원: 대산문화재단,

USC East Asian Studies Center, USC Korean Studies Center, USC Korean Heritage Library, NEAC(North East Asian Council) in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2011.0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1호 발간
- 2011.06.11 창립 20주년 기념 제22회 국내학술대회 (서강대학교) “고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2011.0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2호 발간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 201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발간
- 2012.0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1호 발간
- 2012.06.15~16 제23회 국내학술대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공동주최: 문화관광부
- 2012.0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2호 발간
- 2012.10.13 제24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근현대 한국문화와 미국”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201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3호 발간
- 2013.04.23 제25회 국제학술대회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Politics of Korean Literature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후원: 한국문학번역원
- 2013.0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1호 발간
- 2013.06.15 제26회 국내학술대회(서강대학교)  
“미국한국학에 관한 질문과 모색: 문학, 영화, 번역의 문제”  
후원: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2013.0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발간
- 201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3호 발간
- 2014.0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1호 발간
- 2014.06.21 제27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후원: 한국연구재단
- 2014.0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2호 발간
- 2014.09.19~20 제28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도시샤 대학교)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과 담론의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도시사대학교 코리아센터  
후원: 대산문화재단

- 201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3호 발간
- 2015.03.28 제29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비교문학의 현황과 과제”
- 2015.0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1호 발간
- 2015.07.04 제30회 국내학술대회 (연세대학교)  
“문학·문화 연구의 탈경제적 지평과 재구성”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2015.0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2호 발간
- 2015.12.12 제31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
- 2015.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3호 발간
- 2016.0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1호 발간
- 2016.07.02 제32회 국내학술대회 (상명대학교)  
“한국과 외국의 상호 문화수용과 쟁점”
- 2016.0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2호 발간
- 2016.10.29 제33회 국내학술대회 (인하대학교)  
“인문주의와 인문교육의 현황 및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 2016.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3호 발간
- 2017.0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1호 발간
- 2017.07.08 제34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의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 2017.08.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2호 발간
- 2017.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3호 발간
- 2018.02.03 제35회 국제학술대회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윤동주 문학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 2018.0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1호 발간
- 2018.07.07 제36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문학의 정치사회학의 국제적 변화 양상 - 문학연구와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며”
- 2018.07.13-20 제37회 국제학술대회,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Poland)  
“The 1st International Asian Congress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동주최: Adam Mickiewicz University, King Sejong Institute, Poznan

- 2018.0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2호 발간
- 2018.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3호 발간
- 2019.04.20 제38회 국제학술대회(중국 산둥대학교)  
“한중 근대화 및 근대화 담론”  
(공동주최: 중국 산둥대학교 동북아대학(한국학원))
- 2019.0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1호 발간
- 2019.0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2호 발간
- 2019.10.26 제 39회 국내학술대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사옥)  
“한국에서의 외국문학연구, 그 역사와 전망”
- 2019.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3호 발간
- 2019.0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1호 발간
- 2020.08.12 제 40회 국내학술대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 - 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
- 2020.0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2호 발간
- 2020.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3호 발간
- 2021.02.06 제 41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포스트 팬데믹 시대 페미니즘/젠더의 향방”
- 2021.0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1호 발간
- 2021.08.21 제 42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횡단하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 2021.0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2호 발간
- 2021.12.04 제 43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 2021.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3호 발간
- 2022.0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0권 1호 발간
- 2022.06.18 제44회 국내학술대회(온라인 학술대회)  
“팬데믹 시대, 생명과 죽음”
- 2022.0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0권 2호 발간
- 2022.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0권 3호 발간
- 2023.01.14 제45회 국내학술대회(온라인 학술대회)  
“사건으로서의 전쟁과 그 의미”
- 2023.0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1권 1호 발간

##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명단

제1대 1991-1992	고송무 1947-1993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수
제2대 1992-1993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현재 몽고 올란토르대학교 한국학 교수
제3대 1993-1995	이여복 1936-2003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역사학 교수
제4대 1995-1997	김남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 교수
제5대 1997-1999	현종민	Georgetow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제6대 1999-2001	김보희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7대 2001-2003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8대 2003-2005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대 2005-2007	최동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0대 2007-2009	손종호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1대 2009-2011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제12대 2011-2013	김승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3대 2013-2015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4대 2015-2017	이철의	상명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제15대 2017-2020	홍정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6대 2020-2022	우찬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7대 2022-현재	오형엽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행부가 있는 국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제적 협조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비교학적 측면에서 한국학의 독자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뉴스레터의 발간
2. 연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3.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4.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5. 기 타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세계 각처에서 한국학 및 비교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기 관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히 총무이사  
와 함께 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제13조(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6. 출판이사는 학회지 배포 및 도서관 연계사업을 담당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제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  
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  
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회 의

제16조(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7조(총회)

1. 정기총회는 격년으로(회장 임기만료 1년전)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를  
미리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변경
3. 예·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사항

## 제5장 재 정

제21조(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 및 후원비
  - (3) 기타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3.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은 개정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정관은 2015년 12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4. 개정된 정관은 2021년 12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은 다른 출판물(단행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한국학의 제분야 및 이와 관련된 비교학적, 학제적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게재는 회원당 연 1회로 제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마감은 학회지 발행 2개월 전인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4. 논문 투고는 학회 JAMS 홈페이지(<http://iacks.jams.or.kr>)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국제비교한국학회 논문 투고 신청서를 학회 메일함(newiacks@empas.com)으로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 신청서 내에 포함된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윤리서약

- ① 투고자(들)는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제2조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숙지하였습니다.
- ② 투고자(들)는 ‘위조’, ‘변조’, ‘표절’, ‘자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자료의 중복 사용’, ‘이해상충 행위’ 등에 대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③ 투고자(들)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의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 논문의 유사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본 논문을 수정·보완했음을 확인합니다.
- ④ 투고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나.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

- ① 투고자(들)는 본 논문이 <비교한국학>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국제비교한국학회에 이양한다. 단, 투고자(들)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 하겠습니까.
  - ② 투고자(들)는 본 논문의 주저자에게 저작권 이양에 대한 대표 권한을 일임하며, 동 권한을 위임받아 주저자가 저자(들)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을 확인합니다.
6.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당해년도 연회비와 편당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원(평생회비: 300,000원)의 경우, 입회비, 연회비가 면제되며 심사료가 50% 감면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조판 25면 이내의 경우 게재료 (비전임) 100,000원/ (전임) 150,000원을 납부한다. 교내 · 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게재료 300,000원을 납부한다. 조판 25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7.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영어 논문의 경우 6,000~8,000 단어 내외로 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의 경우, 이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하되, 한글이나 영어 번역문(번역자는 투고자가 아니어도 됨)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 논문 작성

8. 투고 논문의 체제는 ①논문제목, ②성명과 소속, 직위, ③한국어초록과 주제어, ④본문, ⑤참고문헌, ⑥서양어초록(서양어 제목과 저자명, 소속기관명 포함)과 주제어의 순서에 따 르며 주제어(Key-Words)는 5개 이상으로 표기한다. 서양어 논문의 경우, 서양어초록을 앞 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도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 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9. 한글 초록의 분량은 공백 포함 200자 원고지 4매 내외로 하며 서양어 초록의 분량은 200단 어 내외로 한다.
10. 투고 논문의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11. 연구비 수혜사실은 투고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첨가한다.
12. 원고 작성 시 한글(HWP) 2002, MS Word 2003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한다.
13. 외국어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4. 한국어 논문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되,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관행 을 따른다. (자세한 논문 작성의 예는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① 본문의 제목 번호는 1 - (1) - ① - ㉠의 순서로 붙인다.
  - ② 외국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한글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 ③ 논문, 작품은 「」로, 저서, 학술지, 잡지, 신문은 『』로, 인용문은 “ ”로, 강조할 때는 ‘ ’로 표시한다.
- ④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항목들에 맞추어 작성한다.
- ㉠ 저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 순으로 표시하며, 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 앞의 주석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쓰되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op. cit., p.(pp.)’를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주석이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위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서양서의 경우 ‘Ibid., p.(pp.)’의 형식으로 쓴다.
- ⑤ 참고문헌은 한, 일, 중,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며, 인용면을 밝힌다.
15.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특성상 특정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주 및 참고문헌의 형식에 따라야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된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 투고 신청서

게재 희망	『비교한국학』 권 호	
투고자 정보	성명	한글:      영문:
	소속 및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 주소	우편번호: 주소:
논문 정보	제목(한글)	
	제목 (영문 혹은 기타 서양어)	
	연구비 지원 여부	( ○ / X )
<p style="text-align: center;"><b>연구윤리서약</b></p> <p>1. 투고자(들)는 &lt;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윤리규정&gt; 제1장 제2조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숙지하였습니다.</p> <p>2. 투고자(들)는 ‘위조’, ‘변조’, ‘표절’, ‘자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자료의 중복 사용’ 등에 대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p>		

3. 투고자(들)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의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 논문의 유사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본 논문을 수정·보완했음을 확인합니다.
4. 투고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

1. 투고자(들)는 본 논문이 『비교한국학』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국제비교한국학회에 이양합니다. 단, 투고자(들)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
2. 투고자(들)는 본 논문의 주저자에게 저작권 이양에 대한 대표 권한을 일임하며, 동 권한을 위임받아 주저자가 저자(들)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을 확인합니다.

##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및 활동계획 및 운영)에 의하여,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간하는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를 비롯한 학술 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2.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 제 3 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상임편집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1인, 편집위원 15인 내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 4 조(회의소집 및 의결)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연장자 위원,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분기마다(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6.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 제 5 조(위촉 및 임기)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상임이사와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상임이사,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6 조(편집 및 심사)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논문지는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라 발간하되,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2.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상임편집이사,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에 게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장 또는 상임편집이사의 제안으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 또는 학회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7.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기타 상세한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은 별도의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으로 규정한다.

#### 제 7 조(게재 논문의 공개)

1. 본 학회 본문지는 도서 또는 전자책, 둘 중 하나 이상의 형태로 발간한다.
2.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본 학회와 계약된 사이트 등에서 학회 회원들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 8 조 (저작권)

1.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2. 특별한 경우 게재자와의 협약에 따라 논문이나 인용된 사진(게재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저작권을 학회와 공유할 수도 있다.

### **제 9 조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관례 따른다.

### **부칙**

1. 본 위원회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21일부로 제정한다.

##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 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 제2조 심사 대상

-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 제4조 심사

- 1)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이를 종합하여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사, 계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계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계재 여부 결정 및 조정

- 1) 심사위원 전원이 ‘계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계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계재 가’로, 1인 이상이 ‘수정 후 계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계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 8)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데, 이 때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한다.

## 제6조 이의 신청

- 1)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 제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에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한 교정 처리를 하는데,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 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 간이나 기타 전공 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 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부칙**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점수	10	8	6	4	2	비고
항목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본학회지에게재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유(0)		무(10)			
총점						

논문 제목				
심사 요지				
평가	게재 가능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p>심사구분: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게재(79~60점), 수정후재심(59~50점), 게재 불가(50점미만) * 심사항목별 점수의 총점을 각 최종판정의 해당 범위와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p>			

20   년   월   일

소속 \_\_\_\_\_ 직급 \_\_\_\_\_ 심사위원 \_\_\_\_\_ ①

입금은행 (            은행 ) 계좌번호 (                                  )

##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 윤리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의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이해상충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필자는 이해상충에 대해 논문 투고 시점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해

상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8. 필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고 특수관계인이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9.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언·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10.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3조(소속 및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
- ④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와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 이해상충 또는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장 기 타

###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

**회장** 오형엽(고려대/한국문학)

**부회장** 박호환(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학), 김양선(한림대/한국문학), 류보선(군산대/한국문학), 민은경(서울대/영문학), 신수정(영지대/한국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심진경(서강대/한국문학), 양진오(대구대/한국문학), 우림걸(산동대/한국문학), 유성호(한양대/한국문학), 윤상인(서울대/일문학), 이옥연(서강대/중국문화), 조병준(인하대/불문학), 조성원(서울여대/영문학), Carolina Mera(Univ. of Buenos Aires/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English Literature)

**상임총무이사** 도윤정(인하대/불문학)

**상임재무이사** 남승원(서울여대/한국문학)

**편집위원장**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상임편집이사** 남승원(서울여대/한국문학)

**편집이사** 강용훈(인천대/한국문학),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예란(광운대/신문방송학), 김용희(평택대/한국문학), 김태경(경희대/일문학), 김혜경(Universite Aix-Marseille/한국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서여명(남경대/중국어학), 손유경(서울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성천(경희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연세대/영화학),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GeorgeMasonUniv.Korea/영문학), 최영진(중앙대/영문학), 최현식(인하대/한국문학), SoraPark(Univ of Canberra/Communication)

**상임연구이사** 최진석(서울대/노문학)

**연구이사** 권혁률(길림대/한국문학), 김서영(광운대/철학), 김석(건국대/철학), 김예림(연세대/한국문학), 노대원(제주대/한국문학), 문혜원(아주대/한국문학), 박동호(경희대/한국어학), 박수연(충남대/한국문학), 양동국(상명대/비교문학), 엄성원(차의과대학/한국문학), 이윤종(서강대/영화학), 이재원(나사렛대/한국문학), 이형권(충남대/한국문학), 장철환(연세대/한국문학), 정끝별(이화여대/한국문학),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강석(연세대/한국문학), 최창복(남경대/한국문학), 여태천(동덕여대/한국문학)

**상임기획이사** 송승환(중앙대/한국문학)

**섭외이사** 서여명(남경대/중국어학)

**편집위원** 강용훈(인천대/한국문학),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남혁(국민대/한국문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태경(경희대/일문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박상수(명지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장은영(조선대/한국문학), 정승훈(연세대/영화학),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만수(충북대/불문학, 연국), 진주영(GeorgeMason Univ.Korea/영문학), 최진석(서울대/노문학), 최현식(인하대/한국문학)

**윤리위원장**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윤리위원** 박호환(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심진경(서강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우한제(서강대/한국문학), 이철의(상명대/불문학), 정명교(연세대/한국문학)

**감사** 김종태(호서대/미디어학), 권성훈(경기대/한국문학)

**총무간사** 이명원(고려대/한국문학)

**편집간사** 심다혜(고려대/한국문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SN 1226-2250

---

**발행일** 2023년 4월 30일

**발행인** 오형엽

**발행처** 국제비교한국학회

**편집인** 이재복

---

우)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관 오형엽 교수 연구실(안암동5가)

**Tel** 02) 3290-1962

**E-mail** mw9152@naver.com 이명원(총무간사)

**학회계좌** (우리은행) 1002-763-527434

**예금주** 남승원(국제비교한국학회)

**제작처** 한국학술정보(주) Tel. 031-940-1007

---

값 18,000원

\* 이 도서의 판권 및 저작권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소유이므로 무단전재나 복사를 금합니다.